



흥보가 바디별 전집 3

박초월 바디 · 강도근 바디

Bak Cho-weol Version Heungboga
(Sung by Jo Tong-dal)
Gang Do-geun Version Heungboga
(Sung by Jeon In-sam)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북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호모가 바버벌 전집 3

2009년 11월 25일 인쇄

2009년 12월 1일 펴냄

지은이 || 채록·교주: 최동현, 번역: 박승배

감수: 최동현, Philip Owen

발행 || 문화체육관광부·전라북도·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 (02) 3704-9119

전라북도: (560-76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 (063) 280-2114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561-807)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산1-1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장 1층

☎ (063) 232-8398

인쇄처 || 신아출판사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51-30

Tel. 063-275-4000

ISBN 978-89-5925-624-2 04810

978-89-5925-621-1 (전4권)



홍보가

바디벌 전자기

■ 책 머리에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판소리의 세계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판소리 영어 사설 자막 제작 사업’의 세 번째 결과물이다. 2007년에는 〈춘향가〉, 2008년에는 〈심청가〉를 번역하여 자막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바 있다. 올해는 〈홍보가〉 여섯 바탕을 자막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그 부산물로 한영대역 《홍보가 바디별 전집》(1-4)을 내게 된 것이다.

이 성과물은 총 네 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김연수 바디 오정숙 창 홍보가〉, 2권은 〈박록주 바디 박송희 창 홍보가〉와 〈박초월 바디 김수연 창 홍보가〉, 3권은 〈박초월 바디 조통달 창 홍보가〉와 〈강도근 바디 전인삼 창 홍보가〉, 4권은 〈박봉술 바디 송순섭 창 홍보가〉이다. 이만하면 현재 전승되고 있는 〈홍보가〉 바디를 망라하고, 같은 바디인데도 창자에 따라 다른 것까지 포괄하여 자막으로 사용할 때 불편이 없을 것이다.

이 사업은 지극히 실용적인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보는 사람들의 입장까지 꼭 그런 것은 아니어서, 판소리 사설의 예술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난을 듣기 십상이다. 그래도 잘못된 번역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변명할 뿐이다. 나중에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보다 좋은 번역을 해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올해에는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등 다섯 종목이 유네스코에 의해 한꺼번에 ‘인류 구전 무형 유산’으로 선언되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기는 하지만, 선정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인류 구전 무형 유산’ 선정 때는 자부심을 느끼다가도 조금 지나면 관심을 갖지 않는 우리들의 태도부터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키고 가꾸는 데도 힘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업은 참으로 귀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 궁지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김명곤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예쁜 디자인을 맡아주신 여태명문자조형연구소의 여태명 선생과 직원 여러분, 출판을 맡아 책으로 꾸며주신 신아출판사 서정일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이러한 분들의 귀한 관심과 애정이 판소리의 세계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

2009년 깊어가는 가을
최동현 · 박승배 씀

차 례

■ 책머리에 • 4

* 박초월 바디 홍보가(조통달 창)

1. 놀보 심술	12
2. 놀보가 홍보를 쫓아냄	14
3. 홍보 아내 탄식	18
4. 돈타령	20
5. 홍보 아내 만류	24
6. 병영 길	26
7. 홍보 헛걸음	28
8. 홍보 아내 좋아함	32
9. 홍보가 놀보집을 건너감	34
10. 홍보 애원	36
11. 놀보 매질	38
12. 홍보 탄식	42
13. 홍보 아내 탄식	42
14. 중타령	46
15. 도승이 집터를 잡아줌	48
16. 제비가 찾아옴	52
17. 제비 강남으로 날아감	54
18. 제비 점고	56

19. 제비 노정기	56
20. 자장가	66
21. 가난타령	68
22. 첫째 박	70
23. 쌀과 돈이 많이 나옴	72
24. 홍보 식구들 밥먹기	76
25. 밥 먹고 즐거워함	82
26. 홍보 내외 좋아함	84
27. 둘째 박	86
28. 비단 타령	88
29. 홍보 내외 옷차림	90
29-1. 셋째 박	92
29-2. 홍보 집 짓기	94
30. 놀보가 홍보 집을 찾아옴	96
31. 홍보 아내 문안	100
31-1. 음식상 차림	104
32. 홍보 아내 포악	106
33. 화초장 타령	108
34. 놀보 제비 몰러 나감	116
35. 후일담	118

*** 강도근 바디 심청가(전인삼 창)**

1. 놀보 심술	152
2. 놀보가 홍보를 쫓아냄	156
3. 홍보 아내 탄식	160

4. 홍보 차림새	164
5. 돈타령	168
6. 홍보 아내 만류	174
7. 병영 길	178
8. 홍보 헛걸음	180
9. 홍보 아내 좋아함	184
10. 홍보가 놀보집을 건너감	186
11. 홍보 애원	190
12. 놀보 매질	194
13. 홍보 탄식	200
14. 홍보 아내 탄식	202
15. 중타령	206
16. 도승이 집터를 잡아줌	208
17. 집터 글자	210
18. 홍보 제비 구원	212
19. 제비 점고	214
20. 제비 노정기	216
21. 가난타령	224
22. 홍보 마누라를 달램	228
23. 첫째 박	230
24. 쌀과 돈이 많이 나옴	232
25. 돈타령	238
26. 홍보 밥먹는 모습	240
27. 둘째 박	246
28. 비단 타령	250

29. 홍보 부부 옷차림	252
30. 셋째 박	256
31. 홍보 집 짓기	256
32. 놀보가 홍보 집을 찾아옴	260
33. 음식상 차림	264
34. 홍보 마누라 포악	268
35. 화초장 타령	270
36. 놀보 재미 몰러 나감	280

A Brief Introduction to Pansori

- *Pansori* is performed by one singer and one drummer. The drummer maintains the rhythm (*jangdan*) with the use of the drum while the singer performs a long narrative poem by singing, narrating, and acting.
- In *Pansori*, songs and narrations alternate constantly. When the singer sings or speaks, he or she may open or close the fan, or act out the actions of characters of the work. In this literature *Aniri* is the narration mode. *Jinyangjo*, *Jungmori*, *Jungjungmori*, *Jajinmori*, *Hwimori*, *Eonmori*, *Eotjungmori* are singing modes of different rhythms.

Jinyangjo : One measure consists of six slow beats, and 24 beats in 4 measures make up one rhythm cycle. It is expressed in 18/8 time.

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beats of moderate speed, and it is expressed in 12/4 or 12/8 time.

Jung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Jajin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Hwi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very quick beat, and it is expressed in 4/4 time.

Eonmori : Alternating measures consist of 2 and 3 beats, and the complete cycle consists of 10 very quick beats. It is expressed in 10/8 time.

Eot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6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6/4 time.

조통달 창

Sung by Jo Tong-dal

1. (놀보 심술)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는 지역에 놀보와
홍보 형제가 살았는데, 형 놀보는 심술이 사납기로 유명
하였다.

[아니레] 옛날에 운봉 함양 두 얼품¹⁾에 홍부 놀부 두 형제가 살았는데,
놀보는 형이요, 홍보는 아우였다.

사람마다 오장²⁾이 다 육부인디,³⁾ 아, 이 놀보만은 오장이 칠보든 것
이었다.⁴⁾

어찌하여 그러는고 하면,

심술보⁵⁾ 하나가 왼쪽 갈비 밑에 장기 궁짜⁶⁾만하게 딱 늘어붙어⁷⁾ 가
지고,

밥만 처먹으면 날이면 날마다 심술 공부를 허는디, 꼭 이렇게 허든
것이였다.

[자진모리] 대장군방⁸⁾ 벌목⁹⁾하고,

삼살방에다¹⁰⁾ 이사 권코¹¹⁾,

오구방¹²⁾에다 집을 짓고,

길 가는 과객¹³⁾ 양반 재울 듯기¹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쫓고,
거사¹⁵⁾ 보면은 소고¹⁶⁾ 도적,¹⁷⁾

양반 보면은 관¹⁸⁾을 찢고,

의원 보면은 침 도적질.

초상난 데 춤을 추고,

불난 데 부채질 살살.

고추밭에 말 달리고,

비단전¹⁹⁾에다 물총 놓고,²⁰⁾

물 이고 가는 여자 귀 잡고 입 맞추고,

1. (Nolbo's Perverseness) Two brothers, Nolbo and Heungbo, lived near the border between Gyeongsang Province and Jeolla Province. The elder brother, Nolbo, was notorious for his perverseness.

[Aniri] Once upon a time, two brothers, Heungbo and Nolbo, lived in a region where Unbong and Hamyang come in contact with each other.

The elder brother is Nolbo, and the younger brother is Heungbo.

Unlike other human beings, Nolbo has an extra internal organ. Let me speak about the extra organ.

A perversity bag of two inches is located under his left ribs. It generates perverse acts everyday and incessantly as follows: [Jajinmori] Nolbo tells others to cut down trees to bring bad luck to them.

He tells people to build houses in unlucky sites.

He encourages people to move to unlucky sites.

He detains travelers as if he will provide a place to sleep, but kicks them out after the sun sets.

He steals small drums from traveling entertainers.

He tears off the hats of high class people.

He steals acupuncture needles from doctors.

He dances when a person has died.

He fans burning houses.

He runs horses in pepper fields.

He sprays water in silk stores.

When a woman carries a water pot on her head, he holds her ears and kisses her.

다 큰 큰애기 겁탈²¹⁾하고,
 수절 과부²²⁾ 모함잡고,²³⁾
 길 가에 허방놓고,²⁴⁾
 봉사 입에다 뚱칠하고,
 애 뺨 여자는 배를 콧 차고,
 뚱누는 놈 주삿히고,²⁵⁾
 배 앓는 놈 살구 주고,
 곱사둥이는 뒤집어놓고,
 우는 애기는 더 때리고,
 소리하는데 잔소리,
 풍류²⁶⁾허는데 나발 불고.
 이놈이 이리 심술이 많을진대,²⁷⁾
 삼강²⁸⁾을 아느냐? 오륜²⁹⁾을 아느냐?
 이 난장³⁰⁾을 맞을 놈이.

2. (놀보가 흥보를 쫓아냄) 하루는 놀보가 공연한 트집을 잡아 흥보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니, 흥보 내외가 아이들 을 데리고 울면서 떠나간다.

[아니리] 삼강도 모르고, 오륜도 모를진대,
 형제 윤기인들³¹⁾ 알 리가 있겠는가?
 하루는 놀보가 심술이 나서 제 동생과 그 권속³²⁾들을 내쫓을 양으로
 강호령³³⁾이 나오겠다.
 “네 이놈, 흥보, 너 이놈!
 너는 나이가 사십이 넘은 놈이 밥만 처먹으면 구렁이 돌 듯³⁴⁾ 슬슬 돌고,

He rapes virgins.
He puts false charges on faithful widows.
He digs holes in streets.
He pastes dung in blind men's mouths.
He kicks pregnant women's bellies.
He presses down men relieving themselves.
He gives apricots to people suffering stomach aches.
He turns a hunchback over.
He hits crying babies.
He makes noises when singers sing.
He blows trumpets when people recite poems.
He is perverse as described above.
He doesn't know the basic ethical rules.
He is a person to be hit all over his body.

2. (Nolbo Kicks Heungbo Out.) One day, Nolbo makes a false charge against Heungbo and tells him to get out of his house. Heungbo, his wife, and his children get out while crying.

[Aniri] Nolbo doesn't know the basic ethical rules.
How can he know the moral rules related to brothers?
One day, his perversity kicking in, he yells at Heungbo and his family with the intention to kick them out.
"Heungbo! You villain!
You are over forty, but just you eat and hang around without doing anything.

주막에 나가 외상술이나 먹고,
 골패³⁵⁾나 하고 노는 꼴 보기 싫어 못 보겠다.
 그러니 오늘은 너희 처자식³⁶⁾들을 앞세우고 당장 내 집을 떠나거라.”
 흥보 깜짝 놀래, “아이고, 형님. 별안간에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무슨 말씀이고 무엇이고, 당장 나가라면 나가지, 무슨 잔말이 이리
 심하냐?
 만일 주저하다가는 살육지환³⁷⁾이 날 것이니, 당장 내 집을 떠나, 이
 놈아!”
 [중모레] 흥보 듣고 하릴없어³⁸⁾ 안으로 들어가며,
 “여보 마누라, 들으시오. 형님이 나가라 하니, 어느 영³⁹⁾이라 어기오
 며, 어느 말씀이라고 안 가리까?
 자식들을 챙겨 보오.
 큰자식아, 어디 갔나?
 둘째놈아, 이리 오너라.
 형님, 갑니다. 부디 안녕히 계옵시오.”
 “잘 가거라.”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를 어찌잔 말이나?
 서산에 해는 떨어지고,
 월출동령⁴⁰⁾에 달이 솟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네 것 내 것⁴¹⁾ 다툼 없이 평생에 호의호
 식,⁴²⁾ 먹고, 입고, 쓰고, 남아 세상 분별⁴³⁾을 몰랐더니,
 흥보놈의 신세가 일조에⁴⁴⁾ 이 지경이 될 줄을 귀신인들 알겠느냐?
 어느 곳으로 갈꼬? 갈 곳이 막연허구나.
 아서라,⁴⁵⁾ 산중⁴⁶⁾으로 가자.
 산중에 가 사자헌들⁴⁷⁾ 백물⁴⁸⁾이 귀하여 살 수 없고,
 아서라, 도방⁴⁹⁾으로 가자.

You drink at a bar on credit,
I hate to see you gamble without working.
Get out of this house with your wife and children right away.”
Heungbo is surprised. “Brother, what are you talking about out
of blue?”

“Don’t argue with me. I told you to get out of this house. Just
do it.

If you hesitate, you shall die. Leave my house right away. You
bastard!”

[Jungmori] Heungbo cannot but go to his room.

“Honey, listen. My brother tells us to get out of this house. We
cannot disobey his order. We have no choice but to leave.
Bring the children.

Where is the first one?

The second one, come here.

Brother, we are leaving. Take care.”

“Goodbye.”

“Alas! Woe is me. What should I do now?

The sun sets in the west mountain.

The moon rises over the pass of the mountain in the east.

When my parents were alive, we shared all the things. We were
well-clothed and well-fed. I didn’t know cold reality.

But my fate collapsed in a day. Even a god couldn’t imagine
what would happen to me.

Where should I go? I have no place to go to.

OK, let’s go to a mountain.

But we can’t live on a mountain because daily necessities are
precious there.

OK, let’s go to a crowded place.

일 원산,⁵⁰⁾ 이 강경이,⁵¹⁾ 삼 포주,⁵²⁾ 사 법성이,⁵³⁾ 도방에 가 사자헌
들 비린내 짓궂어⁵⁴⁾ 살 수가 없으니,
어느 곳으로 가면 산단 말이냐?”

3. (홍보 아내 탄식) 홍보네가 고생하며 사는데, 큰아들이 장가를 보내달라고 조르자, 홍보 아내가 형세를 생각하 며 탄식한다.

[아니리] 홍보 권속들은 성현동 복덕촌⁵⁵⁾이란 곳을 당도하여, 빈 집
한 칸 의지하고 근근히⁵⁶⁾ 지낼 적에,
철⁵⁷⁾ 모르는 자식들은 부모를 조르는데,
한 놈이 나왔으며, “어머니, 나는 육개장국⁵⁸⁾에 쌀밥 한 그릇만 말아
주요.”

또 한 놈이 나왔으며, “어머니, 나는 호박떡 한 시루만 해주세요.
호박떡은 더워도 달고, 식어도 달고, 참 맛이 좋지.”

홍보 큰아들이 나왔으며⁵⁹⁾, “어머니! 나는,”

[중모리] “밥도 싫고, 옷도 싫고, 밤이나 낮이나 잠 못 지는 설움 있소.”
“어서 말해 보아라.”

“어머니 아버지 공론허고⁶⁰⁾ 나 장가 좀 보내주세요.”

“무엇이라고?”

[진양조] “어따,⁶¹⁾ 이놈아! 야 이놈아, 말 듣거라.

내가 성세⁶²⁾가 있고 보면, 네 장가가 여태 있으며, 중헌⁶³⁾ 가장⁶⁴⁾을
끓기고, 어린 너희들을 벗기겠느냐?

하느님이 주시는 복이니, 끓으라면 끓을 것이요, 죽으라면 죽을 터
이다.

철 모르는 자식들아, 못 먹이고 못 입히는 어미 간장⁶⁵⁾이 다 녹는다.”

Wonsan, Ganggyeong, Poju, and Beopseong are the possible cities. But we can't live in a city because there are bad smells. Where should we go?"

3. (Heungbo's Wife Sighs.) The life of Heungbo's family is hard. The oldest son asks for a girl to marry. Heungbo's wife laments over their fate.

[Aniri] Heungbo's family arrives at Virtue Village. They get a house and manage to live on.

Mentally immature, the children badger their parents.

One steps forward. "Mother, I only want the spicy soup with rice."

Another one speaks. "Mother, I only want a pot of pumpkin cake.

It is sweet and delicious whether hot or cold."

The eldest son moves forward. "Mother!

[Jungmori] "I want neither food nor clothes. I have a sorrow that keeps me from sleeping."

"What is it?"

"Discuss the issue of my marriage with daddy."

"What did you say?"

[Jinyangjo] "God! You rascal! Listen to me.

If I were rich, you wouldn't be single, the family head wouldn't be hungry, and you wouldn't be poorly clothed.

Our fate was determined by God. If He tells us to be hungry, we'll be hungry. If He tells us to die, we'll die.

You immature rascals! I feel bad because I cannot give you food and clothes."

4. (돈타령) 홍보가 매품을 팔기로 하고 돈을 받아, 돈타령
을 부르며 돌아오자, 홍보 마누라도 돈타령을 하며 좋아
한다.

[아니리] 홍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우지 마오.

남이 들어, 남 보기로⁶⁶⁾ 내 집 흥만 더 나니 울지 마오.

좋은 수가 있네.

나 읍내 좀 다녀올라네.”

“읍내는 왜요?”

“아, 환자섬⁶⁷⁾이나 있나 알아보고 올라네.”

“아이고, 영감. 애당초 가지 마시오.

누가 우리 가세⁶⁸⁾ 형편을 보고 환자섬을 주셨소?”

“이런 방정맞은 여편네가 있잖은가?

아니, 아직 가지도 않았는디, 방정맞은 여편네가 방정맞은 소리를 허
면 될 것이여?”

홍보가 마침 읍내를 나가 호방⁶⁹⁾을 만났것다.

이리저리 딱한 사정을 얘기하니,

호방이 하는 말이, “여보, 박생원. 거, 환자섬을 얻을 일이 아니라,
품⁷⁰⁾이나 하나 파시오.”

“아, 돈 생길 품이면 팔고말고.”

“다름이 아니라,

이 골⁷¹⁾ 좌수⁷²⁾가 병영⁷³⁾ 영문⁷⁴⁾에 잡혀갔는디,

좌수 대신 곤장⁷⁵⁾ 열 대만 맞으면, 매 한 대에 석 냥씩 삼십 냥을
주기로 하고,

우선 말 타고 가라고 마삿⁷⁶⁾ 닷 냥까지 준답디다.”

4. (Money Song) Heungbo sings the money song while coming back home with some money, having agreed to get caned with a club. Delighted, Heungbo's wife sings the money song too.

[Aniri] Heungbo comes in.

"Sweetheart, don't cry.

If people hear us, we will lose face.

I've got an idea.

Let me go downtown."

"For what?"

"Let me check for some relief rice from the government office."

"Honey, don't go there.

We are so poor that they won't give us the relief rice."

"What a flighty woman you are!

I haven't yet left for downtown. How can you make such an inconsiderate remark?"

Heungbo comes across a government employee in the downtown area.

He speaks about his pathetic situation.

The employee says, "Don't try to get relief rice. Why don't you get beaten for money?"

"Oh, I'd be happy to be caned if I can make money."

"Let me tell you the story.

A respected man of this town committed a crime in the military office.

If you take ten strokes on his behalf, you'll get 30 dollars in total, three dollars for each stroke.

You'll get five dollars of travel money in advance."

홍보 좋아라고 대번에 말이 올라가는데,⁷⁷⁾
 “여보시오, 그 품 내가 팔라요.”
 [중모리] 저 아전⁷⁸⁾ 거동⁷⁹⁾을 보아라.
 궤문⁸⁰⁾을 절컹⁸¹⁾ 열고 돈 닷 냥을 내어주니,
 홍보가 받아 들고,
 “나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시오.”
 박홍보 좋아라고, 질척⁸²⁾ 앞으로 썩 나서며,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자 절씨구나. 얼씨구나 줌도⁸³⁾ 좋네.
 대장부 한 걸음에 엽전⁸⁴⁾ 서른닷 냥이 들어온다.
 우리 집을 어서 가자.”
 저희 집 문전을 당도하여,
 “여보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들어오면,
 우루루루루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 옳지,
 좌이부동⁸⁵⁾이 웬 일인거나?
 에라, 이 사람 몹쓸 사람.”
 [중중모리] 홍보 마누라 나온다. 홍보 마누라가 나오면서,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소.
 내 잘 못 되었소. 이리 오시오. 이리 오라면 이리 와요.”
 홍보가 좋아라고,
 “여보소, 마누라! 이 돈 근본⁸⁶⁾을 자네 아나?
 돈의 근본을 자네 알아?
 생살지권⁸⁷⁾을 가진 돈,
 부귀공명⁸⁸⁾이 붙은 돈,
 맹상군의⁸⁹⁾ 수레바퀴처럼 동글동글이⁹⁰⁾ 생긴 돈,
 가다 오다가 생긴 돈, 이리저리 생긴 돈.

Thrilled, Heungbo speaks in a respectful manner.

"Sir, let me get beaten for money."

[Jungmori] Behold the government employee!

He opens a coffer, making a loud sound, and takes out five dollars to Heungbo.

Heungbo takes the money.

"OK. I am going there."

"Come back in one piece."

Heungbo is joyful when he leaves the government office.

"Whoopee! Yippee! Hurrah! Hurray! Oh boy!

A man makes 35 dollars in one move.

Let me go back home quickly."

Heungbo arrives in front of his house.

"Honey! The head of this family is back home.

You are suppose to run to greet me.

How can you just sit there?

Gee, how rude you are!"

[Jungjungmori] Heungbo's wife moves. She comes out.

"Hello, honey. I didn't know you are back.

I am sorry. Come here. Come here."

Heungbo is delighted.

"Honey, do you know how I got this money?

Do you know the nature of money?

Money can make a person live or die.

It brings wealth, nobility, and fame.

It is round like a wheel of a cart and moves around.

We make money here and there.

이놈의 돈아! 아나,⁹¹⁾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얼씨구 돈 봐라. 돈 돈 돈 돈 돈 좋다. 돈 좋아.”
 흥보 마누라도 좋아라고,
 “어디 돈? 어디 돈? 돈 봅시다, 돈 보아.
 돈이라니 웬 돈이오?
 일수돈⁹²⁾을 얻어왔소?
 월수⁹³⁾ 체계⁹⁴⁾ 파수돈⁹⁵⁾을 얻어왔소?
 돈이란 말이 웬 말이오?”
 “아니로세, 아니로세.
 우리 재수 대통허여 횡재⁹⁶⁾ 돈이 생기었네.”
 “횡재라니 웬 말이오?
 생천생지⁹⁷⁾ 아니어든 무슨 횡재가 생기었소?
 어디 봐요. 돈 봐.”

5. (흥보 아내 만류) 흥보 아내가 흥보의 매품팔이 말을 듣고, 가지 말라고 만류한다.

[아니리] “이 돈이 다른 돈이 아니라,
 이 고을 좌수가 병영 영문에 잡혀갔는디,
 좌수 대신 곤장 열 대만 맞으면 매 한 대에 석 냥씩 삼십 냥을 준다
 해서,
 내가 대신 맞기로 허고 우선 마삿 닷 냥을 받아왔으니,
 이 돈으로 쌀 팔고, 고기 사서 육죽⁹⁸⁾을 누구룸히⁹⁹⁾ 쭈어가지고,

Money! Where have you been?
Hurray! Look at this money! Money is good.”
Heungbo’s wife is joyful too.
“Money? Where is it? Let me take a look at it.
How did you get it?
Did you borrow it at daily interest?
Did you borrow it at monthly interest?
Where did you get the money?”
“No, I didn’t borrow it.
We were so lucky that we got this windfall.”
“Windfall?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is must not be a windfall.
Let me take a look at the money.”

**5. (Heungbo’s Wife Stops Him,) Heungbo’s wife learns
that Heungbo will be caned with a club for money.
She stops him.**

[Aniri] “Let me tell you about how I got this money.
A respected man of this town was arrested and taken to a
military office.
I heard if one takes 10 strokes on his behalf, he’ll get 30 dollars,
3 dollars for each stroke.
I got 5 dollars in advance with the promise to be hit on his
behalf.
Let’s buy rice and meat with this money, make a good soup out
of them.

어린 자식들과 오래간만에 배불리 좀 먹어봅시다.”

홍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

중한 가장¹⁰⁰⁾ 매품¹⁰¹⁾ 팔아 먹고산다는 말은 고금천지¹⁰²⁾ 처음이라,
붙들고 만류¹⁰³⁾를 허는디,

[진양조] “여보, 영감! 여보, 영감! 매품이라니 웬 말이오?

남의 죄를 어이¹⁰⁴⁾ 알어 대신 말이 웬 말이오?

옛말을 들어보면, 병영 영문 곤장 한 개를 맞고 보면, 종신¹⁰⁵⁾ 골
병¹⁰⁶⁾이 든답디다.

음지¹⁰⁷⁾가 양지 되고, 양지가 음지 되느니.

천불생무룩지인¹⁰⁸⁾이요, 지부장무명지초¹⁰⁹⁾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궁기¹¹⁰⁾는 있는 법이니,
불쌍허신 우리 영감, 가지를 마오.”

6. (병영 길) 홍보가 신세자탄을 하며 병영 길을 간다.

[아니리] 홍보가 해를 내며,

“시끄럽네, 이 사람아.

아, 이 쓸 데 없는 볼기 뒸다 어디다 쓰겠는가?

나 다녀올 테니 염려 말고 집에 있게.

애들아, 너희 어머니 너무 조르지 마라.

나 다녀오마.”

“아버지, 병영 가시오?”

“오냐. 병영 간다”

“아버지 병영 가시거든 나 떡 좀 사다 주요.”

“오냐. 떡 사오지.”

Let's eat a lot of food with the children first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Hungbo's wife hears him.

She never heard of a family head, a precious family member, being beaten to support his family.

She holds Heungbo back.

[Jinyangjo] "Darling! Darling! Caned for money?

How can you get caned for the crime you didn't commit?

There is an old saying: One stroke in the military office creates an everlasting wound.

A change is sure to occur to our family.

Everybody is fated to eat something and to have a job.

We are bound to survive this misery.

Don't go there, my poor husband!"

6. (Journey to the Military Office) Heungbo heads to the military office while lamenting over his fate.

[Aniri] Heungbo expresses his anger.

"Cut it out, woman!

What else is this butt for?

I'll be back in one piece. Stay home without worrying about me.

Hey children! Don't badger your mother.

I am leaving."

"Father, are you going to the military office?"

"Yes, I am going there."

"Father, if you go there, please bring rice cake on your way back."

"OK. I'll bring rice cake for you."

또 한 놈이 나오며, “아버지, 나 엿 좀 사다 주오.”

“오냐. 엿 사오지.”

[중모레] 아침밥을 지어 먹고 병영 길을 떠나는데,
허유허유¹¹¹⁾ 올라갈 제, 신세자탄¹¹²⁾ 울음을 운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은 팔자 좋아,

고대광실¹¹³⁾의 높은 집에 호가사¹¹⁴⁾로 잘 사는데,

이 내 팔자는 박복허여¹¹⁵⁾ 매품 팔아서 먹고 사니.”

그렇저렇¹¹⁶⁾ 당도하니,

병영 고을이 무서웁다.

쳐다보니, 대장기¹¹⁷⁾요,

내려 굽어보니 숙정패¹¹⁸⁾로구나.

심산 맹호 위용같은¹¹⁹⁾ 용 자 붙인¹²⁰⁾ 군로사령¹²¹⁾이 이리 가고, 저
리 갈 제,

그 때여 박홍보는 숫헌¹²²⁾ 사람이라, 벌벌벌 떨면서 들어간다.

7. (홍보 헛걸음) 홍보가 매품을 팔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홍보 아내는 걱정하며 기다리다가 홍보를 반겨 맞는다.

[아니리] 홍보가 삼문¹²³⁾ 궁기¹²⁴⁾를 들여다보니,

여기서 철썩, 저기서 철썩, 매 맞느라고 장관¹²⁵⁾이었다.

홍보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 내 앞에 와서 돈 수수백¹²⁶⁾ 낭 버는가
보다. 나도 불기를 까고 엮겨¹²⁷⁾ 볼까?’

시커먼 불기를 까고 엮졌을¹²⁸⁾ 때,

한 군로¹²⁹⁾ 나오며, “아니, 박생원¹³⁰⁾ 아니시오?”

Another son speaks, "Father, please get me rice jelly."

"OK. I'll get you rice jelly."

[Jungmori] Heungbo eats breakfast and takes off to the military office.

While walking an uphill road, he laments over his fate in tears.

"Alas! Woe is me.

Some people were born with good fate.

They live in large splendid houses.

But I was born with such a bad fate that I live by being beaten for money."

Heungbo somehow arrives at the military office.

The office is formidable.

He looks up. There is a commander's flag.

He looks down. There is a plank which says, "Be quiet!"

Soldiers move around like fierce tigers and dragons in the military office.

Heungbo, timid by nature, trembles as he enters the main gate.

7. (Heungbo's Trip Was in Vain.) Heungbo comes back empty-handed. Waiting for him with concern, his wife delightedly greets him.

[Aniri] Heungbo looks through the main gate.

It is quite a show with people getting caned here and there. Heungbo thinks that these people are making a lot of money a head of him, and that he should pull down his pants and get down.

He exposes his buttocks and lies down on his belly.

An officer comes to him. "Hi. Aren't you Mr. Bak?"

“알아맞혔구만.”

“아, 어찌 오셨소?”

“나도 매 맞고 돈 벌어갈라고 왔제.”

“허허, 박생원 굶았소,¹³¹⁾ 굶았어.”

“아니, 이 사람아. 계란이 굶지, 사람이 굶아?”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 박생원 대신이라고, 곤장 맞고 돈 벌어가
고 벌써 떠났소.”

홍보 깜짝 놀래, “아이고, 이 사람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던가?”

“키가 구 척¹³²⁾이나 되고, 뼈대가 굵직굵직허니 아주 매를 썩 잘 맞습
니다.”

“아이고, 이게 웬 일이여! 집안의 계집이 내가 떠나올 적에, 가시오,
마시오 울음을 울더니,

뒷집 피쇠애비¹³³⁾란 놈이 발등거리¹³⁴⁾를 허였구나.”

[중모레] “번수네들¹³⁵⁾, 그리 험가? 수번¹³⁶⁾이나 평안히 허게. 나는
가네, 나는 가네.

매 맞으러 가는 데도 손재¹³⁷⁾가 붙었으니, 이 지경이 웬 일인가?

내 집 떠나올 적에 자식들이 늘어앉어,

밥 달라고 우는 자식은 떡 사주마고 달래놓고,

떡 사달라고 우는 자식은 엿을 사주마고 달랬는디,

돈이 있어야 말을 허지.”

그렇저렇 저의 집 문전을 당도허니,

그 때여 홍보 마누라는 자기 영감 병영 가신 후에 후원을 정히¹³⁸⁾
썰고, 정화수¹³⁹⁾를 받쳐놓더니,

“비나니다, 비나니다, 하나님전 비나니다.

병영 가신 우리 영감 매 한 대도 맞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시라 주야축
수¹⁴⁰⁾로 비나니다.”

"That's right."

"What brought you here?"

"I'm here to be caned for money."

"Oh, Mr. Bak. Things went wrong."

"Hey, an egg can go wrong, not a person."

"Hear me out. A while ago, a man was beaten allegedly on behalf of you, got the money, and left."

Heungbo is surprised. "Oh my god. How does he look like?"

"He was tall. His bones were thick. He took the blows easily."

"My goodness! When I was leaving home, my wife cried, holding me back.

Mr. Sly living next door made a move ahead of me."

[Jungmori] "Officers, I understand. Carry on with your work. Take it easy. I am leaving.

I can't believe I am so unlucky that I can't even get to be caned for money.

When I was leaving home, my children saw me off.

I soothed a crying child for rice with the promise to get him a rice cake.

I appeased another child crying for a rice cake with the promise to get him rice jelly.

I should have money to make them happy."

Heungbo manages to arrive at the gate of his house.

After Heungbo left for the military office, Heungob's wife cleaned the backyard and set a bowl of clean water on an altar.

"I pray to you, God. I pray to you, God.

My husband went to the military office. May he come back without being beaten. I pray day and night."

빌기를 다 흰 후에 한 곳을 바라보니,
기운 없이 오는 모양 자기 영감이 분명하여, 우루루루루 나가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어찌 그리 더디 오시오? 매 맞은 장처¹⁴¹⁾나 어디
봐요.”

8. (홍보 아내 좋아함) 홍보가 매를 맞지 않고 돌아오자, 홍보 아내가 좋아하며 춤을 춘다.

[아니리] 홍보가 화를 내며,
“장처고, 상처고, 여편네 죽은 것이고 놔둬!
여편네가 어지간히 방정을 떨어야지!
대장부가 바깥 출입을 허는디,
그냥 가시오, 마시오 울음을 우니,
뭘 놈의 재수가 있겠는가?
뒷집 피쇠애비란 놈이 발등거리를 하였데.”
“아이고 여보 영감, 발등거리가 다 무엇이다요?”¹⁴²⁾
“아, 내 대신 매 맞고 돈 벌어다,
지금쯤 자식들과 잘 끓여 먹는다 그 말 아닌가?”
“아니, 그럼 영감께서는 매를 안 맞으셨단 말씀이요?”
“아, 내가 언제 임자더러¹⁴³⁾ 거짓말을 하던가?”
“아이고, 좋아라.”

[중중모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화
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영감이 엇그저께 병영 길을 떠난 후에,
후원에다가 단¹⁴⁴⁾을 못고¹⁴⁵⁾ 주야축수로 빌었더니,
매 아니 맞고 돌아오시니, 이런 기쁨이 어디가 있나!

After finishes praying, she looks at a certain place.
She spots a soggy man coming. He must be her husband. She runs to him.
“Hi, honey! Why are you so late? Let me take a look at your wounds.”

8. (The Joy of Heungbo’s Wife) Heungbo returns home without being caned. His wife dances with joy.

[Aniri] Heungbo is annoyed.
“Shut up. Forget the wounds.
You made such a big fuss!
I was trying to go out.
You stopped me in tears.
How can I be lucky?
Mr. Sly living next door made a move ahead of me.”
“Honey, what does it mean he made a move ahead of you?”
“He was caned instead of me and made money.
By now he must be having a party with his children.”
“So you didn’t get beaten?”
“Have I ever told you a lie?”
“That’s wonderful.”

[Jungjungmori] “Hurrah! Whoopee! Hurray! Yippee! Oh boy!
Hurrah! Whoopee! Hurray!
You left for the military office the other day.
I made an altar in the backyard, praying day and night.
He came back without being caned. How great this is!

얼씨구나 절씨구. 이 애, 자식들아, 춤 추어라. 어따,¹⁴⁶⁾ 이 애야, 춤을 추어라.

이런 기쁨이 어디가 있나!

얼씨구나,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으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9. (홍보가 놀보집을 건너감) 홍보가 곡식을 얻으러 옷을 차려 입고 놀보 집으로 간다.

[아니리] 홍보 허는 말이, “내가 없이는 살아도, 우리 마누라 이런 맛에 산당깨.”¹⁴⁷⁾

“여보 영감, 그러나 저러나 형제간밖에 없으니, 건넌 마을 시숙택¹⁴⁸⁾에 건너가서서 전곡간¹⁴⁹⁾이나 좀 얻어오시오.” 홍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내가 만일 형님 댁에 건너갔다가 불쌍히 여기시고 전곡간이나 다소간¹⁵⁰⁾ 주시면 좋지만,

보리¹⁵¹⁾만 주시면 어떡하지?”

“아이고, 여보, 영감. 우리집 형편에 쌀 찾고, 보리 찾고 허겄소? 보리라도 많이만 주시면 좋지요.”

홍보가 하는 말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 거 누가 먹는 보리 말인가?

자네가 지리산 몽둥이보리는 모르네그러.

그놈으로 딱 맞으면 내가 쪽 뺨을 것이 아닌가?

속담에 매 맞는 걸 보고 보리타작한다는 것이여.”

“아이고, 여보, 영감. 설마헌들 형제지간¹⁵²⁾에 그걸 리가 있겄소? 어서 다녀와 보시오, 영감.”

Hurrah! Children, dance with me. Children, dance with me.
I couldn't be more happy than this.
Hurrah! Whoopee! Hurray! Yippee! Oh boy! Hurrah! Whoopee!
Hurray!"

9. (Heungbo's Visit to Nolbo's House) Heungbo dresses up and goes to Nolbo's house to get some food.

[Aniri] Heungbo responds, "I am poor, but that aspect of my wife peps up my life."

"Honey, only a brother is dependable.

Please go over to your brother in the neighboring village and get something, grain or money."

Heungbo broods over the idea.

"I might go there. It would be nice if he takes pity on me and gives me something, grain or money.

But what if he only gives me barley?"

"Oh, sweetheart. Our situation doesn't allow us to accept rice and reject barley.

Even barley would be great only if we got a lot of it."

Heungbo responds, "Stop the foolish talk.

I am not literally talking about barley.

You don't seem to know about a club from Jiri Mountain.

If I were hit with it, I would die instantly, stretching out.

An old saying holds that beating a person is the same as threshing barley."

"Darling, he is your brother. How could he beat you?

Please go there, honey."

“대채¹⁵³) 마누라 말이 옳네. 나 그럼 다녀옵세.”

[자진모리] 홍보가 건너간다. 홍보가 건너간다.

홍보 치레¹⁵⁴)를 불작시면,¹⁵⁵)

다 떨어진 헌 파립¹⁵⁶)

별잇줄¹⁵⁷) 총총¹⁵⁸) 매어 조사갓끈¹⁵⁹)을 달아 써,

떨어진 헌 망건, 갓풀관자,¹⁶⁰) 종이당줄¹⁶¹) 두통나게¹⁶²) 줄라매고,

떨어진 헌 도포 싯띠¹⁶³)로 총총 이어 고픈 배 눌러 띠고,

한 손에다가 곱돌조대¹⁶⁴)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서리 아침¹⁶⁵) 치운¹⁶⁶) 날에 팔짱끼고 옆걸음쳐¹⁶⁷) 손을 불며, 이리

저리 건너간다.

“형님 동생 홍보 문안ियो.”

10. (홍보 애원) 홍보가 놀보에게 처자식이 굶고 있으니 곡 식이나 돈을 달라고 애원한다.

[아니리] 놀보가 홍보라는 말을 듣더니 대경¹⁶⁸) 질색¹⁶⁹)을 하며,

“게¹⁷⁰) 뉘시오?”

“형님! 형님 동생 홍보로소이다.”

“홍보, 홍보? 여보시오, 나는 구 대차¹⁷¹) 독신¹⁷²)으로 조롯이¹⁷³) 내려
온 줄을 삼척동자¹⁷⁴)라도 다 아는데,

어린 동생이라니 웬 말이오?

아마도 집을 잘못 찾아왔는가 보오.”

홍보가 빌면 될 줄 알고,

[진양조] 두 손 합장¹⁷⁵) 무릎을 꿇고,

“You are right, sweetheart. Let me go there, then.”

[Jajinmori] Heungbo goes to Nolbo's house.

Behold how he looks.

His cylindrical hat is broken.

His hat is fastened with a string on his chin.

He fastened an old headband tightly with a leather ring and a paper string.

A string ties his old coat around his hungry belly.

He holds a stone pipe in one hand.

He holds an old fan in the other hand.

In the cold morning with frost, he walks sideways with his arms folded, blowing on his hands.

“Brother, this is Heungbo.”

10. (Heungbo Implores.) Heungbo begs Nolbo for some food or money, saying that his wife and children are starving.

[Aniri] Nolbo is shocked to hear that Heungbo is here.

“Who is this?”

“Brother, this is Heungbo, your brother.”

“Even a child knows I don't have a brother, being the only son for nine generations in a row.

How can I have a brother?

You must have come to the wrong house.”

Heungbo believes begging will work.

[Jinyangjo] Heungbo holds his two hands together and kneels down.

“비나니다, 비나니다. 형님주전에¹⁷⁶⁾ 비나니다.

몹쓸너르¹⁷⁷⁾ 목숨이 여태까지 죽지 않고 살았다가 형님을 찾아 뵈오
리 왔소.

그제 하루를 굶은 처자가 어제 아침을 그저¹⁷⁸⁾ 있고,

어제 아침을 굶은 처자가 오늘까지 굶었내다.¹⁷⁹⁾

만석꾼¹⁸⁰⁾ 부자 형님을 두고 굶어죽기가 원통합니다.

쌀이 되거든 한 말만 주시고, 보리가 되거든 두 말만 주시옵고, 돈이
되거든 석 냥만 주시오면,

여러 날 굶어서 죽게 될 권속¹⁸¹⁾들을 구환¹⁸²⁾하여 살리겠나이다.
형님, 저를 살려주오.”

11. (놀보 매질) 놀보가 마당쇠에게 몽둥이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홍보를 마구 때린다.

[아니리] “오, 네가 그 홍보냐?

말을 듣고보니, 참말로 불쌍하게 되었구나.

너 온 김에 보리나 좀 타 갖고 갈래?”

홍보 좋아라고,

“아이고, 형님! 흥년 곡식으로 놀러먹기¹⁸³⁾는 쌀보다 보리가 훨씬 더
낫답니다요, 형님!”

“흥, 그놈 놀러먹는 속¹⁸⁴⁾ 도저허구나.¹⁸⁵⁾

그래라. 여봐라, 마당쇠야!

저 동편 곳간으로 돌아가면 쌀 쟁여놓은¹⁸⁶⁾ 쌀 곳간이 있겠다.”

“쌀로 몇 섬 드릴까요?”

“너 이놈, 가만히 있어! 그 옆으로 가면 보리 쟁여놓은 보리곳간이
있겠다.”

"I beg you. I beg you, brother.
I am sorry I am yet alive and came back to you.
My wife and children didn't eat the whole the day before
yesterday and didn't have breakfast yesterday.
They didn't eat breakfast yesterday and haven't eaten today.
I feel bitter to be starved to death when my brother is a
millionaire.
Please give me a bucket of rice, two buckets of barley, or three
dollars.
I'll save my family who have gone hungry for several days.
Brother, help me."

11. (Nolbo's Beating) Nolbo orders his servant to bring a club and beats Heungbo.

[Aniri] "Oh, are you Heungbo?
Hearing about your situation, I take pity on you.
Since you are here, do you want to get some barley?"
Heungbo is delighted.
"Oh brother! In a year of bad harvest, barley is better than rice
because we can let it swell up, brother."
"You villain. You still have the habit of stretching things.
OK. Hey Madangsoe!
Go to the east. A rice storeroom is stacked with rice."
"Do you want me to give him some rice?"
"You bastard, hear me out. By the rice storeroom, another
storeroom is filled with barley."

“보리로 몇 섬 드릴까요?”

“건방진 놈!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 뒤로 돌아가면은 작년에 지리산서 도끼자루 하려고 처온¹⁸⁷⁾ 박달
방맹이가 있느니라.

그거 이리 가져오너라.

오늘 한 놈 식홀 놈¹⁸⁸⁾ 있다.”

놀보란 놈이 딱딱 걸어¹⁸⁹⁾ 잠가놓고 홍보를 때리는데,

[자진모리] 놀보놈 거동¹⁹⁰⁾ 봐라.

지리산 몽둥이를 눈 위에 번뜻¹⁹¹⁾ 치켜들고,

“어따, 이놈, 강도놈아! 나의 말을 들어봐라.

잘 살기 내 복이요, 못 살기는 네 팔자라.

나락섬¹⁹²⁾이나 주자헌들, 마당에 큰 노적¹⁹³⁾에 다물다물¹⁹⁴⁾ 쌓였
으니 네놈 주자고 노적 혈랴?¹⁹⁵⁾

전관¹⁹⁶⁾이나 주자헌들, 용봉장¹⁹⁷⁾ 금궤¹⁹⁸⁾ 안에 가득가득 관¹⁹⁹⁾를
지어 궤 속 안에 들었으니, 네놈 주자고 왜돈²⁰⁰⁾ 혈랴?”²⁰¹⁾

몽둥이를 드러메더니²⁰²⁾ 다무락²⁰³⁾에 구렁이 치듯, 좁은 골에다²⁰⁴⁾
벼락 치듯, ‘후닥딱!’

“아이고, 형님, 박²⁰⁵⁾ 터졌소!”

‘후닥딱!’

“아이고 형님, 허리 부러졌소! 사람 좀 살려 주오.”

몽둥이를 피하려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허건마는,

대문을 걸어노니 날도²⁰⁶⁾ 뛰도 못하고,

그저 퍽퍽 흐어억 으으으억 맞으며 안으로 쫓겨 들어가며,

매 맞은 다리를 질질 끌고 가며,

“아이고, 형수씨! 사람 좀 살려주오.”

“Do you want me to give him some barley?”
“How rude you are! I told you to shut up!”
“If you turn around there, you will see a birch club I got last year from Jiri Mountain to be used as an anaxhandle.
Bring it here.
I’ll make a person cold today.”
Nolbo locks the gate and beats Heungbo up.

[Jajinmori] Behold Nolbo!
He holds up the club high above his eyes.
“Hey robber! Listen to me!
I am fated to be rich, and you to be poor.
Bundles of unhulled rice are stacked in the yard. But I hate to pull down the stack to give you some.
Bundles of money are stacked in my safe. But I hate to pull down the stack to give you some.”
Nolbo holds up the club and moves it fast as if he were hitting a snake on a wall, and as if lightning hits in a small valley.
“Brother, my head fell apart!”
He moves fast.
“Brother, my backbone just got broken. Forgive me.”
Heungbo does his best to avoid the club.
But he can’t run away because the main gate is locked.
He just takes the blows and runs inside the house.
He drags his injured leg.
“Sister-in-law, help me!”

12. (홍보 탄식) 형수에게 밥주걱으로 뺨을 맞은 홍보가 통곡하며 돌아온다.

[아니리] 놀보 계집은 놀보보다 훨씬 더 독하던가 보더라.
밥 푸던 주걱을 들고 나오며,
“아지뱌²⁰⁷⁾이고, 동아뱌²⁰⁸⁾이고, 나한테 언제 전곡²⁰⁹⁾ 맡겼소?
아나,²¹⁰⁾ 밥! 아나, 쌀!”
주걱으로 홍보 뺨을 쳐노니,
홍보가 형님한테 맞은 건 소분지일이요,²¹¹⁾
형수씨한테 뺨을 맞고 보니,
[진양조] 홍부가 곰곰 생각을 하니,
하늘이 빙빙 돌고, 땅이 툭 꺼지는 듯,
“아이고, 세상 사람들! 이런 법이 어디가 있소!
형수씨 되는 분이 시아재²¹²⁾ 때리는 법 고금천지²¹³⁾ 처음 보았소.
아이고 하나님! 홍보놈을 벼락을 때려주면, 염라국²¹⁴⁾을 들어가서 우리 부모님을 뵈옵게 되면, 세세원정²¹⁵⁾을 다 헐라네.
지리산 호랑아, 홍보놈 물어가그라!
세상 만사가 귀찮허구나.”
부러진 작대기 찾아 쪼터니, 고추가루 먹은 사람처럼 후후 불면서
저희 집으로 건너간다.

13. (홍보 아내 탄식) 홍보 아내가 사정을 짐작하고 울다가 목을 매려하니, 홍보가 만류한다.

[아니리] 홍보 마누라 나오며,

12. (Heungbo Wails.) Heungbo wails, beaten with a rice scoop by his sister-in-law.

[Aniri] Nolbo's wife is more cruel than Nolbo.
She comes out of the kitchen with a rice scoop.
"Forget sister-in-law. Have you left any grain to me?
Here goes rice!"
She hits Heungbo on his cheek with the scoop.
For Heungbo, it is nothing that he was hit by his brother.
But he is hit by his sister-in-law.

[Jinyangjo] Heungbo broods over what just happened.
He feels as if heaven swirls, and as if the ground collapses.
"Alas! People in the world! How can this happen?
A sister-in-law hit a brother-in-law. This is an unprecedented immoral act!
Oh God! If you hit me with lightning, I'll go to the world of the dead, see my parents, and tell them about resentments in detail.
Tiger from Jiri Mountain! Please bite me away!
I don't want to live anymore."
Heungbo grabs a broken club, uses it as a cane, and goes back home, blowing on his wounds.

13. (The Lamentation of Heungbo's Wife) Having guessed what happened, Heungbo's wife cries and tries to hang herself. Heungbo stops her.

[Aniri] Heungbo's wife comes out.

“아이고, 여보 영감. 무얼 가져오셨소?

쌀이거든 밥을 짓고, 돈이거든 쌀을 팔어다가 저 어린 자식들을 살려야 할 게 아니요?”

홍보 하는 말이, “여보, 마누라. 내 말 좀 들어 보오. 아, 내가 형님 댁엘 건너갔더니, 형님 내외분이 아주 후해졌습디다.²¹⁶⁾

형님이 버선발로 우루루루 나오시더니,

내 손을 잡고 안방으로 건너가서 단단히²¹⁷⁾ 나무라시데그려.

늙어가는 형이 잠시 나무랐기로서니, 나간 지 수년이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냐고 단단히 나무라신 후

형수씨가 나가시더니, 닭 잡고, 쌀밥, 술 몽땅 차려 와서 어서 먹으라고 하시데그려.

아, 그래서 헌 갓 제쳐놓고 양껏 먹고 나니 일어날 수가 없데그려.

형님, 형수 의논하시고, 돈 닷 냥과 쌀 서 말을 주시기에

내 손수 짊어지고 오다가, 요 너머 강정모퉁이²¹⁸⁾ 있지 않던가?

거기를 막 돌아서니까, 시커먼 도적놈이 쑥 불거니더니,²¹⁹⁾

‘너 이놈, 홍보야! 목숨이 중하냐? 전량²²⁰⁾이 중하냐? 거기다 못 놔, 이놈!’ 하더니,

엎어뺨²²¹⁾ 한 대에 대번²²²⁾ 쥐²²³⁾가 나고,

썩²²⁴⁾ 뺏기고 매만 이리 실컷 맞고 왔네, 이 사람아.”

홍보 마누라 이 말을 듣더니마는, “무엇이라고요? 그만 두오. 그만 두오.”

[중모래] “그런대도²²⁵⁾ 내가 알고, 저런대도²²⁶⁾ 내가 아요.

형님 속²²⁷⁾도 내가 알고, 시숙님 속도 내가 아요.

돈 닷 냥, 쌀 서 말이 무엇이요?

내게다가 그런 말 허지도 마오.

야속허지, 우리 시숙.

“Honey, are you bringing something?

If you brought rice, let's cook it. If money, let's buy rice for the hungry children.”

Heungbo speaks, “Honey, listen to me. When I went to my brother's house, my brother and sister-in-law were kind to me. He ran to me to greet me without putting shoes on.

He grabbed my hands, took me to the main room, and scolded me severely as follows:

Even if my brother getting old scolded me, I should have dropped him a line during the past years since we left.

My sister-in-law went to kitchen, came back in with chicken, rice, and wine, and asked me to eat them.

So I took off my old hat and helped myself to the food until I couldn't stand up.

My brother and sister-in-law talked with each other and gave me money and rice.

While I was carrying them here, something happened around the corner by the river where there is a pavilion.

When I was passing the corner, a tough-looking bandit suddenly showed up.

He said, ‘Heungbo! You villain! Which is more important, your life or your money and rice? Put them down there. You bastard!’

I was slapped on the cheek and got a cramp right away.

I was robbed of the stuff and was hit hard.”

Heungbo's wife responds, “What are you talking about? Stop it.”

[Jungmori] “Whatever you say, I know what happened.

I know about your sister-in-law and brother.

Stop the foolish talk about the money and rice.

Don't even say those words to me.

How heartless my brother-in-law is!

전곡만 생각하고 형제 윤기²²⁸⁾를 몰라보시고 이리 몹시 찼단 말이오?
아이고 분하여라. 원통하여라. 분하여서 못 살겠네.”

[아니레] 홍보 마누라가 자탄²²⁹⁾을 허는디,

[진양조]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 설은 가난이야.²³⁰⁾

잘 살고 못 살기는 삼신 제왕²³¹⁾이 마련을 했다.

복두칠성님²³²⁾이 복 마련을 허셨는가.

나는 세상에 삼겨나서²³³⁾ 불의행사²³⁴⁾ 험 일 없이 밤낮 주야로 벌었
어도,

삼순구식²³⁵⁾을 헐 수가 없네.

가장은 부황²³⁶⁾이 나고, 자식들은 아사지경²³⁷⁾이 되니,

내가 차라리 자결을 하여 이런 꼴을 안 볼라네.”

치마끈으로 목을 매어 죽기로만 작정을 하니,

홍보가 보고 우루루루루루루루루루 달려들어,

“아이고, 마누라! 마누라, 이게 웬 일인가?

부인의 백 년 팔자²³⁸⁾는 가장²³⁹⁾에게 매였는디,²⁴⁰⁾

박복한²⁴¹⁾ 나를 만나 이 고생을 허네그려.”

홍보 내외 붙들고 울고, 울고 말리고, 울음을 우는디 사람의 인륜²⁴²⁾
으로 볼 수가 없네.

14. (중타령) 중 하나가 홍보 집에 와서 동냥을 청한다.

[아니레] 이리 한참 설리 올 제, 홍보를 살릴 중이 하나 내려오는디,

[엇모레] 중 하나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저 중의 거동²⁴³⁾ 보소.

He beat you up because he thought about money and rice, and forgot his duty to his brother.

Alas! Woe is me, I am exasperated, I want to die.”

[Aniri] Heungbo’s wife laments over her lot.

[Jinyangjo] “Poverty, poverty! I hate you.

Does the god of birth determine our fate?

Does the Big Dipper determine our life?

I haven’t done anything wrong since I was born. I just worked day and night.

But I have been hungry all along.

My husband and children are about to starve to death.

I would rather kill myself to stop seeing this misery.”

Heungbo’s wife tries to hang herself with a skirt belt.

Heungbo runs to her fast.

“Sweetheart, sweetheart, what are you doing?

A wife’s fate depends on that of her husband.

You are in this misery because you married me.”

The husband and wife hold and comfort each other in tears.

It is hard to see them crying.

14. (Monk Song) Just then, a Buddhist monk comes and begs for food.

[Aniri] While Heungbo and his wife cried, a Buddhist monk comes down from a mountain. He is to save them.

[Eonmori] A monk comes down from a mountain.

Behold the monk.

연년 묵은 중,²⁴⁴⁾ 허디헌²⁴⁵⁾ 중,
 양이수견미복면 초의불침부불선²⁴⁶⁾
 다 떨어진 올치²⁴⁷⁾ 송낙²⁴⁸⁾ 이리 총총²⁴⁹⁾, 저리도 총총,
 형쫘으로 구멍 막어 노닥노닥²⁵⁰⁾ 지은 장삼,²⁵¹⁾
 울미²⁵²⁾ 염주²⁵³⁾ 목에 걸고, 단주²⁵⁴⁾ 팔에 걸고,
 소상반죽²⁵⁵⁾ 열두 마디 용두²⁵⁶⁾ 새긴 육환장²⁵⁷⁾ 쇠고리 길게 달어,
 처절철 철철 철철철 내려와서,
 사람이 말 물으면 허리 굽히고
 ‘나무아미타불²⁵⁸⁾ 관세음보살.’²⁵⁹⁾
 중이라 허는 것은 속가²⁶⁰⁾에 가도 염불, 절에 들어도 염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집 저 집 다 지내고 홍보 문전을 당도하야, 꾸벅꾸벅 절을 하며,
 “동냥 조금 주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댁에 동냥 왔소!”

15. (도승이 집터를 잡아줌) 도승이 사정을 듣더니, 집터 하나를 잡아주고 사라진다.

[아니래] 홍보가 나가며, “누구를 찾으시오?”
 “예. 시주²⁶¹⁾나 해주시라고 왔습니다.”
 “저희 집을 둘러보십시오. 서 발²⁶²⁾ 장대를 휘둘러도 거칠 것이 없사 오니,
 다른 댁으로 가셨다가 후일에 잘 살 때 오시면 후히 대접하오리다.”
 “주시고 안 주시기는 주인의 처분이오나,

He is old and wears shabby clothes.
 He looks as if he had been secluded from the mundane world.
 His old hat is densely sewed here and there with the inner skin
 of a vine.
 His long coat is patched up in many places.
 He wears beads on his neck and arm.
 A dragon head is engraved on his bamboo cane of 12 joints with
 six iron rings.
 The rings make sounds, as he comes down a mountain.
 If someone speaks to him, he bends himself.
 'merciful Buddha and Goddess of Mercy, please save us.'
 A monk is supposed to chant a prayer in an ordinary house or
 in a temple.
 'merciful Buddha and Goddess of Mercy, please save us.'
 He visits houses and bows in front of Heungbo's house.
 "Please give me some food.
 Merciful Buddha and Goddess of Mercy, please save us.
 I am here to beg for some food!"

**15. (The Monk Picks a House Site.) Hearing the story,
 the monk picks a lucky house site for Heungbo
 and disappears.**

[Aniri] Heungbo comes out. "Who are you looking for?"
 "I'm here to beg for some food."
 "As you see, I have nothing in my house.
 Please go to another house and come later. Then, I'll give you
 a lot of food."
 "It's up to you to give me something or not."

소승이 밖에서 잠깐 듣자오니, 안에서 생사가 미판이오니²⁶³⁾ 무슨
곡절²⁶⁴⁾이시옵니까?”

“대사님이 들으셨다니 어찌 기만하오리까?

자식들은 많고, 먹을 것은 없어, 우리 양주²⁶⁵⁾ 죽음을 다뵈우는 길이
있소.”

“가공헌²⁶⁶⁾ 일이옵니다.

소승이 잘 알지는 못하오나, 맥의 티를 둘러보니 바닥이 습하여 사람
살 곳이 못되어, 집티를 하나 잡아 드릴 터이니,
소승의 뒤를 따르옵소서.”

홍보가 도승²⁶⁷⁾의 뒤를 따라가는데,

[진양조] “감계룡²⁶⁸⁾

간좌곤향²⁶⁹⁾

담랑득 거문파요,²⁷⁰⁾ 문필봉²⁷¹⁾ 창고사²⁷²⁾가 좌우로 높았으니,

저 터에다 집을 짓고 안빈하고²⁷³⁾ 살으시면,

가세²⁷⁴⁾가 속발²⁷⁵⁾허고,

재물이 점중,²⁷⁶⁾

용지불갈²⁷⁷⁾ 취지무궁²⁷⁸⁾ 기룬²⁷⁹⁾ 일이 없으리다.”

전환입주 자리²⁸⁰⁾에다가 막대기 넷을 꽂아놓더니마는 인홀불견²⁸¹⁾
간 곳이 없네.

그 때여 홍보가 도승인 줄을 짐작허고,

있던 집을 헐어다가 그 자리에다 의지를 허고,

동지 선달 추운 날에 못 먹고, 텅텅 빈 배에 아니 죽고 살아갈 제,
정월 이월 삼월이 돌아오니 산수경개²⁸²⁾ 장히²⁸³⁾ 좋다.

But I heard something outside. Death seems to be near. What's going on?"

"Since you heard us, we will not deceive you.

Having many children and no food, we were crying and decided to die together."

"How poor you are!

I'm not knowledgeable, but your house site is wet and is a bad place to live. Let me recommend a site to you.

Please follow me."

Heungbo follows the monk.

[Jinyangjo] "This is on a mountain range stretching from the north or northeast.

It lies with the northeast in the back and the southwest in the front.

Mountain peaks producing a literary artist and a billionaire are high on the left and right.

Build a house here and live a disinterested life.

You'll become rich quickly.

You'll get more and more property.

You'll lack nothing no matter how much you spend."

The monk sticks trees into the spots for pillars and suddenly disappears.

Heungbo now thinks that the monk has divine power.

He tears down his hut and builds a house there.

Heungbo's hungry family manages to survive the cold winter.

Spring comes, and the scenic view is quite great.

16. (제비가 찾아옴) 봄이 돌아오니 제비 한 쌍이 날아들어 새끼를 친다.

[중중모리] 유색황금눈²⁸⁴) 꾀꼬리는 노래하고,
이화백설향²⁸⁵)에 나비는 앉어 춤춘다.
유작유소²⁸⁶) 짓는 채주 내 집보다 단단.
산량자치²⁸⁷) 우는 소리 너는 때를 얻었도다.
집은 방장²⁸⁸) 새려는데 소리개²⁸⁹)는 비우비우,²⁹⁰)
먹을 것은 없는데 솔적다²⁹¹) 응,
포곡²⁹²)은 운다마는 논이 있어야 농사 짓지.
대승²⁹³)아, 나지를 말어라, 누에가 있어야 뽕을 따지.
살해²⁹⁴)를 아니허니 미륵님²⁹⁵)이 도와주네.
삼월 동풍 방초시,²⁹⁶) 삼월 동풍 방춘화시²⁹⁷) 비금주수²⁹⁸)가 즐길 제,
강남서 나온 제비 홍보 문전을 당도허니,
홍보가 보고 좋아라고,
“어, 뻘다, 내 제비야! 어디 갔다가 이제 온가?
소박한 세상 인심 부귀를 추세하야²⁹⁹) 찾아올 리가 만무터니,³⁰⁰)
네가 나를 찾아오니 어찌 이리 아니 반가운가.”
저 제비 거동을 보라.
남남지성³⁰¹) 하례³⁰²)하고, 좋은 진흙을 물어다가 처마 끝에다가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새끼를 까, 밥 물어다 기를 제,

16. (Swallows come.) Spring comes, and a couple of swallows fly in and give birth to babies.

[Jungjungmori] A nightingale sings a song on a beautiful golden bud of a willow.

The white pear flower gives off fragrance, and a butterfly dances.

A magpie builds a strong nest.

A hen pheasant chirps at the right moment.

A house leaks, and a hawk cries that it rains.

An owl cries that there will be a good harvest.

A cuckoo sings, but there is no rice paddy.

Don't fly, bird! No silkworm, no mulberry leaves.

Buddha helps those who don't take life.

When a spring wind blows on a sunny day, all animals are happy.

A couple of swallows from Jiangnan(江南) arrive at Heungbo's house.

Heungbo is delighted.

"Hey my swallow! Why are you late?

Nobody visits me because they pursue wealth and power.

But you came to me, so I am glad."

Behold the swallows.

After greeting him, they build a nest with good mud at the end of the eaves.

They lay eggs, hatch them, raise the young, bringing food to them.

17. (제비 강남으로 날아감) 흥보가 날기 공부를 하다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구해주시니, 그 제비가 죽지 않고
살아 강남으로 날아간다.

[아니리] 무지한 대맹이³⁰³)가 제비 새끼 다 잡아먹고 다만 한 마리
남은 것이,

뚝 떨어져 다리가 작신³⁰⁴) 부러졌는디,

어지신 흥보 씨가 당사실³⁰⁵)로 감아주었더니,

제비 다리 차차 나아 그렁저렁³⁰⁶) 구월구일이 돌아오니,

흥보 제비가 만 리 강남³⁰⁷)을 들어가는디,

[진양조] 떴다, 보아라.

저 제비가 둥그렇게, 둥그렇게 구만창공³⁰⁸) 높이 떠, 거중으로³⁰⁹) 둥
둥, 펄펄 날거늘,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고,

“반갑구나, 내 제비야.

부러진 다리를 원망을 말어라.

고적의³¹⁰) 손빈³¹¹)이는 양족³¹²)이 없었어도 제나라³¹³) 가서 대장이
되고,

초한적³¹⁴) 한신³¹⁵)이도 일지수가 없었어도,³¹⁶) 대장단³¹⁷) 높은 집에
일군개경³¹⁸)을 허였으니,

멀고먼 만 리 강남을 부디 평안히 잘 가거라.”

제비 저도 섭섭히여라고,

빨랫줄에 가 늘어앉더니마는, 무엇이라고 답변을 허드니

구만 장천³¹⁹) 높이 떠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만 리 강남을 들어
간다.

17. (The Swallow Flies to Jiangnan(江南)) A young swallow falls down while learning to fly and breaks its legs. Heungbo saves it. The swallow survives and flies to Jiangnan(江南).

[Aniri] A ruthless snake eats all the young swallows except one. The swallow falls down, breaking its legs. Virtuous, Heungbo ties the broken legs with silk thread. The legs get healed little by little, and somehow fall comes. The swallow flies to Jiangnan(江南) thousands of miles away.

[Jinyangjo] Behold the swallow!

It hovers around high in the sky, flying with strength and vigor. Heungbo is delighted.

“I feel good, swallow!

Don’t mind your broken legs.

Sun Pin(孫嬪) didn’t have legs, but he became the commander-in-chief of Qi(齊) Country.

Han Xin(韓信) lost his arm, but he became the commander-in-chief to the surprise of the troops.

Have a safe trip to Jiangnan(江南) far from here.”

The swallow also feels sad.

It sits down on a clothesline and responds to Heungbo.

It then rises up high and flies here and there, and heads to Jiangnan(江南).

18. (제비 점고) 강남으로 날아간 제비는 제비 왕에게 홍보가 구해준 사연을 알리고, 은혜를 갚고 싶다고 말한다.

[아니리] 수 일만에 강남을 들어가니

제비 장수 분부하시되,

“각처로 나갔던 제비 점고³²⁰)를 할 터이니 다들 들라 해라.

중원³²¹)에 나갔던 명매기!³²²)

노국³²³) 나갔던 분홍제비!

만 리 조선³²⁴) 나갔던 홍보 제비!”

[중중모리] 홍보 제비가 들어온다. 박홍보 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아지가져서³²⁵) 전동거리고³²⁶) 들어오며, “예!”

제비 장수 호령한다.

“너는 왜 다리가 봉통아지가졌느냐?”

홍보 제비 여짜오되, “만 리 조선에 태어나서,

소조³²⁷) 운수 불길하여 툇 떨어져 다리 부러져 거의 죽게 되었는데,

어지신 홍보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 은혜를 갚소리까?³²⁸)

제발 덕분에 살려주요.”

19. (제비 노정기) 다음해 봄이 되자, 제비가 보은포 박씨를 입에 물고 홍보 집을 찾아온다.

[아니리] “네 부모가 내 장령³²⁹)을 어기더니 그런 변³³⁰)을 당하였구나.

18. (Inspection of Swallows) The swallow flies to Jiangnan(江南). He tells the king of the birds that Heungbo saved him, and that he wants to return his favor.

[Aniri] The swallow reaches Jiangnan(江南) within several days. A swallow general gives an order.

“We will have an inspection on swallows who have been to different places.

The swift who has been to Zhongyuan(中原)!

The pink swallow who has been to Lu(魯) Country!

Heungbo’s swallow who has been to Korea thousands of miles away!”

[Jungjungmori] Heungbo’s swallow comes in. He comes in.

The broken legs are swollen. He hobbles in. “Yes.”

The swallow general yells at him.

“Why are your legs swollen?”

Heungbo’s swallow answers, “I was born in Korea thousands of miles away.

I was unlucky to fall down, breaking my legs and putting myself near death.

Heungbo, a virtuous man, saved me.

How can I return his favor?

Please let me know.”

19. (The Swallow’s Journey) When spring comes, the swallow holds a favor-returning gourd seed in its mouth and returns to Heungbo’s house.

[Aniri] “Disobeying my order, your parents got into the disaster.

명춘³³¹)에 나갈 때는 내가 출행날³³²)을 잡아줄 것이고,
 흥보씨 은혜를 갚자면 보은포³³³) 박씨를 갖다 드리라.”
 그렇저렇 삼동³³⁴)이 지나고, 춘삼월³³⁵)이 방장커늘,³³⁶)
 흥보 제비가 보은포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만 리 조선을 나오는데,
 경치가 장히³³⁷) 좋던 것이었다.

[중중모리] 흑운³³⁸) 박차고,³³⁹) 백운 무릅쓰고,
 거중에³⁴⁰) 둥둥 높이 떠 두루 사면 살펴보니,
 서촉 지척이요,³⁴¹)
 동해 창망허구나.³⁴²)
 축융봉³⁴³)을 올라가니
 주작³⁴⁴)이 넘놀고,³⁴⁵)
 황우토 · 황우탄³⁴⁶) · 오작교³⁴⁷) 바라보니,
 오초동남³⁴⁸) 가는 배는 북을 둥둥 울리며,
 어기야 어야 저어가니 원포귀범³⁴⁹)이 이 아니냐?
 수벽사명양안태요,
 불승청원각비래라.³⁵⁰)
 날아가는 저 기러기 갈대를 입에다 물고,
 일점 이점에³⁵¹) 떨어지니, 평사낙안³⁵²)이 이 아니냐?
 백구³⁵³) · 백로³⁵⁴) 짝을 지어 창과상에³⁵⁵) 왕래허니,
 석양천³⁵⁶)이 거기노라.
 회안봉³⁵⁷)을 넘어 황룡묘³⁵⁸) 들어가니,
 이십오현탄야월³⁵⁹)에
 반죽 가지³⁶⁰) 쉬어 앉어

When you go out next spring, I'll pick a lucky date for you.
If you want to return his favor, take him the favor-returning
gourd seed."

Somehow, winter passes, and spring comes.

Heungbo's swallow holds the favor-returning gourd seed in its
mouth and flies to Korea thousands of miles away.

The scenic view is great.

[Jungjungmori] The swallow passes through black and white
clouds.

It flies high in the sky and looks around.

Xishu(西蜀) is close.

The East Sea is far away.

The swallow flies over Zhurong(祝融) Mountain Peak.

A red phoenix flies up and down there.

The swallow gazes at the Wuque(烏鵲) Bridge on Huangniu(黃
牛) River.

A boat heads to Wu(吳) Country in the east and Chu(楚) Country
in the south, while making a drumming sound.

Yo-heave-ho. It is a fishing boat coming back to port from the
sea.

Moss is on both banks near blue water and shiny sand.

A bird overpowered by grief comes back.

Wild geese fly, holding reeds in their mouths.

They fly down on a flat sandy plain one by one.

Sea gulls and white herons move back and forth in pairs on the
surface of blue water.

The evening sky is above them.

The swallow passes over Huiyan(回雁) Mountain Peak and
reaches Huangling(皇陵) Tomb.

A lute with 25 strings is played.

The swallow takes a rest on a bamboo branch.

두견성³⁶¹)을 화답하고,³⁶²⁾
 봉황대³⁶³) 올라가니
 봉기대봉강자류라.³⁶⁴⁾
 황학루³⁶⁵)를 올라가니
 황학일거불부반이요,
 백운천재공유유라.³⁶⁶⁾
 금릉³⁶⁷)을 지내어
 주사촌³⁶⁸) 들어가니
 공숙창외도리개라.³⁶⁹⁾
 낙매화를 툇 차 무연에 펄렁 떨어치고,³⁷⁰⁾
 이수³⁷¹)를 지내어 계명산³⁷²)을 올라가니
 장자방³⁷³) 간 곳 없고,
 남병산³⁷⁴) 올라가니 칠성단³⁷⁵)이 빈 터라.
 연조지간³⁷⁶)을 지내어,
 장성³⁷⁷)을 지내어, 갈석산³⁷⁸)을 넘어
 연경³⁷⁹)을 들어서서, 황극전³⁸⁰)에 올라 앉어 만호 장안³⁸¹)을 구경하고,
 정양문³⁸²) 내달라, 상달문³⁸³) 지내
 동관³⁸⁴)을 들어가니, 사·미륵³⁸⁵)이 백이로다.³⁸⁶⁾
 요동 칠백 리를 순식간에 지내어,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다다라
 영고탑,³⁸⁷ 통군정³⁸⁸)을 올라앉아,
 안남산·밖남산³⁸⁹)·석벽강³⁹⁰)·용천강³⁹¹)·좌우령³⁹²)을 일른 넘어,
 부산 파발³⁹³)·환마고개³⁹⁴)·강동다리³⁹⁵) 건너,

He responds favorably to a cuckoo's song.
 The swallow flies up to Fenghuang(鳳凰) Tower.
 The phoenix left the tower below which a river flows.
 The swallow flies up to Huanghe(黃鶴) Tower.
 The yellow crane has gone and never comes back.
 Only white clouds have been flowing for a thousand years.
 The swallow passes over Nanjing(南京).
 It arrives at a village with a tavern.
 Peach flowers and plum flowers bloomed, exciting a sexual desire.
 The swallow snatches a falling ume flower and throws it to a dancing party.
 The swallow flies over Ershui(二水) River and Jiming(鷄鳴) Mountain.
 Zhang Zifang(張子房) is gone.
 The swallow flies up to Nanping(南屏) Mountain where there is an altar site.
 The swallow flies in between Yan(燕) Country and Qi(齊) Country.
 The swallow passes over the Great Wall and Jieshi(碣石) Mountain.
 It flies to the emperor's office and sees the numerous houses in the city.
 It leaves the city vigorously through the big gates.
 It arrives at a region where there are many Buddhist statues.
 The swallow passes through the wide region, Liaodong(遼東), in a breath.
 The swallow crosses Amnok River and arrives at Euiju City.
 It goes over a tower and a pavilion there.
 The swallow flies over mountains, rivers, and passes.
 The swallow moves over a busy pass and a bridge.

평양의 연광정³⁹⁶ · 부벽루³⁹⁷를 구경하고,
 대동강 장림³⁹⁸을 지나,
 송도³⁹⁹를 들어가
 만월대⁴⁰⁰ · 관덕정⁴⁰¹ · 박연폭포⁴⁰²를 구경하고,
 임진강을 시각에⁴⁰³ 건너,
 삼각산⁴⁰⁴에 올라 앉어
 지세⁴⁰⁵를 살펴보니,
 천룡의⁴⁰⁶ 대원맥⁴⁰⁷이 중령⁴⁰⁸으로 흘러쳐,⁴⁰⁹
 금화⁴¹⁰ 금성⁴¹¹이 분계하고,⁴¹² 춘당⁴¹³ · 영춘⁴¹⁴을 휘돌아 도
 봉⁴¹⁵ · 망월대⁴¹⁶ 솟아 있고, 삼각산⁴¹⁷이 생겼구나.
 문물이 빈빈하고,⁴¹⁸
 풍속은 희희허여⁴¹⁹
 만만세지금탕⁴²⁰이라.
 경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운봉인데,
 운봉 함양 두 얼품에⁴²¹ 홍보가 사는지라.
 저 제비 거동⁴²²을 바라.
 박씨를 입에다 가로 물고,
 남대문 밖 썩 내달라
 칠패⁴²³ · 팔패⁴²⁴ · 배다리⁴²⁵ 지내, 애고개⁴²⁶를 얼른 넘어
 동작강⁴²⁷ 월강,⁴²⁸ 승방⁴²⁹을 지냈구나.
 남남태령⁴³⁰ 고개 넘어,
 두 쪽지⁴³¹ 옆에 끼고
 수루루루 펄펄 홍보 문전을 당도,

The swallow watches Yeongwang Pavilion and Bubyek Tower
in Pyeongyang City.

The swallow now passes by a place called Jangnim by Daedong
River.

The swallow now enters Gaeseong.

It sees Manweol Pavilion, Gwandeok Pavilion, Seonjuk Bridge,
and Bagyeon Waterfall.

The swallow now crosses Imjin River quickly.

The swallow flies up to Bukan Mountain.

It investigates the geographical features.

The central energy that produces lucky sites flows through half
of the mountain range.

It splits into two courses, getting around a pavilion and a gate,
and producing high mountains.

Things are shiny.

Social customs are good.

This place is a strong fortress.

Hamyang is in Gyeongsang Province.

Unbong is in Jeolla Province.

Heungbo lives in a region where the two places come in contact
with each other.

Behold the swallow!

It holds a gourd seed in its mouth.

It flies through South Gate in Seoul.

It quickly goes over streets, stations, bridges, and passes in
Seoul.

It crosses a branch of the Han River and passes by a Buddhist
temple.

It goes over a pass near Seoul.

It opens its wings wide.

It flies vigorously, arriving at the front of Heungbo's house.

당상 당하 비거비래⁴³²⁾
 편편히⁴³³⁾ 노난⁴³⁴⁾ 것은
 무얼 같다고⁴³⁵⁾ 이르랴?
 북해 흑룡이 여의주⁴³⁶⁾를 물고 채운간⁴³⁷⁾으로 넘는 듯,⁴³⁸⁾
 단산⁴³⁹⁾ 봉황이 죽실⁴⁴⁰⁾을 물고 오동 속으로 넘노는 듯,
 집으로 펄펄 날아들어,
 들보⁴⁴¹⁾ 우에 올라 앉어
 제비말로 지지 운다.
 “지지주지
 거지연지
 낙지각지
 함지배오.”⁴⁴²⁾ 빼드드드드드.”⁴⁴³⁾
 홍보가 보고 좋아라고,
 “반갑구나, 내 제비야.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나?”
 찬찬히 살펴보니,
 오색 당사⁴⁴⁴⁾로 감은 혼적 아리롱아리롱허니,⁴⁴⁵⁾ 어찌 이리 아니 반
 가운가.
 저 제비 거동을 봐라.
 박씨를 입에다 가로 물고, 홍보 양주⁴⁴⁶⁾ 앉은 앞에다 떼뜨리고,⁴⁴⁷⁾
 거중⁴⁴⁸⁾에 둥실 높이 떠 백운간⁴⁴⁹⁾으로 날아간다.

The swallow moves up and down the eaves.
 It seems to have fun.
 How can it be described?
 It looks as if a black dragon of a northern sea flies up and down
 in the colorful clouds with a divine pearl in its mouth.
 It looks like a phoenix of Danshan(丹山) Mountain of red sand
 flying to and from a paulownia tree with a bamboo seed in its
 mouth.
 The swallow flies into the house.
 It sits on a crossbeam.
 It says something.
 "Do you remember me, master?
 I came back!
 I fell down and broke my legs.
 I have brought a gourd seed."
 Heungbo is delighted.
 "My swallow! It's been so long since I've seen you."
 Heungbo takes a hard look at the swallow.
 He is glad to see the mottled traces of the colorful silk thread.
 Behold the swallow.
 It holds the seed in the right angle with its mouth and drops
 it by Heungbo and his wife.
 It flies away high in between white clouds.

20. (자장가) 추석이 다가와도 먹을 것이 없어 보채는 아들을 보고 흥보 아내는 자장가를 부른다.

[아니리] 흥보가 박씨를 주워 들고 보니, ‘보은’⁴⁵⁰⁾이라는 글씨가 씌어 있겠다.

흥보가 좋아라고, “아마도 제비가 우리 은혜를 갚을 양으로 이 박씨를 물어온 것 같소. 우리 이 박씨 심세.”

동편 처마 밑에 심어노니,

박이 차차 자라 큼지막하게 한 서너 덩어리가 열렸겠다.

그렇저렇 팔월 추석이 돌아와,

다른 집에서는 떡방아를 찧는다, 술을 거른다,⁴⁵¹⁾ 전⁴⁵²⁾을 지진다 하고 ‘피피’ 코 난간⁴⁵³⁾을 무너내는다,⁴⁵⁴⁾

흥보네 집만 냉랭허구나.⁴⁵⁵⁾

자식들은 배가 고파 밥 달라고 울고,

흥보 막내아들은 젓 달라고 우니,

젓인들 나올 리가 있겠느냐?

흥보 마누라가 자장가를 부른다,

[중중모리]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천태산⁴⁵⁶⁾ 노고할미⁴⁵⁷⁾ 졸듯이 우리 애기 잘도 자네.

상산사호⁴⁵⁸⁾ 네 노인이 바둑을 두다가 잠을 자고,

우리 애기 엽둥이⁴⁵⁹⁾는 울음을 울다 잠을 자네.

자장개야,⁴⁶⁰⁾ 자장개야, 우리 애기 잘도 자네.”

20. (Lullaby) Thanksgiving Day comes. Having no food, Heungbo's wife sings a lullaby to her son crying for food.

[Aniri] Heungbo picks up the seed which reads 'returning favor.'
Heungbo is delighted, "Perhaps, this swallow brought this gourd seed to return our favor. Let's plant it."
He plants it below the eaves in the east.
The seed grows fast little by little. Three large gourds develop.
Thanksgiving Day is around the corner.
The villagers are busy, making rice cake and wine. They fry food, giving off strong smell.
But Heungbo's family is cold. Hungry winds blow on them.
The hungry children cry for food.
The youngest son cries for milk.
Milk does not come out from her breasts.
She sings a lullaby.

[Jungjungmori] "Hushaby. Our baby sleeps well.
Our baby sleeps like an old goddess sleeps on Tiantai(天台) Mountain.
The four ancient officials sleep while playing stone checkers on Shang(商) Mountain.
My cute baby cries and sleeps.
Hushaby. My baby sleeps well."

21. (가난타령) 홍보 아들 하나가 동네 아이들에게 송편을 얻어 먹으려다가 수모를 당하고 들어오니, 홍보 아내 가 탄식하며 가난타령을 부른다.

[아니레] 그 때 마침 홍보 아들 한 놈이 유혈⁴⁶¹이 낭자하여 들어오는데,
“아이고, 어머니. 나 송편 세 개만 하여 주오.”

“이 녀석아, 하필이면 왜 송편을 세 개만 해달라고 허느냐?”

“동네로 놀러갔다 아이들이 송편을 먹기에 내가 좀 달랬더니,
못놈⁴⁶²들이 늘어서며,

저희들 가랑이 속으로 들어가면 송편을 준다가에,
송편 얻어먹을 욕심으로,”

[중모레] “엎저⁴⁶³ 기어나갈 적에,

한 놈이 떨어져 앞에 와 붙고,

그 뒤에 놈 떨어져 앞에 와 붙고,

다음 다음 놈 떨어져 앞에 와 붙고,

한정없이⁴⁶⁴ 기어가다 보니,

무릎이 모다⁴⁶⁵ 헤어지고,⁴⁶⁶

유혈⁴⁶⁷이 낭자하였기로⁴⁶⁸ 욕설을 좀 허였더니,

송편은 고사하고 뺨만 죽게 맞았으니,

송편 세 개만 허여주면, 한 개는 입에 물고, 두 개는 양손에 갈라 쥐고
조롱하여 가면서 먹을라요, 엄니.”⁴⁶⁹

[아니레] “아이고, 이 녀석아. 무엇하러 나갔다가 그런 변⁴⁷⁰을 당했느냐?
원수 놈의 가난이야!”

홍보 마누라가 자탄⁴⁷¹을 허는디,

[진양조]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 설은⁴⁷² 가난이야.

복이라 허는 것은 삼신제왕⁴⁷³이 마련을 했나?

21. (Poverty Song) Heungbo's son comes back home
after being insulted by the children of the village
to whom he asked for a rice cake. Heungbo's wife
laments and sings the poverty song.

[Aniri] Just then, Heungbo's son comes back home bleeding.

"Mom, please make me three rice cakes."

"You rascal. Why do you want three rice cakes?"

"I went to the village to play. The children were eating rice cakes, and I asked for some.

Several of them stood in a row.

They told me if I crawl between their legs, they will give a rice cake.

I wanted to eat a rice cake."

[Jungmori] "I kneeled down and crawled forward.

A boy at the end moved to the front of the line.

The next one moves to the front.

The next one moves to the front too.

I crawled forward endlessly.

The knees of my pants wore out.

I shed blood and cursed at them.

Besides not giving me any rice cake, they slapped me hard on the cheek.

If you make three rice cakes, I will have one on my mouth and two on my hands, and eat them, flaunting them to the children.

[Aniri] "You rascal. Why did you go out and get into the trouble?

Poverty is my enemy."

Heungbo's wife laments over her fate.

[Jinyangjo] "Poverty! Poverty! Evil poverty!

Does the god of birth determine our fate?

북두칠성님이 쫓자리⁴⁷⁴)에 떨어칠 제⁴⁷⁵) 명⁴⁷⁶)과 수복⁴⁷⁷)을 마련을
했나?

이 때는 어느 땐고?

팔월 명절이 돌아왔ندی,

다른 동네 사람들은 올기⁴⁷⁸) 잡어서⁴⁷⁹) 햅쌀밥을 짓고,

동산에 가 알밤을 주워, 풋콩⁴⁸⁰)을 까고,

송편을 허여, 어린 것들을 곱게곱게 입히어 선산⁴⁸¹) 성묘를 가라는
디,⁴⁸²)

우리네 팔자는 박복허제.⁴⁸³)

한가위 명절에도 조상 차례를 못 올리니,

이런 팔자가 어디 가서 또 있느냐?

내가 차라리 자결을 허여 이런 꼴을 안 볼라네.”

22. (첫째 박) 흥보 내외가 첫째 박을 타면서 밥이 나오기를 빈다.

이리 한참 설리 올 적에, 그때 마침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우지 마오.

마누라가 이리 설리 올면, 내 집 흥만 더 나니, 울지 마오.

좋은 수⁴⁸⁴)가 있소.

거 제비가 갖다 준 박씨 심어논 것이 큼지막하게 한 서너 덩어리가
열린 모양이니,

그 박 한 통 따다가, 박숙⁴⁸⁵) 지저가지고,

‘이건 밥이다, 떡이다, 술이다, 고기다’ 폭만 대고⁴⁸⁶) 먹으면 될 것
아닌가?”

흥보 마누라 허는 말이, “영감 말씀만 들으면, 노상⁴⁸⁷) 풍년입디다그려.

Does the Big Dipper determine our length of life and fortune
when we were born?
What time of the year is it now?
It is Thanksgiving Day.
The villagers cook newly harvested rice.
They pick up chestnuts in the near mountain and shell beans.
They make rice cakes, put new clothes on their children, and
visit their ancestors' tombs.
But our fate is bad.
We can't even perform the ritual for our ancestors on
Thanksgiving Day.
Whose fate can be worse than ours?
I would rather kill myself and stop seeing this misery."

22. (First Gourd) Heungbo and his wife saw the first gourd, hoping that rice comes out of it.

[Aniri] When Heungbo's wife laments, Heungbo comes in.
"Honey, don't cry.
If you cry that sadly, the reputation of this family will go down,
so don't cry.
I've got an idea.
We planted the gourd seed from the swallow. We appear to
have three large gourds.
Let's pick up one of them and cook the inside flesh.
Wouldn't it be great to act as if we were eating rice, rice cake,
wine, and meat?"
Heungbo's wife speaks, "Your words always make me feel as
if we are rich.

그러나 그거밖에 없으니, 그렇게 합시다.

애들아, 박 따오니라.”

홍보 내외간에 박을 한 통 따다 놓고 자식들과 박을 한번 쳐보는데,

[진양조] “시리리리령⁴⁸⁸ 실건⁴⁸⁹ 톱질이야. 에여루, 당겨주소.”

“이 박을 어서 타서 박속일랑은 끓여먹고, 마가질랑은⁴⁹⁰ 부잣집에다 팔어다가 목숨 보명⁴⁹¹을 허여보세.

에여루 당겨주소. 여보게, 마누라.” “예.”

“톱소리⁴⁹²를 맞아주소.”⁴⁹³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⁴⁹⁴ 헛들 배가 고파서 못 맞겼소.”

“배가 그리 고프거들랑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운차게 당겨 주소.”

“실근 시리령 당겨 주소.”

“이 박을 타거들랑은, 아무 것도 나오지를 말고서 밥 한 통만 나오니라. 평생에 밥이 포한⁴⁹⁵이로구나.”

“에여루 당겨 주소. 시리리리리리리리 시리령 실건 시리령 실건 시리령 실근, 당기어라, 톱질이야.”

[자진모래]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시리령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식씩
콧 각.

23. (쌀과 돈이 많이 나옴) 박 속에서 나온 껌작 두 개에서 쌀과 돈이 많이 나온다.

[아니리] 박이 짹 벌어지니,

박속은 어느 도적놈이 썩 굶어가고, 난데없는 껌 두 짹이 나왔었다.

Let's do it because we've got nothing but the gourds.
Children, go bring a gourd."
The whole family brings a gourd and saws it together.
[Jinyangjo] "Here goes the saw. Pull the saw."
"Let's saw this gourd open, eat the flesh inside, sell the shell
to the rich, and preserve our life."
Pull the saw. Hello, sweetheart." "Yes."
"Respond to me in the saw song."
"I want to, but I am too hungry to do it."
"If you are that hungry, tighten your belt, and pull the saw hard."
"Pull the saw."
"I hope when this gourd is opened, nothing other than a bucket
of rice comes out.
Rice is my lifetime wish."
"Pull the saw. Yo-ho! Pull and push the saw. Move the saw back
and forth. Here goes the saw."

[Jajinmori] The saw makes sounds, moving back and forth.

23. (A Lot of Rice and Money Come Out.) Two boxes come out from the gourd, and a lot of rice and money from them.

[Aniri] The gourd is sawn open.
A thief must have stolen the flesh inside. There are only two
boxes to their surprise.

홍보가 허는 말이, “허허, 나간 놈의 집구석⁴⁹⁶⁾ 되었구나.
 그런데 박속 굶어간 놈보다 바가지 감쪽같이 붙여논 놈, 그놈이 재주가 제일이네그러.
 박속 굶어가고 염치가 없으니 남의 조상께⁴⁹⁷⁾ 넣어놔구나.
 이거 관가⁴⁹⁸⁾에서 알면 큰 일 나니 어서 내뺌⁴⁹⁹⁾ 버려라.”
 홍보 마누라 허는 말이, “아이고, 여보, 영감. 우리는 죄 안 짓고 살었는데,
 설마헌들 무슨 일이 있겠소? 한번 열어봅시다, 영감.”
 “그래 볼까?”
 홍보는 자기 마누라 말이라면 다 듣는다 그 말이여.
 홍보가 한 께를 들고 보니,
 ‘홍보 씨 개탁’⁵⁰⁰⁾이라 쓰였거늘,
 “웁지. 이것 날보고 열어보라는 말이로고나.”
 홍보가 한 께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복허고,
 또 한 께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뜩허여노니,
 홍보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이 많이 나왔네그러.
 가만 있거라. 여기 뭐라 글씨가 씌어 있다.
 ‘이 쌀은 평생을 두고 꺼내 먹어도 줄지⁵⁰¹⁾ 않는 취지무궁지미⁵⁰²⁾라.
 이 돈은 평생을 두고 꺼내서 써도 줄지 않는 용지불갈지전⁵⁰³⁾이라.’
 여보, 마누라. 평생을 꺼내 먹고, 꺼내 써도 줄지 않는 쌀이고, 돈이라오.
 도대체 이거 얼마나 나오나 우리 한번 떼어 부어봅시다.”
 “그림시다.”

Heungbo says, "Gee, this family is running out of its luck.
The guy who created this gourd is more skillful than the guy
who stole the flesh inside.
Feeling ashamed, the guy who stole the flesh inside put an
ancestral box here.
We will get into trouble with the government. Throw it away."
Heungbo's wife responds, "Honey, we didn't commit any crime.
How can we get into trouble? Let's open it, darling."
"OK. Let's open it."
Heungbo always complies with his wife's words.
Heungbo takes a look at the box.
There are words: 'Heungbo, open it.'
"I see. This tells me to open it."
Heungbo opens a box carefully.
It is full of rice.
He opens the other box.
It is filled with money.
Huengbo is delighted.
"Sweetheart, we got a lot of money and rice.
Let me see. There are some words here.
'this rice will not run out for your whole life.
This money will not run out for your whole life.'
Darling, the rice and money will not run out for the rest of our
lives.
Let's pour them out and see if how much comes out."
"Let's do it."

홍보 내외간에 돈과 쌀을 떨어 부어보는데,
 [휘모리] 홍보가 좋아라고, 홍보가 좋아라고, 홍보가 좋아라고,
 홍보가 좋아라고 께 두 짹을 떨어 붓고 나면 도로 하나 가뜩,
 떨어 붓고 나면 도로 하나 가뜩,
 떨어 붓고 나면 도로 하나 가뜩,
 떨어 붓고 나면 도로 하나 가뜩,
 떨어 붓고 나면 도로 하나 가뜩.
 툇툇 텅고 돌아섰다 열고 보면 돈과 쌀이 하나 가뜩,
 툇툇 떨어 돌아섰다 열고 보면, 쌀과 돈이 하나 가뜩.
 “위매,⁵⁰⁴⁾ 좋아 죽겠네! 일년 삼백육십 일을 그저 꾸역꾸역 나오너라.”

24. (홍보 식구들 밥먹기) 홍보 식구들이 제각기 밥을 해서 먹는데, 홍보는 밥을 뭉쳐서 던졌다가 받아서 먹는다.

[아니리] 어찌 많이 부어 났든지, 돈이 일만 구만 냥⁵⁰⁵⁾이요, 쌀이 일
 만 구만 석⁵⁰⁶⁾이었다.
 홍보 허는 말이, “여보, 마누라. 쌀을 보니 배가 딱 고평서 더 못 타겠네.
 우리 밥 좀 해먹고 타세.”
 “그럼시다.”
 금방 밥을 할 수는 없고,
 동네 가마솥은 있는 대로 썩 빌렸다 허고, 밥을 고두밥⁵⁰⁷⁾ 찌듯이
 딱 찌가지고,
 “너희 자식놈들은 밥 져오니라.” “예이!”

Heungbo and his wife pour money and rice out.
[Hwimori] Heungbo is delighted, pleased and ecstatic.
Excited, Heungbo shakes the things out of the boxes and finds them refilled.
He shakes the things out and finds the boxes refilled.
He shakes the things out and finds the boxes refilled.
He shakes the things out and finds the boxes refilled.
He shakes the things out, turns around, and finds the boxes refilled with money and rice.
He shakes the things out, turns around, and finds the boxes refilled with money and rice.
“Hurrah! This is fantastic! Continue to come out for 365 days a year!”

24. (Heungbo’s Family Eat Rice.) Heungbo’s family cook and eat rice. Heungbo throws a rice ball in the air, catches it with his mouth, and eats it.

[Aniri] Heungbo poured out so much rice and money that they are piled up like a mountain.
Heungbo speaks, “Honey, Seeing rice, I feel hungry, and I can’t saw a gourd anymore.
Let’s cook rice and eat it.”
“That’s great.”
They can’t cook rice right away.
They borrow all the iron pots from the village, and cook the rice with a steam.
“Children, bring the rice over here.” “Yes!”

아, 이놈들이 지게 발대⁵⁰⁸)를 짊어지고 가서 밥을 저오ندی,
 “앗, 뜨거라” ‘쿵.’ “앗, 뜨거라” ‘쿵쿵.’
 흥보 마당에다 어찌 밥을 많이 부어놔던지, 밥 무더기가 삼 간⁵⁰⁹)
 집채만큼 올라왔었다.
 흥보 허는 말이, “너 이놈들 애비 영⁵¹⁰) 전에 앞에 밥 한 티끌⁵¹¹)이라
 도 모르게 먹는 놈 있으면 밥으로 목을 베리라. 밥 먹어라!”
 “예이!” 하더니, 하 이놈들이 간 곳이 없네그러.
 흥보가 어디 갔는가하고 딱 보니,
 아, 이놈들이 밥 속으로 총알 박히듯 탁탁 박혀가지고,
 영락없이 까만 콩밥이 되어 버렸지.
 흥보 마누라 허는 말이, “아이고, 여보, 영감. 우리도 저놈들맹키로⁵¹²)
 밥 좀 먹읍시다.”
 “안 되야.⁵¹³) 이 사람아, 나는 밥을 먹어도 저놈들맹이로⁵¹⁴) 조백없
 이⁵¹⁵)는 안 먹을라는구말.”
 “영감은 어떻게 자실랴요?”⁵¹⁶)
 “나는 어떻게 밥을 먹는가 하면은,
 피를 훨씬 벗고⁵¹⁷) 밥 속에 편안히 드러누워서 밥을 갇아먹으면서
 나올라네.”
 “영감이 그러시면, 나도 피벗고⁵¹⁸) 들어갈랴요.”
 “안 되야, 이사람아. 어디 아녀자⁵¹⁹)가 피를 벗고 들어온당가?”⁵²⁰)
 “내가 밥을 먹는다고 치면은 꼭 이렇게 먹을라네.
 어떻게 먹는고 하면은,
 밥을 술방울 뭉치듯 딱딱⁵²¹) 뭉쳐가지고,
 탁⁵²²) 던져서 내려오는 놈을 두꺼비 파리 채듯⁵²³) 탁탁⁵²⁴) 낚아 채
 는디,
 밥 먹는데 무슨 장단⁵²⁵)이 있으리오마는,

The children carry the rice with an A-frame carrier on their back.
“It’s so hot!” ‘Bang.’ “It’s so hot!” ‘Bang, bang.’

Heungbo put so much rice on the yard that it is piled up like a house.

Heungbo says, “You rascals! If you eat even one grain of rice before I tell you to do so, I will cut your head off with the rice. Now, eat the rice!”

After saying “Yes!”, the children disappear.

Heungbo thinks about where they have gone.

The children got into the pile of rice like bullets.

Overall, the pile looks like rice with black beans.

Heungbo’s wife says, “Oh, honey! Let’s eat rice like the children.”

“No way, sweetheart! I don’t want to eat rice without dignity and decorum like the children.”

“How would you like to eat?”

“This is how I will eat rice.

I will take my clothes off, lie down in the pile of rice, and eat rice out of the pile.”

“If so, let me take my clothes off and get in too.”

“No, you can’t. How can a woman take off her clothes to get in?”

“If I eat rice, I would eat it like this.

Let me tell you how I would eat rice.

I will make a hard ball out of rice.

I will throw it in the air and snatch it falling down as if a toad does a fly.

There doesn’t have to be a rhythm in eating rice.

내가 원래 한량⁵²⁶⁾이라 밥을 먹드래도 장단을 휘모리⁵²⁷⁾로 다르르르 하니⁵²⁸⁾ 몰아놓고⁵²⁹⁾ 밥을 먹었다.”

[휘모리] 홍보가 좋아라고, 홍보가 좋아라고, 홍보가 좋아라고, 홍보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똑딱 똑딱 똑딱 똑딱 밥을 뭉쳐가지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홍보가 어찌 밥을 많이 먹었던지 배꼽은 요강⁵³⁰⁾ 뚜껑 나오듯이 툭 불거져나오고,⁵³¹⁾ 배는 남산 덩어리만큼 올라오고,

밥 먹는 속도가 점점 늦어지는구나.⁵³²⁾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But I was originally an idler. When I eat rice, I eat a lot and fast in accordance with Hwimori rhythm.”

[Hwimori] Heungbo is delighted, pleased, happy, and excited!

He eats rice happily.

He makes a ball out of rice.

He throws and catches it with his mouth.

He throws and catches it with his mouth.

He throws and catches it with his mouth.

He throws and catches it with his mouth.

He throws and catches it with his mouth.

He throws and catches it with his mouth.

He throws and catches it with his mouth.

Heungbo eats so much rice that his navel sticks out and his belly swells up like a mountain.

His eating speed gradually goes down.

He throws and catches it with his mouth.

He throws and catches it with his mouth.

He throws and catches it with his mouth.

He throws and catches it with his mouth.

He throws and catches it with his mouth.

25. (밥 먹고 즐거워함) 흥보 식구들이 밥을 배불리 먹고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른다.

[아니리] 꼴까닥⁵³³)하고 쓰러지니,

흥보 마누라가 정신없이 같이 밥을 먹다가 보니까, 아 밥보다 더 소중한 영감이 죽었거든.

“아이고, 야들아!⁵³⁴) 느그 아버지 진지 자시다 돌아가셨다! 이를 어쩔 거나!”

하고는, 흥보 배를 사정없이 눌러버리니,

흥보가 그동안 쌀밥 구경을 못허다가,

쌀밥 본 김에⁵³⁵) 너무 사정없이 많이 먹어는 것이, 전부 설사변⁵³⁶)으로 변해가지고,

똥줄기가 ‘쭉’하고 운봉 연재⁵³⁷)를 넘어가니,

갓 쓴 영감들이 지나가다가 딱 보더니,

“워매,⁵³⁸) 야들아. 저기 황룡 올라가신다.

절들 허라, 잉! 아이고, 황룡님, 잘 오르십시오.”

허허허, 이 대목에 이리했다고 허나,

이는 성악가의 잠시 재담⁵³⁹)이지 그럴 리가 있사오리까.

“느그들,⁵⁴⁰) 밥 많이 먹었냐?”

“예, 많이 먹었소.”

[자진모리] “밥 먹은개⁵⁴¹) 좋다. 밥을 먹으니 좋아.

수인씨 교인화식⁵⁴²)은 날로 두고 생겼나?

박 먹은개 좋다. 밥을 먹은개 좋아.

만승천자⁵⁴³)라도 식이위대⁵⁴⁴)라 하였으니,

밥이 아니면 살 수 있나?

밥 먹은개 좋다. 밥을 먹은개 좋아. 밥 먹은개 좋다.”

25. (They are Full and Joyous.) Heungbo's family is full and dances joyously.

[Aniri] Heungbo collapses as if he died.

Heungbo's wife eats rice frantically and sees her husband, a valuable person for her, die.

"Children, your father appears to have died while eating. What should we do?"

She presses Heungbo's belly hard.

Heungbo hasn't seen rice for a long time.

After seeing rice, he ate it so much that he suffered from diarrhea.

A stream of his dung flies fast through a mountain pass.

Old people wearing cylindrical hats are passing by and watch the stream.

"Look, folks. A yellow dragon flies up over there.

Bow to it. Yellow dragon, take care."

This part of Heungboga is said to be like the above.

But that must be the humorous story made up by the singer.

"Did you help yourself with the rice?"

"Yes, we ate a lot."

[Jajinmori] "I feel good because I ate rice.

I thanks Sui Ren Shi(燧人氏) who taught people how to use fire to cook.

I feel good because I ate rice.

Eating is important even for an emperor having one thousand chariots.

How can we live without eating?

I feel good because I ate rice. I am happy."

26. (홍보 내외 좋아함) 홍보 내외가 좋아라고 춤을 추며 노래한다.

[아니리] 밥은 이따가 이렇게 해서 먹기로 하고,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 우리 춤이나 한 번 추고 놀세.”

“아이고, 여보, 영감. 내가 춤을 출 줄을 알아야 하지요?”

“정 그리 춤을 못추면, 내 뒷꼴무니만 따라다니면서 보릿대춤⁵⁴⁵)이라도 한번 추어보소.”

홍보 내외간에 흥에 겨워 한번 놀아보는데,

[중중모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고.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얼씨고나 절씨고.

우리 집이 가난키로⁵⁴⁶) 삼남⁵⁴⁷)에 유명터니,

오늘날 부자가 되니, 석승⁵⁴⁸)이를 부러히며⁵⁴⁹), 도주공⁵⁵⁰)을 내가 부러히랴.

여보아라, 큰자식⁵⁵¹)아!”

“예.”

“건넌말⁵⁵²) 건너가서, 너희 큰아버지 모셔오니라.

경사를 보아도 형제 알고 볼란다. 얼씨구 절씨구.”

홍보 마누라도 좋아라고, 춤을 추면서 나온다.

“얼씨고나, 나도 좋네. 얼씨구 절씨구.

어화, 세상 여러분네들, 이 내 말씀을 들어보소.

언충신 행동경,⁵⁵³) 마음씨만 잘 먹으면 이런 경사를 보시리다.

부자라고 자세⁵⁵⁴)를 말고, 가난헌 사람 팔시⁵⁵⁵) 마소.

나도 오늘날 제비 덕에 쌀과 돈이 많이 생겼으니, 기민 구제⁵⁵⁶)를 헐라네.

불쌍하고 가련헌 사람들아, 우리 집을 찾아오소.

26. (Heungbo and His Wife are Excited.) Heungbo and his wife dance joyously.

[Aniri] Heungbo and his wife decide to cook and eat rice later.
“Honey, since we have so much rice, let’s have fun, dancing together.”

“Darling, I don’t know how to dance.”

“If you can’t dance, just follow me around while moving your body in any way you want.”

Heungbo and his wife dance together joyously.

[Jungjungmori] “Hurrah! Whoopee! Yippee! Hurray! Oh boy! Yippee! Hurray! Oh boy!

We were famous for being poor in Korea.

But we became rich today, not even envying the ancient billionaires: Shi Chong(石崇) and Tao Zhu Gong(陶朱公).

Hey my eldest son!”

“Yes.”

“Go over to the neighboring village, and ask your uncle to come over here.

A good thing is to be shared between brothers. Hurrah!”

Heungbo’s wife is also joyous, dancing with her husband.

“Hurrah! Whoopee! Yippee!

Hey, folks in the world! Listen to me!

If you say trustworthy words and do respectable deeds, you will acquire a fortune like us.

If you are rich, don’t act arrogant, and don’t look down on the poor.

Since I got a lot of rice and money thanks to a swallow, I’ll help the poor.

Poor people in the world! Come to my house!

오음육률⁵⁵⁷⁾ 국악 소리 태평성대를 자랑하고, 고구려 신라가 언제든가?
창작된 악기를 골라보세. 가야금 지등당,⁵⁵⁸⁾ 거문고 시리등,⁵⁵⁹⁾ 젓
대⁵⁶⁰⁾ 소리는 떼띠리디.⁵⁶¹⁾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좋을씨구.”

27. (둘째 박) 흥보가 둘째 박을 타다가, 금은보화가 나오면 형님을 주겠다고 하며 마누라에게 형제 윤리를 이른다.

[아니리] “여보 마누라. 이 박통 속에서는 쌀과 돈이 많이 나왔는데,
다음 박에서는 무엇 무엇이 나오는가 우리 한번 켜봅시다.”

“그릅시다.”

흥보 내외간에 흥에 겨워 박을 한번 또 켜보는데,

[중중모리]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어여루 당겨 주소.”

“이 박을 타거들랑, 아무 것도 나오지를 말고 은금보화⁵⁶²⁾만 나오너라.

은금보화 나오면은 우리 형님전에⁵⁶³⁾ 바칠란다.”

“시리령 실근 시리령 실근 실근 실근, 당겨 주소.”

흥보 마누라가 이 말 듣고,

[중모리] “나는, 나는, 나는 안 탈라요.

형제간이라 잊으셨소?

엄동설한⁵⁶⁴⁾ 추운 날에 수다헌⁵⁶⁵⁾ 어린 것들과 구박당히던⁵⁶⁶⁾ 일을
생각하면, 꼭 속에⁵⁶⁷⁾ 들어도 못 잊겠소.

나는, 나는 안 탈라요.”

흥보 듣고 화를 내며,

“타지 말어라. 타지 말어! 안 탈라면 말려무나.

We'll play music for you and announce that it is the peaceful time now.

We'll play musical instruments: Korean twelve-stringed zither, Korean six-stringed zither, and Korean large transverse flute. Hurrah! Whoopee! Yippee! Hurray! Oh boy!"

27. (Second Gourd) While sawing the second gourd, Heungbo says that if jewels come out, he'll give them to his brother, and talks about ethical rules between brothers.

[Aniri] "Sweetheart, this much rice and money came out of this gourd.

Let's saw the next gourd open and see what will come out of it."

"That's a good idea."

Heungbo and his wife begins to saw another gourd excitedly.

[Jungjungmori] "Pull and push the saw."

"I hope if this gourd is sawn open, nothing comes out except jewels!

If they come out, I'll give them to my brother.

"Move the saw back and forth."

Heungbo's wife responds.

[Jungmori] "I don't want to saw a gourd anymore.

Did you forget because he is your brother?

Even in my coffin, I can't forget how harshly your brother treated us, including our children, on the cold day in winter.

I don't want to saw a gourd anymore."

Heungbo gets angry.

"Don't saw it. Don't saw it. I don't care.

답답헌 사람아, 내 말 듣소.

여자라 하는 것은 상하 의복이로다.

의복은 떨어지면, 다시 지으면 또 의복이요,

형제는 일신수족⁵⁶⁸)이로다.

수족 한 번 끊어지면 둘 다 병신이 되느니라.

우리 형님은 한 번 아차 돌아가시면, 조선 팔도 너룬⁵⁶⁹) 곳에 얼굴인
들 어디서 보겠느냐?”

홍보 마누라 이 말 듣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내가 잘못 했소.

다시는 그런 말 안 허리다.”⁵⁷⁰)

“암,⁵⁷¹) 그래야지.”

[중중모리]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어여루 당겨 주소.

강상에⁵⁷²) 둥둥 뜬 배 수천 석을 실었은들, 내 박 한 통을 당할쏜
가?⁵⁷³)

시리령 실근 시리령 실근 실근 실근 당겨 주소.”

[휘모리] 실근 실근 시리령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시리령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싹싹 콧 각.

28. (비단 타령) 둘째 박 속에서 온갖 비단이 나온다.

[아니리] 박이 짹 벌어져노니,

이 박통 속에서는 온갖 비단이 나왔것다.

홍보 마누라 좋아라고, “아이고, 여보, 영감. 비단이 이렇게 많이 나왔
는디,

이 비단 색깔이 무엇무엇인지 한 번 세어나 볼까요?”

“그건 마누라 소관⁵⁷⁴)이니, 마누라 맘대로 하계.”

How narrow-minded! Listen to me.
A woman is like a piece of clothing.
If clothes get old, we can mend them.
But a brother is like a hand or a leg.
If it is cut off, both are crippled.
If my brother dies, we won't be able to see him again in this country."
Heungbo's wife responds, "Oh, sweetheart! I was wrong.
I won't say such a thing again."
"Good! That's what I like to hear."

[Jungjungmori] "Move the saw back and forth."
My gourd exceeds a ship with tons of rice on a river.
Pull and push the saw. Move the saw back and forth."

[Hwimori] Pull and push the saw. Move the saw back and forth.
Pull and push the saw. Move the saw back and forth.

28. (Silk Song) All sorts of silk come out of the second gourd.

[Aniri] The gourd opens.
All sorts of silk come out of it.
Heungbo's wife is excited. "Dearling, a lot of silk came out of the gourd.
Let's check them out one by one."
"It is up to you. Suit yourself, honey."

홍보 마누라 비단을 들고, 뭘 색깔, 무엇무엇이라고 한번 불러보는데,

[중중모리] 붉은단⁵⁷⁵ 푸른단⁵⁷⁶ 일광단⁵⁷⁷ 월광단,⁵⁷⁸

서왕모 요지연⁵⁷⁹의 진상허던⁵⁸⁰ 천도문,⁵⁸¹

백설이 만공산헌데 절개 있는 송죽단,⁵⁸²

등태산소천하에⁵⁸³ 공부자⁵⁸⁴의 대단,⁵⁸⁵

남양 초당⁵⁸⁶ 경 좋은 데⁵⁸⁷ 만고재사⁵⁸⁸의 와룡단,⁵⁸⁹

오랑캐⁵⁹⁰를 내몰아서 태평건곤⁵⁹¹의 대원단,⁵⁹²

쓰기 좋은 양태문,⁵⁹³

인정 있는 은조사⁵⁹⁴며,

부귀다복⁵⁹⁵ 복수단,⁵⁹⁶

삼순구식⁵⁹⁷의 궁초⁵⁹⁸로다.

길주 명천 가는 베,⁵⁹⁹

강진 해남 극상세목⁶⁰⁰, 한산 모시,⁶⁰¹ 임천 모시,⁶⁰²

생초,⁶⁰³ 삼팔,⁶⁰⁴ 외사,⁶⁰⁵ 갑사⁶⁰⁶까지 그저 꾸역꾸역 나와,

홍보 집이 거부⁶⁰⁷가 되네.

29. (홍보 내외 옷차림) 홍보 내외가 비단으로 옷을 차려 입는다.

[아니리] “아이고 여보 마누라. 자네가 내 집에 시집온 이후로 비단옷이란 걸 못 해 입어 봤으니,

Heungbo's wife picks up many kinds of silk and speaks about their colors and names.

[Jungjungmor] These are red silk, blue silk, sunlight silk, and moonlight silk.

The divine peach silk is associated with a story that a divine peach is offered to an ancient goddess, Xi Wang Mu(西王母), during the party by a divine pond, Yaochi(瑶池).

A pine and bamboo silk is related to a snowfall piled up on an empty mountain.

Confucius wearing silk said on Tai(泰) Mountain that the world looks small.

Kong Ming(孔明) silk was worn by the hero, Kong Ming(孔明), who lived in a thatched house in a beautiful scenery.

Hope silk concerns the fact that the world became peaceful after barbarians were driven out.

A fine silk is used for making a hat string.

A kind of thin Chinese silk is related to compassion.

Good luck and life silk is associated with wealth and many sons.

A poverty silk reminds us of hunger.

A beautiful hemp cloth is woven with fine threads.

A fine cotton cloth, a fine hemp cloth from Hansan and Imcheon,

and silk of other sorts come out endlessly.

Heugbo becomes rich.

29. (Heungbo and His Wife Dress Up.) Heungbo and his wife dress in silk.

[Aniri] "Honey, ever since you married me, you never have had silk clothes.

비단 본 김에 내려감고,⁶⁰⁸ 치감고,⁶⁰⁹ 옷이나 한 벌씩 해 입고 타세.”

“그럼시다.”

“자네는 뭘 색깔이 좋은가?”

“나는 놀놀한⁶¹⁰ 송화색⁶¹¹ 삼회장⁶¹² 저고리가 좋습니다.

영감은 무슨 색깔이 좋으시오?”

“아, 나는 거 제비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시켜먼 먹공단⁶¹³ 좋데.”

“그러면 그대로 말씀을 허시면, 그대로 꾸며 드릴게요.”

“그럼 그래 볼까?”

홍보가 한번 치장⁶¹⁴을 하여 보는데,

[중중모리] “먹공단 갓끈, 먹공단 망건⁶¹⁵, 먹공단 두루마기, 먹공단
조끼, 먹공단 저고리, 먹공단 바지, 먹공단 버선, 먹공단 허리띠,
먹공단으로 부채를 들고, 어쩐가, 날 보소.”

[아니레] “영감은 영락없이 까마귀 같소그려.”

[중중모리] 홍보 마누라도 꾸미는데,

“송화색 땡기,⁶¹⁶ 송화색 저고리, 송화색 치마, 송화색 단의,⁶¹⁷ 송화
색 속곳,⁶¹⁸ 송화색 속속곳,⁶¹⁹ 송화색 버선, 송화색 허리띠,⁶²⁰
송화색으로 수건을 들고,
어떻소, 날 보시오.”

29-1. (셋째 박) 홍보 내외가 노래를 부르면서 셋째 박을 탄다.

[아니레] “그리고 보니 마누라는 하릴없는 꾀꼬리 같소그려.

우리가 한통 남은 박을 마저 탑시다.”

[중모리] 또 한 통을 들여놓고,

Since we got silk, let's saw another gourd after making clothes, rolling ourselves up and down with silk."

"That's a great idea."

"What is your favorite color?"

"Honey, I like yellow coats most.

What color do you like, darling?"

"Thinking about the swallow's favor, I like black silk."

"I will make clothes for you as you just described."

"That's great."

Heungbo's wife makes clothes.

[Jungjungmori] "If I am dressed up with a black hair-fastener, a black hat-string, a black overcoat, a black vest, a black jacket, black trousers, and black socks, and a black belt, and if I hold a black towel, how will I look?"

[Aniri] "You clearly look like a crow in those clothes."

[Jungjungmori] Heungbo's wife makes clothes.

"If I am dressed up with a yellow ponytail ribbon, a yellow jacket, a yellow skirt, yellow underwear, yellow undergarments, yellow panties, yellow socks, and a yellow belt, and if I holds a yellow handkerchief, how will I look?"

29—1. (Third Gourd) Heungbo and his wife saw the third gourd while singing a song.

[Aniri] "You will definitely look like a nightingale in those clothes.

Let's open the last gourd."

[Jungmori] They bring a gourd.

“시리렁 실건, 툇질이야. 시리렁 시리렁 실건 실건 실건, 툇질이야.”
 “이 박 속에서 나오는 보화⁶²¹)는 김제 만경 오백리들⁶²²)을 억십만
 금⁶²³)을 주고 사자.
 충청도 소사들⁶²⁴)을 수만금⁶²⁵)을 주고 사면, 부익부⁶²⁶)가 되겠구나.”
 “시리렁 실건, 툇질이야!”

29-2. (홍보 집 짓기) 박통 속에서 사람들이 나와 홍보 집을 지었는데, 대궐 같은 집에 온갖 살림살이가 가득하다.

[휘모리] 시리렁 시리렁 시리렁 시리렁 박이 반쫂 벌어진다.
 박통 속에서 사람 소리가 수군수군.
 대짜구⁶²⁷) 든 놈, 소짜구⁶²⁸) 든 놈, 끝⁶²⁹) 든 놈, 호미 든 놈, 몽치⁶³⁰)
 든 놈, 가래⁶³¹) 든 놈이 그저 꾸역 꾸역 꾸역 나와 홍보 집을 짓는다,
 [진양조] 동산하⁶³²) 너룬⁶³³) 터에 임좌병향⁶³⁴) 터를 다져,
 팔괘를 놓아⁶³⁵) 엔담⁶³⁶)을 치고,
 주란화각⁶³⁷)을 좌우로 세웠난디,
 안팎 중문,⁶³⁸) 소소리대문,⁶³⁹)
 풍경⁶⁴⁰) 소리가 더욱 좋다.
 천석지기⁶⁴¹) 발문서와, 만석지기⁶⁴²) 논문서와, 백 가구 종문서⁶⁴³)가
 가득 담뱃 들어 있고,
 안방 치레 볼작시면, 큰 병풍, 작은 병풍, 새별⁶⁴⁴)같은 순금 대야가
 다문⁶⁴⁵) 다뱃⁶⁴⁶) 놓였으니,
 홍보가 보고 좋아한다.

“Pull and push the saw. Move the saw back and forth.”
“If jewels come out of this gourd, I’ll buy wide rice paddies in
Gimje with a lot of money.
If I buy fields in northern Chungcheong Province, I’ll become
richer.”
“Here goes the saw.”

**29—2. (Building a House) People come out of the gourd
and build a palace-like house for Heungbo. It is
filled with all kinds of household goods.**

[Hwimori] The saw moves back and forth. The gourd is
half-open.

Whispering sounds are heard from the gourd.

People holding large tools to slice wood, small tools to slice
wood, chisels, hoes, clubs, and shovels come out continuously
and build a house for Heungbo.

[Jinyangjo] They make a wide house site below the east
mountain facing the south.

They set up a wall aroun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nature.

They build beautiful towers on the left and right.

There is a gate after the high main gate.

A bell makes a beautiful sound on the eaves.

The house is full of field deeds, rice paddy deeds, and servant
deeds.

In the main house, there are a large folding screen, a small
folding screen, and golden basins looking like Venus.

Heungbo is pleased to see them.

[중모리] 사랑⁽⁶⁴⁷⁾ 치레⁽⁶⁴⁸⁾ 볼작시면,⁽⁶⁴⁹⁾ 각장 장관,⁽⁶⁵⁰⁾ 소란반자,⁽⁶⁵¹⁾
 완자 밀창의⁽⁶⁵²⁾ 화류문갑,⁽⁶⁵³⁾ 대모책상⁽⁶⁵⁴⁾까지 놓여 있고, 시전,⁽⁶⁵⁵⁾
 서전,⁽⁶⁵⁶⁾ 주역⁽⁶⁵⁷⁾이며, 이백,⁽⁶⁵⁸⁾ 두시,⁽⁶⁵⁹⁾ 통사략⁽⁶⁶⁰⁾을 좌우로 좌르
 르르르 벌였난디,
 박홍보가 보고 좋아라고,
 “얼씨구나 좋네. 지화자 줌도⁽⁶⁶¹⁾ 좋네.
 이리령성 저리령성⁽⁶⁶²⁾ 흐트리진 근심일랑,⁽⁶⁶³⁾
 মানুষ과 같이 모여 앉아서 거드령거리고⁽⁶⁶⁴⁾ 놀아보자.”

30. (놀보가 홍보 집을 찾아옴) 놀보가 찾아와서 도적질을 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냐고 따진다.

[아니리] “자네는 영락없이 벼들 속의 찌꼬리 같네그려.”
 홍보 집은 기쁨이 가득차 또 셋째 박을 타니,
 석수⁽⁶⁶⁵⁾ 목수⁽⁶⁶⁶⁾ 와수⁽⁶⁶⁷⁾ 토수,⁽⁶⁶⁸⁾들이 나와 홍보 집을 대궐같이 지
 어주고, 원갓 선약⁽⁶⁶⁹⁾도 주고 해서 부자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때여 놀보란 놈은 홍보 부자 되었다는 말을 듣고 배를 앓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이놈 재산을 좀 털어먹을꼬⁽⁶⁷⁰⁾ 하고, 이놈이 심술이 나
 서 홍보 집을 찾아오는디,
 [자진모리] 놀보가 건너간다. 놀보가 건너간다.
 심술 많고, 욕심 많고, 악독한 저 놀보가 홍보 집을 찾아간다.
 대문 안을 들여다보니 듣던 말과 같은지라,
 “네 이놈 홍보놈아!”
 [아니리] 홍보가 깜짝 놀래 나오며,

[Jungmori] In the auxiliary house, there are a thick laminated floor paper, a mosaic ceiling, a sliding door, a stationery chest, a desk made of turtle shell, classical books, ancient poetry books, and an ancient history book.

Heungbo is happy to see them.

“Hurrah! Hurray! Whoopee! Yippee!

Let me forget troubling things.

Let me have fun together with my wife!”

30. (Nolbo’s Visit to Heungbo’s House) Nolbo visits Heungbo’s house and accuses Heungbo of becoming rich as a result of stealing.

[Aniri] “You will definitely look like a nightingale in a willow.” Joyful, Heungbo’s family sees the third gourd.

Craftsmen of stone, wood, tile, and earth come out, build a house like a palace, and give Heungbo all sorts of efficacious medicines, making him rich.

Meanwhile, Nolbo is jealous of Heungbo, having heard that his brother has become rich.

With the intention to deprive Heungbo of his property, he visits Heungbo’s house, his perversity kicking in.

[Jajinmori] Nolbo comes over to Heungbo’s house.

Perverse, greedy, and cruel, Nolbo comes over to Heungbo’s house. He looks inside through the gate, and sees things he had only heard about.

“Heungbo, you villain!”

[Aniri] Heungbo, surprised, comes out.

“아이고 형님. 나오셨습니까?”

제가 모시러 가야 허는데, 이렇게 손수 왕림⁽⁶⁷¹⁾을 하시니 이런 황송
혈 데가 없습디다요, 형님.”

“황송이고 누령송이고, 내가 나 찾아올 놈이나, 이놈아?”

그런디 홍보야. 너 지금 우냐?

우는 눈에다 뜨거운 재를 탁 안 털어버려, 이놈!

그런디, 이 집이 뉘 집이냐?”

“예, 제 집이올시다.”

“뭘? 네 집이여? 네 집 같으면 들어가자.”

놀보란 놈이 딱 들어가 앉더니,

“너 이놈, 그리 앉거라. 내가 너한테 혈 말이 있어 왔어, 이놈아.”

“형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자진모리] “내가 근래⁽⁶⁷²⁾ 듣자하니, 네놈이 밤낮으로 자식들을 앞세
우고 도적질을 잘 한다니,

네 이 말이 분명하지?”

“아이고, 형님. 선영⁽⁶⁷³⁾에서 시키잖고, 배우잖은⁽⁶⁷⁴⁾ 도적질을 어찌
한단 말씀이요?”

“야, 이놈아, 듣기 싫다. 그러면 이 가산⁽⁶⁷⁵⁾과 이 재물이 일조일석⁽⁶⁷⁶⁾
에 다 어디서 났단 말이냐?

네놈을 잡으랴고 오위영문출사⁽⁶⁷⁷⁾들이 벌떼같이 나섰다니,

그 아니 딱한 일이냐?

사지지차⁽⁶⁷⁸⁾하였으니,

네놈은 잔말 말고 천기누설⁽⁶⁷⁹⁾할 것 없이,

세간⁽⁶⁸⁰⁾과 전답 문서이며, 돈궤, 곳간 쇠때⁽⁶⁸¹⁾까지 내게다 맡겨두고,
처자를 거느리고 멀리 도망가서,

십년만 한정⁽⁶⁸²⁾하고 잠자코 피신타가,

이곳이 무사타고 내가 기별⁽⁶⁸³⁾을 하게 되면, 그 때 돌아오도록 하여라.”

“Brother, welcome to my house.

I should have visited and invited you first. It’s a great honor to me that you visited my house, brother.”

“Stop the empty talk. I don’t believe you are the kind of person to invite me.

By the way, Heungbo, are you crying now?

I would spray a hot ash over your tearful eyes. You villain!

By the way, whose house is this?”

“This is my house.”

“What? Your house? If it is, let’s go in together.”

Noblo speaks after he gets in.

“You bastard. Sit there. I am here to tell you something. You scoundrel.”

“Brother, go ahead.”

[Jajinmori] “I heard you are stealing from others these days day and night with your children.

Is that true?”

“Brother, my ancestors didn’t order me to steal, and I didn’t learn how to steal. How can I steal?”

“You rat! That’s absurd. Then, how did you get all this property in a day?

Thousands of police officers are out there to arrest you.

How poor you are!

You cannot change the situation.

Don’t argue with me, and don’t have to tell me the world secret.

Give me all the utensils, rice paddies, farms, and keys to the coffers and warehouses.

Run far away with your wife and children.

Live there for ten years in silence.

When I send a message to you that you will be safe here, come back.”

31. (홍보 아내 문안) 홍보 아내가 나와 놀보에게 문안 인사를 한다.

[아니레] “십년 아니라 백년을 있다 온다해도, 네 세간에다 손톱만큼이라도 손을 대면, 내가 네 아들놈이다, 이놈아.”

“아이고, 형님. 그럴 리가 있사오리까? 제 말씀을 들어보시지요.”

[중모레] “형님. 그게 웬 말씀이요?”

형님 슬하 떠나온 후로 근근부지⁽⁶⁸⁴⁾로 지내웁는다,
하루는 제비 한 쌍 날아와 처마 끝에 집을 짓고,
알을 낳고, 새끼를 까, 밥 물어다 기를 적에,
무지한 대망이⁽⁶⁸⁵⁾가 와서 제비새끼를 잡아먹고,
다만 한 마리 남은 것이 툇 떨어져 다리 부러져 당사실⁽⁶⁸⁶⁾로 감아주었더니,

그 은공⁽⁶⁸⁷⁾을 갚으랴고 보은포⁽⁶⁸⁸⁾ 박씨를 물어온 걸,”

[아니레] “동편 처마 밑에 심었더니,

박이 일취월장하야,⁽⁶⁸⁹⁾ 박이 큼지막하게 서너 덩이가 열렸지요.

팔월 추석은 돌아와 먹을 것이 없어서,

박이라도 켜 먹을 양으로 박을 탔더니,

아, 이게 웬 일입니까?”

“뭘 일이 웬 일이여?”

“박통 속에서 쌀과 돈이 나오고요.”

놀보 눈깔이 휘둥그래지면서, “뭘 박통 속에서?”

“예, 금은보화가 나오고요.”

“박통 속에서?”

“석수, 목수, 와수, 토수들이 나와 저희 집을 이렇게 대궐같이 지어주고,

그래서 부자가 된 것이지,

도적질이란 말씀 당치도 않습니다요.”

31. (Heungbo's Wife Greets Nolbo.) Heungbo's wife comes out and says hello to Nolbo.

[Aniri] "Whether you come back in 10 years or 100 years, if I keep your property for myself, I will be your son. Bastard."

"Brother, how can that happen? Listen to me."

[Jungmori] "Brother, what are you talking about?"

We managed to live on ever since we left you.

One day, a couple of swallows came to our house and built a nest at the end of the eaves.

They laid eggs, hatched them, and brought food to their baby swallows.

A ruthless snake ate them all except one.

It fell down, breaking its legs. I wrapped its legs up with a silk thread.

In the following year, it came back with a gourd seed to return my favor.

[Aniri] "I planted the gourd seed below the eaves in the east. Gourds grew up fast and became large. I got three of them. Thanksgiving Day was around the corner.

I sawed a gourd to eat it.

Something unbelievable happened."

"What is that?"

"Rice and money came out of a gourd."

Nolbo's eyes open wide. "What? Out of a gourd?"

"Jewels also came out."

"Out of a gourd?"

"Craftsmen of stone, wood, tile, and earth came out and built this house like a palace.

So I became rich.

Stealing is out of the question."

놀보 놀래가지고, “아, 공개⁽⁶⁹⁰⁾ 제비 다리 하나를 작신⁽⁶⁹¹⁾ 분질러가지고⁽⁶⁹²⁾ 동여매준개⁽⁶⁹³⁾ 박씨를 물고 와 부자가 되었어?”

“아이고, 형님. 부지른⁽⁶⁹⁴⁾ 것이 아니라, 제절로 떨어져서 저절로 부러졌지요.”

“야, 이놈아. 저절로 안 떨어지고, 저절로 안 부러지면 어떡할 것이냐? 그냥 작신작신 부질러야지. 나 갈란다.”

“어이고, 형님. 어디를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야, 이놈아. 너는 제비 다리 하나 부질러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나는 한 열대여섯 마리만 분질르면⁽⁶⁹⁵⁾ 천하에 갑부가 안 되겠냐? 나 제비 다리 분질러 갈란다.”

“아니고, 형님. 이 엄동설한⁽⁶⁹⁶⁾에 제비가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 참, 겨울에는 제비가 없제.

명년 춘삼월만 돌아오니라.

동네에 있는 제비 다리는 몽땅 작신작신 부질러버릴 것인께.”

그때 마침 홍보 마누라가 나오는데,

놀보 행위를 생각하면 나을 리가 없지마는,

제 가군⁽⁶⁹⁷⁾ 홍보씨를 위하여 한번 나와 보는데,

[중중모리] 홍보 마누라가 나온다. 홍보 마누라가 나오는데,

전에는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리든 일을 생각하면,

지금이야 쌀이 없나, 돈이 없나, 인삼 녹용이 없나?

며느리들을 곱게 입히고,

홍보 마누라도 한산 세모시에다⁽⁶⁹⁸⁾ 당청엿물⁽⁶⁹⁹⁾을 포로소름이⁽⁷⁰⁰⁾

들여,

말⁽⁷⁰¹⁾은 넓게 달고, 주름은 잘게 잡어,

원치마⁽⁷⁰²⁾를 반만 걷고 아장거리고 나오더니, 시숙님전 문안헌다.

Nolbo is surprised. "So you broke a swallow's leg and wrapped it up. The swallow came back with a gourd seed, and you became rich."

"Brother, I didn't break the leg on purpose. It fell down and broke its legs."

"You fool! If a swallow doesn't fall down and doesn't break its legs, what should I do?

I should break its legs myself. Goodbye."

"Brother, where are you going?"

"You rat. You broke a swallow's legs and became this rich. If I break the legs of a dozen swallows, I will be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I am going to break swallows' legs."

"Brother, how can there be a swallow in this cold winter?"

"Oh, that's right. There is no swallow in winter.

I am looking forward to next spring.

I will break the legs of all the swallows in my village."

Just then, Heungbo's wife comes out.

Thinking about Nolbo's behavior, she didn't want to come out.

However, she comes out for her husband, Heungbo.

[Jungmori] Heungbo's wife comes out. She comes out.

In the past, she didn't have food or clothes. What a drastic change!

She now has rice, money, deer's antlers, and ginseng.

Her daughters-in-law wear luxurious clothes.

She also wears a fancy cloth from Hansan dyed blue.

The upper part of her skirt is wide. The pleat is short.

She picks up her skirt, toddles out, and says hello to Nolbo.

31-1. (음식상 차림) 흥보 마누라가 온갖 음식을 준비한다.

[아니리] 시숙께 인사를 드리니,

아, 이놈이 제수⁷⁰³)가 인사를 드리거든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야, 흥보야! 제수가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보니, 미꾸라지가 용 되었
구나.”

흥보 마누라 들은 체도 아니허고,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차리는데,

[자진모리] 음식을 차리는데,

안성 유기⁷⁰⁴) · 통영 칠판⁷⁰⁵) · 천은⁷⁰⁶) 수저 · 구리 저⁷⁰⁷) 집리 서
리⁷⁰⁸) 수 벌이듯⁷⁰⁹) 주루루루루 벌여놓고,

꽃 그렸다 오죽판⁷¹⁰) ·

대모 양각 당화기⁷¹¹) ·

얼기설기⁷¹²) 송편 ·

네 귀 번듯⁷¹³) 정절편⁷¹⁴) ·

주루루 엮어 산피떡⁷¹⁵)과,

평과⁷¹⁶) · 진청⁷¹⁷) · 생청⁷¹⁸) 놓고,

조락 산적⁷¹⁹) 옷김쳐,⁷²⁰)

양회⁷²¹) · 간 · 처넵⁷²²) · 콩팍 양편⁷²³)에다가 벌여놓고,

청단⁷²⁴) · 수단⁷²⁵) 잣배기며,⁷²⁶)

인삼채 · 도라지채 · 낙지 · 연포⁷²⁷) · 콩기름에,

갇은 양념 모아놓고,

산채⁷²⁸) · 고사리 · 수근⁷²⁹) · 미나리 · 녹두채 맛난 장국 주루루루루
들이붓고,⁷³⁰)

청동화로⁷³¹) 백탄숯⁷³²) 부채질 활활,

계란을 툇툇 깨어 옷딱지⁷³³)를 떼고 길게 늘이워라.⁷³⁴)

31-1. (Preparing Food) Heungbo's wife prepares many sorts of food.

[Aniri] Heungbo's wife bows to Nolbo.

Nolbo doesn't answer his sister-in-law's bow.

"Hey Heungbo. When your wife was kicked out of my house, she was a mudfish, but she is now a dragon."

Heungbo's wife ignores his word, goes in, and makes food.

[Jajinmori] Heungbo's wife makes food.

She lays out good brassware, a good meal table, silver spoons, and copper chopsticks in an orderly manner.

On the meal table there is a picture of a black bamboo tree and flowers.

A bamboo tree is engraved on the china.

Some rice cakes look like a half-moon.

Some rice cakes are four-sided.

Some red-bean rice cakes are tied together.

An apple, honey, unboiled honey,

roasted meat with an egg and vegetables,

a raw cow stomach, a liver, a sheep stomach, and a kidney are laid out on the left and right.

A mixture of honey and rice cake, a mixture of tea and rice cake, a mixture of pine-nuts and honey,

ginseng, platy codon, a small octopus, dried meat, bean oil, and all sorts of sources are prepared.

She puts wild greens, fernbrake, parsley, mung beans, and a soup into the bowls.

She fans the oak charcoal fire under a bronze fire pot.

She breaks an egg, takes the shell out, and puts the egg over other food.

꼬꼬 울었다 영계찜⁷³⁵⁾ · 오도독⁷³⁶⁾ 포도독⁷³⁷⁾ 메초리탕,⁷³⁸⁾
 손 뜨진디 쇠저⁷³⁹⁾ 말고 나무 저⁷⁴⁰⁾를 드려라.
 고기 한 점을 덩벽⁷⁴¹⁾ 집어 맛난 기름의 간장국에다 풍덩 들어
 처,⁷⁴²⁾ 피~.

[아니레] 과하주⁷⁴³⁾ 좋은 술을 화잔⁷⁴⁴⁾에 가득 부어,
 “옛소,⁷⁴⁵⁾ 시숙님. 박주오나⁷⁴⁶⁾ 약주 한 잔 드시지요.”
 이놈이 제수가 주는 술이거든 그대로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야, 홍보야! 너는 형제간이라 내 속⁷⁴⁷⁾을 잘 알지?
 나는 소대상⁷⁴⁸⁾ 가서도 권주가⁷⁴⁹⁾ 없이는 술 안 먹는다.
 네 각시 곱게 채려 입은 김에 권주가 한 마디 시켜라.”
 홍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

32. (홍보 아내 포악)⁷⁵⁰⁾ 권주가를 하란 말을 들은 홍보 아내가 놀보에게 포악한다.

[아니레] 아, 이려고 문안을 허면, 사람놈 같으면 제 머리를 쥐구녕에
 라도 쑥 집어넣어야 할 터인디,
 지 낫짝을 바짝 치켜 제수를 딱 쳐다보더니,
 “어메, 거 쫓겨나갈 때 보고, 지금 본개 미꾸라지가 용 되었다.
 때⁷⁵¹⁾를 훨씬 벗었네그려.”
 “형님, 약주나 한 잔 드시지요.”
 “오냐. 한 잔 따라라.
 그런데, 홍보야. 내가 남의 초상 마당에 가서도 권주가⁷⁵²⁾ 없이는 술
 을 안 먹는 거, 너도 잘 알지야?”

She boils a cackling young chicken and makes a crunchy quail soup.

Give me wooden chopsticks instead of iron ones because they get hot.

She grabs the meat, dips it into delicious oily soy source, and roasts it.

[Aniri] Heungbo's wife pours wine into a glass.

"Here you go, brother-in-law. Please drink this glass of wine."

Nolbo is supposed to just take the drink from his sister-in-law.

"Hey Heungbo! You know about me because I'm your brother. I don't drink wine without the drinking song even in a house in mourning.

Your wife is dressed up. Have her sing the drinking song."

Heungbo's wife heard him.

32. (Heungbo's Wife Expresses Her Anger.) Asked to sing the drinking song, Heungbo's wife loses her temper at Nolbo.

[Aniri] If Heungbo's wife bows to Nolbo, and if Nolbo is a good man, he should feel ashamed.

But he moves his head up and takes a hard look at her.

"I haven't seen her since she was kicked out of my house. A mudfish became a dragon.

She is polished up."

"Brother, drink a glass of wine."

"Good. Pour wine there.

By the way, Heungbo, you must know I don't drink wine without the drinking song even in a house in mourning."

“하옵시오마는, 여기서 누가 권주가를 험니까?”

“야, 이놈아, 권주가 험 놈이 따로 있느냐?

느그 마누라 곱게 꾸민 김에 권주가 한 꼭대기⁷⁵³⁾ 시켜, 이놈아.”

홍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마는,

[진양조] 홍보 마누라 기가 막혀,

“여보시오, 아주버니! 여보, 여보, 시숙님! 제수더러 권주가 허라는
법 고금천지⁷⁵⁴⁾ 어디서 보았소?

전곡자세⁷⁵⁵⁾를 그만하시오.

나도 이제는 쌀도 있고, 돈도 있고, 비단 옷도 많이 있소.

엄동설한⁷⁵⁶⁾ 치운⁷⁵⁷⁾ 날에 구박⁷⁵⁸⁾ 당허든 일 생각허면, 괘⁷⁵⁹⁾ 속에
들어도 나는 못 잊겠소.

보기 싫소, 어서 가시오.

안 갈라면 내가 먼저 들어갈라요.

보기 싫소, 어서 가시오!”

33. (화초장 타령) 놀보가 홍보에게 화초장을 얻어, 이름을 외우며 집으로 돌아간다.

[아니리] 놀보 기가 맥혀 “내가 이 밥, 이 술 안 먹으면 될 것 아니여?”

놀보가 밥상을 발로 차니,

홍보 마누라 허는 말이, “밥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디 발로
차시오?

나랏님⁷⁶⁰⁾이 자시면⁷⁶¹⁾ 수라⁷⁶²⁾요,

양반이 자시면 진지⁷⁶³⁾요,

제상⁷⁶⁴⁾에 오르면 젃메⁷⁶⁵⁾온데,

“But who can sing the drinking song here?”

“You fool. Who else would sing the drinking song?”

Since your wife is dressed up, have her sing the song. You scoundrel.”

Heungbo’s wife has been hearing him.

[Jinyangjo] Heungbo’s wife is struck dumb.

“Hey brother-in-law! How can you ask your sister-in-law to sing the drinking song?”

Don’t act arrogant on reason you are rich.

I now have a lot of rice, money, and silk.

I will never forget even after I’m in a coffin that you treated our family harshly on a cold winter day.

I hate you. Get out of here!

If you don’t get out, I will leave.”

I hate you. Get out right away!”

33. (Flower Wardrobe Song) Nolbo gets Flower Wardrobe from Heungbo. He recites the name of the wardrobe as he goes back home.

[Aniri] Nolbo is dumfounded. “I suddenly don’t feel like eating this food and drinking this wine.”

Nolbo kicks away the food table.

Heugbo’s wife responds, “Rice is a precious thing. How can you kick it away?”

A king eats rice.

A high class person eats rice.

Rice is offered during the annual ritual.

이렇게 소중한 밥을 어찌 발로 차시오?

관가⁷⁶⁶)에서 알면 손도⁷⁶⁷)가 나고,

동네에서 알면 볼기⁷⁶⁸)가 싸겠소.

보기 싫소, 어서 가시오!”

아, 이려고 들어가니, 놀보란 놈 기가 맥혀,

“너 이놈, 홍보야! 내가 오면 이렇게 하라고 내가 시켰지야, 이놈!”

“아이고, 형님. 그럴 리가 있사오리껴?⁷⁶⁹) 여 여 여 여자라 그래요.”

“오, 그래? 그래서 여자는 백 살을 먹어도 태조가리⁷⁷⁰)에 수염이 안 나는 법이여.

그건 그렇고, 저 뒤에 얼룩덜룩하고 벌그런⁷⁷¹) 장롱 저거 이름이 무엇이나?”

“예, 저게 바로 박통 속에서 나온 화초장⁷⁷²)이올시다.”

“화초장? 거 이름 하나 좋다. 그 안에 뭐 들었느냐?”

“은금보화가 가뜩 들었지요.”

“은금보화가 가뜩 들었어?”

놀보란 놈이 대번에 표정이 달라지면서,

“허허, 동생. 자네 혹시 삼강오륜⁷⁷³) 아는가?”

“아, 그거야 형님이 더 잘 아시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럴 것이다. 그래서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것이여.

삼강오륜에 있기를 형제지간에 네 것, 내 것을 따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여.

가령 네 것이 내 것이고, 또 내 것이 그냥 내 것이고.

가령 내가 죽을 일이 있으면, 동생 네가 대신 죽고,

또 네가 죽을 일이 있으면, 그것은 그냥 네가 죽어.

어째서 그러냐 하면, 나는 장손⁷⁷⁴)이라 선영⁷⁷⁵)을 받들어야 한다, 그 말이여.

How can you kick away such a precious thing, rice?
A magistrate would punish you with a club.
Villagers would kick you out.
I hate you. Get out of here!”
She goes in, and Nolbo is struck dumb.
“Heungbo, you bastard! You told her to act like that to me. You villain!”
“Brother, how can that be? She acts like that because she is a woman.”
“Oh, that’s right. That’s why a woman can’t have a beard on her chin however old she may be.
By the way, what is the name of the wardrobe mottled with red over there?”
“That is Flower Wardrobe. It came out of a gourd.”
“Flower Wardrobe? What a good name! What’s in there?”
“It is full of jewels.”
“Is it full of jewels?”
Nolbo suddenly changes his facial expressions.
“Brother, do you know about the eight basic ethical rules?”
“Oh, you should know about them. How can I know about them?”
“Good. That’s why it is said an elder brother is better than a younger brother.
One of the ethical rules says things should be shared between brothers.
Your things are mine, and my things are mine.
If I should die, you die instead of me.
If you should die, you die yourself.
That is natural because being the oldest son, I have to hold an annual ritual for our ancestors.

장손 제쳐놓고 차손⁷⁷⁶⁾이 선영 받드는 거 봤냐?”
 “예, 형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요.”
 “그런 것 다 알았으면, 저것 나 도라.”⁷⁷⁷⁾
 “그렇지 않아도 형님 드릴려고 따로 묶 지어 놓은 것입니다요.”
 “뭐? 시방 네가 나 주려고 따로 묶 지어 봤어?
 허허허,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여.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너 어렸을 적에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느냐!
 이놈아, 쇠뿔은 단김에 빼랬다⁷⁷⁸⁾고,
 저것 본 김에 내가 젊어지고 갈란다.”
 “아이고, 형님. 저게 너무 무거운 것이라,
 형님 먼저 건너가시면, 나중에 하인 시켜 지워 보내드리겠습니다.”
 놀보 대번에 화를 내며,
 “이런 도적놈같으니라고.
 네가 나 나간 뒤에 속 알맹이는 썩⁷⁷⁹⁾ 빼고 겉썩⁷⁸⁰⁾만 보낼라고 그러
 지, 이놈!
 속 모르는 사람들은 날보고 욕심 많다고 험단 말이여. 내놔, 이놈아!”
 “예. 정⁷⁸¹⁾ 그러시면, 젊어지고 가십시오.”
 흥보가 뭇뺩걸이⁷⁸²⁾를 해서 내놓으니,
 놀보가 화초장을 젊어지고,
 “흥보야, 제수씨한테 아까는 미안했다고 해라.”
 “형님 자주자주 행차⁷⁸³⁾하십시오.”
 “내가 자주는 못 와.
 그러나 달이 크면 한 달에 서른 번 올 것이고,
 달이 작으면 스물아홉 번 올 것이니,
 그때마다 이런 것 하나씩 다오.”

Can the second son hold an annual ritual instead of the oldest son?"

"You are absolutely right, brother."

"If you are convinced, give that thing to me."

"I set it aside because I was trying to give it to you."

"Did you say you set it aside to give it to me?"

Good. That is natural.

Let me say something to you.

When you were young, I took good care of you.

"You rascal. We should strike the iron while it is hot.

I'll carry it to my home now."

"Brother, that is heavy.

After you are gone, I'll have a servant carry it to your home."

Nolbo is exasperated.

"How shameless you are!

Don't you intend to take the things out and send only the empty wardrobe to me? You bastard!

People not knowing the reality say I am greedy. Give it to me now. You villain!"

"If you insist, take it and carry it yourself."

Heungbo puts straps around the wardrobe.

Nolbo carries Flower Wardrobe on his shoulders.

"Hey Heungbo. Tell your wife I am sorry."

"Brother, visit here often."

"I can't come here often.

If a month is long, I will come here 30 times a month.

If a month is short, I will come here 29 times a month.

Whenever I come here, give me a thing like this."

“예, 형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디 홍보야, 이것 이름이 뭐라고 했냐?”

“형님, 이게 화 자, 초 자, 장 자올시다.”

“이런 유식한 체라고⁷⁸⁴ 짜짜 짜짜! 한 줄로 째⁷⁸⁵ 읽어 이놈아!”

“화초장이예요, 화초장.”

“알았다. 어서 들어가거라.”

놀보가 화초장 이름을 잊어버릴까봐 한번 외고 가 보는데,

[중중모리]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화, 초장화, 초장화, 초장화, 초장화, 초장화, 초장화, 초장화, 초장화, 초장화, 초장화, 초장화, 초장화, 초장화, 초장화, 초장화.

뭇이? 초장화? 초장장, 장장화, 화화장, 화화장, 초초장, 되된장.

어따,⁷⁸⁶ 이것이 무엇인고?

구들장,⁷⁸⁷ 방장,⁷⁸⁸ 천장, 뗏장,⁷⁸⁹ 고초장.⁷⁹⁰ 옳다, 고초장이다.

고초장, 고초장, 고초장, 고초장, 고초장, 고초장.

뭇이? 고초장? 이것은 비슷허며 아니로다.

이것이 무엇인고? 내가 답답허여 못 살겠구나!

우리집으로 건너가서,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보자.

여보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구석⁷⁹¹이라고 들어오면, 우루루루 쫓

아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 옳제,⁷⁹²

좌이부동⁷⁹³이 웬 일인거나?⁷⁹⁴

에라, 이 사람, 몹쓸 사람.”

“Brother, no problem.”

“By the way, Heungbo, what is the name of this thing?”

“Brother, it is Flower Wardrobe.”

“Don’t speak pedantically! Speak fast, you villain!”

“It is Flower Wardrobe. Flower Wardrobe.”

“OK. Take care.”

While going back, Nolbo keeps saying the name, Flower Wardrobe, so as not to forget it.

[Jungjungmori] “I got Flower Wardrobe, Flower Wardrobe, Flower Wardrobe.

I got Flower Wardrobe.”

Flower Wardrobe, Flower Wardrobe, Flower Wardrobe, Flower Wardrobe, Flower Wardrobe, Flower Wardrobe.

Flower Wardrobe Flower, Ward Flower Robe, Ward Flower Robe, Ward Flower Robe.

What? Ward Flower Robe? Ward Robe, Flower Robe, Soybean Robe.

Gee, what is this?

Stone, Curtain, Roof, Grass Wardrobe. Pepper Wardrobe. Right. Pepper Wardrobe.

Pepper Wardrobe, Pepper Wardrobe, Pepper Wardrobe.

What? Pepper Wardrobe? That’s similar. But no.

What is this? I’m anxious to know!

Let me go to my house and ask my wife.

“Hello, honey!

If a family head comes back home, his wife is supposed to come out fast and greet him.

How can you just sit there?

How rude you are!”

놀보 마누라가 나온다. 놀보 마누라 나오면서.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소.
내 잘못 되었소, 이리 오시오.
이리 오라면 이리 와요.”

34. (놀보 제비 몰러 나감) 놀보가 이리저리 제비를 몰러 다닌다.

[아니리] “아니, 영감! 어디서 화초장을 짊어지고 오셨소?”
놀보가 좋아라고, “아이고, 내 새끼야!”
“아니, 여보 영감. 마누라 보고 새끼가 다 뭐다요?”
“아, 이 사람아, 종을 때는 아무렇게나 부르는 것이여.”
“그런디, 영감! 어디서 화초장을 가져오셨소?”
“여보, 마누라. 아, 흥보 집을 갔더니 참말로 부자가 되었는데.
거 제비 다리 부러진 것을 당사실로 감아 날려 보냈더니,
그 제비가 은혜를 갚을 양으로 박씨를 몰고 와서 부자가 되었다네.
거, 흥보는 제비 다리 하나 부질러가지고⁷⁹⁵ 부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한 열대여섯 마리만 부지르면⁷⁹⁶ 천하에 갑부가 안 되겠는가?”
그렇저렇⁷⁹⁷ 삼동⁷⁹⁸이 지나고 춘삼월⁷⁹⁹이 돌아오니,
놀보란 놈이 얼른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제비 딱지⁸⁰⁰를 한 천 개를 만들어가지고,
제 뒹쪽지에도 붙이고, 앞쪽지에도 붙이고,
하루는 제비를 후리러⁸⁰¹ 나가는데,
[중중모리] 제비 후리러 나간다. 제비 후리러 나간다.
복희씨⁸⁰² 내신⁸⁰³ 그물을 에후리쳐⁸⁰⁴ 드러메고⁸⁰⁵ 방장산⁸⁰⁶으로
나간다.

Nolbo's wife comes out. She comes out.
"Darling, I didn't know you were back. I didn't know.
I am sorry. Come this way.
This way, please."

34. (Nolbo Goes Out to Chase Swallows.) Nolbo runs around to chase swallows.

[Aniri] "Darling, how come you are carrying Flower Wardrobe?"
Nolbo is delighted. "What a cute baby you are!"
"Sweetheart, how can you call your wife a baby?"
"Woman, I can call you whatever I want, if I am very happy."
"By the way, honey, how did you get Flower Wardrobe?"
"Honey, I have been to Heungbo's house. He really has become rich.

He wrapped a swallow's broken legs with a silk thread, and released it.

The swallow came back with a gourd seed to return his favor, and he became rich.

Heungbo became rich after breaking a swallow's legs.

If we break the legs of a dozen of swallows, we will be the richest people in the world."

Somehow, winter goes and spring comes.

Nolbo wants to become rich as soon as possible.

He makes a thousand swallow nests.

He even hangs nests which hang in front and behind his head.

One day, he goes out to snatch a swallow.

[Jungjungmori] Nolbo goes out to snatch a swallow.

He carries a net on his shoulder and goes to Jiri Mountain.

이 편은 우두봉⁸⁰⁷⁾이요, 저 편은 좌두봉.⁸⁰⁸⁾
 방장산을 뒷둘러⁸⁰⁹⁾ 덩불을 툽 쳐,
 “후여, 처! 저 제비야.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⁸¹⁰⁾
 연비여천⁸¹¹⁾의 소루기⁸¹²⁾ 보아도 제비가 의심하고,
 남비오작⁸¹³⁾에 까치만 보아도 제비가 의심하고,
 춘일황앵⁸¹⁴⁾ 피꼬리만 보아도 제비가 의심,
 층암절벽⁸¹⁵⁾ 비둘기 보아도 제비가 의심.
 “저기 가는 저 제비야!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말어라.
 천화일⁸¹⁶⁾에 지은 집이로다.
 화급동량이니,⁸¹⁷⁾
 내 집으로 들어오느라!
 이이이리와.”

**35. (후일담) 놀보는 제비 다리를 억지로 부러뜨려 고쳐준
 후,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심었는데, 박 속에서 유
 랑연예패와 장수가 나와 재산을 다 잃고, 흥보가 달려
 와 형 목숨을 구해 함께 살아간다.**

[아니리] 하루는 신수⁸¹⁸⁾ 불길한⁸¹⁹⁾ 제비 한 쌍이 놀보 집으로 들어
 오니,
 놀보가 제비를 보고 어찌 반가웠던지, 소반⁸²⁰⁾에다 물을 떠놓고,
 “아이고, 제비님. 행차하셨습니까?”

There are many mountain peaks here and there.
Nolbo goes around Jiri Mountain, beating the bushes.
“Hello, swallow over there! Where are you going?”
He sees an eagle fly in the sky, and takes it to be a swallow.
He looks at a crow and a magpie fly to the south sky, and takes them to be swallows.
He watches a yellow spring nightingale and takes it to be a swallow.
He glimpses a pigeon on a steep cliff and takes it to be a swallow.
“Hey, swallow over there! Don’t go to that house.
It was built on an unlucky date.
It is fated to be burned down.
Come to my house!
Come here.”

35. (Subsequent Story) Nolbo breaks a swallow’s legs on purpose and treats them. He plants a gourd seed from the swallow. A traveling troupe and a warrior come out and deprive Nolbo of all of his property. Heungbo comes, saves him, and lives together with him.

[Aniri] One day, a couple of unlucky swallows come to Nolbo’s house.
Nolbo is so glad that he places a bowl of clean water on a small meal table.
“Welcome, swallows!”

큰절⁸²¹)을 하고 나서 아무리 기다려도 구렁이가 와야지!
 ‘애가 어찌 이리 안 오는고?
 구렁이 기다리다가 저것 마저 날아가 버리면 십년공부 도로아미타
 불⁸²²)이라.
 에라, 내가 인구령이⁸²³) 노릇을 허는 수밖에 없구나.’
 성질 급한 놀보늬이 제가 인구령이 노릇을 해가지고,
 제비 다리를 작신 부질러서⁸²⁴) 당사실로 감아가지고 날려 보냈었다.
 원수를 갚을 제비인디 죽을 리가 있겠느냐?
 제비장수에게 그대로 고하니,⁸²⁵)
 제비장수 허는 말이, “놀보의 악명⁸²⁶)이 이 강남까지 퍼졌구나.
 명춘⁸²⁷)에 나갈 때는 원수 수 자, 바람 풍 자⁸²⁸) 쓰인 박씨를 갖다
 주어 네 원수를 갚아라.”
 그러저령 삼동⁸²⁹)이 지나고 춘삼월⁸³⁰)이 돌아와,
 제비가 놀보 집으로 박씨를 물어다 주니,
 놀보 좋아라고 박씨를 심자마자 박순⁸³¹)이 올라오는데,
 금방 북채만, 홍두깨⁸³²)만, 기둥만허게 올라와 박넝쿨이 온 동네를
 휘어감아서,
 어느 집에서는 집 무너졌다, 담 무너졌다 야단이니,
 그 돈 물어주느라고 놀보란 늬이 돈냥개나⁸³³) 쫓지.
 하루는 놀보가 박에다 귀를 대고 들으니,
 박통 속에서 풍장소리⁸³⁴)가 나는데,
 놀보 좋아라고,
 ‘은금⁸³⁵)이 서로 나오려고 야단법석이로구나.’하고는 박을 뚫더니,
 박통 속에서 샌님,⁸³⁶) 초라니패,⁸³⁷) 각설이패⁸³⁸)가 나와서 놀보 재산
 을 싹 우려가고,⁸³⁹)
 또 장군이 나와서 놀보 목을 치려 할 제,

He gives a big bow to them. He anxiously waits for a snake in vain.

‘Why isn’t it coming?’

If the swallows fly away before a snake shows up, all of my efforts will be in vain.

OK. I have no choice but to pretend to be a snake.’

Impatient, Nolbo acts as if he were a snake.

He breaks a swallow’s legs, wraps them up with a silk thread, and releases it.

The swallow is to take revenge on him. How can it die?

He reports to the swallow warrior exactly as things happened.

The swallow warrior responds, “Nolbo’s bad reputation reached even here.

Next spring, take revenge on him by bringing to him a gourd seed on which the words ‘Revenge Wind’ are written.

Somehow, winter goes, and spring comes.

A swallow brings a gourd seed to Nolbo.

Nolbo is delighted. The moment he plants the seed, a vine comes out.

The vine grows fast and engulfs the entire village.

Villagers make a fuss, claiming that a house and a wall fell down.

Nolbo spends a lot of money to compensate for them.

One day, Nolbo puts his ears to a gourd.

He hears the sounds of musical instruments.

Nolbo is excited.

He sees the gourd open, thinking that silver and gold are competing to come out first.

A scholar, a traveling troupe, and a group of entertainers come out, and takes all of Nolbo’s property.

A warrior comes out and tries to cut Nolbo’s head off.

[엇중모리] 흥보가 급히 와서 저희 형님을 구하고,
놀보는 그날부터 개과천선⁸⁴⁰)을 하여 형제 화목⁸⁴¹)을 하였더라.
구경하시기도 지루하고,
고수 팔도 아플 테요,
소리꾼도 목도 많이 쉬었으니,
그만하고, 더질더질.⁸⁴²⁾

[Eotjungmori] Heungbo comes quickly and saves his brother.
Nolbo completely becomes a better person, getting along with
his brother.

The audience must feel bored.

The drummer must feel pain in his arms.

The singer feels tired in his throat.

Let's me stop here.

- 1) '어름'의 사투리. '어름'은 돌이 맞닿는 곳.
- 2) 五臟. 사람의 다섯 가지 내장. 간장, 심장, 비장(지라), 폐장, 신장. 오장과 육부를 합하여 사람의 모든 내장 기관을 통틀어 일컫는 말임.
- 3) 육부(六腑)인데. '육부'는 한의학에서 담(쓸개), 위, 대장(큰 창자), 소장(작은 창자), 삼초(위의 윗 부분, 위 부근, 배꼽 아래 부분), 방광(오줌보) 등 여섯 가지 배속 기관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 '오장이 다 육본디'는 '오장 육부인데'로 해야 함.
- 4) 五臟이 칠부(七腑)던 것이었다. 내장이 일곱 개의 기관으로 되어 있던 것이었다.
- 5) '심술을 부리는 내장 기관'이라는 뜻으로 만든 말임.
- 6) 將棋宮짝. 장기 놀이에서 임금을 나타내는 가장 큰 장기말로서, '초(楚)' 자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고, '한(漢)' 자가 빨간 글씨로 적혀 있다.
- 7) 늘어붙어. 한 곳에 오래 있으면서 떠나지 않아.
- 8) 大將軍方. 음양철에서 흉한 방위를 막은 장신(將神)의 하나인 대장군신이 막은 방위. 이 방위에서 나무를 하면 해를 입는다고 함.
- 9) 伐木. 나무를 베.
- 10) 三煞方. 점술에서 세 가지 불길한 살(겁살·세살·재살)이 끼어 해를 입는다는 방위.
- 11) 勸하고.
- 12) 五鬼方. 자연의 순리가 역행하여, 가장 나쁜 방위. 이 방위로 가면, 모든 일이 잘 안 된다고 함.
- 13) 過客. 지나가는 나그네.
- 14) 잠을 깨워줄 듯이.
- 15) 居士. 조선조 후기의 유랑 연예인. 절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승려에서 파생된 듯.
- 16) 小鼓. 손에 들고 춤을 추거나 장단을 맞추는 데 쓰는 작은 북.
- 17) 여기서는 도둑질을 가리킴.
- 18) 冠. 모자.
- 19) 비단塵. 비단을 파는 가게.
- 20) 물총질을 하고.
- 21) 劫奪. 강제로 정조를 빼앗음.
- 22) 守節 寡婦. 남편이 죽은 뒤 절개를 지키고 있는 과부.
- 23) 모함(謀陷)하고.
- 24) 땅바닥을 움푹 파놓아 빠지거나 자빠지기 쉽게 하고.
- 25) 주저앉히고.
- 26) 전통 실내악의 한 가지로, 정악곡인 영산회상곡을 말함.
- 27) 많다면.
- 28) 三綱. 신하는 임금을 따르고, 아들은 아버지를 따르고, 아내는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유교의 윤리의식 세 가지.
- 29) 五倫.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친애, 부부 사이에는 분별,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 친구 사이에는 믿음에 있어야 함을 이르는 유교의 다섯

가지 윤리.

- 30) 亂杖. 신체의 부위를 가리지 아니하고 마구 매로 치던 고문.
- 31) 倫紀인들. ‘윤기’는 사람이 지켜야할 도리.
- 32) 眷屬. 딸린 식구.
- 33) 아무 까닭 없이 꾸짖는 호령.
- 34) 일정한 범위 안을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듯.
- 35) 옛날 노름의 한 가지.
- 36) 妻子息. 아내와 자식.
- 37) 殺戮之患. (무엇을 트집 잡아) 사람을 마구 죽이는 사건.
- 38) 어찌할 수 없어.
- 39) 습. 명령.
- 40) 月出東嶺. 동쪽에 있는 고갯마루에 달이 뜬.
- 41) ‘네 것 내 것’의 잘못.
- 42) 好衣好食. 잘 입고, 잘 먹음.
- 43) 世上分別. 경험이나 식견 따위로 세상 일을 따질 능력.
- 44) 一朝에. 하루 아침에. 잠깐 사이에.
- 45) 그리 말도록 금지하는 말.
- 46) 山中. 산골. 산속.
- 47) 살자고 한들.
- 48) 百物. 여러 가지 물건.
- 49) 道傍. 길가. 여기서는 ‘도방처’를 가리킴. ‘도방처’는 길가와 같이 사람의 내왕이 많은 곳. 곧 도시.
- 50) 一元山. 첫째는 원산. ‘원산’은 함경남도 남쪽에 있는 시의 지명.
- 51) 二江景. 두 번 째는 충청남도 강경읍을 가리킴.
- 52) 三浦州. 세 번 째는 포주. ‘포주’는 지금의 전북 부안군 줄포(茁浦).
- 53) 四法聖. 네 번째는 법성. 법성’은 전남 영광군 법성포.
- 54) ‘깃궂어’라는 의미인 듯.
- 55) 聖賢洞 福德村. 성인과 어진 사람이 사는 고을에 있는, 복을 받고 덕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뜻으로 지어낸 이름.
- 56) 僅僅히. 겨우겨우.
- 57)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
- 58) 육개장국. 쇠고기를 삶아서 알맞게 뜯어, 갖은 양념을 한 뒤에, 파를 넣고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서 끓인 국.
- 59) 나았으며. 앞으로 나와 앉으며.
- 60) 公論하고. 여럿이 모여 의논하고.
- 61)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가 마음에 놀랍거나 못마땅한 정도로 심하다고 느낄 때 내는 소리.
- 62) ‘형세(形勢)’의 잘못. ‘형세’는 생활의 경제적 형편.
- 63) 重한. 매우 소중한.

- 64) 家長. 집안의 어른.
- 65) 肝腸. 간과 창자라는 뜻으로, '마음'을 비유적으로 일컫은 말.
- 66) 남이 보기 때문에.
- 67) 還子섬. 환자 몇 섬. '환자'는 조선 시대에, 곡식을 사창(社倉)에 저장하였다가 백성들에게 봄에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던 일. 또는 그 곡식. '섬'은 곡식 따위를 담기 위하여 짚으로 거칠게 엮어서 만든 기구로 한 말의 곱절의 용량을 담는다.
- 68) 家勢. 집안의 운수나 살림살이 따위의 형편.
- 69) 戶房. 조선조 때 지방의 관청에서 일을 보던 구실아치의 하나.
- 70) 무슨 일에 드는 힘이나 수고, 또는 돈을 받고 남의 일을 대신 해주는 일.
- 71) 고을.
- 72) 座首. 조선조 때 지방의 관청에서 일을 보던 구실아치의 우두머리. 육방 중에 병방과 이방을 맡아 보았음.
- 73) 兵營. 군대가 주둔한 곳.
- 74) 營門. 병영의 문. '병영 영문'은 병마절도사가 있던 곳을 가리키기도 함.
- 75) 棍杖. 조선조 때 죄인을 때리던 기구의 한 가지로, 버드나무로 넓적하고 길게 만들어 불기를 치는데, 크기에 따라 다섯 가지가 있었음.
- 76) 말을 빌어 타고 내는 비용.
- 77) 존댓말을 하는데.
- 78) 衙前. 조선 시대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서 실무에 종사하던 중인 계층의 구실아치. 서울의 아전은 경아전, 지방의 아전은 외아전이라고 함.
- 79) 舉動. 행동하는 짓이나 태도.
- 80) 櫃門. 께의 문. '께'는 물건을 넣어두기 위하여 직육면체 모양으로 뚜껑이나 문짝을 달아 만든 물건.
- 81) (자물쇠 따위가 서로 닿으면 걸리게 된) 단단한 물건이 세게 맞부딪쳐 달라붙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82) 秩廳. 관청에서 아전들이 일을 맡아보던 청사.
- 83) 좋음도. 좋기도.
- 84) 葉錢. 예전에 사용하던 낫쇠로 만든 돈.
- 85) 坐而不動.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음.
- 86) 根本.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 또는 내력.
- 87) 生殺之權. 살리고 죽이는 권한.
- 88) 富貴功名.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를 얻거나 공을 세워 이름을 널리 알리는 일.
- 89) 孟嘗君의. '맹상군'은 (1)중국 전국시대 제나라의 정승. 성은 전(田), 이름은 문(文). 찾아오는 손님들을 후하게 대접하여 천하의 유능한 선비 수천 명을食客으로 두었다고 함. 진나라에 들어가 소왕(昭王)에게 피살될 뻔했을 때, 과거 그의 도움을 입었던, 닭의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과 도둑질을 잘 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이야기가 유명함. (2) '돈'의 변말. 맹상군의 이름인 전문(田文)과 돈을 가리키는 전문(錢文)이 음이 같은 데서 유래함.
- 90) 동글동글하게.

- 91)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면서 하는 말.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쓴다.
- 92) 日收돈. 돈을 빌린 다음, 본전과 이자를 일정한 날짜로 나누어 갚는 돈.
- 93) 月收. 돈을 빌린 다음, 본전과 이자를 일정한 달수로 나누어 달마다 갚는 돈.
- 94) 遞計. 장계계(場遞計). 비싼 이자로 돈을 꾸 다음, 장날마다 본전과 이자를 갚는 일.
- 95) 派收돈. 5일마다 본전과 이자를 갚는 돈.
- 96) 橫財. (노력을 들이지 않고) 뜻밖에 재물을 얻음.
- 97) 生天生地.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남.
- 98) 肉粥. 고기를 넣어 쑀 죽.
- 99) 누구롭하계. 먹기에 좋을 만큼 눅눅하고 묽게.
- 100) 家長. 집안의 어른.
- 101) 대신 매를 맞고 돈을 받는 일.
- 102) 古今天地에. 옛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에.
- 103) 挽留. (그만두거나 하지 않도록) 권하여 말림.
- 104) 어떻게.
- 105) 終身. 한평생.
- 106) 골병. 몹시 다치거나 머리를 너무 쓰거나 하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 깊이 들어 고치기 어려운 병.
- 107) 陰地. 그늘진 땅.
- 108) 天不生無祿之人. 하늘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내지 않음. 곧 제 먹을 것은 제가 타고 난다는 말.
- 109) 地不長無名之草. 땅은 이름이 없는 풀을 자라게 하지 않음. 곧 제 할 일은 제각각 타고난다는 말.
- 110) 구멍.
- 111) 허위허위. 서두르느라고 손발을 부자연스럽게 자꾸 움직이는 모양.
- 112) 身世自歎. (가련하거나 외롭거나 가난한) 일신상의 형편을 홀로 한탄함.
- 113) 高臺廣室. '사방을 살펴볼 수 있는 높은 정자와 넓은 방'을 가리키는 말로, 규모가 매우 크고 잘 지은 집.
- 114) 好家舍. 훌륭하게 잘 지은 집.
- 115) 薄福하여. 복이 없어서.
- 116) 그럭저럭. 어찌 된지 모르게 되어가는 대로.
- 117) 大將旗. 도성이나 영문에 세워, 대장이 부하를 지휘하는 데 쓰던 깃발.
- 118) 肅靜牌. 사형을 집행할 때, 다른 사람이 떠들지 못 하도록 '肅'자와 '靜'자를 적어서 세워놓는 나무 패.
- 119) 深山 猛虎 威容같은. 깊은 산 속 사나운 호랑이의 위엄 있는 모습같은.
- 120) 勇字 불인. '용자'는 군뢰(軍牢)들이 쓰던 전립(戰笠)의 앞에 낫쇠 조각으로 만들어 붙이던 글자.
- 121) 군뢰사령(軍牢使令). 군대 안에서 죄인을 다루던 병졸.
- 122) 숫한. 순진한. 순박한.
- 123) 三門. 정문과 그 양쪽에 세운 두 개의 문을 합쳐 이르는 말. 대궐이나 관청의 문.

- 124) 구멍.
- 125) 壯觀. 크게 구경거리로 될 만함.
- 126) 數數百. 여러 백. 수백.
- 127) 엎드려.
- 128) 엎드려 있을.
- 129) 군뢰(軍牢). 조선 시대에, 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는 일을 맡아보던 병졸.
- 130) 朴生員. 박씨 성을 가진 생원. '생원'은 나이 많은 선비를 대접하는 뜻으로, 그 사람의 성(姓) 밑에 붙이는 말.
- 131) 계획하던 일이 잘못되었소. 골탕먹었소.
- 132) 九尺. 아홉 자. 약 270cm. 매우 키가 큰 사람을 가리킬 때 흔히 쓰는 표현임.
- 133) 피쇠의 아버지. '피쇠'는 피 많은 아이라는 뜻을 지닌 남자 이름.
- 134) 남이 하려는 일을 앞질러서 해버림.
- 135) '번수(番手)'의 복수. '번수'는 대궐이나 관청을 지키는 병사.
- 136) 守番. 교대로 지키는 일.
- 137) 손재수(損財數). 재물을 잃을 운수.
- 138) 淨히. 깨끗이.
- 139) 井華水. 이른 새벽에 떠 온 물.
- 140) 晝夜祝手. 밤낮으로 두 손 모아 빎.
- 141) 杖處. 매 맞은 자리.
- 142) 무엇이다오. 무엇입니까.
- 143) 임자에게. '임자'는 친한 사람끼리 '자네'라고 부르기가 거북할 때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서로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이인칭 대명사.
- 144) 壇. 높직하게 만들어 놓은 자리, 또는 흙이나 돌로 쌓아 올린 제터.
- 145) 모으고. 쌓아올리고. 축조하고.
- 146)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가 마음에 놀랍거나 못마땅한 정도로 심하다고 느낄 때 내는 소리.
- 147) 산다니까.
- 148) 媿叔宅. 시숙의 집. '시숙'은 시아주버니. 남편의 형님.
- 149) 錢穀間. 돈이나 곡식이나 무엇이든지.
- 150) 多少間. 많거나 적거나 간에.
- 151) '보리타다'가 '매를 되게 맞다'는 뜻이므로, 여기서는 '매를 되게 맞는 일'을 가리킴.
- 152) 兄弟之間. 형제 사이.
- 153) 아닌게 아니라.
- 154) 매만져서 모양을 내는 일.
- 155) 본다고 하면. 보면.
- 156) 破笠. 부서진 갓.
- 157) 물건을 버티어서 이리저리 벌여 매는 줄. 여기서는 갓을 고정시켜 주는 줄.
- 158) 叢叢. 뽕뽕하게.
- 159) 조사로 만든 갓끈. '조사'는 은조사(비단의 한 가지로 여름 옷감으로 씬)를 가리키는

- 듯함.
- 160) '갓풀'은 짐승의 가죽, 힘줄, 창자, 뼈 따위를 진하게 곤 다음에 굳혀서 만든 풀. '갓'은 재료가 가죽임을 나타내는 접두사. '관자'는 망건에 달아 당줄을 꿰어 거는 작은 고리.
- 161) 종이로 만든 당줄. '당줄'은 망건 양 쪽 끝 위 아래에 달아 망건을 졸라매는 데 쓰는 검은 노끈.
- 162) 頭痛나게. 머리가 아프게.
- 163) 실로 만든 허리띠.
- 164) 곱돌로 담배통을 만든 담뱃대. '곱돌'은 만지면 양초와 같이 매끈매끈하고 지방 광택이 나는 암석과 광물의 통칭. 활석.
- 165) 서리 내린 추운 아침.
- 166) 추운.
- 167) (두려워하거나 조심하느라고) 옆으로 걸음을 걸어.
- 168) 大驚. 크게 놀람.
- 169) 窒塞. (숨이 꼭 막히거나 속이 터질 지경으로) 몹시 싫거나 놀라거나 꺼림.
- 170) 거기. 듣는 이를 조금 낮잡아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 171) 九代째.
- 172) 獨身. 형제 없는 외아들.
- 173) 오롯이.
- 174) 三尺童子. 키가 석 자(약 90cm)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
- 175) 合掌. 두 손바닥을 합하여 마음이 한결같음을 나타냄. 또는 그런 예법.
- 176) 형님주전에. 형님께. '주전(主前)'에는 '~에게'를 높여 이르는 말.
- 177) '뭉쓸'을 강조한 말. '너르'는 사물이나 대상을 낮추어 함부로 일컬을 때 쓰는 말조각.
- 178)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그냥.
- 179) 굼었나이다. 굼었습니다.
- 180) 벼 만 석을 추수할 정도의 부자.
- 181) 眷屬. 딸린 식구.
- 182) 救患. 어려움에서 구함.
- 183) 양을 부풀게 하여 본디보다 더 길게 먹기.
- 184) 감추어진 일의 내용.
- 185) 到底하구나. 완벽한 정도에 가깝구나. 매우 훌륭하구나.
- 186) 쌓아놓은.
- 187) 잘라온.
- 188) 식혀버릴 놈. 곧 죽일 놈이라는 뜻.
- 189) 자물쇠나 문고리를 채워.
- 190) 舉動. 행동하는 짓이나 태도.
- 191) 형편이나 위세 따위가 굽히는 데 없이 당당하게.
- 192) 나락 몇 섬.
- 193) 露積. 노적가리. 곡식을 한 데 쌓아둔 더미.
- 194) 다물다물하게. '다물다물'은 물건이 무더기로 쌓인 모양.

- 195) 헐겠느냐? 쌓아둔 물건을 뜯어내겠느냐?
- 196) 錢貫이나. 돈 몇 관이나. ‘관’은 열 냇을 단위로 한 엽전 열 꾸러미. ‘쾌’라고도 함.
- 197) 龍鳳櫃. 용과 봉을 새겨 넣어 만든 가구.
- 198) 金櫃. 쇠로 만든 캐. ‘캐’는 물건을 넣어 두기 위하여 직육면체 꼴로 뚜껑이나 문짝이 있게 나무로 짠 그릇.
- 199) 열 냇을 단위로 한 엽전 열 꾸러미. 쾌.
- 200) 열 냇을 한 꾸러미로 하여, 열 꾸러미씩 쌓아놓은 돈.
- 201) 쌓아 놓은 물건을 뜯어내며.
- 202) 들어올려서 어깨에 메더니.
- 203) 담. 담장.
- 204) 골짜기이다.
- 205) ‘머리’의 비속한 말.
- 206) 날아가지도.
- 207) ‘아주버님’을 속되게 일컫느라고 만들어낸 말.
- 208) ‘도마뱀’의 전라도 사투리.
- 209) 錢穀. 돈과 곡식.
- 210) 오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면서 하는 말.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쓴다.
- 211) 별것이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 212) ‘시아주비’의 방언. 시동생. 남편의 남동생.
- 213) 古今天地. 옛부터 지금까지의 온 세상.
- 214) 閻羅國.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으로, ‘저승’을 달리 일컫는 말.
- 215) 細細寬情. 자세한 억울한 사정.
- 216) 厚해졌습디다. 인심이 좋아졌습디다.
- 217) 정도가 보통보다 심하게.
- 218) 江亭 모퉁이. 정자가 있는 강가의 모퉁이.
- 219) 갑자기 나타나더니.
- 220) 錢糧. 돈과 양식.
- 221) 손을 얹어 손등으로 때리는 뺨.
- 222) 당장에.
- 223) 몸의 어느 한 부분이 경련을 일으켜 갑자기 오그라들거나 뻣치어 굳어지는 현상.
- 224) 모두. 전부.
- 225) 그러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 226) 저렇다고 해도.
- 227)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
- 228) 倫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 229) 自歎. 스스로 탄식함.
- 230) 다른 창자들은 ‘원수녀르 가난이야’로 부른다. ‘원수녀르’는 원수를 강조한 말.
- 231) 三神帝王. 민속에서 아이를 점지한다는 세 신령.

- 232) 北斗七星님. 칠원성군(七元星君)이라고도 부르며, 민속에서 인간의 생로병사를 주관한다는 신
- 233) 생겨나서.
- 234) 不義行使. 옳지 않은 일을 행함.
- 235) 三旬九食. 삼십 일에 아홉 번 밥을 먹음. 곧 그렇게 굶주림.
- 236) 浮黃. (오래 굶거나 하여)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
- 237) 餓死之境. 굶어 죽을 지경.
- 238) 百年八字. 한 평생의 운수.
- 239) 家長. 한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사람. ‘남편’을 달리 이르는 말. 여기서는 남편.
- 240) 매어 있는데. 달려 있는데.
- 241) 薄福한. 복이 없는.
- 242) 人倫. 인간 관계의 질서.
- 243) 舉動. 행동이나 태도.
- 244) 年年 묵은 중. 중이 된 햇수가 오래된 중.
- 245) 헐디헐. 헐어질대로 헐어진. 오래 되어 매우 낡은. 여기서는 ‘매우 늙은’이라는 의미.
- 246) 兩耳垂肩眉覆面 草衣不針復不線. 도승의 모습을 노래한 잠삼(岑參)의 시 (태백호승가(太白胡僧歌))에 나오는 구절. 두 귀는 어깨까지 늘어지고, 긴 눈썹은 얼굴을 덮었으며, 초의는 바느질하지도 않았고, 또 꿰매지도 않았네. ‘초의’는 속세를 떠나 숨어 사는 사람의 의복.
- 247) 청울치. 킷덩굴에서 겹겹질을 벗겨낸 속껍질. 노나 베 등의 재료로 쓰임.
- 248) 송라(松蘿). ‘송낙’의 원말은 ‘송라’이며, 소나무겨우살이라는 풀로 엮어 만들어 주로 여승이 쓰는 모자.
- 249) 촌촌히. 썩 배게.
- 250) 누덕누덕. 낡거나 떨어진 자리를 자질구레하게 꿰매고 덧붙인 모양.
- 251) 長衫. 검은 베로 만든, 길이가 길고 소매가 넓은 중의 옷.
- 252) 울무. 포이풀과에 속한 한해살이 풀. 열매는 보리보다 굵고 윤이 나며, 식용이나 약재로 씀.
- 253) 念珠. 염불할 때에 손으로 돌려 그 수효를 세는 기구.
- 254) 團珠. 밤돌 만하게 깎은 나무 구슬 여덟 개로 만들어 팔에 거는 염주.
- 255) 瀟湘斑竹. 중국 양자강의 두 지류인 소수와 상강이 만나는 곳에서 나는 알록무늬가 있는 대.
- 256) 龍頭. 용의 머리.
- 257) 龍頭 새긴 六環杖. 용의 머리를 새긴, 도가 높은 중이 짚던 고리가 여섯 개 달린 지팡이.
- 258) 南無阿彌陀佛. 염불하는 소리의 한 가지. 아미타불에 돌아가 의지하여 구원을 원한다는 뜻의 말.
- 259) 觀世音菩薩. 대자대비의 상징으로서 가장 널리 높임을 받는 보살. 중생이 괴로울 때 그 이름을 정성으로 외면 그 음성을 듣고 곧 구제한다고 함. 극락정토에서 아미타불을 가까이 곁에서 모시면서 부처의 교화를 돕는다고 함.
- 260) 俗家. 불교나 도교를 믿지 않은 일반인의 집.

- 261) 施主. 절에 물건을 베풀어줌.
- 262) 세 발. ‘발’은 양 팔을 짝 벌린 길이.
- 263) 生死가 未判이오니. 죽고 사는 것이 구분이 되지 않으오니. 곧 거의 죽게 되었사오니.
- 264) 曲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
- 265) 兩主. 바깥주인과 안주인이라는 뜻으로 부부를 이르는 말.
- 266) 可矜한. 불쌍한.
- 267) 道僧. 본래 ‘도를 닦는 수도승’을 뜻하나, 민속에서는 ‘신통술에 아주 통달한 중’의 뜻으로 쓰인다.
- 268) 坎癸龍. 감방(坎方)과 계방(癸方)에서 뿔어나온 용맥(龍脈), 곧 산줄기. 감방은 정북쪽, 계방은 정북에서 15도 동쪽의 방위임.
- 269) 艮坐坤向. 간방(艮方)을 등지고, 곤방(坤方)을 향한 자리. 간방은 북동쪽, 곤방은 남서쪽임.
- 270) 탐랑득(貪狼得) 거문파(巨文波)요. ‘탐랑’과 ‘거문’은 모두 구성(九星)의 하나. 풍수지리에서 산 모양을 하늘의 구성에 비해 일컫는 명당 자리. ‘득’과 ‘파’는 풍수지리에서 수세(水勢)의 출입 방위를 가리키는 말임.
- 271) 文筆峰. 풍수지리에서 문장가가 난다고 하는 산.
- 272) 倉庫砂. 풍수지리에서 부자가 난다고 하는 산의 형세.
- 273) 安貧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냄.
- 274) 家勢. 가정의 경제적 형편.
- 275) 速發. 빨리 좋아짐.
- 276) 漸增. 점점 늘어남.
- 277) 用之不竭. 써도 다함이 없음. 곧 그렇게 풍부하다는 말.
- 278) 取之無窮. 취하여도 다함이 없음. 곧 그렇게 풍부하다는 말.
- 279) 그리운. 아쉬운.
- 280) 塵閤 立株 자리. ‘전’은 주나라 때 시가의 2묘(畝) 반의 집터를 가리키고, ‘한’은 담장이라는 뜻. 따라서 ‘전한 입주 자리’는 담으로 두른 집터의 기둥을 세울 자리라는 뜻.
- 281) 因忽不見. 갑자기 보이지 않음.
- 282) 山水景概. 자연의 경치.
- 283) 壯히. 매우. 씩.
- 284) 柳色黃金嫩. 눈 트는 어린 버들잎은 황금 빛을 띠어 곱고. 이백의 시 〈궁중행락사(宮中行樂詞)〉 8수 중 두 번째 수의 첫째 구임.
- 285) 梨花白雪香. 흰 눈같은 배꽃 향기가 풍긴다. 이백의 시 〈궁중행락사(宮中行樂詞)〉 8수 중 두 번째 수의 둘째 구임.
- 286) 維鵲有巢. 까치는 손수 재 집을 지어 가짐. 《시경》 ‘소남’에 있는 구절임.
- 287) 山梁雌雉. 산비탈의 암탉.
- 288) 方將. 곧. 장차.
- 289) 수릿과에 딸린 새. 매보다 크고 날카로운 굽은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들쥐, 물고기, 조개류 따위를 잡아 먹는다.
- 290) ‘비가 온다’는 뜻으로 쓴 새소리의 의성어.

- 291) 소쩍새의 울음소리. 소쩍새의 울음 소리가 '술 적다'와 비슷하기 때문에, 소쩍새가 많이 울면 풍년이 든다고 함.
- 292) 布穀. 뻬꾸기. 뻬꾸기는 입하 무렵에 나오고, 처서에 들어가는 철새이므로 농사철과 관련이 깊어, '곡식을 뻬리다'는 뜻으로 일컬음.
- 293) 戴勝. 오디새. '오디새'의 '오디'가 뻬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가리키므로, '누에가 있어야 뻬을 따지'라는 구절이 이어짐.
- 294) 殺害. 여기서는 '살생(殺生)'이라고 해야할 듯함. '살해'는 사람을 해쳐 죽이는 것을 가리키고, '살생'은 살아 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것을 이룸.
- 295) 彌勒님. 미륵을 높여 일컬은 말. 도솔천에 살며, 억만 년 뒤에 인간 세상에 내려와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래의 부처. 돌로 새긴 부처.
- 296) '삼월(三月) 동풍(東風) 방춘화시(方春和時)'의 잘못. 삼월달 봄바람이 불어 바야흐로 화창한 때.
- 297) 芳春和時. 화창한 때.
- 298) 飛禽走獸. 날짐승과 길짐승.
- 299) 富貴를 趨勢하여. 재물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붙좃아서 따라서.
- 300) 萬無하더니. 결코 없더니.
- 301) 喃喃之聲. 재재거리며 우는 소리.
- 302) 賀禮. 축하 인사.
- 303) 대망(大鱗)이. 아주 큰 구렁이 또는 이무기.
- 304) 작고 단단한 물건이 갑자기 세세 부러지거나 깨지는 모양, 혹은 그 소리.
- 305) 唐絲실. 중국에서 들여온 품질이 좋은 명주실.
- 306) 그럭저럭.
- 307) 萬里江南. 만 리나 떨어진 먼 강남. '강남'은 양자강 이남의 따뜻한 지방을 이르는 말.
- 308) 九萬蒼空. 구만 리나 되는 높고 푸른 하늘.
- 309) 去中으로. 공중으로.
- 310) 옛적의.
- 311) 孫嬪. 제나라의 뛰어난 병법가. 후에 위나라의 장수가 된 방연(龐涓)과 함께 일지기 귀곡선생에게 배웠는데, 위나라에 있을 때, 그의 재능을 시기한 방연의 참소에 의해, 발꿈치를 잘라내고 얼굴에 먹글씨를 넣는 형벌을 받았다. 이 때 사신으로 와 있던 제나라 순우곤이 그를 몰래 빼내 데려다가, 제나라 위임금의 스승으로 삼았다. 이리하여 제나라의 군사(軍師)가 되어, 위나라의 침략을 받은 한나라를 도와, 방연이 이끄는 위나라 군대를 유인하여 쳐부수자, 방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312) 兩足. 두 다리.
- 313) 齊나라. 중국 춘추시대에 산동성 일대에 있던 나라. 기원 전 1123년에 주나라 무왕이 강태공에게 봉하여 준 나라로, 기원전 386년에 가신인 전씨(田氏)에게 빼앗겼다.
- 314) 楚漢적. 초나라와 한나라가 천하를 놓고 다투던 때.
- 315) 韓信.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을 도와 서한(西漢)을 세운 명장. 회음(淮陰) 출신. 처음에는 항우(項羽)를 섬겼으나 등용되지 못하자 유방에게로 돌아왔다. 소하(蕭何)의 추천으로 등용되어 대장군에 임명되었다. 초한(楚漢) 전쟁 무렵 제왕(齊王)에 봉해졌

으며 해하(垓下)에서 초패왕 항우의 군사를 격파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한고조의 기틀이 완성된 뒤 고조 유방은 그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지위가 낮은 회음후(淮陰侯)에 임명했다가 나중에 살해하였다. 이 때 그는 ‘교토사주구팽(狡兔死走狗烹)’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 316) 一支手が 없었어도, 손 하나가 없었어도, 한신이 처음에는 항우를 따랐으나, 자기의 계책이 쓰이지 않으므로 도망하여 한나라에 들어갔다. 승상 소하는 그를 비범한 인물로 보고 추천하였으나, 임금이 홀려들자, 한신은 이에 크게 낙담하여 한나라로부터 도망하였다. 소하는 한신이 도망하였다는 말을 듣고, 임금에게 알릴 사이도 없이 쫓아가 붙들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소하까지 도망하였다고 말하여, 임금은 마치 두 손을 잃은 듯이 낙담하여 크게 화를 냈다. 이 사실에서 한신이 손 하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한 고조가 ‘마치 두 손을 잃은 듯했다(如失左右手)’는 《사기(史記)》의 기록의 와전이다.
- 317) 大將壇. 대장이 부대의 지휘를 위하여 나아가 서는 곳.
- 318) 一軍皆驚. 온 군사가 모두 놀람. 한나라 고조가 승상 소하의 뜻을 따라, 날을 가려 단을 쌓고, 장군을 맞이할 예의를 갖춘 뒤에 한신에게 대장을 제수하자, 제가 대장으로 뽐히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장수와 군사들이 깜짝 놀랐다고 함.
- 319) 九萬長天. 구 만리나 되는 높고 먼 하늘,
- 320) 點考. 이름을 적어놓은 장부에 점을 찍어가며 수효를 확인하는 일.
- 321) 中原. 중국의 일부 지방을 가리키는 말. 오늘날에는 하남성, 산서성, 산둥성 서부 일대를 지칭하는 말로 황하의 중하류 지역을 일컬으나, 본래 한족의 본 거주지역, 즉 과거 주나라가 있던 곳을 지칭하던 말로서, 이곳을 지배해야 중국을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하던 지역이다. 주나라 이후 한족의 세력이 확대됨에 따라 양자강과 그 서쪽 영역도 증원으로 인식되어 화북평원까지 넓어졌다.
- 322) 칼새. 제비와 비슷하나, 제비보다 조금 큼. 등은 검은 갈색이고, 허리에는 하얀 띠가 있으며, 턱과 목이 약간 회고, 배는 검은 갈색, 깃 가장자리는 검은 바탕에 흰 줄이 있음.
- 323) 露國. 예전에, ‘러시아’를 이르던 말.
- 324) 萬里朝鮮. 만 리나 떨어진 먼 조선.
- 325) 상처가 나으면서 살이 고르지 않게 붙어 도톰해져서.
- 326) 절뚝거리고.
- 327) 小鳥. 새가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328) 갠사오리카. 갠졌습니까.
- 329) 將令. 장수의 명령.
- 330) 變. 뜻밖의 사고나 재앙.
- 331) 明春. 내년 봄.
- 332) 出行날. 길을 떠나는 날.
- 333) 報恩龜. ‘은혜를 갚을 박’이라는 뜻으로 지어 붙인 이름.
- 334) 삼동(三冬). 겨울 석 달.
- 335) 春三月. 봄 3월달.
- 336) 方壯커늘. 마야흐로 한창이거늘.

- 337) 壯히. 매우.
- 338) 黑雲. 검은 구름.
- 339) 발길로 힘껏 앞으로 차고.
- 340) 去中에. 공중에.
- 341) 西蜀은 咫尺이요. 서촉은 아주 가깝고. '서촉'은 중국의 사천성을 이르는 말.
- 342) 蒼茫하구나. 넓고 멀어서 아득하구나.
- 343) 祝融峰. 중국 호남성 형산현 서북쪽에 있는 형산의 일흔두 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
- 344) 朱雀. 전설의 새로, 붉은 봉황으로 그려지는데, 남방의 신이라고 함.
- 345) 오르내리며 날고.
- 346) 黃牛土・黃牛灘. 황우토는 중국 호북성 이창현의 서쪽에 있는 황우산을 말하는데, 그 산의 절벽 아래로 황우탄이 흐른다.
- 347) 鳥鵲橋. 황우탄 위의 다리를 전설 속의 오작교로 가정하여 이른 듯함.
- 348) 吳楚東南. 동정호의 물줄기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었던 오나라와 남쪽에 있었던 초나라를 싸잡아 일컫는 말.
- 349) 遠浦歸帆. 바다 멀리서 포구로 돌아오는 뚝단배의 모습. 소상팔경의 하나.
- 350) 당나라 시인 전기(錢起)가 쓴 시 <귀안(歸雁)>에 있는 귀절. <귀안>은 다음과 같다. 소상하사등환회(瀟湘何事等閑回) 수벽사명양안테(水碧沙明兩岸苔) 이십오현탄야월(二十五弦彈夜月) 불승정원각비래(不勝清怨却飛來). 소상 떠나 무슨 일로 등한히 돌아 왔나? 물은 푸르고, 모래는 밝게 빛나며, 강 양쪽 언덕에는 이끼가 푸르는데, 이십오현 비파를 달밤에 탈 때, 맑은 설움 못 이기어 문득 날아 돌아왔다.
- 351) 一點 二點으로. 하나 둘씩.
- 352) 平沙落雁. 평평한 모래밭에 기러기가 내려앉음. 소상팔경의 하나.
- 353) 白鷗. 갈매기.
- 354) 白鷺. 왜가릿과의 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 부리・목・다리는 길고, 두루미와 비슷하나 다소 작다.
- 355) 滄波上에. 푸른 물결 위에.
- 356) 夕陽村. 저물 무렵의 마을. 소상팔경 중 어촌석조(漁村夕照)를 가리킴.
- 357) 回雁峰. 중국 형산의 일흔두 봉우리 중의 하나. 기러기가 이 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봄에 북쪽으로 간다 해서 붙은 이름.
- 358) 黃陵廟. 요 임금의 두 딸이자, 순 임금의 두 왕비였던 아황과 여영을 모신, 소상강가에 있는 사당.
- 359) 二十五弦彈夜月. 스물다섯 줄로 된 비파를 달밤에 탐. 주 313) 참조.
- 360) 斑竹 가지. 반죽의 가지. '반죽'은 중국 양자강의 두 지류인 소수와 상강이 만나는 곳에서 나는 알록무늬가 있는 대.
- 361) 杜鵑聲. 두견새의 울음 소리.
- 362) 和答하고. (시나 노래에) 응하여 대답하고.
- 363) 鳳凰臺. 중국 강소성 남경의 동남쪽에 있는 누대.
- 364) 봉거대공강자류(鳳去臺空江自流)라. 봉황은 날아가고, 누대는 비었는데, 그 아래로 강

- 물만 흐른다. 이백의 시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의 한 구절.
- 365) 黃鶴樓. 중국 호북성 무창 서남쪽 양자강가에 있는 누대.
- 366) 黃鶴一去不復返이요, 白雲千載空悠悠라못.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황학은 한번 가서 돌아오지 않고, 흰 구름만 천 년을 유유히 떠서 흐른다. 최호의 시 〈黃鶴樓〉의 한 귀절.
- 367) 金陵. 남경의 옛 이름.
- 368) 酒肆村. 술집이 있는 마을.
- 369) 空宿窓外桃李開라. 홀로 자는 창 밖에 복숭아꽃 오얏꽃이 피어 춘정을 더하는구나.
- 370) 落梅花를 툇 차 舞筵에 펄펄 떨어치고, 떨어지는 매화 꽃잎을 발로 차서 춤추는 자리에 떨어뜨리고. 두보의 시 〈성서파범주(城西陂泛舟)〉의 한 귀절인 ‘연축비화낙무연(燕蹴飛花落舞筵)(제비가 떨어지는 꽃잎을 차서 춤추는 자리에 떨어뜨리다)’을 변형한 것임.
- 371) 二水. 중국 광서성 홍양현에서 시작되어 상수와 나뉘어 서남쪽으로 흐르는 물.
- 372) 鷄鳴山. 중국 안휘성 합비현 서북쪽에 있는 산.
- 373) 張子房. 이름은 양(良), 자가 자방. 한 나라의 고조를 도운 개국공신으로 뛰어난 지략가였음.
- 374) 南屏山. 중국 강소성 상요현의 북쪽에 있는 산으로,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빌어 조조의 군사를 깨뜨리기 위하여 칠성단을 쌓은 곳.
- 375) 七星壇. 북두칠성을 모시는 제단.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빌어 조조의 군사를 깨뜨리기 위하여 남병산에다 쌓았음.
- 376) 燕趙之間. 옛 중국의 연나라와 조나라의 사이.
- 377) 長城. 만리장성.
- 378) 礪石山. 중국 요동에 있는 산.
- 379) 燕京. 북경의 옛 이름.
- 380) 皇極殿. 천자가 궁궐에서 정사를 보기 위하여 나가 앉던 곳.
- 381) 萬戶長安. 수많은 집이 가득한 서울. 본래 ‘장안’은 당나라 때 수도로 지금의 서안을 이르지만, 여기서는 서울이라는 의미로 씀.
- 382) 正陽門. 북경성의 정남쪽 문.
- 383) 上達門. 북경성 안의 17리에 걸쳐 이어진 자금성의 아홉 문 중의 둘째 문인 ‘천안문(天安門)’을 가리킨 듯함.
- 384) 潼關. 북경과 요동 사이에 있는 지명임.
- 385) 사(寺)·미륵(彌勒). 절과 미륵.
- 386) 백(百)이로다. 백 개나 된다. 곧 많다는 말.
- 387) 寧古塔. 중국 흑룡강성 남동부에 있는 도시.
- 388) 統軍亭. 의주의 서북쪽 압록강가의 높은 데에 있는 경치가 좋은 정자.
- 389) ‘안쪽에 가까이 있는 남산과 바깥쪽에 멀리 있는 남산’이라는 뜻으로 지어붙인 이름.
- 390) 石壁江. 의주 가까이에서 흐르는 강 이름인 듯함.
- 391) 龍川江. 평안북도 용천에 있는 강 이름인 듯함.
- 392) 左右嶺. 가상의 고개 이름인 듯.
- 393) 부산한 파발(擺撥). ‘파발’은 공문 따위를 급히 전하려고 일정한 거리마다 설치한, 역마

- 를 갈아타던 곳, 또는 그 공문을 나르던 사람.
- 394) 換馬고개. 말을 갈아타는 고개라는 뜻을 지닌 고개 이름인 듯. ‘還馬’는 금의환향이라는 뜻이므로, 환마를 ‘還馬’로 보면, ‘환마고개’는 금의환향하는 고개라는 의미임.
- 395) 평양 북쪽 20리에 있는 다리.
- 396) 練光亭. 평양의 대동강 가에 있는 정자. 대동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덕암(德岩)이라는 바위 위에 있는데, 조선조 중종 때 세워졌음.
- 397) 浮碧樓. 평양의 대동강 가에 있는 누대.
- 398) 長林. 길게 펼쳐진 수풀.
- 399) 松都. 개성의 옛이름.
- 400) 滿月臺. 개성 송악산 밑에 있는 고려 왕궁터.
- 401) 觀德亭. 개성에 있는 고려 때의 정자.
- 402) 朴淵瀑布. 경기도 개풍군에 있는 폭포. 개성(開城)에서 40리 가량 되는 천마산(天摩山)에 있으며, 부근에는 약수가 있고 가을 단풍이 아름다워 송도 삼절(松都三絶)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 403) 時刻에. 빨리.
- 404) 三角山. 서울에 있는 북한산의 다른 이름.
- 405) 地勢. 땅의 형세.
- 406) 天龍의. ‘천룡’은 풍수지리에서, 명당을 이루는 큰 산세를 몰고 내려오는 가장 큰 산줄기.
- 407) 大元脈. 큰 줄기를 이루는 산맥.
- 408) 中嶺. 산줄기의 중간 마루.
- 409) 굽이쳐 흘러내려.
- 410) 인왕산 옆의 금화산.
- 411) ‘계산(桂山)’의 와전인 듯. 오늘날의 종로구 계동 일대의 산줄기.
- 412) 分界. 나뉘.
- 413) 春塘. 창경궁 안의 춘당대(春塘臺).
- 414) 迎春. 경복궁의 동쪽 문인 영춘문(迎春門).
- 415) 道峰. 도봉산(道峰山).
- 416) 望月臺. 산봉우리 이름인 듯.
- 417) 三角山. 서울 북쪽에 있는 북한산의 다른 이름.
- 418) 彬彬하고. 빛나고.
- 419) 嬉嬉하여. 기쁘고 즐거워.
- 420) 萬萬歲之金湯. 오랜 세월 동안의 방비가 아주 견고한 성.
- 421) 이름에. 두 지역이 맞닿은 곳에.
- 422) 舉動. 행동하는 짓이나 태도.
- 423) 칠패(七牌)거리. 지금의 중구 중림동 부근.
- 424) 八牌. 칠패에 연이어 지어 붙인 이름인 듯.
- 425) 지금의 서울역 부근에 있던 다리 이름인 듯.
- 426) 아야고개. 오늘날의 이태원 고개.
- 427) 銅雀江. 동작동에 가까이 흐르는 한강의 한 지류.

- 428) 越江. 강을 건넌.
- 429) 僧房. 남태령과 동작강 사이에 있는 지명인 듯.
- 430) 南泰嶺. 동작동과 과천 사이의 고개.
- 431) 죽지. 새의 날개가 몸에 붙은 부분.
- 432) 堂上 堂下 飛去飛來. 집 처마 위 아래로 날아오고 날아감.
- 433) 翩翩히. 가볍게 훨훨 날아.
- 434) ‘나는’의 잘못.
- 435) 무엇과 같다고.
- 436) 如意珠. 부처의 사리에서 나와 용의 턱 아래에 있다는 구슬. 이것을 지니면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된다고 함.
- 437) 彩雲間. 여러 가지 고운 색깔의 구름 사이.
- 438) 넘노는 듯. 넘나들며 노는 듯.
- 439) 丹山. 봉황새가 산다는 전설 속의 산.
- 440) 竹實. 봉황이 먹고 산다는, 대나무 열매 속에 있는 씨.
- 441) 건축에서 간과 간 사이의 두 기둥머리를 건너지른 나무.
- 442) 제비가 지저귀는 소리를 흉내낸 의성인테, 다른 곳에서는 ‘지지지지(知之知之) 주지주지(主知主知) 거지연지(去之年之) 우지배(又之拜)요, 낙지각지(落之脚之) 절지연지(折之燕之) 은지덕지(恩之德之) 수지차(酬之次)로, 함지포지(啣之顰之) 내지배(來之拜)요.’로 부른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 이다. “아시는지요, 아시는지요? 주인님, 주인님. 떠나갔던 제비가 돌아왔습니다. 떠나갔던 제비가 또 인사를 드립니다. 떨어져서 부러진 다리를 이어주신 은덕을 갚으려고 박씨를 물고 와서 인사드립니다.”
- 443) 제비가 지저귀는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
- 444) 五色 唐絲. 여러 가지 빛깔의 당사. ‘당사’는 중국에서 나는 질 좋은 명주실.
- 445) 알록달록하니.
- 446) 兩主. 바깥주인과 안주인이라는 뜻으로 ‘부부’를 이르는 말.
- 447) 떨어뜨리고.
- 448) 去中. 공중.
- 449) 白雲間. 흰 구름 사이.
- 450) 報恩. 은혜를 갚음.
- 451) 찌꺼기나 건더기가 있는 액체를 체나 거름종이 따위에 받쳐서 액체만 받아 낸다.
- 452) 煎. 생선이나 고기, 채소 따위를 얇게 썰거나 다져 양념을 한 뒤, 밀가루를 묻혀 기름에 지진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
- 453) 欄干. 층계, 다리, 마루 따위의 가장자리에 일정한 높이로 막아 세우는 구조물. 여기서는 코끝을 가리킴.
- 454) 무너뜨리는데.
- 455) 冷冷하구나. 싸늘하구나.
- 456) 天台山. 중국 절강성 천태현의 서쪽에 있는 산.
- 457) 老姑할미. 여자 신선의 이름.
- 458) 商山四皓. 진시황 때에 난리를 피해 상산에 숨은 동원공(東園公), 기리계(綺里季), 하황

공(夏黃公), 녹리(用里) 네 사람을 말하는데, 모두 눈썹과 수염이 희었으므로, ‘호(皓)’라고 하였음. ‘상산’은 중국 섬서성 상현 동쪽에 있는 산.

- 459) 집 앞에 버려진 아이.
- 460) 자장가야.
- 461) 流血. 흐르는 피.
- 462) 여러 놈.
- 463) 옆드려.
- 464) 限定없이. 수량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여 정함이 없이. 끝없이.
- 465) 모두.
- 466) 닳아서 떨어지고.
- 467) 流血. 흐르는 피.
- 468) 狼藉하였기로. 여기저기 흩어져 어지러웠기 때문에.
- 469) 어머니.
- 470) 變. 갑자기 생긴 재앙이나 괴이한 일.
- 471) 自歎. 혼자 탄식함.
- 472) ‘원수같이 서러운’ 정도의 뜻인 듯. 다른 창자들은 ‘원수녀르’로 부른다. ‘원수녀르’는 원수를 강조한 말.
- 473) 三神帝王. 삼신. ‘삼신’은 민속에서 아이와 해산을 맡은 신의 이름.
- 474) 짚으로 만들어놓은 자리. 곧 출산할 때 마련한 자리를 말함.
- 475) 떨어뜨릴 때.
- 476) 命. 목숨.
- 477) 壽福. 목숨과 복.
- 478) 보통 벼보다 일찍 익는 벼.
- 479) 여기서는 ‘올기를 추수하여’라는 뜻으로 씀. ‘잡다’는 보통은 식용으로 하기 위해 짐승을 죽여 장만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런 의미가 곡식으로 전이되어 쓰인 듯함.
- 480) 각지 속에 들어 있어 아직 덜 익은 콩.
- 481) 先山. 조상들의 무덤. 혹은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산.
- 482) 가려고 하는데.
- 483) 薄福하지. 복이 없지.
- 484) 일을 처리하는 수완이나 방법.
- 485) 박 속에 들어 있는 하얗고 연한 부분.
- 486) 그렇다는 셈 치면.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 487) 늘.
- 488) 스르렁. 물건이 끌리면서 조금 크고 시원스럽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489) 슬근. 물체가 서로 맞닿아 가볍게 스치며 자꾸 비벼지는 모양.
- 490) 바가질랑. 바가지는.
- 491) 保命. 목숨을 온전하게 지킴.
- 492) 툇질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 493) (두 편이 서로 주고받는 노래에서) 먼저 불러주소.

- 494) 맞추자고.
- 495) 抱恨. 한을 품음. 여기서는 간절한 소망.
- 496) 집 안에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497) 祖上櫃. 조상의 신주를 모서 놓은 궤.
- 498) 官家. 벼슬아치들이 나랏일을 보던 집. 시골 사람들이 그 고을 수령을 이르던 말.
- 499) 내버려.
- 500) 開坼. 보통 아랫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나 서류의 겉봉에다 뜯어보라는 뜻으로 적는 글.
- 501) 줄지 : 줄어들지.
- 502) 取之無窮之米. 한 없이 가져가도 다하지 않는 쌀.
- 503) 用之不竭之錢. 한없이 써도 없어지지 않는 돈.
- 504) 어머니. 깜짝 놀라거나 끔찍한 느낌을 표현하는 감탄사.
- 505) 一萬九萬兩. 많은 돈을 우습게 표현한 것임.
- 506) 一萬九萬石. 많은 쌀을 우습게 표현한 것임.
- 507) 아주 되고 끄들끄들한 밥.
- 508) 발채. 지게에 얹어서 짐을 싣는 물건. 싸리나 땃조각으로 둥글넓적하게 조개 모양으로 만들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되었음.
- 509) 間. 넓이의 단위. 건물의 칸살의 넓이를 잴 때 쓴다. 한 칸은 보통 여섯 자 제곱의 넓이이다.
- 510) 숲. 명령.
- 511) 티끌.
- 512) 저놈들처럼.
- 513) 안 돼.
- 514) 저놈들처럼.
- 515) 배운 데가 없이. 갖추어진 학문이나 지식이 없이.
- 516) 잡수실까요?
- 517) 옷을 완전히 벗고.
- 518) 옷 벗고.
- 519) 兒女子.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 520) 들어온다는가?
- 521) 여럿이 다 빈틈없이 맞닿거나 들어맞는 모양.
- 522) 조여 있던 것이나 긴장 따위가 갑자기 풀리거나 끊어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523) 재빠르게 센 힘으로 빼앗거나 훔치듯.
- 524) 딱딱. 여럿이 다 빈틈없이 맞닿거나 들어맞는 모양.
- 525) 長短. 전통음악에서 박자, 또는 리듬을 가리키는 말.
- 526) 閑良. 돈 잘 쓰고 잘 노는 사람.
- 527) 판소리 장단의 한 가지로, 아주 빠른 4박자이다.
- 528) 다르르 하게. '다르르'는 어떤 일에 능통하여 막힘없이 잘하는 모양.
- 529) 빠르게 만들어 놓고.
- 530) 오줌을 누는 그릇.

- 531) 거죽으로 특 비어져 나오고.
 532) 느려지는구나.
 533) 잠깐 사이에 없어지거나 죽는 모양.
 534) 애들아.
 535) 어떤 일의 기회나 계기에.
 536) 泄瀉便. 설사똥.
 537) 남원과 운봉 사이의 고개.
 538) 어머니. 깜짝 놀라거나 끔찍한 느낌을 표현하는 감탄사.
 539) 才談. 익살과 재치를 부리며 재미있게 이야기함. 또는 그런 말.
 540) 너희들.
 541) 먹으니까.
 542) 燧人氏 教人火食. 수인씨가 사람들에게 불로 음식을 익혀 먹는 것을 가르쳤다는 말. 수인씨는 중국의 삼황오제 시절의 전설적인 인물로, 불을 사용하는 법과 음식을 익혀 먹는 법을 가르쳤다고 함.
 543) 萬乘天子. 만 대의 전차를 가진 천자.
 544) 食以爲大. 먹는 것이 제일 큰 일임.
 545) '홍에 겨워 아무렇게나 추는 춤'이라는 뜻으로 쓴 말인 듯. 다른 곳에서는 '절구대춤'으로 부른다. '절구대춤'은 홍에 겨워 절구공이처럼 뺨뺨이 서서 뛰어 오르내리며 추는 춤.
 546) 가난하기로. 가난하다고.
 547) 三南.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함께 일컫는 말.
 548) 石崇. 중국 진(晉)나라 때의 부호이며 문장가. 자는 계륜(季倫). 형주자사를 지냈음. 향해와 무역으로 돈을 벌어 그 영화로움이 비길 데가 없었다고 한다. 기생 녹주(綠珠)와의 일화로 유명하다.
 549) 부러워하며.
 550) 陶朱公. 중국 춘추시대 월나라 왕 구천(句踐)의 충신인 범여를 가리킴. 본디 초나라 사람으로, 자는 소백(小伯). 월왕 구천을 도와 오나라 왕 부차(夫差)를 죽여 원수를 갚게 했는데, 후에 제나라에서 큰 부자가 되었음.
 551) 큰아들. 첫째 아들.
 552) 건넌 마을.
 553) 言忠信 行篤敬. 말은 믿음 있게 하고, 행동은 공경하고 착실하게 함.
 554) 무엇에 의지하여 빠지고 으시댐.
 555) 愒視. 업신여겨 깔봄.
 556) 饑民 救濟.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함.
 557) 五音六律. 음률의 다섯 가지 음, 즉 궁, 상, 각, 치, 우와 12음 가운데 양성에 딸린 여섯 가지, 즉 대주, 고선, 황중, 이칙, 무역, 유빈.
 558) 가야금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
 559) 거문고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
 560) 대금.
 561) 대금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

- 562) 銀金寶貨. 금은 보석을 아울러 일컫는 말.
 563) 형님前에. 형님께.
 564) 嚴冬雪寒. 눈보라 치는 아주 추운 겨울.
 565) 數多한. 많은.
 566) 못 견디게 학대당하던.
 567) 廊 속에. ‘곽’은 관(棺)을 넣은 길궐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관의 의미로 썼음. 관(棺) 속에.
 568) 一身手足. 한 몸의 손과 발.
 569) 넓은.
 570) 하겠습시다.
 571) 아무럼. 말할 것도 없이 그렇다는 뜻.
 572) 江上에. 강 위에.
 573) 당하겠는가.
 574) 所管. 맡아 관리하는 바, 또는 그 범위.
 575) 붉은색 비단.
 576) 푸른색 비단.
 577) 日光緞. 해나 햇살 무늬를 그려놓은 비단.
 578) 月光緞. 달이나 달빛 무늬를 그려놓은 비단.
 579) 西王母 瑤池宴. 서왕모가 요지에서 벌이는 잔치. ‘서왕모’는 옛날 중국에서 받들던 신녀. ‘요지연’은 서왕모가 산다는 요지라는 연못에서 벌이는 잔치.
 580) 進上하던. ‘진상’은 지방의 토산물을 임금이나 윗사람에게 바치는 일.
 581) 天桃紋. 하늘나라에서 난다는 복숭아를 그려놓은 비단.
 582) 白雪이 滿空山한데 節概 있는 松竹緞. 흰 눈이 낙엽이 진 빈 산에 가득한데, 절개가 있는 송죽단. ‘송죽단’은 소나무와 대나무가 그려진 비단. 소나무와 대나무가 절개를 상징하기 때문에 ‘절개 있는 송죽단’이라고 하였음.
 583) 登泰山小天下라고 하던. 태산에 올라보니 천하가 작아 보인다라고 말하던.
 584) 孔夫子. 공자.
 585) 大緞. 한단(漢緞). 중국에서 나던 비단의 하나.
 586) 南陽 草堂. 중국 하남성 남양현에 있던, 제갈량이 벼슬에 나가기 전에 살던 집.
 587) 景 좋은 데. 경치 좋은 곳.
 588) 萬古才士. 오랜 세월을 걸쳐 이름을 날릴 재주 있는 선비. 여기서는 제갈량을 가리킴.
 589) 臥龍緞. 누워 있는 용이 새겨진 비단. 제갈량의 호가 와룡이었으므로 지어 붙인 이름.
 590) 중국에서 주변에 살던 미개한 종족을 멸시하는 뜻으로 부르던 말.
 591) 太平乾坤. 태평한 온 세상.
 592) 大元緞. 가상의 비단 이름인 듯.
 593) 洋太紋. 갓끈으로 많이 쓰이는 양태문 갑사.
 594) 銀造紗. 중국산의 얇은 비단으로, 주로 여름 옷감으로 씀.
 595) 富貴多福.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복이 많음.
 596) 富貴多福 福壽緞. 부귀하고 복이 많으라는 뜻으로, ‘福’자와 ‘壽’자를 새겨 넣은 비단.

- 597) 三旬九食. 삼십 일에 아홉 번 식사를 할 정도로 몹시 굶주림. ‘궁초(宮 초)’의 궁자가 곤궁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궁(窮)’자와 음이 같으므로, 삼순구식이라는 말과 연결시킨 것임.
- 598) 宮綃. 비단의 한 종류.
- 599) 吉州 明川 가는 배. 함경도 길주와 명천에서 나는 올이 가는 삼베인 세마포(細麻布)를 가리킨 듯.
- 600) 康津 海南 極上細木. 전라남도 강진과 해남에서 나는 아주 올이 가늘고 고운 무명.
- 601) 충청남도 한산(韓山)에서 나는 질 좋은 모시.
- 602) 충청남도 임천(林川)에서 나는 질 좋은 모시.
- 603) 生綃. 명주실로 얇게 짠 비단의 한 가지.
- 604) 三八. 삼팔주(三八紬). 중국에서 나는 명주의 한 가지.
- 605) ‘와사직(瓦斯織)’의 잘못. 와사로 짠 베. ‘와사’는 무명실의 거죽에 잔털같이 일어난 섬유를 가스 불에 태워서 반드르르하게 윤을 낸 실.
- 606) 甲紗. 품질이 좋은 얇은 비단. 여름 옷감이나 땀기로 많이 씀.
- 607) 巨富. 아주 큰 부자.
- 608)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감고.
- 609)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면서 감고.
- 610) 약한 노란 빛이 나는.
- 611) 松花색. 소나무꽃 색깔. 곧 노랑색.
- 612) 三回裝 저고리. 저고리 깃, 소매부리, 겨드랑이를 자주 또는 남빛 형질로 꾸민 여자의 저고리.
- 613) 먹貢緞. 먹처럼 검은 공단. ‘공단’은 무늬가 없고 두꺼운 비단.
- 614) 治粧. 잘 매만져 곱게 꾸밈.
- 615) 網巾. 상투를 틀 때 머리가 흘러내려오지 않게 머리에 두르는 그물처럼 생긴 물건.
- 616) 여자의 길게 땀은 머리끝에 드리운 형질이나 끈.
- 617) 單衣. 속곳. 속속곳과 단속곳의 총칭.
- 618) 속속곳과 다리속곳, 단속곳을 통틀어 일컫는 말. ‘속속곳’은 옛 복장에서 여자가 맨 속에 입는 속옷으로, 다리통이 넓고 밑이 막혀 있음. ‘다리속곳’은 치마 맨 속, 속속곳 속에 받쳐 입는 작은 속옷. ‘단속곳’은 여자의 치마 속, 바지 위에 덧입는 속옷.
- 619) 옛 복장에서 여자가 맨 속에 입는 속옷. 다리통이 넓고 밑이 막혀 있음.
- 620) 여자의 가슴에 매던 띠.
- 621) 寶貨. 보물.
- 622) ‘외배미 들’의 잘못. 한 배미로 된 들. 곧 그렇게 평평한 들. ‘배미’는 논 한 구역.
- 623) 億十萬金. 많은 돈.
- 624) 素砂들. 충청북도 북쪽에 있는 넓은 들.
- 625) 數萬金. 많은 돈.
- 626) 富益富.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됨.
- 627) 대자귀. 큰 자귀. ‘자귀’는 나무를 깎는 연장.
- 628) 소자귀. 작은 자귀.

- 629) 연장의 하나로, 나무에 구멍을 파거나 다듬는 데 씀. 가늘고 긴 쇠의 날을 세워 위에는 나무로 머리를 만들어 망치로 때려 구멍을 뚫.
- 630) (사람이나 동물을) 때리는 데 쓰는 단단하고 찰막한 몽둥이
- 631) 주로 흙을 파헤치거나 떠서 던지는 데 쓰는 농기구. 삽처럼 생긴 나무로 된 몸 끝에 쇠로 날을 박았는데, 자루가 길다.
- 632) 東山下. 동쪽에 있는 산 아래.
- 633) 넓은.
- 634) 壬坐丙向. '임좌'는 임방(壬方)을 등진 자리, '병향'은 병방(丙方)을 향한 자리. 따라서 '임좌병향'은 북북서쪽을 등지고 남남동쪽을 향한 자리를 말함.
- 635) 八卦를 놓아. 풍수지리설에 따라 방위를 잡아서. '팔괘(八卦)'는 고대 중국인들이 사용하던 여덟 가지의 궤로 주역(周易)에서 자연계(自然界) 및 인사계(人事界)의 모든 현상을 음양을 겹치어서 여덟 가지의 상(象)으로 나타낸 것. 고대 중국인들이 운명 판단의 기본원리를 접쳐 보는 데 사용하여 발전해 온 것임. 건(乾), 태(兌), 이(離), 진(震), 손(巽), 감(坎), 간(艮), 곤(坤) 등.
- 636) 사방으로 빙 둘러친 담.
- 637) 朱欄畫閣. 단청을 아름답게 한 누각.
- 638) 中門. 대문 안에 거둬 세운 문.
- 639) 솟을대문. 행랑채의 지붕보다 높이 솟게 만든 대문.
- 640) 風磬. 처마 끝에 다는 작은 종처럼 생긴 물건. 쇳조각으로 봉어 모양을 달아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려 소리가 나게 되어 있음.
- 641) 千石지기. 벼 천 석을 추수할 만큼의 농사.
- 642) 萬石지기. 벼 만 석을 추수할 만큼의 농사.
- 643) 百家口 雜文書. 백 가구의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문서.
- 644) 새벽. 새벽에 동쪽 하늘에 밝게 보이는 금성(金星)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 645) '다물다물'에서 파생된 말인 듯. '다물다물'은 무엇이 무더기 무더기로 쌓인 모양.
- 646) 분량이 다소 범위에 넘치는 모양. 가득.
- 647) 舍廊. 집의 안채와 떨어져 있는, 바깥주인이 거처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곳.
- 648) 무슨 일에 실속 이상으로 꾸미어 드러냄.
- 649) 본다고 하면. 보면.
- 650) 角壯 壯版. 보통 것에 견주어 더 넓고 두꺼운 장판지로 바닥을 바른 장판.
- 651) 소란반자. 정(井) 자를 여럿 모아놓은 것처럼 반자들을 짜고, 그 구멍마다 네모진 판자를 넣어 만든 반자. '반자'는 방이나 마루에 종이나 나무로 반반하게 만든 천장.
- 652) 卍字 밀창. 卍 자 무늬가 여럿 이어져서 이루어진 미단이문.
- 653) 櫺櫚文匣. 곱고 단단하며 붉은 빛을 띤 자단목으로 만든, 문서나 문구 따위를 넣어두는 긴 궤.
- 654) 玳瑁冊床. 대모로 만든 책상. '대모'는 바다 거북의 등껍질.
- 655) 詩傳. 주희가 주해를 단 《시경(詩經)》.
- 656) 書傳. 송나라 때에 주희의 제자인 채침이 주해를 단 《서경(書經)》.
- 657) 周易. 삼경(三經)의 하나로, 중국 주(周)나라 초에 지어진 길흉을 판단하여 점치는 책.

- 658) 李白, 이태백(李太白). 태백은 자(字)이고 호는 청련(靑蓮). 성당(盛唐) 때의 대시인으로 두보와 함께 시종(詩宗)으로 존앙받았다. 신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귀양와서 사람이 되었다는 뜻으로 '적선(謫仙)'이라고도 일컬어진다.
- 659) 杜詩. 두보의 시. 두보의 시를 모아놓은 책.
- 660) 通史略. 북송의 사마광이 편년체로 엮은 역사책인 《자치통감(自治通鑑)》과, 원나라 중선지가 엮은 《십팔사략(十八史略)》을 아울러 일컫는 말.
- 661) 좋음도. 좋기도.
- 662) 이력저력.
- 663) 근심은.
- 664) 거들먹거리고 신이 나서 버릇없이 굴면서.
- 665) 石手. 돌을 전문으로 가공하는 사람.
- 666) 木手. 나무를 다루어 집을 짓거나 가구·기구 따위를 만드는 일로 업을 삼는 사람.
- 667) 瓦手. 기와 올리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668) 土手. 흙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미장이.
- 669) 仙藥. 효험이 썩 좋은 약.
- 670) 재산이나 돈을 함부로 써서 몽땅 없애버릴꼬. 여기서는 '빼앗아 먹을꼬'라는 뜻으로 썼음.
- 671) 枉臨. 남이 자기 있는 곳으로 찾아움을 높여 이르는 말.
- 672) 近來. 요즈음.
- 673) 先塋. 선산(先山). 조상의 무덤, 또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
- 674) 배우지 않은.
- 675) 家產. 한 집안의 재산.
- 676) 一朝一夕. 하루 아침 하루 저녁. 곧 지극히 짧은 시간.
- 677) 五衛營門出使. 오위에서 영을 받고 나온 포교. '오위'는 조선조 때 군대 편제의 이름.
- 678) 事之至此. 일이 이 지경에 이름.
- 679) 天機漏泄. 중대한 기밀이 누설됨.
- 680) 집안 살림에 쓰는 온갖 제구.
- 681) 열쇠.
- 682) 限定. 일정한 수량이나 범위를 제한하여 정함.
- 683) 寄別. 딴 데 있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소식을 알림.
- 684) 僅僅扶持. 겨우 겨우 지탱해 나감.
- 685) 大鱗. 아주 큰 구렁이 또는 이무기.
- 686) 중국에서 나는 좋은 비단실.
- 687) 恩功. 은혜와 공로를 아울러 이르는 말.
- 688) 報恩袍. 은혜를 갚을 박.
- 689) 日就月將하여. 날마다 자라고 달마다 자라.
- 690) 그러니까.
- 691) 지긋이 힘을 주어 부러뜨리는 모양이나 소리.
- 692) 부러뜨려가지고.

- 693) 동여매주니까.
 694) 부러뜨린.
 695) 부러뜨리면.
 696) 嚴冬雪寒. 눈 내리는 깊은 겨울의 심한 추위.
 697) 家君. 남편, 혹은 자기 아버지를 높여 일컫는 말.
 698) 韓山 細모시이다. 충청남도 한산에서 나는 품질이 좋은 울이 가는 모시이다.
 699) 중국에서 들어온 푸른색 물감.
 700) 약간 푸른 빛이 돌게. 푸르스름하게.
 701) 치마나 바지 따위의 맨 위, 허리에 둘러 대는 부분.
 702) 치맛자락을 왼쪽으로 여민 치마.
 703) 弟嫂. 동생의 아내.
 704) 安城 鑰器. 안성에서 나는 질 좋은 낫그릇.
 705) 統營 漆板. 경상남도 통영에서 나는 질 좋은 옷칠 소반.
 706) 天銀. 질 좋은 은.
 707) 구리 箸. 구리로 만든 젓가락. 여기서는 ‘구리 적사’의 잘못된 듯. ‘구리 적사’는 구리로 만든 석쇠. ‘석쇠’는 고기 또는 군은 떡 따위를 굽는 데 쓰는 기구. 굽은 철사로 테를 하고, 가는 철사나 구리철사 등으로 잘게 그물처럼 엮어 네모지거나 둥글게 만듦.
 708) 執吏書吏. 관아에서 일을 보던 구실아치.
 709) 數 벌이듯. 계산을 위해 산대를 벌여 놓듯. ‘산대’는 옛날 계산을 위해 쓰던 대나무 막대기로, 산가지라고도 함.
 710) 烏竹板. 빛깔이 검고 작은 대나무인 오죽에다 꽃을 그려 붙여 만든 소반.
 711) ‘대 모양 양각(陽刻) 당화기(唐畵器)’의 잘못. 대 모양을 돌을새김하여 그려 넣은 중국 산 사기 그릇.
 712) 가는 것이 이리저리 뒤섞이어 얽힌 모양. 여기서는 송편을 찢 때 넣는 술잎이 얽혀 있는 모양을 가리킨 듯.
 713) 반듯.
 714) 貞節餠. 네모 반듯하게 자른 흰떡.
 715) 팔을 꺾질 채로 삶아 찢 떡.
 716) 苹果. 사과.
 717) 眞淸. 벌꿀.
 718) 生淸. 불에 끓이지 않은 꿀.
 719) ‘조란(鳥卵) 산적’의 잘못. 달걀을 풀어 썩워 구운 산적. ‘산적’은 쇠고기 따위를 길게 썰어 양념을 하여 꼬챙이에 꿰어 구운 음식.
 720) 위에다 곁들여.
 721) 소의 밥통의 고기로 만든 회.
 722) 소·양 따위의 새김질하는 짐승의 셋째 밥통.
 723) ‘양푼’의 잘못. ‘양푼’은 음식을 담거나 데우는 데 쓰는 낫그릇.
 724) 淸圓. 꿀물에 경단(참쌀로 만든 작고 둥그란 떡)을 담근 것.
 725) 水圓. 꿀물이나 오미자물에 경단을 담근 것.

- 726) 'жат배기'는 잣을 문힌 박산(산자의 몸이나, 엿을 반듯하고 얇게 잘라 잣이나 호두 따위를 양쪽에 붙인 유밀과).
- 727) 軟脯. 살점을 떠서 말린 고기.
- 728) 山菜. 산나물.
- 729) 수근(水芹)채. 수근을 잘게 썰어 만든 채. '수근'은 미나리.
- 730) 들이붓고.
- 731) 靑銅火爐. 청동으로 만든 화로.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
- 732) 떡갈나무나 참나무로 만든 숲. 숲 가운데서 가장 화력이 셈.
- 733) 껌질.
- 734) '드리워라'로 해야 함. 위에 얹어 부어라.
- 735) 연계(軟鷄)찜. 어린 닭 찜.
- 736) 단단한 물건을 깨무는 소리.
- 737) 포드닥. 작은 날짐승이나 물고기가 날개나 꼬리를 가볍게 치는 소리.
- 738) 메추리탕. 메추리 고기로 끓인 탕국.
- 739) 석로 만든 젓가락.
- 740) 箸. 젓가락.
- 741) 덩석. 무엇을 냉큼 움켜잡거나 무는 모양.
- 742) 적셔.
- 743) 過夏酒. 소주와 약주를 섞어 빚어서 주로 여름에 마시는 술.
- 744) 花薰. 꽃 무늬가 새겨진 술잔.
- 745) 여기 있소.
- 746) 薄酒이지만. 보잘것없는 술이지만.
- 747)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
- 748) 小大祥. 소상(小祥)과 대상(大祥)을 아울러 이르는 말. '소상'은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지내는 제사. '대상'은 사람이 죽은 지 두 돌 만에 지내는 제사.
- 749) 勸酒歌. 술을 권하며 부르는 노래.
- 750) 暴惡. 사납고 악함. 사납고 악한 행동을 함.
- 751) 시골 티. 세련되지 못한 티.
- 752) 勸酒歌. 술을 권하며 부르는 노래.
- 753) 한 곡조.
- 754) 古今天地. 옛부터 지금까지의 온 세상에.
- 755) 錢穀藉勢. 돈과 곡식이 있다고 빼기고 으스דם.
- 756) 嚴冬雪寒. 눈보라치는 추운 겨울.
- 757) 추운.
- 758) 못 견디게 학대함.
- 759) 榔. 덧널. 관을 넣으려고 따로 짜 맞춘 큰 널.
- 760) 임금님.
- 761) 잡수시면.
- 762) 궁중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밥을 높여 이르던 말.

- 763) ‘밥’의 높임말.
 764) 祭床.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차려놓는 상.
 765) 제사에 쓰려고 지은 밥.
 766) 官家. 벼슬아치들이 나랏일을 보던 집. 시골 사람들이 그 고을 수령을 이르던 말.
 767) 損徒.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을 때 동네에서 쫓아내는 일. 따라서 이 대목은 ‘관가에서 알면 불기가 싸고, 동네에서 알면은 손도가 나겠소’라고 고쳐야 함.
 768) 엉덩이. 여기서는 옛 형벌의 하나로 엉덩이를 매로 치는 일.
 769) 있겠습니까?
 770) ‘턱’을 낮잡아 속되게 일컫는 말.
 771) 붉은.
 772) 花草穢. 문장에 화초의 그림을 그려 만든 장롱.
 773) 三綱五倫. 유교의 도덕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의 강령과 지켜야 할 다섯 가지의 도리. ‘삼강’은 신하는 임금에 따르고, 아들은 아버지를 따르고, 아내는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며, ‘오륜’은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친애, 부부 사이에는 분별,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 친구 사이에는 믿음에 있어야 함을 이르는 유교의 다섯 가지 윤리.
 774) 長孫. 집안의 사내아이 중 제일 맏이.
 775) 先塋. 선산(先山). 조상의 무덤, 또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
 776) 次孫. 집안의 사내아이 중 둘째.
 777) 달라. 다오.
 778) 든든히 박힌 소의 뺨을 뺨으려면 불로 달구어 놓은 김에 해치워야 한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생각했으면 한창 열이 올랐을 때 망설이지 말고 곧 행동으로 옮겨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79) 모두. 전부.
 780) 곁에 있는 껍데기.
 781) 굳이. 꼭.
 782) 땀뻥걸이. 질뻥걸이. 함 따위를 짊어지는 데 걸어서 쓰는 줄.
 783) 行次. 옷어른이 차리고 나서서 길을 감.
 784) 체하느라고.
 785) 이어서 계속.
 786)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가 마음에 놀랍거나 못마땅한 정도로 심하다고 느낄 때 내는 소리.
 787) 방바닥 아래, 연기가 나가는 통로 위에 깔아 방바닥을 만드는 넓고 얇은 돌.
 788) 房帳. 창문이나 방문에 치는 휘장.
 789) (옮겨 심기 위하여) 잔디를 흙이 붙은 채로 떠낸 조각.
 790) 고추장.
 791) 집안을 낮잡아 이르는 말.
 792) 도리상 옳지.
 793) 坐而不動.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음.

- 794) 웬일인 것이냐.
 795) 부러뜨려가지고.
 796) 부러뜨리면.
 797) 그럭저럭.
 798) 三冬. 겨울 석 달.
 799) 春三月. 봄 삼월달.
 800) 본래는 (게, 소라, 거북같은 것의) 몸을 싸고 있는 뼈같은 단단한 물질로 된 껍데기를 가리킴. 여기서는 제비집을 단단한 껍데기로 보아 그렇게 부른 것임.
 801) 휘몰아 쫓으러.
 802) 복희씨(伏羲氏). 그물을 만들었다는 중국의 전설의 임금.
 803) 만들어내신.
 804) 등글게 휘어 당겨.
 805) 들어올려서 어깨에 매고.
 806) 方丈山. 지리산의 다른 이름.
 807) 右頭峰. 오른 편 앞쪽에 있는 산봉우리라는 뜻으로 지어 붙인 이름.
 808) 左頭峰. 왼 편 앞쪽에 있는 산봉우리라는 뜻으로 지어 붙인 이름.
 809) 뒤로 멀찌감치 돌아.
 810) 가느냐.
 811) 鷹飛戾天. 하늘 높이 나는 소리개.
 812) 소리개.
 813) 南飛鳥鵲. 남쪽으로 날아가는 까마귀와 까치.
 814) 春日黃鸝의. 봄날의 피꼬리.
 815) 층암절벽(層巖絕壁). 여러 층의 험한 바위로 된 절벽.
 816) 天火日. ‘천화일’은 정월·오월·구월에는 자일(子日), 이월·유월·사월에는 묘일(卯日), 삼월·칠월·십일월에는 유일(酉日)에 해당하는 날로, 이 날에 상량을 올리거나 지붕을 없으면 불이 난다고 함.
 817) 火及棟樑이니. 기둥과 들보에 불기운이 끼었으니.
 818) 身數. 한 사람이 지닌 운수.
 819) 不吉한. 운수가 좋지 아니한.
 820) 小盤. 자그마한 밥상.
 821) 서서 하지 않고 앉으면서 허리를 굽혀 머리를 조아리는 절.
 822) 오랫동안 공들여 해 온 일이 허사가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23) 人구렁이. 사람 구렁이.
 824) 부러뜨려서.
 825) 곱하니. (옷어른께) 알리니.
 826) 惡名. 악하다고 소문이 난 평판.
 827) 明春. 내년 봄.
 828) 怨讐 讐字, 바람 風字. 두 글자를 합치면 ‘수풍(讐風)’으로 ‘원수를 갚을 바람’이란 뜻이 됨.

- 829) 三冬. 겨울 석 달.
- 830) 春三月. 봄 삼월달.
- 831) 새로 돌아온 박의 연한 싹.
- 832) 다듬잇감을 감아서 다듬이질을 할 때 쓰는, 단단한 나무로 둥글고 길게 만든 도구.
- 833) 상당한 양의 돈 이상으로.
- 834) 농악을 연주하는 소리.
- 835) 銀金. 은과 금.
- 836) 생원님. 너무 얌전하고 고루한 사람을 일컫는 말.
- 837) 조선조 후기에 발생한 유랑 연예인 집단의 한 가지로, 가면극을 특기로 삼고, 풍물, 얼른(마술), 죽방울치기 등을 연행하였음. 본래 ‘초라니’란 ‘요사스럽게 생긴 탈’을 지칭.
- 838) 장타령을 부르면서 구걸을 하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
- 839) 어떤 구실로 남을 위협하거나 달래어 물건을 가져가고.
- 840) 改過遷善. 잘못을 고쳐 착한 사람이 됨.
- 841) 和睦.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 842) 관소리의 끝에 쓰이는 말로, 정확한 어원이나 뜻을 알 수 없음. ‘어질더질’이라고도 함.

전인삼 창

Sung by Jeon In-sam

1. (놀보 심술)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는 지역에 놀보와
홍보 형제가 살았는데, 형 놀보는 심술이 사납기로 유명
하였다.

[아니리] 아동방¹⁾이 군자지국²⁾이요, 예의지방³⁾이라,
십실촌⁴⁾에도 충신이 나고,
칠세지아이⁵⁾도 효도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⁶⁾ 사람이 있으리오마는,
요순⁷⁾ 임금 시절에도 사흉⁸⁾이 있었고,
공자님 당년⁹⁾에도 도척¹⁰⁾이가 났으니,
일종¹¹⁾ 여기¹²⁾를 인력¹³⁾으로 할 수 있나?
경상·전라 그 두 얼푼¹⁴⁾에 홍보·놀보가 살았는데,
놀보는 형이요, 홍보는 아우인데,
동부동모¹⁵⁾ 소생¹⁶⁾으로,
사람마다 오장¹⁷⁾이 육부¹⁸⁾로되, 놀보는 오장이 칠부라.
어찌하여 칠부인고 하면,
심술보 하나가 외약¹⁹⁾ 갈빗대 밑에 가서 장기 궁썩²⁰⁾만한 놈이 그저
똥도도롭하게²¹⁾ 붙어가지고,
잠만 자고 일어나서 그저 밥만 먹고 나면, 심술을 부리는데, 놀보 심
술이 꼭 이렇것다.

[자진모리] 대장군방²²⁾ 벌목²³⁾하고,
오귀방²⁴⁾에 집을 짓고,
삼살방에다²⁵⁾ 이사 권코,²⁶⁾
불 붙는 데 부채질을 그저 활활 하고,
호박에 말뚝 박고,
길 가는 과객²⁷⁾ 양반 재울 듯기²⁸⁾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1. (Nolbo's Perverseness) Two brothers, Nolbo and Heungbo, lived near the border between Gyeongsang Province and Jeolla Province. The elder brother, Nolbo, was notorious for his perverseness.

[Aniri] Korea has been a country of virtue.

There is a loyal subject even in a small village.

Even a young child is nice to his parents and siblings.

How could there be a bad person?

But there were robbers even during the peaceful time.

There was a thief even in the period of Confucius.

How can we control bad energy?

Heungbo and Nolbo lived in a region where Gyeongsang and Jeolla Provinces come in contact with each other.

The elder brother is Nolbo, and the younger brother is Heungbo.

They are from the same parents.

Unlike other human beings, Nolbo has an extra internal organ.

Let me speak about the extra organ.

A perversity bag of the size of the largest chess king sticks out under his left ribs.

After Nolbo gets up in the morning and after he eats a meal, he always acts perversely as follows:

[Jajinmori] Nolbo tells others to cut down trees to bring bad luck to them.

He tells people to build houses in unlucky sites.

He encourages people to move to unlucky sites.

He fans burning houses hard.

He drives stakes into young pumpkins.

He detains travelers as if he will provide a place to sleep, but kicks them out after the sun sets.

초란이²⁹⁾ 보면은 딴 낫 짓고,³⁰⁾
 거사³¹⁾ 보면은 소고³²⁾ 도적,
 의원 보면 침 도적질,³³⁾
 양반 보면은 관³⁴⁾을 찢고,
 애 뺨 부인 배통³⁵⁾ 차고,
 수절과부³⁶⁾는 모함잡고,³⁷⁾
 다 큰 큰애기 겁탈,³⁸⁾
 곱사둥이³⁹⁾는 뒤집어 놓고,
 앓은뱅이는 턱을 차고,
 비단전⁴⁰⁾에 물총 놓고,⁴¹⁾
 고추밭에 말 달리기.
 옹기짐⁴²⁾ 받쳐노면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가만히 찾아가서 작대
 기 걷어차기,
 똥 누는 놈 주샅히고,
 봉사 눈에다 똥칠하고,
 노는 애기 집어뜯고,
 우는 애기는 코 빨리기,
 물 이고 오는 부인 귀 잡고 입 맞추고,
 시암질⁴³⁾에다 허방 놓고,⁴⁴⁾
 새 망건⁴⁵⁾ 편자⁴⁶⁾ 꿇고,
 새 갓 보면 땀때⁴⁷⁾ 떼기,
 소리하는데 잔소리,
 풍류⁴⁸⁾하는데 나발 불고,
 길가에 허방 놓고.
 어따,⁴⁹⁾ 이놈이 심술이 이래노니,
 삼강⁵⁰⁾을 아느냐? 오륜⁵¹⁾을 아느냐?
 이러한 불측한⁵²⁾ 놈이,

He casts an amorous glance at a traveling entertainer.
He steals a drum from an entertainer.
He steals acupuncture needles from doctors.
He tears the hats off high class people.
He kicks the bellies of pregnant women.
He puts false charges on faithful widows.
He rapes young ladies.
He lays hunchbacks on their back.
He kicks the chins of crippled men.
He sprays water in silk stores.
He runs a horse in a pepper field.
He sneaks up to an A-framed carrier with pots, and kicks away
the prop.
He presses down babies relieving themselves.
He pastes dung on a blindman's eyes.
He pinches a bay playing happily.
He lets a crying baby suck his runny nose.
When a woman carries a water pot on her head, he holds her
ears and kisses her.
He digs a hole on the road to a well.
He cuts the string off a new headband.
He takes a thread off a new cylindrical hat.
He makes noises when a person sings.
He plays a trumpet when a person recites a poem.
He digs a hole on the side of a road.
He acts perversely like above.
Would he know about the basic ethical rules?
He is a cruel person.

2. (놀보가 홍보를 쫓아냄) 하루는 놀보가 공연한 트집을 잡아 홍보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니, 홍보 내외가 아이들을 데리고 울면서 떠나간다.

[아니리] 삼강도 모르고, 오륜도 모르는 놈이 어찌 형제 윤진들⁵³⁾ 알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제 금지옥엽⁵⁴⁾같은 동생을 내쫓으려고,
비 오는 날 와가리⁵⁵⁾ 성음⁵⁶⁾을 내어 제 동생을 부르겠다.

“네 이놈, 홍보야!”

이렇듯 불리노니, 홍보 듣고 바깥으로 우루루 나오며,

“아이고, 형님. 저 불리계시옵니까?”

“이놈아. 너 불렀제, 이 녀석아.

내가 네 그림자 불렀단 말이나?

묘초초롬허게⁵⁷⁾ 잘 차렸구나.

야 이놈아, 관대가리⁵⁸⁾나 쓰고, 옹구바지⁵⁹⁾ 입고,

골머리⁶⁰⁾에 손이나 넣고,

도랑⁶¹⁾으로 그저 서리 맞은 능구렁이 다니듯이 실실 돌아다니다가,

내방⁶²⁾ 출입⁶³⁾ 많이 하여 자식새끼는 그저 돼야지⁶⁴⁾ 이물돌⁶⁵⁾ 까놓

듯 움주루루루이⁶⁶⁾ 까놓고,

내 것만 뜯어 먹으니,

내가 무슨 어버이나?

이 녀석아. 오늘은 그럴 것 저럴 것도 없고,

너희 처자 권속⁶⁷⁾ 자식들 데리고 모조리 나가도록 하여라.”

홍보가 깜짝 놀라며,

“아이고, 형님. 무슨 일로 역정⁶⁸⁾을 내시는지 모르오나,

한번만 통촉⁶⁹⁾해 주시지요.”

2. (Nolbo Kicks Heungbo Out.) One day, Nolbo makes a false charge against Heungbo and tells him to get out of his house. Heungbo, his wife, and his children leave in tears.

[Aniri] Nolbo doesn't know basic ethical rules. How could he know the ethical rules related to brothers?

One day Nolbo intends to kick his precious brother out of his house.

On a rainy day, Nolbo yells at his brother like a heron.

"Heungbo, you bastard!"

In response to the yell, Heungbo comes out of his room quickly.

"Brother, did you call me?"

"I called you. You scoundrel!"

Would I call your shadow?

You are dressed up like a young man.

You villain. You wear a fancy hat and loose trousers.

You put your hands inside the trousers.

You sneak around in ditches secretly like a snake frosted.

You had fun with your wife and begot a lot of children like a pig.

You are living off me.

Am I your parent?

You rat! I don't want to argue with you.

Get out of my house with your wife and children."

Heungbo is surprised.

"Brother, I don't know why you are angry with me.

Please be considerate of me."

“뭣이 어찌, 이놈! 통촉? 허허, 이놈 보소, 요.

아, 부모님이 글공부 갈쳐논깨⁷⁰⁾

내 앞에서 문자⁷¹⁾ 쓰고 자빠졌네.

통촉?

몽둥이로 이놈 허리를 작신⁷²⁾ 분지르기⁷³⁾ 전에 썩 못 나가?”

홍보가 빌면 될 줄 알고 빌어보는데,

[중모레] 홍보가 기가 막혀, 나가란 말을 듣더니마는, 섰던 자리에 가
꿇어 엎저서,⁷⁴⁾

“아이고, 형님! 형님, 이게 웬 말이오?

이 엄동⁷⁵⁾ 설한풍⁷⁶⁾에 수다한⁷⁷⁾ 자식들을 데리고, 어느 곳으로 가서
산단 말이오?

형님, 한번 통촉을 하옵소서.”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 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몽둥이를 추켜들고⁷⁸⁾ 추상같이⁷⁹⁾ 어르는구나.

홍보가 깜짝 놀라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 마누라! 형님이 나가라하니,

어느 영⁸⁰⁾이라 어기오며,

어느 명령이라고 안 가겠소?

자식들을 챙겨 보오.

큰자식아, 어디 갔나?

둘째 놈아, 이리 오너라.”

이삿짐을 챙겨 지고, 놀보 앞에 가 꿇어 엎저,

“형님, 갑니다. 부디 안녕히 계옵시오.”

“잘 가거라.”

홍보가 하릴없이⁸¹⁾ 울며불며 나가면서,

“What? Be considerate of you? You bastard!
Our parents sent you to school.
You are using fancy language with me.
Be considerate of you?
Get out of here now before I break your backbone into pieces.”
Thinking begging would work, Heungbo begs.

[Jungmori] Surprised to be told to get out, Heungbo kneels down on the spot.

“Brother, I can’t believe what you said.
It is cold and snowy today. Where should I go with the many children of mine?

Brother, please be considerate of me.”

“You rat! Do I have to tell you where you should go?
Don’t argue with me. Get out!”

He holds up a stick and threatens Heungbo fearfully.
Astonished, Heungbo goes into his house.

“Honey, my brother tells me to get out of here.

How can I disobey his order?

How can I refuse to get out?

Get the children ready.

First son, where are you?

Second son, come here.”

He packs up things and kneels down in front of Nolbo.

“Brother, we are leaving. Take care.”

“So long.”

Heungbo leaves in tears.

신세자탄⁸²⁾ 울음 운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부모님이 살았을 적에는, 네 것 내 것이 다툼 없이

평생에 호의호식,⁸³⁾ 먹고, 입고, 쓰고 남아

세상 간 줄을 몰랐더니,

홍보의 신세가 일조에⁸⁴⁾ 이리 될 줄을 어느 누가 알겠느냐?

여보게, 마누라!”

“예.”

“어느 곳으로 갈까?

아서라,⁸⁵⁾ 산중으로 가자.

산중에 가 사자한들 백물⁸⁶⁾이 귀하여 살 수 없고,

아서라, 도방⁸⁷⁾으로 가자.

일 원산,⁸⁸⁾ 이 강경,⁸⁹⁾ 삼 포주,⁹⁰⁾ 사 법성,⁹¹⁾

도방에 가 사자한들⁹²⁾ 비린내 짓궂어 살 수 없고,

충청도 가 사자한들 양반들이 모두 억세어서 그곳에는 살 수가 없으니,

어느 곳으로 가서 산단 말이냐?”

3. (홍보 아내 탄식) 홍보네가 고생하며 사는데, 큰아들이 장가를 보내달라고 조르자, 홍보 아내가 형세를 생각하며 탄식한다.

[아니레] 이렇게 홍보가 울며불며 나가,

그렇저렇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데,

살 데가 없으니까

He laments over his fate.
 “How miserable my fate is!
 When my parents were alive, my brother and I shared everything.
 We had enough clothes and food for the rest of our lives.
 I didn’t know the way the world goes.
 How could I have known my fate would fall down like this in a day?
 Hello, honey!”
 “Yes.”
 “Where should we go?
 Let’s go to a mountain.
 We can’t live on a mountain because there aren’t enough daily necessities.
 No, let’s go to a crowded place.
 Weonsan, Ganggyeong, Poju, and Beopseong are crowded places.
 We can’t live in a crowded place because it is smelly there.
 We can’t live in Chungchung Province because the high class people will harrass us.
 Where should we go to live?”

3. (Heungbo’s Wife Laments.) Heungbo’s family live a hard life. The oldest son asks to get married. Heungbo’s wife laments over their fate.

[Aniri] Heungbo leaves Nolbo’s house in tears.
 He moves here and there without a clear destination.
 He has no place to live.

동네 앞에 물방아집⁹³⁾도 자기 안방이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성현동 복덕촌⁹⁴⁾을 당도하였것다.
 여러 날 홍보 자식들이 잘 먹다가 굶어노니,
 모두 아사지경⁹⁵⁾이 되어가지고,
 하루는 음식 노래로 이놈들이 죽 나와서 조르는데,
 한 놈이 썩 나서며,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배가 고파 못 살겠소.
 나 육개장국⁹⁶⁾에 서리쌀밥⁹⁷⁾ 많이 먹었으면.”
 “어따,⁹⁸⁾ 이 자식아. 저 입맛 도져하게⁹⁹⁾ 아네.
 육개장국에 서리쌀밥이 어디 있단 말이나?”
 또 한 놈이 나았으며,
 “아이고, 어머니! 나는 용미봉탕¹⁰⁰⁾에 잣죽 좀 먹었으면 좋겠소.”
 “어따, 이 녀석아. 보리밥도 없는데, 용미봉탕에 잣죽이 또 어디 있단
 말이나?
 너희들 때문에 못 살겠다, 못 살겠어.”
 또 한 놈이 썩 나서며, “아이고, 어머니. 나 호박떡 한 시루만 먹었으
 면 좋겠소.
 호박떡은 뜨거워도 달고, 식어도 달고,
 아 이놈의 것, 입에 짹짹 들앵기면서¹⁰¹⁾ 맛있지요.
 한 시루만 갖다 주시오.”
 “아이고, 이 녀석아, 호박떡이 어디 있단 말이나?”
 이 때에 배를 득득 굵고 나오는 놈은 홍보 큰아들이었다.
 수염이 가시가 돋쳐갖고,
 이가 쪽쪽 빠져서 이상스럽게 생겨갖고
 썩 나와서 저희 어미를 한번 줄라보는데,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나는 옷도 싫고, 밥도 싫고,

He takes as his house a water mill in front of a village.
After moving around, he arrives at Virtue Village.
After Heungbo's children had been used to eating well, they
have been hungry for several days.
They are about to starve to death.
They badger their mother with the food song.
One child steps forward.
"Mother, mother! I feel so hungry.
I wish I had hot spicy meat soup and white rice."
"Gee! You rascal. You know what it tastes like.
But how do we have hot spicy meat soup and white rice?"
Another moves forward.
"Mother, I wish I could eat delicious food, including a porridge
of pine nuts."
"You rascal! We don't even have barley, not to mention delicious
food, or porridge of pine nuts.
My life is harder because of you rascals."
Another speaks, "Mother, please make a jar of pumpkin rice
cake for me.
Pumpkin rice cake is sweet, whether hot or cold.
Pumpkin rice cake is sticky in the mouth and delicious.
Please bring me a jar of pumpkin rice cake."
"You rascal. How can we have pumpkin rice cake?"
Just then, the eldest son comes out, scratching his belly.
His beard is as strong as thorns.
He looks strange with some teeth missing.
He comes out and badgers his mother.
"Mother, mother! I want neither clothes nor food.

밤이나 낮이나 불매증¹⁰²⁾이 생겨 잠 안 오는 병이 있소.”
 흥보 마누라 깜짝 놀라며,
 “어따,¹⁰³⁾ 이 녀석아! 못 먹고 못 입는 것은 고사하고,
 아, 병이나 없어야 안 쓰겠느냐?
 무슨 병이나? 말을 하여라.”
 “어머니 아버지 공론¹⁰⁴⁾하고, 나 장가 좀 보내 주오!”
 [진양조] 흥보 마누라 이 말을 듣더니, 섰던 자리에 주저앉으며,
 “어따, 이놈아! 너 이놈아, 말 들어라.
 내가 형세¹⁰⁵⁾가 있고 보면, 네 장가가 여태 있으며,
 중한 가장을 못 먹이고,
 어린 자식을 벗기겠느냐?
 못 먹이고, 못 입히는 어미 간장¹⁰⁶⁾이 다 녹는다.”

4. (흥보 차림새) 흥보가 관가에 가서 곡식을 얻기 위해, 다 떨어진 의복을 차려 입고 나간다.

[아니리] 이렇듯이 흥보 마누라 울음을 울고 있을 적에, 흥보가 씩
 들어오며,
 “여보시오, 마누라. 이렇게 울음만 울고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소?
 내 오늘 읍내 좀 갔다 오겠소.”
 “아니, 읍내는 뭐하러 가실라고 그러시오?”
 “환자¹⁰⁷⁾ 말은 호방¹⁰⁸⁾한테 가서 환자섬¹⁰⁹⁾이나 얻어다가,
 아, 우리 권속간에¹¹⁰⁾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닌가?
 거 내 갓이나 좀 내어 오오.”
 “아이고, 영감. 가지 마시오.”

I got a disease that keeps me awake and sorrowful day and night.”

Heungbo’s wife is surprised.

“Gee, you rascal! We don’t have food or clothes.

Wouldn’t it be better if we didn’t get diseases?

What disease is it? Speak.”

“Discuss my marriage with father!”

[Jinyangjo] Heungbo’s wife who has been listening to him slumps down.

“God, you rascal! Listen to me.

If I were rich, would you still be unmarried?

Would your father be starving?

Would other children be poorly clothed?

I feel so bad because I can’t give them food and clothes.”

4. (Heungbo’s Appearance) Heungbo goes out in shabby clothes to get food from the local government office.

[Aniri] While Heungbo’s wife weeps, Heungbo comes in.

“Hello, honey. What is the use of weeping like this?

Let me go downtown today.”

“What do you go downtown for?”

“Let me borrow a bag of relief rice from the government office.

Our family needs to be relieved of hunger.

Please bring me my cylindrical hat.”

“Honey, don’t go there.”

“왜 가지 말란 말이요?”

“그 정상에¹¹¹⁾ 환자 먹고 도망간다고 안 줄 테니,

가지 마오.

절대 안 줄 테니

가지 마시오.”

“허허. 이 사람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꼭 믿고만 다니는가?

구사일생이제.¹¹²⁾

잔말 말고 그 갓이나 좀 내 오오.”

“갓은 어디다 두었어요?”

“아, 남자 갓 둔 데도 몰라?

뒤안 굴뚝 속에다 넣어 두었어.”

“아이고, 알긋어라. 왜 갓을 굴뚝 속에다 넣었던 말이요?”

“그런 것인가?

신묘년 조대비 국상시에¹¹³⁾ 어느 친구 한 분이 백립¹¹⁴⁾이 양¹¹⁵⁾이

존존하다고¹¹⁶⁾ 칠¹¹⁷⁾을 벗겨 쓰라 하니,

아, 칠 벗길 돈이 있어야제.

끄시림¹¹⁸⁾에 그을려 쓸려고 넣어 두었으니 내어 오오.

그리고 그 내 도복¹¹⁹⁾이랑 내어 오오.”

“아, 도복은 어디 뒀어요?”

“뒤안 장¹²⁰⁾ 안에 들었제.”

홍보 마누라 있다가,

“여보시오. 우리집에 무슨 장롱이 있단 말이요?”

“아, 이 사람이. 아, 달구장¹²¹⁾은 장이 아닌가?

잔말 말고 얼른 내어 오소.”

홍보가 절칭¹²²⁾을 들어가려고 의복을 차리고 들어가는데,

[자진모래] 홍보가 들어간다. 홍보가 들어간다.

"Why do you say so?"

"You are in shabby clothes. They will think you will run away with the rice.

Don't go there.

They will not give you rice at all.

Don't go there."

"Gee, you woman. We are poor, so we should be adventurous.

I am drowning and clutching at straws.

Cut the noise out, and bring me my cylindrical hat."

"Where did you put the cylindrical hat?"

"Don't you know where I put it?"

I put it in the chimney in the backyard."

"How strange! Why did you put it in the chimney?"

"To tell the truth,

a friend of mine gave me a white cylindrical hat used during the state funeral of a king's mother, telling me that it will become usable once the lacquer is removed.

But I didn't have money to remove the lacquer.

I put the hat in the chimney to make it black with the soot.

Please bring me my coat too."

"Where did you put the coat?"

"I put it in the wardrobe in the backyard."

Heungbo's wife thinks for a moment.

"Hello, do we have a wardrobe in this house?"

"How foolish! Isn't the hencoop our wardrobe?"

Cut the noise out and bring it to me right away."

Heungbo gets dressed up to go to the government office.

[Jajinmori] Heungbo leaves. He leaves.

홍보 치레¹²³⁾를 볼작시면,¹²⁴⁾
 철대¹²⁵⁾ 떨어진 헌 파립¹²⁶⁾
 벌잇줄¹²⁷⁾ 충충¹²⁸⁾ 매어 조새갓끈¹²⁹⁾을 달아,
 편자¹³⁰⁾ 터진 헌 망건,¹³¹⁾ 갓풀관자,¹³²⁾ 종이당줄¹³³⁾ 두통나게¹³⁴⁾ 줄
 라매고,
 떨어진 헌 도복 싯띠¹³⁵⁾를 충충¹³⁶⁾ 이어 고평 배 눌러 띠고,
 한 손에다가 곱돌조대¹³⁷⁾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 팔자 걸음¹³⁸⁾으로 걸음 버썩¹³⁹⁾ 길게 떼어,
 어식비식.¹⁴⁰⁾

5. (돈타령) 홍보가 매품을 팔기로 하고 돈을 얻어 집으로 돌아오자, 홍보 아내가 좋아하며 돈타령을 한다.

[아니리] 홍보가 어식비식 들어가다가 한 생각이 났겠다.

“내가 그래도 양반인데,
 내가 저다려¹⁴¹⁾ ‘허시오’하기는 그렇고,
 ‘허소’하기는 좀 뭇하니,¹⁴²⁾
 내 웃음으로, 반말로 따질밖에 수¹⁴³⁾가 없다.”
 홍보가 대문을 열고 썩 들어가며,
 “여, 호방 계신지 모르제.”
 호방¹⁴⁴⁾이 나오며,
 “아니, 여, 박생원¹⁴⁵⁾ 아니시오?”
 “허허허허하하. 참 잘 알아맞혔구만.”
 “아이고, 박생원 어쩐 일이시오?”

Behold Heungbo.
The rim of his cylindrical hat is broken.
His hat is fastened with a string on his chin.
He fastened an old headband tightly with a leather ring and a paper string.
A string ties his old coat around his hungry belly.
He holds a stone pipe in one hand.
He holds an old fan in the other hand.
He swaggers as an upper class person should.

5. (Money Song) On the promise to be caned for money, Heungbo comes back home with some money. Ecstatic, his wife sings the money song.

[Aniri] While going into the government office, Heungbo hits upon an idea.

“I am from a high class family.

I can’t say, ‘Would you please’ to the officer in charge of the relief rice.

I can’t say ‘Do it.’ either.

I will cover this thorny issue with my laughter.”

Heungbo opens the gate of the government office and goes in.

“The officer in charge of the relief rice must be here.”

The officer comes out.

“Isn’t this Mr. Bak?”

“Hehehe. Yes, that’s right.”

“What brought you here, Mr. Bak?”

“거 호방한테 아쉬운 말 할 일이 있어서 왔는데, 들어주실란지 모르제.”

“아, 무슨 말씀이요?”

“환자 한 섬만 주제.¹⁴⁶⁾ ”

환자 한 섬만 주면, 어린 자식들 구환¹⁴⁷⁾하고,
내 가을에 가서 소맷동냥¹⁴⁸⁾이라도 해가지고, 내 착실히 갚아줄 터이니 환자 한 섬만 주제.”

“아, 박생원 형님이 천석꾼¹⁴⁹⁾ 부자인데,
환자를 자시다니?¹⁵⁰⁾ 아, 그게 무슨 말씀이요?”

“허허, 이 사람아. 형제간 것도 너무 갖다 먹으니까 염치가 없더구만.”

“그건 그렇지요. 박생원, 그럴 게 아니라, 품¹⁵¹⁾ 하나 팔아보실까요?”

“아, 돈 생길 품 같으면 내 팔고말고.

무슨 품인가?

어서 말 좀 해 보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골 좌수¹⁵²⁾가 병영¹⁵³⁾ 영문¹⁵⁴⁾에 잡혔는데,
좌수 대신으로 곤장¹⁵⁵⁾ 열 대만 맞으면,

곤장 한 개에 돈이 석 냥씩, 삼십 냥은 곱아논¹⁵⁶⁾ 돈이요,

말 타고 가라고 해서 마삿 닷 냥까지 딱 지정해 났으니,

그 품 좀 팔아 볼까요?”

홍보가 돈 말을 듣더니 어떻게 좋던지,

“내 팔 터이니, 그 돈 닷 냥 얼른 이리 주오.”

“글랑 그리 하시오.”

[중모리] 저 아전¹⁵⁷⁾ 거동¹⁵⁸⁾을 보아라.

케문¹⁵⁹⁾을 철컹¹⁶⁰⁾ 열고 돈 닷 냥을 내어주니,

홍보가 받아 들고,

“다녀오리다.”

"I am here to ask a favor of you. I am not sure if you will do me the favor."

"What is that?"

"Please lend me a bag of relief rice.

The rice would relieve my little children of hunger.

I will repay you the rice in fall without fail even though I may have to beg rice from every house little by little."

"Mr. Bak, your brother is very rich.

How can you ask for relief rice? I don't understand."

"A sense of shame prevents me from borrowing rice from him again and again."

"I see. Mr. Bak, I got an idea. Why don't you work for money?"

"Oh, I'd be happy to only if I can make money.

What kind of work is it?

Please tell me."

"An influential man of this village is arrested at the military office.

Be beaten with a cane ten times on his behalf.

And you will make 30 dollars, 3 dollars for each stroke.

You will also be given an extra 5 dollars for a horse ride.

Will you be caned for money?"

Hearing the officer, Heungbo is ecstatic.

"I will do it. Give me 5 dollars right away."

"No problem."

[Jungmori] Behold that officer.

He opens a coffer, making a loud sound, and gives Heungbo 5 dollars.

Heungbo takes the money.

"Take care."

“예. 평안히 다녀오오.”

박홍보가 좋아라고, 질척¹⁶¹⁾ 문밖 썩 나서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얼씨구나, 얼씨구나, 돈 봐라!

지화자자 좋을시고. 돈 돈 돈 돈, 돈 봐라, 돈 봐.

우선 배가 고프니 떡국집으로 들어가자.

여보, 떡국 장사. 떡국 세 그릇만 주오.”

떡국을 사서 많이 먹고, 막걸리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두 켤¹⁶²⁾ 어
치를 사서 먹고,

비지¹⁶³⁾ 집으로 들어가서,

“여보, 비지 장사. 비지 한 보시기¹⁶⁴⁾만 주오.”

비지를 사서 찌웃찌웃하게¹⁶⁵⁾ 먹고,

어깨를 늘이우고, 죽통¹⁶⁶⁾을 빼뜨리고,¹⁶⁷⁾

“얼씨구나 아, 좋네! 대장부 한 걸음에 엽전 서른닷 냥이 생겼구나.”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여보게, 이 사람아.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들어오면, 우루루루루 쫓아나와
영접하는 것이 도리 옳제,

자네가 이 사람아, 당돌히 앉아서 좌이부동¹⁶⁸⁾이 웬 일인가?

에라, 이 사람아, 몹쓸 사람.”

[중중모리] 홍보 마누라 나온다. 홍보 마누라가 나와.

홍보 마누라가 나온다. 아장아장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소.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소. 이리 오시오. 이리 와.”

“어따,¹⁶⁹⁾ 이 사람아, 저리 좀 가소.

이 돈 근본¹⁷⁰⁾을 자네 안가?¹⁷¹⁾ 돈의 근본을 자네 알어?

못난 사람은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Come back in one piece.”

Delighted, Heungbo holds up his arms high as he goes out of the government office.

“Whoopee! Yippee! Look at this money!

Hurrah. Hurray. Money, money, money! Look at this money. Because I am hungry, let me go first to the rice cake soup restaurant.

Hey waiter. Bring three bowls of rice cake soup.”

After eating a lot of rice cake soup, he gets into a bar and drinks rice wine.

He enters a tofu remnant house.

“Hello, tofu remnant seller. Please give me some tofu leftover.”

He eats so much tofu remnant that his body is bloated.

His shoulder hangs down, and his mouth sticks out.

“Whoopee! Yippee! I made 35 dollars in one move.”

He gets to his house.

“Hello, sweetheart! Hello, darling.

If a family head comes back home, you ought to come out fast and greet him.

You woman. How dare you sit there without moving?

How rude you are!”

[Jungjungmori] Heungbo’s wife comes out. She comes out. She comes out. She walks in a cute manner.

“Darling, I didn’t know you had come.

I didn’t know you had come. Please come this way.”

“You woman. Get out of my way.

Do you know about the nature of money? Do you?

People want money whether they are rich or not.

맹상군¹⁷²⁾의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이¹⁷³⁾ 생긴 돈,
 생살지권¹⁷⁴⁾을 가진 돈,
 부귀공명¹⁷⁵⁾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나,¹⁷⁶⁾ 돈아 아아!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오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홍보 마누라가 달려들며,
 “아이고 여보, 영감. 이 돈 근본이 웬 일이요?
 일수변¹⁷⁷⁾을 얻어왔소?
 월수¹⁷⁸⁾ 체계¹⁷⁹⁾ 파수변¹⁸⁰⁾을 얻어왔소?
 오피달변¹⁸¹⁾을 얻어왔소?”
 “아니로세, 아니여. 변전¹⁸²⁾ 일수¹⁸³⁾ 왜 얻었나?
 지기하사¹⁸⁴⁾ 우리 아내 하나님¹⁸⁵⁾이 도우시어,
 공돈 닷 냥이 들어왔어.”

6. (홍보 아내 만류) 홍보 아내가 홍보의 매품팔이 말을 듣고, 가지 말라고 만류한다.

[아니리] “아이고, 공돈이라니요?
 아이, 공돈이라니 무슨 공돈이란 말이요?”
 “아, 이 사람아, 주운 돈과 다름이 없단 말일세.”
 “아서시오.¹⁸⁵⁾ 노상지취물¹⁸⁶⁾은 군자¹⁸⁷⁾의 도리가 아니온데,
 주운 사람은 좋거니와,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속이 아프겠소?
 도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오.”
 “허허. 우리 마누라는 언제든지 착한 마음이어.
 그렇제. 여자가 그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제.

Money is round like a wheel of a cart and moves around.
Money can make a person live or die.
Money is accompanied by wealth, nobility, and fame.
Money, you rascal! Money!
Where have you been? Hurrah. Hurray.”
Heungbo’s wife comes to Heungbo.
“Sweetheart, how did you get this money?
Did you borrow it at a daily interest?
Did you borrow it at a weekly or a monthly interest?
Did you borrow it at five % interest a month?
“No, no. Why would I borrow money at a daily interest?
Heaven helped you because you get along with me.
This 5 dollars is a windfall.”

6. (Heungbo’s Wife Pleas.) Heungbo’s wife asks her husband not be caned for money.

[Aniri] “Is this a windfall?
How did you get this windfall?”
“You woman, This money is no different from some we find on the street.”
“No, no. A virtuous man ought not to pick up money on the street.
You may feel good, but the person who lost it would feel bad.
Put the money back on the street.”
“Haha. I know my wife is an honest person.
Good. A woman is supposed to be honest like you.

거 뭐 왜말처럼¹⁸⁸⁾ 덜렁덜렁하고 다니면 못쓰니.
 네 그러면 내력을 가르쳐줄 테니 들어보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골 좌수가 병영 영문에 잡혔다고 허제.
 좌수 대신으로 곤장 열 개만 맞으면, 곤장 한 개에 돈이 석 냥씩이고,
 우선 마삿 닛 냥 받아왔어. 말 타고 가라고 해서.
 이 돈 갖고, 쌀 팔고, 고기 사서 육죽¹⁸⁹⁾을 누구룸허게¹⁹⁰⁾ 쏘소.
 권속¹⁹¹⁾이 많으니까 큰 가마솥에다가 그저 다뽁 쑤어.
 코끝에서 그저 죽 말국¹⁹²⁾이 땡강땡강 떨어질 때까지 뭇땅 한번 먹어
 보세.”
 흥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
 중한 가장 매품 팔아 먹고 산다니 두 눈이 캄캄하고, 사지가 벌벌
 떨리며,
[진양조] 섰던 자리에 가 버썩¹⁹³⁾ 주저앉으며,
 “아이고, 영감! 영감, 이게 웬 말이오?
 천불생무룩지인이요, 지부장무명지초라.¹⁹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궁기¹⁹⁵⁾가 있는 법이니,
 제발 덕분 가지 마오.
 음지¹⁹⁶⁾가 양지 되고, 양지가 음지 되오.
 병영영문 곤장¹⁹⁷⁾ 한 개만 맞고 보면 종신¹⁹⁸⁾ 골병¹⁹⁹⁾이 든답디다.
 영감! 가지를 말라면, 가지를 마오.
 불쌍한 우리 영감, 가지를 마오.”

She shouldn't run around like a Japanese horse.
Let me tell you how I got this money.
An influential man of this village was arrested at the military office.
I am going to be beaten 10 times on his behalf, and be paid 3 dollars for each stroke.
I got 5 dollars in advance for a horse ride.
Buy rice and meat with this money, and make a watery meat soup.
Because our family is large, make a lot of soup in a large iron pot.
Let's eat so much soup that some soup runs out from our noses."
Heungbo's wife has listened to his words.
The thought that the precious family head is caned for money and that she lives off him makes her confounded and tremble.
[Jinyangjo] Heungbo's wife slumps down on the spot.
"Honey, what are you talking about?
Each person is fated to eat something and have a job.
We have a way to survive even if heaven collapses.
Please don't go there.
There are ups and downs in our life.
I heard even one stroke of the military office causes an everlasting wound.
Honey, please don't go there
How poor you are! Don't go there."

7. (병영 길) 흥보가 신세자탄을 하며 병영 길을 간다.

[아니리] “영감, 영감, 부디 가지 마오.”

흥보가 화를 왈각²⁰⁰) 내며,

“이 사람아, 시끄럽네.

아, 대장부 사나이가 큰 길을 떠나는데,

아, 자네가 가란다고 가고, 가지 마란다고 내가 안 갈 것인가?

그런 말 함부로 했다가 남이 알면 내 앞에 가니까,

조용 좀 하소.”

“그러면 영감, 부디 매 안 맞고 오기를 바라겠소.”

“아, 이 사람 큰일 났어.

매 맞으러 가는 사람이 매 안 맞고 오면, 돈 어떻게 벌라고 안 맞고

오기를 바래야?”

흥보 자식들이 모두 나오면서,

“아버지! 어디 가실까요?”

“나 병영 좀 갔다 올란다.”

“아버지 병영 갔다 오면은, 다른 것은 소용이 없고, 밥이나 한 그릇

사오시오.”

“오냐. 밥 사다 줄 터이니 좀 기다려라.”

또 한 놈이 나왔으며, “아버지, 어디 가시오?”

“병영 간다, 병영 가.”

“병영 가시거든 떡이나 한 시루 갖다 주시오.”

“오냐. 갖다 줄 테니 걱정 말아라.”

자식들을 달래놓고,

“내 다녀올 터이니, 마누라, 걱정하지 말고 가 데리고 있으시오.”

[중모리] 아침밥을 지어 먹고, 험로²⁰¹) 병영을 내려간다.

7. (On the Way to the Military Office) Heungbo goes to the military office, lamenting over his fate.

[Aniri] “Honey, please don’t go there.”

Heungbo is angry.

“Woman, shut up.

I am a man about to take off a journey.

Should I be swayed by your wish?

If you say such thoughtless words, others may know the secret and make a move ahead of me.

Please be quiet.”

“Honey, I hope you come back without being caned.”

“How nonsensical!

I am going to be caned for money. If I come back without being caned, how can I make money?”

Heungbo’s children step in.

“Father, where are you going?”

“I am going to the military office.”

“Father, on your way back home, please bring me nothing but a bowl of rice.”

“OK. I will do it. Wait for me for a while.”

Another steps forward. “Father, where are you going?”

“I am going to the military office.”

“If you go there, please bring me a jar of rice cake.”

“OK. I will do it. Don’t worry.”

He appeases the children.

“Darling, I am leaving. Don’t worry. Take good care of the children.”

[Jungmori] Heungbo eats breakfast and takes the difficult journey to the military office.

허유허유²⁰²⁾ 내려가며, 신세자탄²⁰³⁾ 울음을 운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박복헌너르²⁰⁴⁾ 내 팔자야.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²⁰⁵⁾ 높은 집에 부귀영화²⁰⁶⁾로 잘 시는데,
나는 무슨 팔자인데, 매품이란 말이 웬 말이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그렇저렇 병영 영문을 당도하여,

치어다보니²⁰⁷⁾

대장기²⁰⁸⁾요,

내려 굽어보니

숙정패²⁰⁹⁾로구나.

심산 맹호 위용같은²¹⁰⁾ 용 자 불인²¹¹⁾ 군로사령²¹²⁾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갈 적,

이 때여 홍보는 본래 슷한²¹³⁾ 사람이라, 벌벌벌 떨면서 들어간다.

8. (홍보 헛걸음) 홍보가 매품을 팔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홍보 아내는 걱정하며 기다린다.

[아니리] 벌벌 떨고 들어가서 삼문²¹⁴⁾ 궁기²¹⁵⁾로 안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

안에서 매를 맞느라고 야단이 났겠다.

홍보 마음에,

“저 사람들은 진작 와서 매 맞고 돈 수백 냥 버는구나.

나도 여기 한 번 옆드려 봐야지.”

벌그런²¹⁶⁾ 불기를 내놓고 삼문 밖에 가서 이만하고²¹⁷⁾ 옆졌을²¹⁸⁾ 적에,

While walking down the road, he laments over his own fate.
“Alas! Woe is me.
How bad my fate is!
Some people were born with good fate, and live happily in large splendid houses.
I can’t believe my fate is to be caned for money.
Woe is me. How miserable I am!”
He manages to arrive in the gate of the military office.
He looks up.
There is a commander’s flag.
He looks down.
There is a plank which says, “Be quiet.”
The guards and soldiers move around like fierce tigers and dragons in the military office.
Heungbo, timid by nature, trembles as he enters the gate.

8. (Heungbo’s Effort Comes to Nothing.) Heungbo comes back empty-handed, while his wife waits for him with concern.

[Aniri] Heungbo goes in while trembling, and peeps through a hole of the main gate.
Many people are caned inside, making noises.
Heungbo speaks to himself.
“Those people are making a lot of money ahead of me.
Let me get down here too.”
Heungbo exposes his butt and lies down outside of the main gate.

사령 한 쌍²¹⁹)이 나오며,
 “허허, 병영설립지후²²⁰) 불기전²²¹) 보는 놈 생겨났네!”
 흥보가 있다가, “매 맞으러 왔제.”
 “아니, 매를 잘 맞나?”
 “매라도 속이 있는²²²) 매여.”
 한 사령이 딱 보더니,
 “아, 박생원 아니시오?”
 “허허허허, 참 잘 알아맞혔구만.”
 “박생원 안 되었소.”
 흥보 깜짝 놀라며,
 “아니, 안 되다니, 뭐가 안 되어?”
 “박생원 대신으로 어느 놈이 내 숨씨²²³) 곤장 열 개 맞고, 돈 삼십
 냥 짊어지고 벌써 갔소.”
 흥보가 기가 막혀,
 “아이고, 이 사람아, 그 놈이 어떻게 생겼던가?”
 “말 마시오. 쥐털 수염에, 이놈이 간대뿔²²⁴)이 쪽쪽 빠져가지고,
 아, 그 매 잘 맞습디다.”
 “웁지, 우리집 মানুষ라가 날다려²²⁵) ‘가시오’, ‘가지 마시오’ 밤새도록
 울더니,
 뒷집 피쇠애비²²⁶)란 놈이 발등거리²²⁷)하엿구나.”
[중모레] “번수네들,²²⁸) 그리 험가?
 수번²²⁹)이나 잘들 하계.
 나는 가네, 나는 가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박복헌너르 내 신세야.
 매 맞으러 가는 데도 손재²³⁰)가 붙어서,

A couple of officers come to him.

"For the first time in this military office, a man opened a butt store!"

Heungbo responds, "I am here to be caned."

"Do you take strokes well?"

"I get caned for reason."

An officer takes a hard look at Heungbo.

"Isn't this Mr. Bak?"

"Gee, you are correct."

"Mr. Bak, that's too bad."

Heungbo is surprised.

"What is too bad? Tell me."

"Instead of you, another man took 10 strokes by me, got 30 dollars, and already left."

Heungbo is stunned.

"Officer, what did he look like?"

"Don't mention it. His beard was long. His bones were strong. He took strokes well."

"I see. My wife wept all night, telling me not to come here. Mr. Sly living next door made a move ahead of me."

[Jungmori] "Officers, I understand.

Take it easy.

I am leaving.

Alas. Woe is me.

How miserable I am!

I don't even get the chance to be caned for money.

이 지경이 모두 웬 일이냐?

내 집 떠나올 적에, 밥 달라고 우는 자식은 떡 사주마고 달래놓고,
떡 달라고 우는 자식은 엇 사주마 달랬는데,
돈이 있어야 말을 하지.”

그렇저렇²³¹⁾ 올라갈 적에,

이 때여 홍보 마누라는, 자기 영감 병영 가신 후로 후원²³²⁾에다 단을
못고²³³⁾ 지성²³⁴⁾으로 비는 말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전에 비나이다.

병영 가신 우리 영감 매 한 개도 아니 맞고 무사히 돌아오시라, 하나
님전에 비나이다.”

빌기를 다 한 후에 한 편을 바라보니,

자기 영감이 올라오거늘,

9. (홍보 아내 좋아함) 홍보가 매를 맞지 않고 돌아오자, 홍보 아내가 좋아하며 춤을 춘다.

[아니리] 홍보 마누라 우루루루 달려들며,

“아이고, 영감. 다녀오시오?

병영까지 갔다오시더니, 매를 얼마나 맞았소?

어디 매 맞은 상처나 좀 봅시다.”

홍보가 화를 왈각 내며,

“봐두게, 이 사람!

아, 요망스럽게²³⁵⁾ 자네가 가지 말라고 밤새도록 조르고 울더니,

뒷집 피쇠애비란 놈이 나 먼저 발등거리해 버리고,

내가 매 한 개 맞았으면 사람이 아닐세.”

“아이, 정말로 안 맞았어요?”

I can't believe this situation.

Leaving home, I appeased a child crying for rice with the promise to buy him a rice cake, and a child crying for a rice cake with the promise to give him rice jelly.

Having no money, I can say nothing to them."

He manages to walk to his home.

Meanwhile, after Heungbo left home, Heungbo's wife made an altar in the backyard and had been praying hard to God.

"I pray. I pray. I pray to God.

My husband went to the military office. I pray that he comes back home without being caned."

After praying, she looks at a certain place.

Her husband is coming.

9. (The Joy of Heungbo's Wife) Heungbo returns home without being caned. His wife dances with joy.

[Aniri] Heungbo's wife runs to Heungbo.

"Sweetheart, how are you doing?

Did you get caned in the military office?

Let me take a look at your wound."

Heungbo goes berserk.

"Leave me alone, woman!

Unluckily, you wept all night, telling me and badgering me not to go there.

Mr. Sly living next door made a move ahead of me.

I was not beaten at all."

"Did you really not get caned?"

홍보가 다리를 걷어 올리면서,
 “자, 매 맞았는가 좀 보소. 전부 좀 보소, 매 맞았는가?”
 홍보 마누라 좋아라고,
 “아이고, 영감, 매 안 맞았으니 얼마나 좋소.”
 “이 사람이! 매를 맞고 오라고 축수²³⁶⁾를 해야지,
 매를 아니 맞고 오라고 축수를 했으니, 거 매 맞을 것인가, 이 사람아.”
[중중모리] 홍보 마누라 좋아라, 홍보 마누라가 좋아라고, 춤을 추며
 노는구나.
 “얼씨구 좋구나.
 영감이 엇그저께 병영 길을 떠난 후에, 후원에다 단을 못고 부디 매를
 맞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시라 주야 축수로 빌었더니,
 매 아니 맞고 돌아오니 이런 경사가 또 있나.
 옷을 헐벗어도 나는 좋고,
 배가 고파도 나는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얼씨구 절씨고, 지화자 좋네.
 이런 경사가 또 있나.”

10. (홍보가 놀보집을 건너감) 홍보가 곡식을 얻으러 옷을 차려 입고 놀보 집으로 간다.

[아니레] 홍보 마누라 한참 놀다가,
 “아이고, 영감. 좋은 건 남이요, 궂은 건 형제간이라고,²³⁷⁾
 우리가 시숙²³⁸⁾ 댁에서 나온 지가 언제요?
 시숙 댁에 건너가서 전곡간에²³⁹⁾ 무엇이든지 좀 가지고 오시오.”
 “허허, 이 사람. 매 맞고 돈 벌어 갖고 온다니까,

Heungbo rolls up his pants.

“Check out yourself. Check out all parts of my legs.”

Heungbo’s wife is joyous.

“Sweetheart, I feel great because you were not caned.”

“You woman! You should have prayed that I got caned and came back.

I was not caned because you prayed I came back without being caned. You woman!”

[Jungjungmori] Heungbo’s wife is joyful. She dances with joy.
“Hurrah!

After you left for the military office, I made an altar in the backyard and prayed hard to God day and night that you would come back without being caned.

It is great you came back without being spanked.

I am happy even if I am poorly clothed.

I am fine even if I am hungry.

Hurrah! Whoopee! Hurray! Yippee! Oh boy!

This is so great.”

10. (Heungbo Goes to Nolbo’s House) Heungbo get dressed up and goes to Nolbo’s house to get grain.

[Aniri] Heungbo’s wife feels great.

“Honey, when your life is great, you turn to your friend. When hard, to your brother.

When did we leave your brother’s house?

Go to your brother and bring something, money or grain.”

“You woman. I told you I would make money by being caned.

거기다가 축수를 해가지고 매도 못 맞게 하면서,
 인제 형님한테 가서 전곡간에 얻어와?
 형님이 선심²⁴⁰⁾을 써가지고 쌀말이나 주시면 모르되,
 만약 보리나 주시면 어쩔 것인가?”
 “아이고, 영감도! 아, 우리 형세²⁴¹⁾에 보리 찾고 쌀 찾을 거 뭐 있단
 말이오?
 아, 보리라도 많이만 주면 좋지요.”
 “자네가 보리 이름을 다 아는가?”
 “아, 그것 몰라요?”
 “허허, 참. 어디 알아보소.”
 “쌀보리,²⁴²⁾ 통보리,²⁴³⁾ 겉보리,²⁴⁴⁾ 늘보리,²⁴⁵⁾ 햅보리.²⁴⁶⁾
 아, 그걸 모른단 말이요?”
 “야 이 사람아. 그 보리가 아닐세.
 수양산 몽둥이보리²⁴⁷⁾는 자네 모르네그려.”
 “몽둥이보리? 아, 몽둥이보리가 따로 있대요?”
 “허허, 이 사람이. 아, 몽둥이로 허리를 분지르는²⁴⁸⁾ 몽둥이보리 말
 일세.”
 “아이고, 영감도 참. 오래간만에 건너갔는데,
 그래도 시숙께서 그럴 리가 있겠소?
 어쨌든 한번 건너갔다 오시오.”
 “그래. 매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죽기는 매사일반²⁴⁹⁾이니,
 내 건너가야지.”
 흥보가 건너가는데,
[엇모래]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 치레²⁵⁰⁾를 볼작시면,²⁵¹⁾
 철대²⁵²⁾ 떨어진 현 파립,²⁵³⁾

But you prevented me from being caned with the prayer.
How can you tell me now to get some money or grain from
my brother?
It would be great if he is generous enough to give me a bag
of rice.
What if he gives me barley?
“Darling, does our situation allow us to care whether the grain
is rice or barley?
It would be great even if he gives a lot of barley.”
“Do you know all the names of barley?”
“Of course.”
“Then, tell me the names.”
“Rye, unhulled barley, long barley, flat barley, and early
harvested barley.
How could I not know them?”
“You woman, I am not talking about that kind of barley.
You don’t seem to know cudgel from Jiri Mountain.”
“Cudgel barley? Is there such a thing as cudgel barley?”
“You woman. By cudgel barley, I mean the cudgel to break a
backbone with.”
“My goodness. You didn’t see your brother for a long time.
Would he beat you with a cudgel?
Anyway, please go over there.”
“OK. I am dying whether I am beaten or starving to death.
I have to go to him.”
Heungbo goes over to Nolbo.

[Eonmori] Heungbo goes to Nolbo’s house.
Behold Heungbo.
The frame at the edge of his old hat is broken.

벌잇줄²⁵⁴ 총총²⁵⁵ 매어 조사갓끈²⁵⁶을 달아 써,
 떨어진 헌 망건,
 갓풀관자,²⁵⁷ 종이당줄²⁵⁸ 두통나게²⁵⁹ 줄라매고,
 떨어진 헌 도포 싯띠²⁶⁰로 총총 이어 고픈 배 눌러 띠고,
 한 손에다가 곱돌조대²⁶¹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서리 아침²⁶² 찬바람에 옆걸음쳐²⁶³ 손을 불며, 이리 저리 건너간다.

11. (홍보 애원) 홍보가 놀보에게 처자식이 굶고 있으니 곡 식이나 돈을 달라고 애원한다.

[아니레] 가다가 마당쇠를 만났겠다.
 마당쇠 깜짝 놀라며,
 “아이고, 작은 서방님. 어쩐 일이시오?”
 “오냐. 샌님²⁶⁴ 계시냐?
 요새 샌님 대관절²⁶⁵ 성품이 좀 어떠냐?”
 “말 마시오. 작은 서방님 가신 뒤로 어떻게 약아 놓았던지,
 제사를 지내도 대전²⁶⁶으로 바쳐요.”
 홍보 깜짝 놀라며,
 “아니, 제사를 대전으로 바치다니?
 이 녀석아, 말 좀 해 봐라.”
 “그런 것이요? 제상 위에다 빈 접시만 놓고, 거기다가 돈을 놓으면서,
 ‘이건 홍합 새우 살 것이요’
 ‘이건 밤 대추 살 것이요’,

His hat is fastened with a string on his chin.
His headband is old.
He fastened it tightly with a leather ring and a paper string.
He tightened his old coat with the belt made of thread over his hungry belly.
He holds a tobacco pipe made of stone in one of his hands.
He holds an old fan in the other hand.
He blows on this hands in the cold, frosty, and windy morning,
as he goes over to Nolbo's.

11. (Heungbo Implores.) Heungbo begs Nolbo for some food or money, saying that his wife and children are starving.

[Aniri] On his way, Heungbo meets a servant called Madangsoe. Madangsoe is surprised.
“Younger master, what brought you here?”
“Hi. How is my brother?
How's his temper these days?”
“Don't mention that. Since he kicked you out, his temper got worse.
He offers money instead of food during the ritual for his ancestors.”
Heungbo is startled.
“Does he offer money instead of food?
You rascal. Tell me in detail.”
“Well, he places empty plates on the table, and puts money on them.
'This is for sea mussels and shrimps.'
'This is for chestnuts and jujubes.’

‘이건 조기 살 것이요’,
 한 서너 군데 떡 두었다가,
 새벽쯤 되면 쓱²⁶⁷⁾ 씻어서 켜 속으로 들어갑니다.”
 “뭣이 어째? 이놈,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 이놈아!”
 “아이고, 서방님. 제가 거짓말 할 리가 있겠소?”
 “큰 일 났구나. 여태까지 선영²⁶⁸⁾을 굶겼단 말이냐?
 그러나 내 여기까지 온 뜻은, 형님한테 전곡간에 얻어 좀 갈까하고
 왔는데,
 큰일 났다.”
 “아서시오.²⁶⁹⁾ 들어가지 마시오.
 공연히 들어갔다가 약한 몸에 매라도 맞으면 어쩔라고 그러시오?”
 “그렇지만 내 여기까지 왔는데,
 형님한테 인사라도 여쭙고 가야지.”
 홍보가 안으로 우루루루 들어가 뜰 밑에 꿇어 엎져,²⁷⁰⁾
 “아이고, 형님! 형님 동생 홍보 문안이요.”
 놀보가 밀창²⁷¹⁾을 드르르르 열고 내다보며,
 “아니, 형이라니? 아, 형이라니? 집 잘못 찾아왔소.
 내가 오대째 독신²⁷²⁾으로 내려온 것을 삼척동자²⁷³⁾도 다 아는데,
 날더러 형이라니?
 내가 독자²⁷⁴⁾인데.
 여보시오, 판 데로 가보시오.
 당신 집 잘못 찾아왔소.”
 “아이고, 형님. 형님 동생 홍보올시다.”
 “홍보, 홍보? 너 이놈, 마당쇠야!
 작년에 그 쟁기 지고 도망간 놈이 홍보 아니냐?”
 “아이고 샌님. 아, 작은 서방님입니다. 그 자식은 청보여, 청보.”

‘This is for fish.’

He puts the money on a few plates.

He washes the coins and put them back in the chest in the early morning.”

“What? How can you tell such a lie? You villain!”

“Younger master, how can I tell a lie to you?”

“We are in trouble. Then, we have been letting our ancestors go hungry.

I came all the way here to borrow some money or grain from my brother.

I might fail.”

“No. Don’t go into the house.

You are feeble. I am afraid if you get in, you might be beaten.”

“But I came all the way here.

I should at least say hello to him.”

Heungbo goes in quickly and kneels down in the yard.

“Brother, this is your brother, Heungbo.”

Nolbo opens a window and looks outside.

“Brother? Why do you call me brother? You came to the wrong house.

Even a child knows I am the only son for five generations in a row.

How can you call me brother?

I am the only son.

Go to another house.

You came to the wrong house.”

“Brother, this is your brother, Heungbo.”

“Heungbo? Madangsoe, you villain!

Isn’t Heungbo the one who stole a plow from me and ran away?”

“Master, this is the young master. The thief is Cheongbo.”

“어, 참, 청보고. 홍보, 홍보, 내 모르니,
 딴 데로 나가보시오.”
 홍보가 빌면 될 줄 알고 빌어보는데,
 [진양조] 두 손 합장²⁷⁵⁾ 무릎을 꿇고,
 “아이고, 형님! 형님주전에²⁷⁶⁾ 비나이다.
 인명이 재천이라²⁷⁷⁾ 설마한들 죽사리카마는,²⁷⁸⁾
 여러 끼니를 굶어노니 하릴없이²⁷⁹⁾ 죽겠내다.²⁸⁰⁾
 돈이 되거든 삼십 냥만 주시고,
 쌀이 되거든 닛 말만 주시고,
 벼가 되면 한 섬²⁸¹⁾만 주시거드면²⁸²⁾
 일을 한들 못 갚으며, 품²⁸³⁾을 판들 못 갚으리까?
 그도²⁸⁴⁾ 저도²⁸⁵⁾ 못 하시면, 싸라기²⁸⁶⁾나 몽근 겨²⁸⁷⁾나 양단간에²⁸⁸⁾
 주시거드면,
 어린 자식을 살리겠내다.
 과연 내가 원통하오.
 남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소.
 천석꾼 형님을 두고 굶어죽기가 원통하오.
 형님, 불쌍한 동생을 살려를 주오.”

12. (놀보 매질) 놀보가 마당쇠에게 몽둥이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홍보를 마구 때린다.

[아니레] “형님. 살려주옵소서, 형님.”
 놀보가 가만히 보더니,
 “야, 홍보야. 너 불쌍하게 되었구나.
 너 기왕²⁸⁹⁾ 왔으니, 보리나 몇 말 타 가지고 갈래?”

“I know neither Cheongbo or Heungbo.
Go to another house.”
Thinking that begging would work, Heungbo begs.
[Jinyangjo] Heungbo places hands together and kneels down.
“Brother! I beg you, brother.
A human life is up to heaven, so I won’t die easily.
But my family hasn’t eat for long, so they might die.
Please give me some money.
Please give me a little hulled rice.
Or please give me a little unhulled rice.
I will pay them back to you by working hard.
If you give me none of them, please give me crushed rice or
chaff.
Then, I can save my children.
I feel bitter.
I am ashamed to death.
I feel bitter to starve to death when my brother is a millionaire.
Brother, please have save your pitiful brother.”

12. (Nolbo’s Beating) Nolbo orders his servant to bring a club and beats Heungbo.

[Aniri] “Brother, please help me.”
Nolbo has been listening to Heungbo.
“Heungbo, how pitiful you are!
You came all the way here. Would you like some barley?”

“아이고, 형님! 보리는 곡식이 아니오리까?
 보리라도 많이만 주시면 좋지요.”
 “음, 그럴 것이다. 애, 마당쇠야! 이리 좀 오너라. 거 대문 걸어라.”²⁹⁰⁾
 “아니, 샌님, 왜 대낮에 대문을 걸라고 하십니까?”
 “야, 이놈아, 대문 걸어. 그리고 곳간 문 열어라.”
 “예. 곳간 문 열어놔습니다.”
 “아, 저런 죽일 놈이. 내 말도 안 듣고 네 맘대로 곳간 문을 열어 봐?”
 “아, 작은 서방님 쌀이 되었든지, 보리가 되었든지, 나락²⁹¹⁾이 되었든
 지 줄려고 미리 열어놔어요.”
 “야, 이놈아! 잔말 말고 나 시킨 대로 해!
 거 곳간 문 열고 들어가면, 쌀 백 석 있제?”
 “쌀 한 가마니 갖다 드려요?”
 “야, 이놈아. 그리 돌아가면 보리 백 가마니 있제?”
 “보리 한 가마니 갖다 드려요?”
 “야, 이놈아. 그리 돌아가면은 콩도 있고, 팥도 있고,
 그리 썩 돌아가면, 내가 지리산 갔다 오면서 박달방망이 하나 딱 쳐
 다²⁹²⁾ 세워놔느니라.
 이리 가지고 오너라.
 내 그렇지 않아도 요새 시방²⁹³⁾ 마음이 근질근질하고 좋지 못했어.
 마침 이놈을 내가 좀 만날라고 했더니,
 마침 잘 만났으니,
 너 이놈, 맛 좀 봐라.”
 놀보란 놈이 그저 자기 금지옥엽²⁹⁴⁾같은 동생을 몽둥이로 뺨다²⁹⁵⁾
 때리는데,
[자진모리] 놀보놈 거동 봐라. 놀보놈 거동 봐라.
 지리산 몽둥이를 눈 위에 번쩍 추켜들고,

“Brother, isn’t barley grain?

Please give me a lot of barley.”

“I see. Hey Madangsoe! Come here. Lock the main gate.”

“Master, it is day now. Why do you tell me to lock the gate?”

“You villain. Lock the gate, and open the storeroom.”

“Yes, I opened the storeroom.”

“You bastard. How dare you open the storeroom without hearing me out?”

“I opened the storeroom in advance to give the younger master some rice, barley, or unhulled rice.”

“You rat! Cut out the noise, and do exactly as I tell you to do! If you enter the storeroom, you will see 300 bags of rice.”

“Do you want me to give him a bag of rice?”

“You scoundrel. If you turn around, you will see 100 bags of barley.”

“Do you want me to give him a bag of barley?”

“You villain. If you turn around, you will see beans and red beans.

If you turn around, you will see a birch cudgel from Jiri Mountain standing there.

Bring it here.

These days, I didn’t feel good. I am ready to do something active.

I wanted to see this scoundrel.

It’s good he came here.

You rat! Take this.”

Nolbo hits his precious younger brother with a cudgel mercilessly.

[Jajinmori] Behold Nolbo. Behold Nolbo.

He holds the cudgel from Jiri Mountain high above his eyes.

“어따, 이놈, 홍보놈아! 나의 말을 들어봐라.
 너 하나를 내보내고 도적놈 말을 들었으니,
 이 분을 었다²⁹⁶⁾ 풀까 곰곰이 생각더니,
 오늘 만났으니 몽둥이 매를 맞아봐라.”
 그저 후닥딱!
 “아이고, 형님, 박²⁹⁷⁾ 터졌소!”
 “이놈아, 들어봐라.
 잘 살기 내 복이요,
 못 살기도 네 팔자,
 굶고 먹고 내 모른다.
 벳말²⁹⁸⁾을 주자한들,
 마당귀²⁹⁹⁾ 썩인 노적³⁰⁰⁾ 다물다물³⁰¹⁾이 썩였으나,
 네놈 주자고 노적 혈며,³⁰²⁾
 돈 냥을 주자한들
 천록방³⁰³⁾ 큰 케 안에 가다가닥이 관³⁰⁴⁾을 지어 폐돈³⁰⁵⁾이 들었으나,
 네놈 주자고 쾌돈³⁰⁶⁾ 혈랴?
 싸라기나 주자한들,
 황계³⁰⁷⁾ 백계³⁰⁸⁾ 흑계³⁰⁹⁾가 수십 마리가 늘어서 이리 가고, 저리 가
 며 텅텅하고,³¹⁰⁾ 껍썩 우니,
 네놈 주자고 닭 굶기며,
 썩쟁이³¹¹⁾나 주자한들,
 구진방³¹²⁾ 폐돼야지³¹³⁾ 수십 마리가 들었으니,
 네놈 주자고 돌³¹⁴⁾ 굶기랴?
 오곡³¹⁵⁾이 썩어나고, 쾌돈이 녹이 나도 너 줄 짓은 없다.”
 몽둥이 드리메고³¹⁶⁾
 좁은 골³¹⁷⁾ 벳락치듯, 담에 걸친 구렁이 치듯, 그저 후닥딱!

“Heungbo, you villain. Listen to me.
 After I kicked you out, people called me a thief.
 I wondered on whom I should vent my spite.
 Since you came here, take my cudgel.”
 Nolbo moves fast!
 “Brother, my head is broken!”
 “You rat! Listen to me.
 I am fated to be rich.
 You are fated to be poor.
 I don’t care if you are starving.
 I may give you some unhulled rice.
 It is piled up high in the warehouse.
 How can I pull down the stack for you?
 I may give you some money.
 My large safe is full of money in bundles in a fancy room.
 How can I untie a bundle for you?
 I may give you some crushed rice.
 But dozens of yellow, white, and black hens move around,
 flapping their wings and crying.
 How can I give you the crushed rice, letting the hens go hungry?
 I may give you some remnant from rice wine.
 But I have a herd of pigs in a pigsty.
 How can I give you the remnant, letting the pigs go hungry?
 I have nothing to give to you, even if grain and coins go rotten.”
 Nolbo carries the cudgel on his shoulder.
 Nolbo hits Heungbo as if lightning strikes a valley, and as if he
 hit a snake on the fence.

“아이고, 형님, 다리 부러졌소!”
 흥보가 도망을 가려하니,
 대문을 걸었으니 옹도 뛰도³¹⁸) 못 하고,
 그저 퍽퍽 맞는구나.
 흥보가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형수씨! 사람 좀 살려주오.”

13. (흥보 탄식) 형수에게 밥주걱으로 뺨을 맞은 흥보가 통곡하며 돌아온다.

[아니리] 이 때여, 놀보 마누라는 놀보보다 장팔이나³¹⁹) 더 독하것다.
 밥 푸던 주걱을 행주로 싹 씻어버리고 들고 나오며,
 “아니, 아주뺨³²⁰)이고, 동아뺨³²¹)이고 난 또 난 누구라고?
 한 달이면 서른 날, 일년이면 삼백육십 날, 돈 달라, 쌀 달라 세상에도
 귀찮하구만.
 아니, 언제 전곡 갖다 맡겼던가?
 아나 돈! 아나 쌀!”
 주걱으로 그저 이쪽 뺨, 저쪽 뺨 그저 철퍽철퍽³²²) 때려노니,
 흥보가 뺨을 맞고 생각하니,
 자기 형님한테 맞은 건 여반장³²³)이 되고,
 형수한테 뺨을 맞고 보니 두 눈이 캄캄하고, 사지가 벌벌 떨리며,
 [진양조] 흥보가 기가 막혀 섰던 자리에 거꾸러지며,
 “허허, 세상 사람들! 이런 일이 어디가 있소?
 형수가 시아재³²⁴) 뺨 치는 법을 고금천지³²⁵) 어디서 보았소?
 여보시오, 형수씨! 여보시오, 아주머니!
 나를 이렇게 치지를 말고,

“Brother, my legs are broken.
Heungbo tries to run away.
With the gate locked, he can neither move nor run.
He takes the strokes.
He runs deep into the house.
“Sister-in-law! Please help me.”

13. (Heungbo Wails.) Heungbo wails, hit on the cheek with a rice scoop by his sister-in-law.

[Aniri] Nolbo’s wife is a far more perverse person than Nolbo.
She cleans off a rice scoop with a towel and comes out, holding
it.

“Forget I am your sister-in-law. I wondered who you were.
You asked for money and rice 30 days a month and 365 days
a year, annoying us.

Did you leave grain to us?

Money? No way! Rice? No way!”

She hits him with the rice scoop on both of his cheeks.

After being hit on the cheek, Heungbo ponders.

His brother’s strokes were soft.

After being hit on the cheek by his sister-in-law, he feels
confounded and trembles.

[Jinyangjo] Stunned, Heungbo slumps down on the spot.

“People in the world! How can this happen?

How on earth can a sister-in-law hit a brother-in-law on his
cheek?

Hello, sister-in-law! Hello, sister-in-law!

Don’t hit me like this.

사지를 짹짹 찢어서 아주 박살³²⁶⁾ 죽여주오!
 살기도 나는 귀찮하고,
 배가 고파서 못 살겠소.
 지리산 호랑아, 날 물어가거라!
 아이고, 하느님! 홍보를 이 자리 벼락이나 내려주면,
 염라국³²⁷⁾을 찾아가서 부모님을 뵈은 후에, 세세원정³²⁸⁾을 아뢰련마는
 어찌하여서 못 죽는가?”
 부러진 작대기 찾아 쪼고,
 매운 것 먹은 사람처럼 후후 불며, 저의 집으로 건너간다.

14. (홍보 아내 탄식) 홍보 아내가 사정을 짐작하고 울며 목을 매려하니, 홍보가 만류하고 함께 운다.

[아니리] 후후 불고 건너가다가 홍보가 한 생각이 났겠다.
 ‘우리 마누라 성질이 급한데,
 내가 우리 마누라더러 형님한테 두드려맞았다면, 그 성질에 난리를
 낼 것이니,
 내 거짓말로 속여 봐야지.’
 후후 불고 건너가니,
 홍보 마누라 달려들며,
 “아이고, 영감. 다녀오시오? 어디?
 시숙댁³²⁹⁾에를 가시더니 똥을 줍디까?³³⁰⁾
 돈이 되거든 어서 끌러 내놓으시오.”
 “허허, 그런 것인가, 이리 좀 앉소.

Tear and break my body into small pieces.
I lost the will to live.
I am too hungry to live.
Tiger in Jiri Mountain! Take me away!
Oh God! Please strike me down with lightning right here.
I'll go to the world of the dead, meet my parents, and tell them everything.
Please kill me."
He uses a broken pole as a cane.
Heungbo goes back to his home, blowing on his wound.

14. (The Lamentation of Heungbo's Wife) Having guessed what had happened, Heungbo's wife cries and tries to hang herself. Heungbo stops her and cries together with her.

[Aniri] On his way back, Heungbo hits upon an idea, while blowing on his wound.
'My wife is hot-tempered.
If I tell her I was hit by my brother, she would be upset and make a fuss.
Let me tell her a lie.'
He goes over to his house, blowing on his wound.
Heungbo's wife runs to him.
"Honey, how are you doing?
Did your brother give you something?
If you got money, take it out quickly."
"Gee, should I? Come here and take a seat.

내 평생에 복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해볼 도리가 없네.”
 “아, 어떻게 되었는데, 말 좀 해보시오.”
 “아, 형님 댁에를 건너갔더니,
 형님께서 그간에 한 번도 안 왔다고 꾸중을 단단히³³¹⁾ 하시더니,
 돈 닷 냥, 쌀 서 말을 주시네.
 짊어지고 요 아래 강정모퉁이³³²⁾를 당도하니,
 키는 팔척장신³³³⁾이나 되게 큰 놈이 썩 나서며,
 ‘너 이놈! 네가 천석꾼 아우 박홍보 아니냐?’
 이러더니, 아 이놈이 나 짊어진 걸 모조리 뺏어가고,
 몽둥이로 어찌 나를 때려눕혔는지, 내가 지금 꿈쩍달싹을 못 하겠네.”
 홍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 자기 영감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중모레] “그런대도 내가 알고, 저런대도 내가 아요.
 시숙님 속³³⁴⁾도 내가 알고, 형님 속도 내가 아요.
 돈 닷 냥, 쌀 서 말이 그게 모두 거짓말이지.
 야속하제, 우리 시숙.
 전곡은 못 주나마 몽둥이질이 웬 일이요?
 차라리 내가 죽어 이런 꼴, 저런 꼴을 내 눈으로는 안 볼라네.”
 치마끈으로 목을 매어 죽기로만 작정하니,
 홍보가 달려들어,
 “아이고, 여보 마누라!
 마누라가 살았어도 나의 고생이 이러는데,
 마누라가 죽고 보면, 저 자식들을 어쩔랴요?
 차라리 모두 같이 죽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홍보 권속³³⁵⁾들이 모여 앉아 죽기로만 작정하고,
 서로 붙들고 울음을 우는구나.

I am such an unlucky person throughout my life.
 I don't have a way out."
 "Tell me what happened."
 "I went to my brother's house.
 My brother severely scolded me for not having visited him.
 He gave me 5 dollars and 3 buckets of rice.
 I carried them on my back and turned around the corner near
 the pavilion by the river.
 A very tall man came out in front of me.
 'You rat. You must be Heungbo, a millionaire's brother.'
 After saying that, he deprived me of all the things.
 He beat me with a cudgel so much that I can't move at all now."
 After listening to his words, Heungbo's wife vacantly looks at
 him.
[Jungmori] "Whatever you say, I know the truth.
 I know about your brother and about what you think.
 Your story about 5 dollars and 3 buckets of rice is a lie.
 My brother-in-law is heartless.
 Not giving money or rice is fine, but how can he beat you?
 I would rather die and stop seeing this misery."
 She is determined to hang herself with a belt.
 Heungbo runs to her.
 "Hello, sweetheart!
 My life is miserable even with you.
 What would become of the children if you die?
 Let all of us die together!
 Alas! Woe is me."
 All the family members are determined to die.
 They cry, holding each other.

15. (중타령) 중 하나가 흥보 집에 와서 동냥을 청한다.

[아니리] 이렇듯이 흥보 권속들이 못게 언덕 파듯³³⁶⁾ 울음을 울 적에,
천신이 돌봤든가,
흥보 살리려는 대사³³⁷⁾가 하나 내려오는데,
[엇모리]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저 중의 거동 보아.
저 중의 호사³³⁸⁾ 보려무나. 저 중의 호사 보아.
서리같은 두 눈썹 온 낮을 덮었고,
크나큰 두 귓밥³³⁹⁾은 양 어깨 청쳐져,³⁴⁰⁾
다 떨어진 헌 송낙³⁴¹⁾ 이리 송치고,³⁴²⁾ 저리도 송쳐 흠씩³⁴³⁾ 눌러쓰고,
노닥노닥³⁴⁴⁾ 지은 장삼³⁴⁵⁾
실띠 띠고,
염주³⁴⁶⁾ 목에 걸고, 단주³⁴⁷⁾ 팔에 끼고,
구리 백동³⁴⁸⁾ 반은장도³⁴⁹⁾ 고름에 되게 안에 차,³⁵⁰⁾
소상반죽³⁵¹⁾ 열두 마디 용두 새김³⁵²⁾ 육환장³⁵³⁾ 쇠고리 길게 달아
처절철 짚고,
흔들흔들 흐늘거리고³⁵⁴⁾ 내려와. 흐늘거리고 내려와.
염불³⁵⁵⁾하며 내려와.
중이라 하는 건 절에 들어도 염불이요, 속가³⁵⁶⁾에 가도 염불.
염불 천독³⁵⁷⁾을 하면, 극락세계³⁵⁸⁾로 간다더라.
“나무아미타불³⁵⁹⁾ 관세음보살.³⁶⁰⁾
상래소수공덕해³⁶¹⁾
회향삼천실원만,³⁶²⁾
봉위³⁶³⁾ 주상전하수만세,³⁶⁴⁾
왕비전하수제년³⁶⁵⁾

15. (Monk Song) A Buddhist monks comes and begs for food.

[Aniri] Heungbo's family members cry together.

God seems help them.

A monk comes down to save them.

[Eonmori] A monk comes down from a mountain.

Behold the monk.

Behold how splendidly he is dressed.

His white eyebrows cover his entire face.

His large earlobes hang down to shoulders.

His hat is old and loosely sewed here and there. He just jams
his hat on.

His hemp coat is patched up in many places.

His belt is made of thread.

He wears beads on his neck and on his arm.

Copper, white copper, and silver knives are firmly attached to
his coat string.

A dragon head is engraved on his bamboo cane of twelve joints,
and six iron rings are attached to the bamboo cane.

The rings on the cane make sounds, as he uses the cane.

He keeps swaying, as he comes down.

He chants a prayer, as he comes down

A monk is supposed to chant a prayer in and out of a temple.

If you chant a prayer a thousand times, you will go to heaven.

“Merciful Buddha and Goddess of Mercy.

The virtue acquired so far is as wide as a sea.

Praying for the dead makes the world peaceful.

May the king live long!

May the queen live as long as the king!

국태민안법륜전³⁶⁶⁾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인도하며³⁶⁷⁾ 내려와,

“나아 하하 으으음” 인도하며 내려와,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이 집, 저 집 다 지나고,

홍보 문전을 당도하여, 합장³⁶⁸⁾에 배례³⁶⁹⁾를 하고,

“이 댁에 동냥 왔소.”

홍보가 깜짝 놀라,

“여보, 마누라, 우지 마오. 밖에 중이 왔으니, 우지를 마오.”

16. (도승이 집터를 잡아줌) 도승이 사정을 듣더니, 집터 하나를 잡아준다.

[아니리] 홍보가 나오며 두 손 합장 배례하고,

“여보시오, 스님. 눈으로 집을 둘러 보시오.

서 밭³⁷⁰⁾ 장대로 저어도 거칠 문적³⁷¹⁾이 없어 동냥 한 줌 못 드리니,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 중 하는 말이, “내 동냥하러 온 중이 아니라,

지나다 들으니, 울음소리가 사생을 미판키로,³⁷²⁾

그 연유³⁷³⁾를 알고자 왔나니다.”

“예. 부끄러운 말이지마는, 굶다 못 견디어 십여 명 권속들이 모두
죽기로 작정하고 우는 길ियो.”

“어허, 참으로 불쌍하오.

내 걸승³⁷⁴⁾으로 이는 건 없으되,

내 뒤를 따라오면 집터 하나를 잡아 주리다.”

[진양조] 박홍보가 좋아라고, 대사 뒤를 따라간다.

May Buddha's teachings pervade to the people in a peaceful country!

Merciful Buddha and Goddess of Mercy."

He chants the prayer as he comes down.

He chants the prayer as he comes down.

He peeps in here and there, visiting many houses.

He arrives in front of Heungbo's house, put his hands together, and bows.

"I am here to beg."

Heungbo is surprised.

"Honey, don't cry. A monk is outside, so don't cry."

16. (The Monk Picks a House Site.) Hearing the story, the monk picks a lucky house site for Heungbo.

[Aniri] Heungbo puts his hands together and bows to the monk, as he steps out of his house.

"Hello, monk. Take a look around my house.

I have nothing in my house, so I can't give anything to you.

I am sorry about that."

The monk says, "I am not here to beg for anything.

I was passing by when I heard the crying sound indicating death.

I am here to check that out."

"I am ashamed to say this, but our dozen family members are so hungry that we cried, trying to die together."

"How poor you are!

I am merely a begging monk.

If you follow me, I will pick an auspicious house site for you."

[Jinyangjo] Joyous, Heungbo follows the monk.

이 모룡³⁷⁵)을 지내고, 저 모룡을 지내어 한 고개를 넘어가더니마는,
 저 중이 가다가 우뚝 서서 사면을 살펴보더니,
 “이 명당³⁷⁶)을 알으시오?
 천하의 제일가는 악양루³⁷⁷)같은 명당이니,
 이 명당에다 대강 성주³⁷⁸)를 하시되,
 임좌병향오문³⁷⁹)으로 대강 성주를 하시거드면,
 명년³⁸⁰) 팔월 십오일날 억십만금³⁸¹) 장자³⁸²)가 될 것이요,
 삼대 진사³⁸³), 오대 급제,³⁸⁴) 병감사³⁸⁵)가 날 명당이 적실하니,³⁸⁶)
 그리 알고 명심하오.”
 한두 말로 마친 연후에 인홀불견³⁸⁷) 간 곳이 없다.

17. (집터 글자) 흥보가 도승이 잡아 준 집터에 집을 짓고 사는데, 봄이 돌아온다.

[아니리] 이 때여 흥보가 그제야 도승³⁸⁸)인 줄을 짐작하고,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한 연후에,
 있던 움막³⁸⁹) 뜯어다가
 대사 가르친 대로 집을 짓고 살아갈 제,
 차차 차차 살림이 나아지거늘,
 흥보가 좋아라고 하루는 집터 글자를 붙여보겠다.
 [중중모리] “겨우 동 자³⁹⁰) 갈 거 자,³⁹¹)
 삼월삼질³⁹²)에 올 래 자,³⁹³)
 봄 춘 자³⁹⁴)가 좋을시고.
 도화행화분분이요,³⁹⁵)
 이화만지불개문³⁹⁶)하니

The monk turns around corners and goes over a pass.
He stands up straight and looks around.
“Do you know this is a lucky site?
This is the best site in the world.
Build a simple house on this lucky site.
Make the house face the south-southeast. Make the gate on the south.
And you will become a billionaire on August 15, next year.
Your descendents will pass state-run exams and become high government employees.
Keep in mind what I said.”
After saying those words, the monk suddenly disappears.

17. (A Word for the House Site) Heungbo lives in a house on the site the monk picked for him. Spring comes.

[Aniri] Heungbo now thinks that the monk has divine power.
He bows to the sky numerous times.
He tears down his hut.
He builds a house as the monk told him and lives there.
His financial situation gets better.
Delighted, one day Heungbo tries to find a word for the house site.
[Jungjungmori] “Winter(冬) has gone(去).
March has come(來).
Spring(春) is good.
Peach and apricot blossoms are in bloom together.
Pear blossoms fall down, but the door was not open.

실실 동풍에³⁹⁷⁾ 꽃 화 자.³⁹⁸⁾
 나비 집 자³⁹⁹⁾ 펄펄 날아
 춤출 무 자⁴⁰⁰⁾가 좋을시고.
 피꼬리 수루루 날아들어 노래 가 자 좋을시고.⁴⁰¹⁾
 기는 긴 짐승 수,⁴⁰²⁾
 나는 것은 새 조⁴⁰³⁾라.
 쌍쌍이 왕래하니, 제비 연 자⁴⁰⁴⁾가 좋을시고.”
 하루는 제비 한 쌍이 들어와 홍보 처마 끝에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새끼를 까서,⁴⁰⁵⁾ 밥 물어다 키울 적에,
 날기 공부 힘을 쓰다 거중에⁴⁰⁶⁾ 뚝 떨어져서 거의 죽게 되었구나.

18. (홍보 제비 구원) 하루는 홍보가 다리 부러진 제비새끼 한 마리를 구한다.

[아니리] 어지신 홍보씨 마음으로 제비를 주워들고,
 “불쌍타, 내 제비야.
 고루거각⁴⁰⁷⁾ 다 버리고, 궁벽강촌⁴⁰⁸⁾ 홍보집에 와 삼졌는데,⁴⁰⁹⁾
 절각지한⁴¹⁰⁾이 웬 일이냐?”
 명태 껍질 얻고, 당사실⁴¹¹⁾을 얻어 다리를 칭칭 동여,⁴¹²⁾ 제 집 위에
 올려노니,
 홍보 은혜 갚을 제비라 죽을 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펄펄 날아 만 리 강남⁴¹³⁾을 들어가겠다.
 [진양조] 떴다, 보아라.
 저 제비가 둥그렇게 둥그렇게 구만장천⁴¹⁴⁾으로 높이 떠,
 거중⁴¹⁵⁾으로 둥실, 펄펄 날아서 만 리 강남을 들어간다.
 홍보가 보고 섭섭하여라,

A spring wind blows on blossoms(花).
 A butterfly(蝶) flies.
 It's good to see it dance(舞).
 A nightingale flies and sings a pleasant song(歌).
 A beast(獸) crawls.
 A bird(禽) flies.
 It is good that swallows(燕) come in pairs."
 One day, a couple of swallows come and build their nest under the eaves.
 They lay eggs, hatch them, and feed their babies.
 A baby swallow falls down while practicing flying, putting itself near death.

18. (Heungbo Saves a Swallow.) One day Heungbo saves a swallow whose leg was broken.

[Aniri] Virtuous, Heungbo picks up the baby swallow.
 "How poor, my swallow!
 Your parents chose my house in a remote place over fancy houses, and you were born.
 I can't believe you got into the disaster of breaking your leg."
 Heungbo treats the legs with a pollack's skin and a silk thread, and puts the swallow back in the nest.
 The swallow is to return Heungbo's favor. How can it die?
 One day, it flies to Jiangnan(江南) thousands of miles away.
[Jinyangjo] Look. It takes off.
 The swallow makes a circle high in the sky.
 It floats in the sky, and flies to Jiangnan(江南) thousands of miles away.
 Heungbo feels sad.

“섭섭타, 저 제비야.

부러진 다리를 한을 말아라.

오나라 손빈⁴¹⁶)이는 양쪽⁴¹⁷)이 없었으되 제나라⁴¹⁸) 들어가 대장이 되고,

초한적⁴¹⁹) 한신⁴²⁰)이도 일지수가 없었으나,⁴²¹) 대장단⁴²²) 높이 앉아서 일군개경⁴²³)을 하였으니,

부러진 다리를 원통히 생각 말고,

멀고먼 만 리 강남을 부디 수이⁴²⁴) 다녀를 오너라.”

제비 저도 섭섭하여라고,

빨랫줄에 가 내려앉아서,

제비 말로 ‘지지주지 우지주지’⁴²⁵) 무엇이라고 작별을 하고,

구만장천에 높이 떠서, 주야로 펄펄 날아 만 리 강남을 들어간다.

19. (제비 점고) 강남으로 간 제비는 제비 왕에게 홍보가 구해준 사연을 알리고, 은혜를 갚고 싶다고 말한다.

[아니리] 수 일만에 강남을 들어가니,

조종지망제는 두견이었다.⁴²⁶)

각국에 나갔던 제비 점고⁴²⁷)를 하는데,

“대국⁴²⁸) 나갔던 명매기!”⁴²⁹)

“나오!”

“미국 나갔던 초록 제비!”

“나오!”

“일본 나갔던 분홍 제비!”

“I feel sad, my swallow.
 Don’t feel bitter about your broken leg.
 Sun Pin(孫臏) didn’t have legs, but he became the commander-in-chief of Qi(齊) Country.
 Han Xin(韓信) lost his arm, but he became the commander-in-chief to the surprise of the troops.
 Don’t hold grudge against the broken legs.
 Have a safe trip to Jiangnan(江南) far from here, and come back in one piece.”
 The swallow also feels sad.
 It sits down on a clothesline.
 The swallow speak the swallow language “Master, so long.”
 It flies high in the vast sky, and travels day and night to Jiangnan(江南), a distant place.

19. (Inspection of Swallows) The swallow flies to Jiangnan(江南). He tells the king of the birds that Heungbo saved him, and that he wants to return his favor.

[Aniri] Several days later, the swallow arrives at Jiangnan(江南).
 A cuckoo is the king of the birds.
 He inspects all the swallows who have been to different countries.
 “The swift who has been to China.”
 “I am here.”
 “The green swallow who has been to the US!”
 “I am here.”
 “The pink swallow who has been to Japan!”

“나오!”

“만 리 조선⁴³⁰)에 나갔던 홍보 제비!”

[중중모리] 홍보 제비가 들어온다. 홍보 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아지가져서⁴³¹) 전둥거리고⁴³²) 들어오며,

“예!”

제비 장수 호령하되, “이놈! 너는 어찌하여 다리가 봉통아지가졌느냐?”

“예. 아뢰리다. 예, 소조⁴³³)가 아뢰리다.

소조 운수 불길하여 만 리 조선에 나가 탄생하여, 날기 공부를 힘을
쓰다 거중에 뚝 떨어져서,

대번에⁴³⁴) 다리가 찢각⁴³⁵) 부러져서 거의 죽게가 되었을 제,

어진 홍보씨를 만나서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 은혜를 갚소리까?⁴³⁶)

제발 덕분에 통촉⁴³⁷)하오.”

20. (제비 노정기) 다음해 봄이 되자, 제비가 보은포 박씨를 입에 물고 홍보 집을 찾아온다.

[아니리] 제비 장수가 가만히 보더니, “오오, 그 홍보씨로 말하면, 강
남까지 유명한 분이로구나.

네 홍보씨 은혜를 갚으려면, 명춘⁴³⁸)에 나갈 적에 보은포⁴³⁹) 박씨를
하나 물어다 주면 네 은혜를 갚느니라.”

어느덧 삼동⁴⁴⁰)이 지나가고, 춘삼월이 방장하니,⁴⁴¹)

하루는 홍보 제비가 보은포 박씨를 물고 노정기⁴⁴²)로 나오는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자진모리로 나오겠다.

[자진모리] 홍보 제비가 나온다. 홍보 제비가 나와.

“I am here.”

The Heungbo swallow who has been to Korea!”

[Jungjungmori] Heungbo’s swallow comes in. He comes in.
The broken leg is out of shape, so he hobbles in unsteadily.
“Yes!”

The swallow general asks, “You rascal! Why is your leg swollen?”

“Let me tell you, sir. Let me tell you.

Born in Korea, far from here, I unfortunately fell down from the sky while practicing flying.

I broke my leg, putting myself near death.

Heungbo, a virtuous man, saved my life.

How can I return his favor?

Please be considerate of my wish.”

20. (The Swallow’s Journey) When spring comes, the swallow holds a favor-returning gourd seed on its mouth and returns to Heungbo’s house.

[Aniri] The swallow general responds, “Oh, Heungbo is famous even in Jiangnan(江南).

If you want to return his favor, next spring give him a gourd seed called Favor-Returning Gourd.”

Winter already goes, and spring comes.

One day Heungbo’s swallow holds the gourd seed and takes the usual travel route.

It sees many places in accordance with the rhythm, Jajinmori.

[Jajinmori] Heungbo’s swallow comes out.

흑운⁴⁴³) 박차고,⁴⁴⁴) 백운 무릅쓰고,
 거중에⁴⁴⁵) 등실 높이 떠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촉⁴⁴⁶)은 지척,⁴⁴⁷)
 동해는 창망⁴⁴⁸)하구나.
 축융봉⁴⁴⁹)을 올라가니
 주작⁴⁵⁰)이 넘놀고,
 황우토 · 황우탄⁴⁵¹) · 오작교⁴⁵²)를 바라보니,
 오초동남⁴⁵³) 가는 배는 북을 두리둥 두리둥 뚱뚱,
 어기야 어기야 어 저어가니, 원포귀범⁴⁵⁴)이 이 아니냐.
 수벽사명양안태
 불승청원각비래라.⁴⁵⁵)
 날아가는 저 기러기 같순⁴⁵⁶) 하나를 입에다 물고,
 일점 이점⁴⁵⁷) 뚝 떨어져 평사낙안⁴⁵⁸)이 분명.
 백구⁴⁵⁹) · 백로⁴⁶⁰) 짝을 지어 창과상⁴⁶¹)에 왕래,
 석양춘⁴⁶²)이 거기노라.
 회안봉⁴⁶³)을 넘어 황룡묘⁴⁶⁴) 들어가니,
 이십오현탄야월⁴⁶⁵)에
 반죽⁴⁶⁶) 가지 쉬어 앉아
 두견성⁴⁶⁷)을 화답⁴⁶⁸)하고,
 봉황대⁴⁶⁹) 올라가니
 봉거대공강자류⁴⁷⁰)라.
 황학루⁴⁷¹)를 올라가니
 황학일거불부반의
 백운천재공유유라.⁴⁷²)
 금릉⁴⁷³)을 지내어
 주사춘⁴⁷⁴) 들어가니,

It passes through black and white clouds,
 It flies high in the sky and looks around.
 Xishu(西蜀) is close.
 The East Sea is far away.
 The swallow flies over Zhurong(祝融) Mountain Peak,
 A red phoenix flies up and down there.
 The swallow gazes at the Wuque(烏鵲) Bridge on Huangniu(黃牛) River.
 A boat heads to Wu(吳) Country in the east and Chu(楚) Country in the south, while drumming.
 Yo-heave-ho. It is a fishing boat coming back to port from the sea.
 Moss is on both banks near blue water and shiny sand.
 A bird overpowered by grief comes back.
 Wild geese fly, holding reeds in their mouths.
 They fly down on a flat sandy plain one by one.
 Sea gulls and white herons move back and forth in pairs on the surface of blue water.
 The sun sets now in this village.
 The swallow passes over Huiyan(回雁) Mountain Peak and reaches Huangling(皇陵) Shrine.
 A lute with 25 strings is played.
 The swallow takes a rest on a bamboo branch.
 He responds favorably to a cuckoo's song.
 The swallow flies up to Fenghuang(鳳凰) Tower.
 The phoenix left a tower, below which a river flows.
 The swallow flies up to Huanghe(黃鶴) Tower.
 The yellow crane has gone and never comes back.
 Only white clouds have been flowing for a thousand years.
 The swallow passes over Nanjing(南京).
 It arrives at a village with a tavern.

공숙창외도리개⁴⁷⁵)라.
 낙매화를 툇 차 무연에 펄렁 떨어치고,⁴⁷⁶
 이수⁴⁷⁷)를 지내어 계명산⁴⁷⁸)을 올라가니,
 장자방⁴⁷⁹) 간 곳 없고,
 남병산⁴⁸⁰) 올라가니 칠성단⁴⁸¹)이 빈 터.
 연조지간⁴⁸²)을 지내어,
 장성⁴⁸³)을 지나, 갈석산⁴⁸⁴)을 넘어
 연경⁴⁸⁵)을 들어가니,
 살 · 미륵⁴⁸⁶)이 백이요.⁴⁸⁷
 요동 칠백 리를 순식간 지내어,
 의주를 다 지나, 압록강을 건너,
 영고탑⁴⁸⁸) · 통군정⁴⁸⁹)을 지나,
 안남산 · 뱀남산⁴⁹⁰) · 석벽강⁴⁹¹) · 용천강⁴⁹²) · 좌호령⁴⁹³)을 넘어들어,
 부산 파발 환마고개⁴⁹⁴) · 강동다리⁴⁹⁵)를 건너,
 평양의 연광정⁴⁹⁶) · 부벽루⁴⁹⁷)를 대림하고,⁴⁹⁸
 대동강 장림⁴⁹⁹)을 지내어,
 송도⁵⁰⁰)를 들어가
 만월대⁵⁰¹) · 관덕정⁵⁰²) · 박연폭포⁵⁰³) 구경하고,
 임진강을 시각에⁵⁰⁴) 건너
 삼각산⁵⁰⁵)에 왔다.

Peach flowers and plum flowers bloomed, exciting a sexual desire.

The swallow snatches a falling ume flower and throws it to a dancing party.

The swallow flies over Zhongnan(終南) Mountain, Ershui(二水) River, and Jiming(鷄鳴) Mountain.

Zhang Zifang(張子房) is gone.

The swallow flies up to Nanping(南屏) Mountain where there was an altar site.

The swallow flies in between Yan(燕) Country and Qi(齊) Country.

The swallow passes over the Great Wall and Jieshi(碣石) Mountain.

It flies to Beijing.

There are many Buddhist statues.

The swallow passes through the wide region, Liaodong(遼東), in a breath.

The swallow arrives at Euiju City and crosses Amnok River.

It goes over a tower and sits on a pavilion.

The swallow flies over mountains, rivers, and passes on the left and right.

The swallow moves over a busy pass and a bridge.

The swallow watches Yeongwang Pavilion and Bubyek Tower in Pyeongyang City.

The swallow now passes by a place called Jangnim by Daedong River.

The swallow now enters Gaeseong.

It sees Manweol Pavilion, Gwandeok Pavilion, Seonjuk Bridge, and Bagyeon Waterfall.

The swallow now crosses Imjin River quickly.

The swallow arrives at Bukhan Mountain.

지세⁵⁰⁶)를 가만히 살펴보니,
 천룡⁵⁰⁷)의 대원맥⁵⁰⁸)이 중령⁵⁰⁹)으로 흘렀고,
 금화⁵¹⁰) · 금상⁵¹¹)을 분계⁵¹²)하고, 춘당⁵¹³) · 영춘⁵¹⁴) 휘돌아 도봉⁵¹⁵) ·
 망월⁵¹⁶)이 생겼다.
 문물이 빈빈하고,⁵¹⁷)
 시속⁵¹⁸)이 희희하여⁵¹⁹)
 만만세지금탕.⁵²⁰)
 전라도는 운봉이요,
 경상도는 함양이라.
 운봉 함양 두 얼품⁵²¹)에 홍보가 그곳에 사는지라.
 저 제비 거동을 보소.
 보은포 박씨를 입에다 가로 물고,
 남대문 밖 칠패거리⁵²²) · 칠패⁵²³) · 팔패⁵²⁴) · 배다리⁵²⁵) · 청과⁵²⁶) ·
 애고개⁵²⁷)를 넘어,
 동작강을 월강,⁵²⁸)
 남태령⁵²⁹) 고개를 넘어,
 두 쪽지⁵³⁰)를 찢 벌리고
 번뜻 수루루⁵³¹) 높이 떠서,
[중중모리] 홍보 문전⁵³²)을 당도하여, 홍보 문전 당도하여,
 당상당하 비거비래⁵³³)
 편편히⁵³⁴) 노는 거동 홍보가 보고 좋아라고,
 “얼씨구나, 떴다, 내 제비야.
 유왈유소 엮은 남기 위소차로 네 왔더냐?⁵³⁵)
 북풍한창안비고⁵³⁶) 기러기 네가 되어, 평사낙안⁵³⁷)에 놀고 와?
 원춘진춘⁵³⁸) 너 보내고, 옥향청산의 문두견,⁵³⁹) 소식이 적적 막연터니,
 네가 나를 찾아와?”

It investigates the geographical features.
The central energy that produces lucky sites flows through half
of the mountain range.
It splits into two courses, getting around a pavilion and a gate,
and producing a mountain.
Things are shiny.
Social customs are good.
This place is a fortress.
Unbong is in Jeolla Province.
Hamyang is in Gyeongsang Province.
Heungbo lives in a region where the two places come in contact
with each other.
Behold the swallow!
It holds a gourd seed in its mouth.
Outside the South Gate, it quickly goes over streets, stations,
bridges, and passes in Seoul.
It crosses a branch of the Han River.
It goes over a pass near Seoul.
It opens its wings wide.
It flies high in the sky.

[Jungjungmori] The swallow arrives in front of Heungbo's house.
The swallow moves up and down the eaves.
Heungbo is glad to see it move around joyously.
"Hurrah! My swallow has come.
Did you make a nest in a tree?
Did you fly high in the sky and fly down on the sand like a
wild goose?
After you left, I asked a cuckoo in vain on a green mountain
about how you are doing.
You came back to me."

저 제비 거동 보소.

보은포 박씨를 입에다가 물고, 이리 저리 나온다.

단산⁵⁴⁰) 봉황이 죽실⁵⁴¹)을 물고 오동 속에서 넘논⁵⁴²) 듯,

유곡청학⁵⁴³)이 난초를 물고 세류강⁵⁴⁴)에서 넘논 듯,

북해 흑룡⁵⁴⁵)이 여의주⁵⁴⁶)를 물고 채운간⁵⁴⁷)에서 넘논 듯,

집으로 펄펄 날아들어,

홍보 앓은 처마 끝에 들어갔다, 나갔다, 무엇이랴

“지지주지 우지주지 함지포지 우지배라.”⁵⁴⁸)

찬찬히 살펴보니,

절골양각⁵⁴⁹)이 완연.⁵⁵⁰)

당사실⁵⁵¹)로 감은 다리가 아리롱⁵⁵²) 아리롱이 되어,

박씨를 떼그르르⁵⁵³) 던져 놓고, 백운간⁵⁵⁴)으로 날아간다.

21. (가난타령) 추석이 다가와도 먹을 것이 없자, 홍보 마누라가 가난타령을 하며 탄식한다.

[아니리] 이 때에 제비는 박씨를 딱 떨어뜨리고, 저 먼 구름 속으로 왕래하며 날아가 버렸겠다.

홍보 마누라 박씨를 주워들고,

“아이고, 영감! 여기 제비가 박씨 물어왔는갑소.”⁵⁵⁵)

“이리 갖고 오소. 좀 보세.”

홍보가 딱⁵⁵⁶) 보더니, 글이 조금 단문하던가,⁵⁵⁷)

Behold the swallow.
 It moves around, holding the gourd seed in its mouth.
 It looks like a phoenix of Danshan(丹山) Mountain of red sand
 flying to and from a paulownia tree with a bamboo seed in its
 mouth.
 It looks like a blue crane of a deep valley moving to and fro
 in a stream with an orchid in its mouth.
 It looks as if a black dragon of a northern sea flies up and down
 the colorful clouds with a divine pearl in its mouth.
 The swallow flies into the house.
 It flies to and from the eaves above Heungbo and says,
 “Do you remember me master? I came back with a gourd seed.”
 Heungbo takes a close look at it.
 It is clear that the two legs were broken.
 The traces of the legs which were wrapped up with silk threads
 can be seen.
 The swallow drops a gourd seed to Heungbo and flies away
 between white clouds.

21. (Poverty Song) Thanksgiving Day comes. Having no food, Heungbo's wife laments and sings the poverty song.

[Aniri] The swallow drops the gourd seed to Heungbo, and flies
 away between clouds.
 Heungbo's wife picks up the gourd seed.
 “Honey, it appears the swallow brought us a gourd seed.”
 “Bring it here. Let me take a look.”
 Heungbo looks at it, but he is not knowledgeable.

“보은, 보은. 이놈이 저 충청도 옥천으로, 보은으로 이리 뽕뽕 돌아왔구나.

기왕⁵⁵⁸) 물어왔으니 심어야제.”

동편 처마 단장⁵⁵⁹) 밑에다가 박 구덩이를 널리 파고,

신작 놓고,⁵⁶⁰) 거름 놓고 박씨를 심어노니,

박순이 올라오는데, 큰 털머신⁵⁶¹) 신작만이나 하게 올라오것다.

홍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놈의 박을 딱⁵⁶²) 심어놓으니까 금방 올라오네.

아이고, 참 이상스런 것이구나.

박년출⁵⁶³)이 뻗어나가는데, 큰 동아줄⁵⁶⁴)만이나 하게 뻗어나가서,

그 조그마한 홍보 움막⁵⁶⁵)을 짝 찢는 것이,

구년지수⁵⁶⁶) 장마가 진들 비 한 점 셀 틈 없고,

천둥친들 무너지랴.

이 때부터 박 덕을 보는데,

이 때는 어느 땐고?

칠팔월 가절⁵⁶⁷)이라.

다른 집에서는 음식을 차리느라 지지고, 볶고, 피 피, 이놈의 냄새가
코난간⁵⁶⁸)을 무너뜨리고 나가는데,

홍보 집은 냉랭하여,

홍보는 할 수 없어 바깥으로 나가 친구 어울려 술잔간⁵⁶⁹) 얻어먹으러
가고,

홍보 마누라 혼자 앉아 우는 것이 가난타령이 되었것다.

[진양조] “가난이야, 가난이로고나. 원수녀르⁵⁷⁰) 가난이야.

잘 살고, 못 살기는 묘 쓰기에게⁵⁷¹) 매였든가?

삼신 제왕님⁵⁷²)이 짚자리에 떨어칠 적에⁵⁷³) 명⁵⁷⁴)과 수복⁵⁷⁵)을 점
지⁵⁷⁶)하느냐?

“Favor-Returning. This swallow must have come here through
Okcheon and Boeun in Chungcheong Province.
Since the swallow brought it here, let me plant it.”
He digs a wide hole below the eaves and by the fence in the
east.
He covers the seed with a straw shoes and manure.
A sprout comes out in the size of a strong straw shoe.
Heungbo is surprised.
“Oh, I just planted the seed. A sprout has already come out.
This is really strange.
The vine stretches out in the size of a rope.
It entirely covers Heungbo’s small cottage.
A heavy rain can’t fall through Heungbo’s house.
Lightning can’t destroy it.
Heungbo begins to be benefited from the gourd.
What time of the year is it now?
It is Thanksgiving Day now.
In order to prepare for meal, the villagers stew and fry food,
producing sound and strong smell.
But Heungbo’s house is quiet.
Heungbo goes out of the house to be treated to wine by his
friends.
Heungbo’s wife cries by herself, which is the poverty song.

[Jinyangjo] “Poverty! Poverty! Evil poverty!
Does the site of ancestor’s tomb determine one’s fate?
Or does the goddess governing childbirth determine our fate
when we were born?

어이하면 잘 살더라 말이나?

박복한녀르⁵⁷⁷) 내 신세야.

다른 집 여인들은 어린 자식을 곱게 곱게 입히어 선산⁵⁷⁸)에 성묘를 보내는데,

나는 무슨 팔자인데 삼순구식⁵⁷⁹)을 못 하고 살게 되니,

이런 팔자가 어디가 있나?”

퍼버리고⁵⁸⁰) 앓아 울음을 운다.

22. (홍보 마누라를 달래) 홍보가 박을 타서 자식들을 먹이 자면서, 우는 마누라를 달랜다.

[아니리] 이렇게 앓아 설리 올 제,

이 때여 홍보는 친구 어울려 술잔간⁵⁸¹) 얻어먹고, 자기 집 문전을 당도하니,

안에서 울음소리가 낭자하것다.⁵⁸²)

홍보가 그냥 들어갈 수 없고,

자기 마누라를 한번 달래러 들어가는데,

[중중모리] 홍보가 들어간다.

박홍보가 들어가며, 자기 마누라를 달래는데,

“여보게, 이 사람아!

집안 어른이 어디를 갔다가, 집안이라고 들어오면, 우루루루 쫓아나와 영접⁵⁸³)하는 게 도리 옳제,

자네가 이렇게 설리⁵⁸⁴) 올면, 동네 사람이 아니 부끄런가?

우지 말고⁵⁸⁵) 이리 오소.

이리 오라면, 이리 와.

How can I be rich?
How ill-fated I am!
Other women dress their children up and visit their ancestors'
tombs.
I can't avoid the fate of going hungry for days.
I can't accept my fate."
She slumps down and cries.

22. (Heungbo Soothes his Wife.) Heungbo soothes his wife, proposing to saw a gourd and feed the children.

[Aniri] Heungbo's wife weeps sadly.
After drinking wine with his friends, Heungbo arrives in front of his house.
He hears crying sound from inside.
Heungbo can't go in without worrying.
He goes in to soothe his wife.

[Jungjungmori] Heungbo goes in.
He goes in and soothes his wife.
"Hello, darling!
If the family head comes back home, you ought to come out fast and greet him.
Your sad cry will bring disgrace on this family.
Stop crying and come here.
Come to my arms.

배가 정녕 고프거드면,⁵⁸⁶⁾ 지붕 위로 올라가서 박을 한 통 내려다가 타서,⁵⁸⁷⁾ 박속⁵⁸⁸⁾은 끓여 먹고, 바가지는 팔아다가, 양식 팔고 나무를 사서 어린 자식들을 구환⁵⁸⁹⁾하자.
우지 말고 이리 와.”

23. (첫째 박) 흥보 내외가 첫째 박을 타면서 밥이 나오기를 빈다.

[아니리] 흥보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박을 툇툇 텅거보니,
칠팔월 찬 이슬에 박이 각각⁵⁹⁰⁾ 여물었제.⁵⁹¹⁾
“여보소, 마누라. 그 바늘 좀 이리 갖고 와 보소.”
바늘 갖고 와서 박을 콕 쑤서보니, 바늘이 툇 부러졌것다.
“야, 이거 익었구나.
이거 세 덩이만 따 갖고 바로 내려가자.”
흥보가 박 세 덩이를 따다가, 앞에다 놓고 박을 타는데,
박 타는 데 무슨 소리가 있으라마는, 한번 해 보것다.
[진양조] “시리르르르르⁵⁹²⁾ 시리르르르르, 툇질이로구나.
에여루, 툇질이로구나. 시르르르르르 실건실건,⁵⁹³⁾ 툇질이야.”
“이 박을 타거드면,⁵⁹⁴⁾ 아무 것도 나오지를 말고서, 밥 한 통만 나오
너라!
평생의 밥이 포한⁵⁹⁵⁾이로구나.”
“에여루, 당기어라. 시르르르르. 실건 실건, 툇질이야.”
“여보게, 이 사람들. 이 내 말을 들어보소.
가난도 사주⁵⁹⁶⁾에가 있는가?
산수⁵⁹⁷⁾가 글러서 가난한가?

If you are that hungry, let's go up on the roof, bring a gourd down, cook the inside flesh, sell the shell, and buy food and wood. That way, we can save the children.
Stop crying and come here."

23. (First Gourd) Heungbo and his wife saw the first gourd, hoping that rice comes out.

[Aniri] Heungbo climbs to the roof and hits a gourd with his finger.

The gourd is mature due to the dew in August and September.
"Honey, bring a needle over here."

He pricks a gourd with the needle, which breaks into pieces.
"They are ripe.

Let me bring three of them down."

Heungbo brings three gourds down and saws them.

He sings a song as he saws a gourd.

[Jinyangjo] "Here goes the saw. Pull and push the saw.

Here goes the saw. Move the saw back and forth."

"All I want when this gourd is cut in half is a bucket of rice.
Rice is what I earnestly wish for throughout my life."

"Pull the saw. Here goes the saw. Move the saw back and forth."

"Hello, people. Listen to me.

Did my fate determine me to be poor?

Did geographical features determine me to be poor?

산수가 글러서 가난하면, 형님만 잘 사시고, 우리만이 못사는 산수
세상천지 어디서 보았소?”

“에여루, 당기어라, 톱질이야. 시리리리리리.”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큰 자식은 나한테로 오너라.

우리가 이 박을 타거드면 박속일랑 꿸여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다 팔아다가 목숨보명⁵⁹⁸)을 하여를 보자.”

“시르르르르르. 실건실건. 톱질이야.”

“여보게, 마누라!”

“예.”

“톱소리⁵⁹⁹)를 자네가 맞소.”⁶⁰⁰)

“톱소리를 내가 맞자한들, 배가 고파서 못 맞겼소.”

“배가 정 고프거드면, 치마끈을 줄라매소.”

“시르렁 시르렁 시리렁 시리렁 시리렁 실건 당기여라, 톱질이야. 시르
르르르릉.”

[휘모리] 시르렁 식씩,⁶⁰¹) 시르렁 식씩, 실건 실건 시리렁 식씩, 실건
실건 시르렁 식씩, 실건 실건 시르렁 식씩 실건 실건.

24. (쌀과 돈이 많이 나옴) 박 속에서 쌀과 돈이 들어있는 괘짝 두 개가 나오는데, 아무리 비워내도 도로 가득해 진다.

[아니리] 박이 짹 벌어지니, 박통 속이 텅.

“아니,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⁶⁰²)

어느 도적놈이 박속은 다 긁어가 버리고, 남의 조상괘⁶⁰³)만 훔쳐다
여봤구나.⁶⁰⁴)

If geographical features determine me to be poor, it is absurd that my brother is rich and I am poor.”

“Pull and push the saw. Move the saw back and forth.”

“The second son, go away.

The first son, come here.

If this gourd is sawed open, let’s cook the flesh inside.

Let’s sell the shell to the rich and live on.”

“Move the saw back and forth.”

“Hello, sweetheart!”

“Yes.”

“Lead the saw song.”

“I am so hungry that I can’t lead the saw song.”

If you are that hungry, tighten your skirt belt.”

“Here goes the saw. Pull and push the saw. Move the saw back and forth.”

[Hwimori] The saw makes sounds, moving back and forth.

24. (A Lot of Rice and Money Come Out.) A rice box and a money box come out of the gourd. They get refilled no matter how much is taken out.

[Aniri] The gourd is cut open, but it seems to be empty.

“For an unlucky person, even a good start leads to a bad end. Somebody has eaten the flesh of the gourd and put coffers for his ancestral tablet here.

애, 갖다 내버려라!”

홍보 마누라 옆에서 가만히 보더니,

“아이고, 영감. 거 박통 속에서 나왔으니 한번 끌러보시오.”

“헤헤, 여자란 게 남자보다 통⁶⁰⁵이 크단 말이여.

이걸 끌러봐서 좋은 것이 들었으면 모르되,

만약 벌이나 나와서 자식들 다 썩 죽이면 어쩔라고 그런가?”

“하이고, 영감도! 죽기는 매사일반인께⁶⁰⁶ 한번 열어봅시다.”

“그러면 좋은 피가 하나 있네.

자네는 자식들 데리고 저 문 앞에 가 쏘소.

내가 이걸 끌러봐서 좋은 것이 들었으면 손을 들이칠⁶⁰⁷ 것이고,

나쁜 것이 들었으면 손을 내칠 것이니,⁶⁰⁸

자네는 자식들 데리고 내쫓어버리소그려.”⁶⁰⁹

“아이고, 영감은 어쩔라고?”

“아, 이 사람아, 영감 죽으면 또 얻으면 그만이지.

암말도 말고⁶¹⁰ 그렇게 하소.”

홍보가 궤 두 짝을 앞에다 놓고 가만히 살펴보니,

‘홍보씨 개탁’⁶¹¹이라 하였것다.

“아, 이거 나한테 보내는 것이로구나. 끌러봐야제.”

눈 질끈 감고 한 궤를 떡 열고 보니,

어백미⁶¹² 쌀이 하나 수북하고,

또 한 궤를 열고 보니, 돈이 그저 꽉 찼는데,

홍보가 어찌 좋던지,

“어따, 돈, 쌀 바라!”

해놓은 것이, 홍보 자식들과 홍보 마누라가 온통 철환⁶¹³ 들어오듯이

그냥 ‘웁’ 소리 내면서 들어와서,

쌀을 쥐어 먹는 놈,

Throw them away!"

Heungbo's wife who has been near responds.

"Honey, since they came out of the gourd, please open them."

"Hehe, a woman is more brave than a man.

It would be all right if good things come out.

What if wasps come out and sting the children to death?"

"Sweetheart, we will die whether we open them or not, so let's open them."

"Then, I've got an idea.

Stay in front of the gate over there with the children.

If a good thing comes out, I will move my hand inward.

If a bad thing comes out, I will move my hand outward.

Run away with the children."

"What about you?"

"You woman. If I die, marry another man.

Do as I tell you to do."

Heungbo takes a close look at the boxes in front of him.

There are words: Heungbo, open it.

"This thing was sent to me. Let me open it."

He closes his eyes and opens a box.

It is filled with rice of high quality.

He opens the other box and learns it is full of money.

Heungbo gets ecstatic.

"Look at this money and rice!"

At his words, Heungbo's children and wife run into the house as fast and loudly as bullets.

Some grab rice and eat it.

어떤 놈은 돈을 갖고 제기를 차는 놈,

난리가 났겠다.

“아이고, 여보 영감. 이거 웬 일이에요?”

“허허, 이 사람아, 그리 말고 이거 한번 떨어 부어 보세.”

홍보가 그냥 떨어 붓는 것이 아니라,

장단을 휘모리⁽⁶¹⁴⁾로 다르르르 몰아놓고,⁽⁶¹⁵⁾

장단 사이로⁽⁶¹⁶⁾ 떨어 부어 보겠다.

[휘모리] 홍보가 좋아라고, 홍보가 좋아라고,

홍보가 좋아라고 궤 두 짝을 툭툭 떨고,

열고 보니 도로 하나 가득하고,

부어내고, 되아내고,⁽⁶¹⁷⁾ 툭툭 떨고 돌아섰다 들고 보니, 도로 하나
가득.

툭툭 떨고 열고 보니 도로 하나 가득하고,

부어내고, 되아내고, 툭툭 떨고 돌아섰다 열고 보니 도로 하나 가득.

떨고 붓고 돌아섰다 돌아보니 도로 하나 가득하고,

떨고 붓고 돌아섰다 돌아보니 도로 하나 가득하고,

부어내고 되아내고, 툭툭 떨고 돌아섰다 열고 보니 도로 하나 가득.

이리 갔다 열고 보니 도로 하나 가득하고,

저리 갔다 열고 보니 도로 하나 가득하고,

부어내고, 되아내고, 툭툭 떨고 돌아섰다 열고 보니 도로 하나 가득.

부어내고, 되아내고, 되아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되아내고, 부어
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되아내고, 되아내고, 부어내고.

“아이고, 좋아 죽겠네!

일 년 삼백육십일을 그저 꾸역꾸역 나오너라.”

Others play with coins.
 This is quite a show.
 “Darling, I can’t believe this.”
 “Oh woman. Come here and pour things out these boxes.”
 Heungbo doesn’t just pour things out.
 He quickly prepares for Hwimori rhythm.
 He pours things out in accordance with rhythms.
[Hwimori] Heungbo is joyous and pleased.
 Delighted, he pours things out of the two boxes.
 He opens them to learn that they are refilled.
 He pours things out, picks things up, shakes everything out,
 turns around, and learns that the boxes are refilled.
 He shakes everything out, opens the boxes, and learns they are
 refilled.
 He pours things out, picks things up, shakes everything out,
 turns around, opens the boxes, and learns they are refilled.
 He pours things out, turns around, and learns the boxes are
 refilled.
 He pours things out, turns around, and learns the boxes are
 refilled.
 He pours things out, picks things up, shakes everything out,
 turns around, opens the boxes, and learns they are refilled.
 He goes to a place, opens the boxes, and learns they are refilled.
 He goes to another place, opens the boxes, and learns they are
 refilled.
 He pours things out, picks things up, shakes everything out,
 turns around, opens the boxes, and learns they are refilled.
 He pours things up, picks things up, pours things out, picks things
 up, pours things out, picks things up, and pours things out.
 “This is fantastic!
 I hope things come out continuously 365 days a year.”

25. (돈타령) 흥보가 돈 한 께미를 들고 돈타령을 한다.

[아니레] 어찌 퍼부어 났던지, 그 돈과 쌀을 계산할 수가 없던가 보더라.

흥보가 좋아라고 그저 엽전⁽⁶¹⁸⁾ 한 께미⁽⁶¹⁹⁾를 들고 놀아보고,

흥보 마누라는 쌀 께작을 들고 노는데,

그저 절굿대춤⁽⁶²⁰⁾을 한번 추면서 한번 놀아보겠다.

[중중모리] 흥보가 좋아라, 박흥보가 좋아라고,

돈 한 께미를 손에다가 들고 춤을 추면서 논다.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자 좋을시고.

맹상군⁽⁶²¹⁾의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지권⁽⁶²²⁾을 가진 돈,

부귀공명⁽⁶²³⁾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오느냐?

얼씨구나 돈 바라.

여보아라, 큰자식⁽⁶²⁴⁾아.

건넌말⁽⁶²⁵⁾ 건너가서, 너의 큰아버지 오시래라.

경사를 보아도 형제간⁽⁶²⁶⁾에 보자,

얼씨구나 절씨구.

옛그제까지 박흥보가 문전걸식⁽⁶²⁷⁾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어

석승⁽⁶²⁸⁾이를 부러워하며, 도주공⁽⁶²⁹⁾을 내가 부러워하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우리 집을 찾아오소.

나도 오늘부터 기민을 즐란다.⁽⁶³⁰⁾

얼씨구나 좋을시고.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이런 경사가 또 있나.”

**25. (Money Song) Heungbo sings the money song,
holding a string of coins.**

[Aniri] They poured so much money and rice that they can't count them.

Joyful, Heungbo picks up a string of coins and plays with it.
Heungo's wife holds up the rice box and plays with it.

They have fun, jumps up and down straight.

[Jungjungmori] Heungbo is joyous and happy.

He holds a string of coins and dances joyfully.

“Hurrah! Whoopee! Yippee! Hurray!

Money is round like a wheel of a cart.

It can make a person live or die.

Money accompanies honor and wealth.

Money, money, money!

Where have you been?

Hurrah! Look at this money.

Look, my eldest son!

Go to the neighboring village and bring your uncle here.

A happy event should be shared between brothers.

Whoopee! Yippee!

I was a beggar up until yesterday.

I became rich today.

I don't ever envy ancient billionaires.

Poor and pitiful people, come to my house!

I'll give out food to starving people from now on.

This is great. Oh boy! Hurrah! Whoopee! Yippee!

This is fantastic.”

26. (홍보 밥먹는 모습) 홍보 가족이 좋아하며 밥을 실컷 해 먹는데, 홍보는 밥을 던졌다가 받아먹는다.

[아니리] 한참 좋아라고 절굿대춤을 추었겠다.

“여보시오, 마누라. 우리 쌀 본 김에 밥이나 좀 해먹읍시다.

아, 우리 권속⁽⁶³¹⁾이 몇이지?

내가 자식놈들이 어찌 많던지 몇 놈이 되는지를 모르겠어.

가만히 있자. 음, 아리롱이, 다리롱이, 거맹이, 노랭이, 백산이.”

홍보가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쪽⁽⁶³²⁾ 개 이름으로 전부 지었겠다.

“가만히 있거라, 세 보자. 옳지. 자식이 아홉, 우리 내외 합하니 열하
나로구나.

끓던 속에 한 앞에⁽⁶³³⁾ 쌀 한 섬씩 못 먹겠는가?

쌀 열한 섬만 밥을 해라.”

밥을 해놓은 것이 닷 마지기⁽⁶³⁴⁾ 거름 무더기보다도 더 크겠다.

홍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자식놈들 끓주렸던 속에 함부로 밥을 먹다 탈이 날까 싫어서,

밥 영⁽⁶³⁵⁾을 내리는데,

“너 이놈들! 내 영 전에⁽⁶³⁶⁾ 밥을 먹었다가는 밥으로 목을 베리라!”

해놓으니까, 그래도 자식놈들이 자기 아버지 영을 꼭 지켰던가,

그저 온통 철환⁽⁶³⁷⁾ 나가듯이 하려고 그냥 팍⁽⁶³⁸⁾ 쪼그리고 앉아서,

자기 아버지 영 내리도록 기다리고 있을 적에,

“너 이놈들! 숨 쉬어가면서 밥 먹어라!” 하니까,

철환 나가듯이 ‘웁’ 소리만 나고, 자식놈들은 하나도 없어졌겠다.

26. (Heungbo Eats Rice) Heungbo's family members joyfully eat rice. Heungbo makes rice balls, throws them into air, and catches them with his mouth.

[Aniri] Heungbo jumps up and down for a while.

"Honey, since we have rice, let's cook and eat it.

How many family members do we have?

I have so many children that I don't know how many I have.

Let me see. Arirong, Darirong, Geomaeng, Noraeng, and Baeksan."

Heungbo made the names of all of his sons, and they are all those of dogs.

"Let me see. Let me count them. I have 9 children. In total, we have 11 people, including me and my wife.

Since we haven't eaten for a long time, each of us should be able to eat a bag of rice.

Cook 11 bags of rice."

They cook so much rice that the pile of rice is as big as that of manure for a wide rice paddy.

Heungbo is a wise man.

His children didn't eat for a long time, so he is afraid that they might suffer from indigestion if they eat too insensibly.

He gives an order.

"You rascals. If you eat even a spoon of rice before my order, I will slash your head off with rice!"

At his words, the children obey their father's order.

They squat themselves down, ready to run to the rice like bullets.

They wait for their father's order.

He says, "You rascals. Eat rice slowly."

They disappear, only leaving the bullet sound "Bang."

“아, 이놈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을까?”

아, 이놈들이 그냥 어떻게 세게 갓던지, 밥 속에 가서 푹 박혀가지고,
속에서 벌거지⁽⁶³⁹⁾ 나무 좀 먹듯 먹고 나오는데,

“참, 자식놈들 밥 먹는 것 기가 막히게 먹는구나.

여보시오, 마누라. 내 평생에 원⁽⁶⁴⁰⁾이니,

피⁽⁶⁴¹⁾를 훔썬⁽⁶⁴²⁾ 벗고, 나도 밥 속에 가서 푹 파묻혀서 먹어볼라요.”

“아이고, 영감, 그러면 나도 그럴라요.”

“허허, 이 사람아. 자네가 남녀가 유별⁽⁶⁴³⁾한데,

행여라도 그렇게 하면 못쓰는 것이니,

자네는 여기서 밥 먹는 구경이나 하고, 조금씩 먹소.”

홍보가 밥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푹푹 뭉쳐가지고 어깨 너머로 혹⁽⁶⁴⁴⁾ 던져가지고,

두꺼비 파리 잡듯 딸각⁽⁶⁴⁵⁾ 딸각 받아먹는데,

밥 먹는데 무슨 박자 있으랴마는,

그 밥 먹는 데도 휘모리⁽⁶⁴⁶⁾로 달아놓고, 밥을 먹어 보겠다.

[휘모리] 홍보가 좋아라고, 홍보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홍보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홍보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푹푹 뭉쳐갖고⁽⁶⁴⁷⁾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
먹고.

푹푹 뭉쳐갖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
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어찌 밥을 먹어 놓았던지, 밥이 산목이⁽⁶⁴⁸⁾ 차가지고 정신이 없고, 눈
을 뒤썩썩고⁽⁶⁴⁹⁾ 홍보가 죽게 되었구나.

“Where did they go?”

The children ran to the pile of rice so hard that they got stuck in it.

They come out of the pile of rice as worms come out of wood.

“I am confounded by how the children eat rice.

Hello, my wife. Eating rice is my long time wish.

Let me take off clothes, get into the pile of rice, and eat it.”

“If you do, so will I.”

“You woman. There should be a distinction between a man and a woman.

You shouldn’t get in there naked.

You eat here, watching others eat.”

Heungbo eats rice.

He doesn’t eat it in a normal manner.

He makes a rice ball and throws it above his shoulder.

He catches a rice ball, as a toad snatches a fly.

There can’t be a rhythm for eating rice.

But he eats rice balls in accordance with Hwimori, a fast rhythm.

[Hwimori] Heungbo is happy. He eats rice delightedly.

Heungbo eats rice delightedly.

Heungbo eats rice delightedly.

He repeatedly makes a rice ball, throws it into the air, catches it with his mouth, and eats it.

He repeatedly makes a rice ball, throws it into the air, catches it with his mouth, and eats it.

He eats so much rice that it fills up to his throat, he can’t think clearly, his eyes move erratically, and he is about to die.

홍보 마누라 밥을 먹다 가만히 보니, 자기 영감이 죽게 되었는데, 홍보 마누라 놀래가지고,

“아이고, 영감! 밥 먹다 죽다니, 이런 일이 어디가 있소?”

“어라, 아직도 내가 밥을 먹을라면은 쌀 석 섬은 더 먹겠구나.”

[아니리] 홍보 자식들이 밥 먹느라고 자기 아버지 죽는 꼴도 못 보겠다.

이 때여 홍보 큰 아들놈이 썩 들어오며 꺾이밥⁽⁶⁵⁰⁾ 문듯 하겠다.

“밥판이 어떻게 되었소?”

“아이고, 이 녀석아. 밥이고 뭇이고, 느그⁽⁶⁵¹⁾ 아부지 죽는다!”

“밥 먹다 죽는데 뉘 아들놈한테 원망을 한단 말이오?”

“이 녀석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아, 밥 먹고 죽으면 죽었제, 쓰겼소, 거? 그래, 아버지, 이 배가 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스럽게 생겼으니, 한번 튕겨봅시다.”

‘탁’ 튕겨노니까,

어떻게 밥을 먹어왔던지, 뱃가죽이 장구 가죽 되어 갖고, ‘뽕그랑’ 소리가 나게 밥을 먹었든가 보더라.

배꼽에 있는 때가 녹두알처럼 그저 푹푹 뭉쳐서 나가는데,

튀겨 나가는 소리가 ‘팽 팽’ 소리가 나고, ‘뽕그랑’ 소리가 나는데 기가 막히겠다.

홍보 자식들이 밥을 먹다 ‘뽕그랑’ 소리에 깜짝 놀래 갖고,

우 달려들어 이 놈이 ‘뽕그랑’ 탁 튕기고, 저 놈이 튕겨서,

‘뽕그랑, 뽕그랑 뽕그랑 뽕그랑 뽕그랑’ 장단이 맞게 되었겠다.

홍보 자식들이 어떻게 좋던지,

배를 꺾 눌러 놓은 것이 똥줄기가 되었던가 보더라.

이 때여 홍보가 어디 살았는고 하면 팔랑치⁽⁶⁵²⁾ 채 밑에 살았겠다.

똥줄기가 운봉 연재⁽⁶⁵³⁾로 그냥 넘어 달려오니까,

농군들이 논에서 일을 하다가,

While Heungbo's wife eats rice, she is surprised, noticing that her husband is about to die.

"Darling, I can't believe you are about to die while eating."

"No, I still feel like I could eat three more bags of rice."

[Aniri] Heungbo's children are so engrossed in eating rice that they don't realize that their father is about to die.

Just then, Heungo's first son speaks as if he talked about rice for a guest.

"How are we doing with eating rice?"

"You rascal. Forget rice. Your father is about to pass away!"

"He is dying while eating. How can he resent his son?"

"You rascal. Don't be saucy."

"It is bad to die while eating. Father, do you feel uncomfortable in the belly?"

Your belly looks strange. Let me bounce my finger on it."

He bounce his finger on Heungbo's belly.

Heungbo ate so much rice that his belly is tight and makes the sound "Tomb" like a waist drum.

The dirt in his navel is lumped into balls and moves out.

They jump out of his navel, making the sounds "Bang" and "Clang."

This is quite a show.

Heungbo's children are surprised to hear "Clang" as they eat rice.

They run to their father, and bounce their fingers on his belly.

The dirt from his navel makes sounds "Clang, clang, clang, and clang" in rhythm.

Heungbo's children delightfully play his belly.

They press his belly, and a stream of his shit comes out.

Heungbo's house is located below a mountain pass.

The stream of his shit flies over the mountain pass.

Farmers are working in the rice paddy.

무지갯살⁽⁶⁵⁴⁾같이 그저 불그스름히 넘어오니까 어떻게 놀래났던지,
‘항룡⁽⁶⁵⁵⁾ 올라간다’하고 전부 절을 했드랍니다.

그래서 그 해 운봉 시절⁽⁶⁵⁶⁾은 그냥 몇 해만에 풍년이 들어갓고 잘
되었제.

이건 잠시 동안 소리하는 사람의 재담⁽⁶⁵⁷⁾이었다.

홍보가 좋아라고 둘째 통을 들여놓고 타는데,

27. (둘째 박) 홍보가 둘째 박을 타다가, 은금보화가 나오면 형님을 주겠다고 하며 마누라에게 형제 윤리를 이른다.

[진양조] “시리령 실건, 톱질이로구나. 에여루, 당기어라. 시르르르르
르르. 실건 실건 톱질이야.”

“이 박을 타거드면,⁽⁶⁵⁸⁾ 아무 것도 나오지를 말고서 은금보화⁽⁶⁵⁹⁾가 나
오너라!

은금보화가 나오거드면⁽⁶⁶⁰⁾ 형님 갖다가 드릴란다.”

홍보 마누라 화를 내며, 톱머리⁽⁶⁶¹⁾를 시르르르르르 놓고,

뒤로 주춤 물러서서 자기 영감을 물끄러미 보더니마는,

“나는, 나는 안 탈라요. 안 탈라요.

여보, 영감, 형제간이라 잊었소?

동지선달 추운 날에, 자식들을 맨발을 벗기여, 몽둥이 무서워 쫓겨나
던 일을 꼭 속에 들어도⁽⁶⁶²⁾ 못 잊겠소.

나는, 나는 안 탈라요. 안 탈라요.”

[중모리] 홍보가 화를 내며,

“타지 마라, 이 사람아! 나 혼자 탈란다. 타지 마라.

They are surprised to see something yellowish flying in the shape of a rainbow.

They bow to it, saying “A yellow dragon flies up.”

As a result, people in that region enjoy a good harvest after years of bad harvest.

But that must be the humorous story made up by a singer. Joyfully, Heungbo brings the second gourd and saw it.

27. (Second Gourd) While sawing the second gourd, Heungbo says that if jewels come out, he'll give them to his brother, and talks about ethical rules between brothers.

[Jinyangjo] “Here goes the saw. Pull and push the saw. Move the saw back and forth.”

“I hope when this gourd is sawn open, nothing comes out except jewels!

If they come out, I'll give them to my brother.”

Heungbo's wife gets angry, letting go of the end of the saw. She steps back and vacantly looks at her husband.

“I don't want to saw the gourd anymore.

Did you forget because he is your brother?

Even when I am dead and buried, I won't be able to forget our children were bare foot, and we were kicked out afraid of a cudgel on the cold day in winter.

I don't want to saw the gourd anymore.”

[Jungmori] Heungbo gets angry.

“Don't saw. Don't saw. I will do it alone. Don't saw.

계집이라 하는 것은 상하 의복과 같은지라,
 의복이라 하는 것은 떨어지면 지어 입지,
 형제는 일신 수족이라,⁽⁶⁶³⁾
 한번 아차 죽고 보면, 조선 팔도 너른 곳에 얼굴인들 다시 보겠느냐?
 나 혼자 탈란다, 타지 마라.”
[아니리] 홍보 마누라 가만히 듣더니, “아이고, 영감. 영감 말을 듣고
 보니, 내 잘못된 것 같소.
 다시 안 그럴 터이니 한번만 용서하오.”
 홍보가 비식이⁽⁶⁶⁴⁾ 웃으면서,
 “내외간⁽⁶⁶⁵⁾이라 하는 건 칼로 물 치기라.⁽⁶⁶⁶⁾
 자네가 그럴 리가 있겠는가?
 자네같이 얌전하고 좋은 사람 마음이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러고 말고! 다시 그리 말아야제.
 우리 그러면 재미있게 한번 타 보세.”
[중중모리] “실건 실건 시리령 실건 톱질이야.”
 “이 박을 타거드면 아무 것도 나오지 말고, 은금보화만 나오느라.”
 “시리령 실건 톱질이야. 시리령 실건 톱질이야.”
 “강상에⁽⁶⁶⁷⁾ 등실 뜬 배 수천 석을 실었은들, 즈그만⁽⁶⁶⁸⁾ 좋아하지
 내 박 한 통을 당할쏜가?”
 “시리령 실건, 톱질이야.”
 “좋을시고. 좋을시고. 밥 먹으니 좋을시고.
 수인씨 교인화식⁽⁶⁶⁹⁾ 날로 두고서 이름인가?”
 “시르령 실건, 톱질이야. 시리령 실근, 어유야, 당기어라.”
[휘모리] 시르령 식씩, 시리령 식씩, 실건 실건 시리령 식씩, 실건 실건
 시리령 식씩, 실건 실건 시리령 식씩, 실건실건.

A woman is like a piece of clothing.
If clothes get old, we can mend them.
A brother is like a hand or a leg.
If a brother dies, we can't see him again around this country.
I will saw alone. Don't saw."

[Aniri] Heungbo's wife responds, "Oh, sweetheart! After listening to you, I realize I was wrong.

Forgive me. I won't say such words again."

Heungbo smiles.

"A husband and wife reconcile with each other easily.

I don't believe you could ever be estranged from me.

Given you are such a good person, I don't believe you would ever be estranged from me.

Great! Don't hold a grudge against my brother.

Let's have some fun, sawing this gourd."

[Jungjungmori] "Move the saw back and forth."

"I hope when this gourd is sawn open, nothing comes out except jewels!"

"Here goes the saw. Pull and push the saw."

"People are delighted to see a ship with tons of rice on a river.
But can it exceed my gourd?"

"Here goes the saw."

"Hurrah! Yipee. It is great to eat rice.

I thanks Sui Ren Shi(燧人氏) who taught people how to use fire to cook.

"Here goes the saw. Move the saw back and forth."

[Hwimori] The saw makes sounds, moving back and forth.

28. (비단 타령) 둘째 박 속에서 온갖 비단이 나온다.

[아니리] 박이 짝 벌어지니,

박통 속에서 온갖 비단이 나달아 오는데,⁽⁶⁷⁰⁾

비단이 어떻게 많이 나달아 오는지 이상스럽게 비단 이름도 모르겠고,

대개 흥보 마누라가 알았던가 비단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다.

[중중모리] 온갖 비단이 나온다. 온갖 비단이 나온다.

요간부상삼백척⁽⁶⁷¹⁾ 번뜻 떴다 일광단,⁽⁶⁷²⁾

고소대⁽⁶⁷³⁾ 악양루⁽⁶⁷⁴⁾의 적선아미가 월광단,⁽⁶⁷⁵⁾

서왕모⁽⁶⁷⁶⁾ 요지연⁽⁶⁷⁷⁾의 진상하던⁽⁶⁷⁸⁾ 천도문,⁽⁶⁷⁹⁾

천하 구주⁽⁶⁸⁰⁾ 산천초목 그려내던 지도문,⁽⁶⁸¹⁾

등태산소천하⁽⁶⁸²⁾의 공부자⁽⁶⁸³⁾의 대단,⁽⁶⁸⁴⁾

남양 초당⁽⁶⁸⁵⁾의 경⁽⁶⁸⁶⁾ 좋은 데 천하 영웅 와룡단,⁽⁶⁸⁷⁾

사해⁽⁶⁸⁸⁾가 분분⁽⁶⁸⁹⁾ 요란하니 뇌고함성⁽⁶⁹⁰⁾의 영초단,⁽⁶⁹¹⁾

풍진⁽⁶⁹²⁾을 시르르르 그치니 태평건곤⁽⁶⁹³⁾의 대원단,⁽⁶⁹⁴⁾

염불타령⁽⁶⁹⁵⁾ 지어놓고 춤추기 좋은 장단,⁽⁶⁹⁶⁾

가는 님 허리 안고 가지 말라 도리불수,⁽⁶⁹⁷⁾

임 보내고 홀로 앉아 독수공방⁽⁶⁹⁸⁾의 상사단,⁽⁶⁹⁹⁾

큰방⁽⁷⁰⁰⁾ · 골방⁽⁷⁰¹⁾ · 가로단이⁽⁷⁰²⁾ 국화새김 완자문,⁽⁷⁰³⁾

추월추풍⁽⁷⁰⁴⁾ 공단⁽⁷⁰⁵⁾이요,

28. (Silk Song) All sorts of silk come out of the second gourd.

[Aniri] The gourd opens.

All sorts of silk pour out of it.

So much silk comes out that its names are unknown.

Heungbo's wife, knowing the names, gives the silk the names.

[Jungjungmori] All sorts of silk come out. They come out.

The sunlight silk: The sun rises in a high place, casting long shafts of light.

The moonlight silk: The moon is over Gu Su(姑蘇) Pavilion and Yue Yang(岳陽) Tower

The divine peach silk is associated with a story that a divine peach is offered to an ancient goddess, Xi Wang Mu(西王母), during the party by a divine pond, Yaochi(瑤池).

The map silk: There are mountains, rivers, grass, and trees in the world.

Confucius wearing silk said on Tai(泰) Mountain that the world looks small.

Kong Ming(孔明) silk was worn by the hero, Kong Ming(孔明), who lived in thatched house in beautiful scenery.

The loud silk: The world is chaotic and noisy.

The hope silk: The world became peaceful after a war.

A rhythm silk: It is good to dance in accordance with a prayer.

The trinket silk: A woman grabs a man's hands swiftly to stop him from leaving.

The love silk: A woman is alone in an empty room after her love is gone.

The chrysanthemum silk: A small room is attached to a large room with a sliding window.

The thick fancy lustrous silk: The moon is quiet in fall.

심심산곡 송림간의⁷⁰⁶⁾ 무서웁다 호피단,⁷⁰⁷⁾
 쓰기 좋은 양태문,⁷⁰⁸⁾
 인정 있는 은조사,⁷⁰⁹⁾
 부귀다남 복수단,⁷¹⁰⁾
 행실 부족 궁초단,⁷¹¹⁾
 절개 좋은 송죽단,⁷¹²⁾
 뚜두럭쑹벽⁷¹³⁾허니 말굽 장단,
 서부령섬적⁷¹⁴⁾ 세발룽단,⁷¹⁵⁾
 뭉게뭉게 구름단,⁷¹⁶⁾
 흑공단⁷¹⁷⁾ · 백공단⁷¹⁸⁾ · 한산 모시⁷¹⁹⁾ · 송화색⁷²⁰⁾이며,
 청사⁷²¹⁾ · 홍사⁷²²⁾ · 통견⁷²³⁾이며,
 모래사주⁷²⁴⁾ · 방의주⁷²⁵⁾ · 해남포⁷²⁶⁾ · 몽고 삼승⁷²⁷⁾ · 철남포⁷²⁸⁾까지
 그저 꾸역꾸역, 온갖 비단이 다 나와.

29. (홍보 부부 옷차림) 홍보와 홍보 아내가 비단으로 옷을 차려 입는다.

[아니래 “하이고, 영감. 내 숨 가빠서 이 비단 이름 다 못 세졌소.
 아이고, 이 비단을 다 어쩔 것이오?”
 “마누라가 나한테 시집온 후로 비단옷 한번 못 얻어 입었으니,
 무슨 색이 좋던가, 한번 골라보시오.”
 “아이고, 나는 송화색⁷²⁹⁾ 저고리에다 삼회장⁷³⁰⁾ 끼워 입으면 제일 좋
 아요.”
 “춘분⁷³¹⁾이라 할 수 없구만.”
 “아이고, 영감도! 영감은 어디 사는데 나보고 춘사람이라고 해요?

The tiger skin silk: There is a fearful tiger between pine trees
 on a high mountain and a deep valley.
 Fine silk is useful for making a hat string.
 A thin Chinese silk is associated with compassion.
 Good luck and life silk is associated with wealth and many sons.
 A kind of silk reminds us of mediocrity of mind.
 Pine and bamboo silk represents integrity.
 The name of silk sounds is like the sounds of a horse's hoofs.
 A kind of thin silk moves gracefully.
 A kind of silk looks like a cloud.
 Black silk, white silk, ramie cloth, yellow silk,
 a blue thread, a red thread, thin silk for a pigtail ribbon,
 sand silk, silk for soldiers in frontline, a ramie cloth from
 Haenam, a hemp cloth from Mongolia, and a purple hemp cloth
 come out continuously.

29. (Heungbo and His Wife Dress Up.) Heungbo and his wife dress up in silk.

[Aniri] "Oh my goodness. I can't name silk anymore because I
 am out of breath.
 What will you do about all this silk??"
 "Honey, since you married me, you haven't ever worn silk
 clothes.
 Which color do you like? Choose one."
 "Honey, throughout my life I've liked a yellow jacket and purple
 sleeves the most."
 "You must be a country woman."
 "Sweetheart, where do you live? You can't say I am a country
 woman.

영감은 무슨 색이 좋습디까?”

“응, 나는 망건썰기⁷³²⁾를 하나, 갓끈을 하나 흑공단이 제일로 좋데.”

“좋은 놈 챙겼소!

그러면 그놈을 갖고 흑공단⁷³³⁾으로 저 위에서부터 내리⁷³⁴⁾ 챙겨봅시다.”

“한번 차려⁷³⁵⁾ 보게 해보소.”

[중중모리] “흑공단 망건,⁷³⁶⁾ 흑공단 갓끈,

흑공단 두루마기, 흑공단 저고리,

흑공단 바지, 흑공단 버선,

흑공단 허리끈, 흑공단 대님,⁷³⁷⁾

흑공단으로 손수건을 들고,

어떻소, 내 호사?”⁷³⁸⁾

[아니레] “가만히 보니까, 그것으로 차리면 틀림없이, 까마귀새끼 모양이겠소.”

“에, 이 사람같으니! 아, 까마귀면 까마귀였제, 새끼 자는 뭐할라고 집어넣는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소.”

“그러면, 마누라 한번 차려 보제.”

[중중모리] 흥보 마누라가 차린다.

흥보 마누라가 차리는데, 송화색⁷³⁹⁾으로 차린다.

송화색 땡기,⁷⁴⁰⁾ 송화색 저고리,

송화색 치마, 송화색 단의,⁷⁴¹⁾

송화색 버선, 송화색 속속곳,⁷⁴²⁾

송화색 주머니, 송화색 허리끈,⁷⁴³⁾

송화색으로 손수건을 들고,

“어떻소, 내 호사?”

Which color do you like?"

"I like black whether I choose a headband cover or a hat string."

"That's the right choice!

Then, let's dress you up with black silk from your head to toe."

"Help me dress up that way."

[Jungjungmori] "I will wear a black headband, a black hat-string,
a black coat, a black jacket,
black trousers, black socks,
a black belt, and black ankle bands.
I will hold a black handkerchief.
Do I look luxurious?"

[Aniri] "On closer look, if you dress up like that, you will
certainly look like a baby crow."

"You woman! You can say I will look like a crow. Why do you
say I will look like a baby crow?"

"I am sorry."

"Darling, it is your turn to dress up."

[Jungjungmori] Heungbo's wife dresses up.
She dresses up with the yellow color.
She wears a yellow pigtail ribbon, a yellow jacket,
a yellow skirt, a yellow underwear,
yellow socks, yellow panties,
a yellow bag, and a yellow belt.
She holds a handkerchief.
"Do I look luxurious?"

30. (셋째 박) 흥보 내외가 노래를 부르면서 셋째 박을 탄다.

[아니리] “하릴없는 버드나무 위에 피꼬리 모양이네그려.”

“아이고, 영감, 그리 말고, 마지막 통 저 놈 들여놓고 타 봅시다.”

“그래 보세.”

[중모리] 마지막 통을 들여놓고,

“당기어라, 툇질이야! 시리렁 실건, 툇질이야! 당기어라.”

“좋을시고, 좋을시고, 밥 먹으니 좋을시고.

만승천자⁷⁴⁴)라도 식이위대라⁷⁴⁵) 하였으니, 밥이 아니면 살 수 있나?”

“시리렁 실건, 툇질이야! 당기어라.”

“이 박통에 나오는 보화는 김제 만경 외메미들⁷⁴⁶)을 억십만금⁷⁴⁷)을 주고 사자.

충청도 소사 들⁷⁴⁸)을 수만금⁷⁴⁹)을 주고 사면, 부익부⁷⁵⁰)가 되리로다.”

“시리렁 실건, 툇질이야! 당기어라.”

31. (흥보 집 짓기) 박통 속에서 사람들이 나와 흥보 집을 지었는데, 대궐같은 집에 온갖 살림살이가 가득하다.

[휘모리] 시리렁 식씩, 시리렁 식씩, 실건 실건, 시리렁 식씩, 실건 실건, 시리렁 식씩, 실건 실건.

박이 반쯤 벌어지니,

박통 속에서 사람 소리가 두런두런하더니,

사람이 나오는데,

30. (Third Gourd) Heungbo and his wife saw the third gourd, as they sing a song.

[Aniri] “You certainly look like a nightingale in a willow tree.”
“Sweetheart, let’s bring the last gourd here and saw it.”
“Good idea.”

[Jungmori] They bring the last gourd.
“Here goes the saw. Pull and push the saw.”
“Good! Great! It is good to have a lot of rice.
Even if you have thousands of chariots, eating is the most important business for our survival.”
“Move the saw back and forth.”
“If jewels come out of this gourd, I’ll buy wide rice paddies in Gimje with a lot of money.
If I buy fields in northern Chungcheong Province, I’ll become richer.”
“Here goes the saw. Pull and push the saw.”

31. (Building a House for Heungbo) People come out of the gourd and build a palace-like house for Heungbo. It is filled with all kinds of household goods.

[Hwimori] The saw makes sounds, moving back and forth.
The gourd is half-open.
Whispering sounds are heard from the gourd.
People come out.

대자귀⁷⁵¹⁾ 든 놈, 소자귀⁷⁵²⁾ 든 놈,
 대톱⁷⁵³⁾ 든 놈, 소톱⁷⁵⁴⁾ 든 놈,
 끌⁷⁵⁵⁾ 들고, 방망이 든 놈, 먹통⁷⁵⁶⁾ 든 놈,
 그저 꾸역꾸역 나오더니,
[아니레] 대목⁷⁵⁷⁾들이 집을 짓느라고 우당탕 통탕 야단이 났제.
 흥보가 어찌 놀래났던지, 자식들은 죽든지 살든지 다 내버려두고, 그
 래도 마누라가 제일 좋았던가, 둘이 손을 꼭 잡고,
 한 쪽에 가서 꼭 쥘겨서⁷⁵⁸⁾ 눈을 딱 감고 정신없이 있을 적에,
 가만히 들어보니 조용하제.
 눈을 떠서 사면을 둘러보니,
 전에 있던 움막⁷⁵⁹⁾은 간 곳이 없고,
 고루거각⁷⁶⁰⁾으로 흥보 집을 지어놨는데,
 꼭 이렇게 지었겠다.

[중모레] 동산하⁷⁶¹⁾ 너른 천지
 팔괘를 놓아서⁷⁶²⁾ 엔담⁷⁶³⁾ 치고,
 안팎 중문,⁷⁶⁴⁾ 소소리대문⁷⁶⁵⁾에, 벽장⁷⁶⁶⁾ 다락⁷⁶⁷⁾이 좋을시고.
 만석지기⁷⁶⁸⁾ 논 문서와 천석지기⁷⁶⁹⁾ 밭 문서며, 백 가구 중문서⁷⁷⁰⁾가
 가득 담뿍⁷⁷¹⁾ 쌓여 있고,
 사랑방을 나가보니 각장장관⁷⁷²⁾의 소래 반자,⁷⁷³⁾
 완자 밀창⁷⁷⁴⁾의 화류 문갑,⁷⁷⁵⁾ 대모 책상⁷⁷⁶⁾까지 놓여 있고,
 시전,⁷⁷⁷⁾ 서전,⁷⁷⁸⁾ 주역⁷⁷⁹⁾이며, 이백,⁷⁸⁰⁾ 두시⁷⁸¹⁾에 통사략⁷⁸²⁾을 좌
 우로 좌르르르 벌였는데,
 흥보가 보고 좋아라고,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자자 줌도⁷⁸³⁾ 좋네.
 박흥보가 문전결식⁷⁸⁴⁾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될 줄 어느 누가 알겠느냐?

People holding a large tool for slicing wood, a small tool for slicing wood,
a large saw, a small saw,
a chisel, a cudgel, and a tool for drawing a line
come out continuously.

[Aniri] Carpenters make sounds to build a house.

Heungbo is so surprised that he holds his wife's hands tight, not worrying about his children. He seems to prefer his wife over his children.

Confused, they hold each other in a corner with their eyes closed.

They collect themselves. It is quiet.

They open their eyes and look around.

The old cottage is gone.

A large high house is built for Heungbo.

It looks as follows:

[Jungmori] The house is situated in a wide field below a mountain in the east.

A fence surrounds i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nature.

Auxiliary gates, a high gate, closets, and attics are fantastic.

The house overflows with title deeds of rice paddies, fields, and servants.

In the auxiliary house, a thick laminated floor paper, a mosaic ceiling,

a sliding door, a stationery chest, a desk made of turtle shell, classical books, an ancient poetry book, and an ancient history book are displayed.

Heungbo is pleased.

“Hurrah! Whoopee! Yippee! Hurray! Oh boy!

Heungbo begged around in the past.

Who could know that he would become rich today?

얼씨구나, 좋을시고. 지화자자 좋을시고.”

홍보가 좋아라고 머느리들을 얻었는데, 번뜻번뜻하게도⁷⁸⁵ 생겼더라.

32. (놀보가 홍보 집을 찾아옴) 놀보가 찾아오자 홍보는 놀보를 반가이 맞아 부자된 내력을 말하고, 아내에게 인사를 여쭙도록 하니, 홍보 아내가 인사를 드리러 나온다.

[아니리] 한참 좋아라고 놀 적에,

이 때여 놀보가, ‘아, 이놈이 부자가 되었어?

아, 이놈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을까?

내 배가 아파서 못 살겠는데.

어라,⁷⁸⁶ 내 건너가 봐야제.

만약 건너가서 이놈이 참말로 부자가 되었으면, 내 몽둥이로 썩⁷⁸⁷ 부수어버리고 오리라.’

이 심술궂은 놀보가 몽둥이를 둘러메고 홍보 집을 건너가 보니,

전에 있던 움막은 간 곳이 없고,

고루거각⁷⁸⁸으로 홍보 집을 즐비하게⁷⁸⁹ 지어왔는데,

놀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놈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이놈이 부자가 되었더라도 이렇게 될 바는 만무⁷⁹⁰할 것인데.

웁제. 제가 부자가 안 되었고,

서울서 어떠한 병판대감⁷⁹¹이 낙향⁷⁹²을 하셨제.

내 기왕⁷⁹³ 왔으니 한번 불러 봐야제.’

“너 이놈, 홍보야!”

Oh boy! Hurrah! Whoopee! Yippee!”
Pleased, Heungbo got fantastic daughters-in-law.

32. (Nolbo’s Visit to Heungbo’s House) Nolbo visits Heungbo’s house. Heungbo welcomes him and tells him how he became rich. He asks his wife to say hello to Nolbo. She comes out to say hello to Nolbo.

[Aniri] Heungbo spends happy time.
Meanwhile Nolbo says to himself, ‘Did Heungbo really become rich?
How did he become rich?
I can’t put up with jealousy toward him.
Let me go over there.
If he really became rich over there, I will destroy him completely with a cudgel.’
Perverse, Nolbo carries a cudgel on his back and goes over to Heungbo’s house.
The old cottage is gone.
High, large buildings stand in an orderly manner.
Nolbo is astonished.
‘How did he become rich?
There was no way he could become this rich.
That’s right. He didn’t become rich.
A high government official settled down in his hometown.
Since I came all the way here, let me call him.’
“Heungbo, you villain!”

이렇듯 불리노니,
 이 때여 홍보는 형제간에 우애⁷⁹⁴)가 있는 사람이라,
 자기 형님 음성을 듣고 버선발로 우루루루 나와 절하며,
 “아이고, 형님, 건너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형님한테 진작 노마⁷⁹⁵)를 보내려하였더니,
 형님께서 이리 도보⁷⁹⁶)를 하였으니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형님. 용서해주시지요.”
 “뭣이 어찌, 이놈! 용서고 뭣이고.
 네가 나한테 노마 보낼 놈이여?
 이것 대관절 다 뉘 집이냐?”
 “형님, 제 집이올시다.”
 “허허. 강상지괴변⁷⁹⁷)이로구나.
 아니, 참말로 이것 네 집이여?
 거 참 집 잘 지었구나.
 야, 홍보야. 너하고 나하고 형제간이니,
 네가 잘 사나, 내가 잘 사나 마찬가지여.
 그러니까 네 집하고 내 집하고 그냥 딱⁷⁹⁸) 바꿔버리자.”
 “형님 처분⁷⁹⁹)대로 하십시오.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자기 형님을 사랑에다 모셔다 놓고,
 홍보가 안으로 들어가서,
 “여보시오, 마누라. 아, 건넌말⁸⁰⁰) 형님이 건너왔으니 인사 여쭙어
 야지!”
 이 때여 홍보 마누라는 전에 하던 일을 생각을 하면, 한 자리에 앉아
 대면할 마음이 없으나,
 가장의 명령에 복종하는 줄 알아,
 놀보 보란듯이⁸⁰¹) 의복을 맘껏 차려 입고 나오는데,

Nolbo shouts at Heungbo.
Heungbo is a person who respects his brother.
At his brother's voice, Heungbo comes out fast and bows to Nolbo.
"Welcome, brother.
I was trying to send you a horse.
But you came here on foot beforehand.
I am sorry, brother. Please forgive me."
"What? You villain. Forget forgiving.
I don't think you are a person to send me a horse.
Whose house on earth is this?"
"Brother, this is my house."
"Goodness. This is strange.
Is this really your house?
This house is fantastic.
Heungbo, you and I are brothers.
It doesn't matter whether you are rich or I am rich.
So let's change your house with mine."
"Brother, suit yourself. Let's get inside."
Heungbo takes Nolbo to an auxiliary house.
Heungbo goes in.
"Hello, sweetheart. My brother has come from the neighboring village. Say hello to him!"
Heungbo's wife doesn't feel inclined to face Nolbo, thinking about how Nolbo treated her.
But she is obedient to her husband.
She comes out, dress up to show off to Nolbo.

[중모리] 홍보 마누라가 나온다. 홍보 마누라가 나오는데,
 전일⁸⁰²에는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리던 일을 생각하니,
 지금이야 돈이 없나, 쌀이 없나, 은금보화가 없나, 녹용 인삼이 없나?
 며느리들을 호사⁸⁰³를 많이 시키고,
 홍보 마누라도 한산 세모시에다가⁸⁰⁴ 당청엿물⁸⁰⁵을 포로소름하게
 놓아,⁸⁰⁶
 주름은 잘게 잡고,
 말⁸⁰⁷은 넓게 달어, 외로⁸⁰⁸ 걷어 안고서 나오는데,
 며느리들을 좌우에다 거느리고,
 시내 강변에 금자라⁸⁰⁹ 걸음으로 아장거리고서 나오더니,
 [아니리] “시숙님⁸¹⁰ 봄시다.”⁸¹¹
 큰절⁸¹²로 하니,
 선뜻⁸¹³ 일어나서 같이 절을 하는 게 아니라, 발을 더 당시랑게⁸¹⁴
 개고 앉으며,
 “허허 참. 거 몇 년 전에 보고 지금 보니,
 미꾸라지가 용 되었네, 거.”
 이 때여 홍보 마누라는 들은 척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놀보 술상을 차리는데, 꼭 이렇게 차리겠다.

33. (음식상 차림) 홍보 아내가 온갖 음식을 준비한다.

[자진모리] 음식을 차리는데,
 안성유기⁸¹⁵ · 통영칠판⁸¹⁶ · 천은⁸¹⁷ 수저 · 구리 적사⁸¹⁸ 집리 서
 리⁸¹⁹ 수 벌이듯⁸²⁰ 주루루루 벌여놓고,
 꽃 그렸다 오죽판⁸²¹ ·

[Jungmori] Heungbo's wife comes out. She comes out.
In the past, she was hungry and poorly-clothed.
But she now has money, rice, jewels, deer's antlers, and
ginseng.
Her daughters-in-law wear luxurious clothes.
She also wears a fancy cloth from Hansan dyed blue.
The pleat is short.
She picks up the wide upper part of her skirt toward the left.
She comes out with her daughters-in-law on the left and right.
She toddles out like a golden terrapin on a stream.
[Aniri] "Brother-in-law, how are you doing?"
She gives him a big bow.
Instead of giving her a bow in response, he sits down in an
arrogant manner.
"Gee, I haven't seen you for years.
"It looks like a mudfish became a dragon."
Heungbo's wife pretends that she didn't hear him.
She goes into the kitchen and prepare food as follows:

33. (Making Food) Heungbo's wife prepares all sorts of food.

[Jajinmori] Heungbo's wife makes food.
Good brassware, a good meal table, silver spoons, and a copper
grill are laid out in an orderly manner.
On the meal table there is a picture of a black bamboo tree and flowers.

대 모양 양각 당화기,⁸²²⁾
 열기설기⁸²³⁾ 송편이며,
 네 귀 번듯⁸²⁴⁾ 정절편,⁸²⁵⁾
 주루루 엮어 산피떡⁸²⁶⁾과,
 평과⁸²⁷⁾ · 진청⁸²⁸⁾ · 생청⁸²⁹⁾ 놓고,
 조란 산적⁸³⁰⁾ 옷김쳐,⁸³¹⁾
 양회⁸³²⁾ · 간 · 처넵⁸³³⁾ · 콩팥 양푼⁸³⁴⁾에다가 벌여놓고,
 청단⁸³⁵⁾ · 수단⁸³⁶⁾ · 잣배기⁸³⁷⁾며,
 인삼채 · 도라지채 · 낙지 · 연포⁸³⁸⁾ · 콩기름에,
 수근채⁸³⁹⁾ 옷김을 쳐⁸⁴⁰⁾ 갇은 양념 볶아놓고,
 청동화로⁸⁴¹⁾ 백탄숯⁸⁴²⁾ 부채질 활활 하여 고추같이 일워놓고,⁸⁴³⁾
 전골⁸⁴⁴⁾을 들인다.
 살진 소 방자 고기⁸⁴⁵⁾ 반환도⁸⁴⁶⁾ 드는 칼로 점점편편⁸⁴⁷⁾ 오려내어,
 깨소금 · 참기름 쳐 부두⁸⁴⁸⁾ 주물러 채워내어,⁸⁴⁹⁾
 대양푼⁸⁵⁰⁾ · 소양푼에다 이도⁸⁵¹⁾ 담고, 제도⁸⁵²⁾ 담고,
 끝끝⁸⁵³⁾ 푸드득⁸⁵⁴⁾ 생치다리,⁸⁵⁵⁾ 오도독⁸⁵⁶⁾ 포도독⁸⁵⁷⁾ 메초리탕,
 꼬끼오 영계찜,⁸⁵⁸⁾ 어전⁸⁵⁹⁾ · 육전⁸⁶⁰⁾ · 지지개⁸⁶¹⁾며,
 수란탕⁸⁶²⁾ · 청보채⁸⁶³⁾ · 치자 · 고추 ·
 생강 · 마늘 · 문어 · 전복 봉오림⁸⁶⁴⁾을 나는 듯이 괴어놓고,
 산채 · 고사리 · 수근⁸⁶⁵⁾ · 미나리 · 녹두채 맛난 장국 주루루루루 들
 이붓고,
 계란을 툭툭 깨어, 옷딱지⁸⁶⁶⁾ 떼버리고 길게 드리워라.⁸⁶⁷⁾
 손 뜨건데 쇠저⁸⁶⁸⁾ 버리고 나무 저⁸⁶⁹⁾를 드러라.
 고기 한 점 덥벽⁸⁷⁰⁾ 집어서 맛난 기름의 간장 국에다 풍덩 들이쳐,⁸⁷¹⁾
 덥벽 피~.

A bamboo tree is engraved on the china.
Some rice cakes look like a half-moon.
Some rice cakes are four-sided.
Some red-bean rice cakes are tied together.
An apple, honey, unboiled honey,
roasted meat with an egg and vegetables,
a raw cow stomach, a liver, a third cow stomach, and a kidney
are laid out on the left and right.
A mixture of honey and rice cake, a mixture of tea and rice
cake, a mixture of pine-nuts and honey,
ginseng, platy codon, a small octopus, dried meat, bean oil,
dropworts, and all sorts of sauces are prepared.
She fans the oak charcoal fire under a bronze fire pot.
She makes a soup of fish and vegetables.
She slices salted raw cow meat with a large sharp knife.
She puts sesame powder and sesame oil over the sliced meat.
She puts them in small and large bowls here and there.
Raw pheasant legs are roasted, and a crunchy quail soup boils.
a boiled cackling young chicken, a roasted fish, roasted meat,
a meat soup,
an egg soup, a starch jelly, mustard greens, red peppers,
ginger, garlic, a small octopus, and some ear shells form a pile.
She put a wild greens, fernbrake, parsley, mung beans, soup
into the bowls.
She breaks an egg, takes out the shell, and puts the egg in.
She brings wooden chopsticks instead of iron chopsticks
because they get hot.
She grabs the meat, dips it into delicious oily soy source, and
roasts it.

34. (홍보 마누라 포악) 놀보가 권주가를 요구하니, 홍보 마누라가 화를 내며 나간다.

[아니리] 이렇게 차려 자기 시숙님 앞에 갖다 놓으며,
좋은 황화주⁸⁷² 화잔⁸⁷³에다가 술을 얼른 부어 두 손으로 올리며,
“옛소,⁸⁷⁴ 시숙님, 약소하나⁸⁷⁵ 술 한 잔 잡수시오.”
아, 이랬으면, 선뜻⁸⁷⁶ 받아먹었으면 아무 폐단⁸⁷⁷이 없을 터인데,
발을 더 당시랴게⁸⁷⁸ 개고 앉으며,
“너 이놈, 홍보야! 내가 형제간 소문 대강 알지만은, 내가 수 친한⁸⁷⁹
초상 마당에 가서도 권주가⁸⁸⁰ 없이 술 못 먹는지 너 잘 알제?”
“아이고, 형님, 누가 권주가를 한단 말ियो?”
“아, 이 녀석아, 너의 마누라 곱게 입은 차에⁸⁸¹ 권주가 한 마디
시켜라.”
홍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
전에 하던 일은 울음 밑에 집어넣었거니와,
제수더러 권주가 하란 말을 듣더니, 두 눈이 캄캄하고, 사지가 벌벌
떨리며,
[진양조] 들었던 술잔을 방바닥에다 후닥딱 부딪치고 뒤로 주춤 물러
서서,
자기 시숙을 물끄러미 보더니마는,
“나는, 나는 못 하겠소.
여보시오, 시숙님! 제수더러 권주가를 하란 법을 고금천지⁸⁸² 어디서
보았소?
전곡자세⁸⁸³를 그만 하시오.
나도 이제 돈도 있고, 쌀도 있소.

**34. (Heungbo's Wife Expresses Her Anger.) Nolbo asks
Heungbo's wife for the drinking song. She loses
her temper and goes out of the room.**

[Aniri] Heungbo's wife carries the heavy meal table and sets it in front of Nolbo.

She pours a chrysanthemum wine in a flower glass and offers it to Nolbo.

"Here you are, brother-in-law. Drink this wine."

If Nolbo just took the glass of wine, there would be no problem at all.

He sits in an arrogant manner.

"Heungbo, you scoundrel! You know about me a little. I don't drink wine without the wine-offering song even in my friend's house in mourning."

"Brother, who should sing the wine-offering song?"

"You bastard! Your wife is dressed up. Tell her to sing the wine-offering song."

Heungbo's wife responds to Nolbo.

She has been holding back the memory of how he treated her. But she gets confounded and trembles to be told to sing the wine-offering song.

[Jinyangjo] Heungbo's wife throws the glass of wine on the floor and steps back.

She looks blankly at her brother-in-law.

"I can't do it.

Look, brother-in-law. How on earth can you tell your sister-in-law to sing the wine-offering song?

Don't act arrogant because you are rich.

I am now rich too.

동지선달 추운 날에 자식들을 앞세우고, 구박 당하여⁸⁸⁴) 나오던 일을, 나는 죽어도 못 잊겠소.

보기 싫소, 어서 가시오!

속을 차리면⁸⁸⁵) 뿔하러 내 집에 찾아왔소?

안 갈라면 내가 먼저 들어갈라네.”

떨쳐버리고 안으로 들어간다.

35. (화초장 타령) 놀보가 홍보에게 부자된 내력을 듣고, 화초장을 얻어 이름을 외우며 집으로 돌아간다.

[아니리] 뿔뿔거리고 탁 차고 들어가니,

놀보가 왈각⁸⁸⁶) 부애⁸⁸⁷)가 나서 발길로 술상을 꼭 차며,

“네 이놈 홍보야! 너 이 죽일 놈 같으니.

피 많은 자세하느라고,⁸⁸⁸)

내가 오면 너의 마누라더러 이렇게 나한테 포악⁸⁸⁹)하라고 시켰지,
이놈아?

너 이놈, 몽둥이로 저놈 허리를 작신⁸⁹⁰) 내가 분질러⁸⁹¹) 놓을라.

너 이놈, 저 계집 썩 버려!

내가 좋은 데로 새 장가 들여 주마.

아라,⁸⁹²) 아라, 아라. 그게 모두 한두 보기제.⁸⁹³)

그건 그래 두고.

애, 홍보야! 내가 너 여기 온 속⁸⁹⁴) 아냐?”

“아이고, 형님. 제가 어떻게 안단 말이오?”

“야, 이놈아! 너 밤이슬 모르냐?”

I can't forget even after I die that you kicked us out of your house on a cold day in winter.

I hate you. Get out of here!

If you wanted to act this way, why did you come here?

If you don't get out, I will leave."

She goes into her room, leaving them behind.

35. (Flower Wardrobe Song) Nolbo hears how Heungbo became rich. He gets a flower wardrobe and goes back home, reciting the name of the wardrobe.

[Aniri] Heungbo's wife goes inside fast in an angry manner. Anger rises up in Nolbo's mind. He kicks the wine table away.

"Heungbo, you villain. You are a bastard.

You planned all this.

You told your wife to be angry at me if I come here. You villain!

You rat! I might as well break your backbone into pieces with this cudgel.

You scoundrel. Dump that woman!

I will get you a better woman.

No, no, no. I will see her few times.

Let's change the subjects.

Heungbo, do you know what brought me here?"

"Brother, how could I know that?"

"You villain! Do you know about night work?"

“아이, 밤이슬이 뿜니까?”

“아, 이놈아, 도둑질 말이다.”

“아이고, 형님. 제가 무슨 도둑질을 했던 말ियो?”

“야, 이놈아, 네가 도둑질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오위영문출사⁸⁹⁵)가 벌떼같이 늘어서서, 우리 집에 너를 잡으려고 찾아왔더라.

너하고 나하고 형제간이니, 내가 너 잡아가는 꼴 보겠더냐?

그 사람들 따져⁸⁹⁶) 보내느라고 돈 수백 냥 들었다.

그러니, 그 돈 내가 물어주어야 하고,

또 그놈들이 너를 잡으러 올 것이여.

내가 도둑질해서 부자되었다고.

그러니까, 두 말할 것도 없어.

너의 처자 권속하고 자식들 쫓 데리고, 저 의주 압록강⁸⁹⁷)을 건너,
황국⁸⁹⁸) 상해를 들어가서 삼 년만 있다 오너라.

내가 네 살림에다가 손을 대면, 내가 네 아들놈이다, 이 녀석아.”
홍보 깜짝 놀라며,

“아이고,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야, 이놈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어?”

“형님, 들어보시지요. 하루는 대사가 하나 왔습디다.”

“대사가 뭇이냐?”

“아, 중 말ियो.”

“오, 절에 있는 중 말이구나. 그래서?”

“대사가 내려와서 날보고 집터 하나를 잡아주길래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사니까,
제비 한 쌍이 들어왔지요.”

“그래, 제비가 들어왔어? 그래서 어쨌단 말이나?”

"What is night work?"

"You fool. I mean stealing."

"Brother, on what grounds are you saying I stole?"

"You fool! They said you stole and became rich.

A lot of police officers came to my house to arrest you.

You are my brother, so I hated to see you being arrested.

It took a lot of money for me to outwit the officers.

So you should compensate me for the cost.

They will come again to arrest you.

They believe you stole and became rich.

There is no question about this.

You cross Amnok River with your wife and children and stay in Shanghai, China, for three years.

If I sell your property or something, I will happily become your servant. You villain."

Heungbo is surprised.

"Brother,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 bastard. Then, how did you become rich?"

"Listen to me, brother. One day, a monk came to my house."

"What monk?"

"I mean a Buddhist monk."

"Oh, you mean a Buddhist monk. So?"

"A monk came down and picked a good house site for me.

I built a house and lived there.

A couple of swallows came."

"Swallows came? What happened?"

“어떻게 새끼 한 쌍을 낳는데,
 날기 공부를 하다가 한 마리는 떨어져서 다리가 작신 부러져버리고,
 한 마리는 떨어져 죽어버립디다.
 다리 부러진 놈을, 하도 불쌍해서,
 제가 당사실 얻고, 명태껍질 얻어 다리를 창창⁸⁹⁹⁾ 동여서⁹⁰⁰⁾ 제 집
 위에 올려놓으니,
 그 제비가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서,
 그 이듬해 나오면서 박씨 하나를 물고 왔지요.”
 “그래서?”
 “아, 그놈을 심었더니, 박이 크게 세 덩이가 열렸지요.”
 “거, 참 희한한 일이구나. 박이 세 덩이가 열렸어?
 그렇게. 박씨를 심으면 박 열제.
 그래 박 세 덩이가 열려서 어쨌단 말이나?”
 “배가 하도 고파서 박속일랑 끓여먹을까 하고 박 한 통을 탔더니.”
 “뭇 나오더냐? 아, 물론 박속 나올 테지.”
 “그게 아니라, 껍 두 짝이 쑥 불거집디다.”⁹⁰¹⁾
 “뭇? 껍 두 짝이 쑥 불거져? 그래서?”
 “거 열고 보니 그냥 쌀도 팍 찢고, 또 한 껍을 열고 보니, 은금보화
 돈이 팍 찢습디다.”
 “아니, 그 박통 속에서 나온 껍 두 짝 속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
 그래서?”
 아, 이놈을 그냥, 떨고 붓고 나면 도로 하나 가득, 떨고 붓고 나면
 도로 하나 가득,
 이리 갔다 붓고 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저리 갔다 붓고 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부어내고 되어내고,⁹⁰²⁾ 부어내고 되어내고,

“They gave birth to a couple of swallows.
While learning to fly, one of them fell down, breaking its legs.
The other one fell down and died.
I took pity on the one whose legs were broken.
I wrapped the legs with a silk thread and a pollack’s skin, and
put it back in the nest.
The swallow managed to survive.
In the following year, it came back with a gourd seed.”
“So?”
“I planted the seed and got three large gourds.”
“That’s strange. Did you get three gourds?
It is natural that you got gourds because you planted a gourd
seed.
What happened after you got three gourds?”
“I was so hungry that I sawed a gourd open to cook the inside
flesh.”
“What was in there? Of course, there must have been the inside
flesh.”
“No, there were two boxes.”
“What? Two boxes came out? So?”
“I opened them. One was full of rice, and the other with jewels.”
“Did two boxes came out of the gourd? Were rice and money
in the boxes? So?”
I shook everything out of the boxes, and they got refilled.
I poured everything out of the boxes, and they got refilled.
I poured and picked things out of the boxes again and again.

어떻게 부어놔던지, 아,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만고⁹⁰³⁾ 부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또 한 덩이를 타고 나니까,
 온갖 비단이 나왔는데,
 비단이 몽땅 나와서 비단으로 몸을 칭칭 감고,
 또 한 덩이를 타니까,
 그 속에서 대목⁹⁰⁴⁾들이 나와서 이렇게 집을 지어서 부자가 되었지,
 제가 무슨 도둑질할 리가 있겠소?”
 “야, 홍보야. 너 제비 다리 하나 분질러서⁹⁰⁵⁾ 부자가 될 때,
 한 땀 개 분질렀으면 천하장자⁹⁰⁶⁾ 되겠구나.
 어라, 나 건너가서 제비 다리 분질러야겠다.”
 “아이고, 형님. 지금이 어느 달인데 제비가 온단 말이오?”
 “응, 구시월이나 되어야 제비가 오제.
 어라, 그러면 내 것 축낼⁹⁰⁷⁾ 것 없이, 네 것 축내야제.
 그런데, 홍보야. 저 윗목⁹⁰⁸⁾에 저 벌그런⁹⁰⁹⁾ 것, 저것 무엇이제?”
 “그게 화초장⁹¹⁰⁾올시다.”
 “화 자, 초 자, 장 자. 그 이름 한번 좋구나. 그 속에가 뭇 들었느냐?”
 “은금보화 궤 두 짝이 그 속에 들었습니다.”
 “허허, 참, 희한한 일로구나.
 야, 홍보야. 내가 너를 조그마할 적에 얼마나 예뻐해 키웠냐?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두 형제간 단 둘밖에 더 있느냐?
 내가 죽을 테가 있으면, 네가 가서 대로⁹¹¹⁾ 죽고,
 내가 죽을 테가 있으면, 그건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간에 서로 우애를 끊어서 쓰겠느냐?
 그놈 날 도라.”⁹¹²⁾
 “아이고, 형님, 꼭 가져가실 양⁹¹³⁾이면 내일 하인에게 지워 보내리다.”

I poured out so many things that I became rich like this.
I became a billionaire.
I sawed another gourd.
All sorts of silk came out of it.
So much silk came out that we dressed up with it.
I sawed the last gourd.
Carpenters came out of it and built this house. This is how I
got rich.
There was no way I stole from others.”
“Heungbo, you became rich after you broke a swallow’s legs.
If I break several swallows’ legs, I will be the richest in the
world.
Let me go over to my house to break swallows’ legs.”
“Brother, it is not the right time of year to see swallows.”
“Swallows come in September or October.
Then, I might as well use your things, not mine.
“By the way, Heungbo, what is that red thing over there?”
“It is a flower wardrobe.”
“Flower wardrobe! What a good name! What’s in it?”
“There are two boxes of jewels in it.”
“Gee, it is strange.
Heungbo, I took good care of you when you were a child.
You and I don’t have other brothers.
If I should die, you die instead of me.
If you should die,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You shouldn’t destroy the relationship with your brother.
Give me that thing.”
“Brother, if you really want it, I can have a servant send it to
you tomorrow.”

“뭣이 어찌? 이 도적놈 보소.

이런 천하에 도적놈이 있는가!

나 건너가면, 그 속에 있는 은금보화 싹 빼버리고 빈 껍데기만 보낼
라고?

이런 도적놈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날더러 도적놈이라고 한단 말이여.

야, 이놈아. 나 볼 때에 질빵⁹¹⁴ 못 해?

얼른 질빵 해, 이놈아!”

“꼭 가져가실 양이면 질빵하지요.”

놀보 이놈이 잇음이 혼한 놈이라,⁹¹⁵

화초장 노래를 부르면서 건너가는데,

[중모레]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얻었네, 얻었어.

화초장 한 벌을 얻었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한 벌을 얻었다.

얻었네, 얻었어. 화초장 한 벌을 얻었다.”

도랑 하나를 건너뛰다,

“아차, 잊었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갑갑하여서 내가 못 살겠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여?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구나.

초장화. 아니다!

장화초. 아니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방장,⁹¹⁶ 천장, 구들장.⁹¹⁷ 아니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여?

매운장, 된장, 송장, 아니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여?

“What? You are a thief.

You really are a thief!

After I leave here, you will take all the jewels out of it and send only the shell to me.

You are a thief, not me, but people in the world say I am a thief.

You villain. Attach a belt to it while I watch.

Attach a belt to it right away. You rat!”

“If you insist, I will attach a belt to it.”

Nolbo forgets things easily.

He goes over to his house while singing the flower wardrobe song.

[Jungmori] “I got a flower wardrobe. I got a flower wardrobe.
I got a flower wardrobe.

I got a flower wardrobe, a flower wardrobe, a flower wardrobe.
I got a flower wardrobe, a flower wardrobe.”

He crosses a stream.

“Oh, I forgot! What is this? What is this?

I am anxious to know what it is.

What is this?

Changing the order of the words doesn’t ring a bell.

Robe ward flower. No!

Robe flower ward. No!

What is this?

Screen, roof, floor stone. No.

What is this?

Hot paste, bean paste, dead body. No.

What is this?

갑갑하여서 내가 못 살겠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여?”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를 갔다가 집안이라고 들어오면,
 우루루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 옳제,
 좌이부동⁹¹⁸)이 웬 일인가?
 에라, 이 사람, 몹쓸 사람.”
 놀보 마누라가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소.
 내 잘 못 되었소.
 이리 오시오. 이리 오라면, 이리 와요.”

36. (놀보 제비 몰러 나감) 놀보가 이리저리 제비를 몰러 다닌다.

[아니리] “어따,⁹¹⁹) 이 사람아! 거 쓸 데 없는 목구성⁹²⁰) 내지 말고,
 내 짙어진 거, 이거 무엇이냐?”
 “아이고, 영감. 무거운데 이리 내려놓으시오.”
 “내 짙어진 거 이름이 무엇이여, 이것이?”
 “아이고, 이거 무거운데 이리 내려놓으시오.”
 놀보가 어찌 급해왔던지,
 “뿔이 어찌? 너 내 성질 알제? 너 내 주먹 맛 좀 볼 판이여?”⁹²¹)
 이 때여 놀보가 주먹을 쥐어갖고
 대그뺨⁹²²)이나, 등짝이나, 뺨이나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양 주먹을 쥐어서 양 간지통⁹²³)을 눌러 죽이는데,
 놀보 마누라가 그 통에 적상⁹²⁴)을 해가지고,

I am anxious to know what it is.
What is this?
He gets into his house.
“Hello, my wife! If the family head comes back home, you ought to come out fast and greet him.
How can you just sit there?
How rude you are!”
Nolbo’s wife comes out.
“Honey! I didn’t know you had come.
I am sorry.
Come here. This way, please.”

36. (Nolbo Goes Out to Snatch Swallows.) Nolbo runs around to chase swallows.

[Aniri] “You woman! Don’t raise your useless voice.
What is this thing on my back?”
“Honey, it must be heavy. Put it down here.”
“What is the name of this thing on my back?”
“Honey, it must be heavy. Put it down here.”
Nolbo is hot-tempered.
“What? You know my temper. Do you want to taste my fists?”
Nolbo clenches his fists.
He doesn’t hit her on the head, back, or cheek.
He presses his wife’s two temples with his fists.
Nolbo’s wife has as bad impact in her mind.

주먹만 쥐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벌벌 떨것다.

놀보가 양 주먹을 꼭 쥐고,

“어, 썩 말 못 혀? 주먹 맛 좀 볼 판이여?”

“주먹 좀 저리 치워!”

“얼른 말을 혀, 이 이름이 무엇인가?”

“하이고, 우리 친정 아버지가 서울 안동장예를 갖다오면서 장롱 한 벌 사온 것이 화초장이라고 합디다.”

놀보가 어찌 반가왔던지, “하이고, 내 딸이야!”

해는 것이, 놀보 마누라 기가 콕⁹²⁵ 막혀가지고,

“에, 여보시오! 마누라보고 딸이 어디가 있단 말이오?”

“허허, 이 사람아. 급할 적에는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제.”

홍보가 제비 때문에 부자 되었던 말을 듣고는,

놀보가 제비집을 몽땅 만들어서 지붕 끝에다가 뽕 돌려 지어놓고는,
아무리 제비를 기다려도 오지 않것다.

놀보가 기가 막혀, ‘에라, 내가 제비를 몰러 나가야제.’

동네 역군⁹²⁶들을 불러들여가지고 하루는 제비를 몰러 나가는데,
[중중모레] 이 때 춘절⁹²⁷ 삼각⁹²⁸ 하사월⁹²⁹ 초과일⁹³⁰ 날, 연자⁹³¹
나비는 펄펄.

복희씨⁹³² 맺은 그물을 에후리쳐⁹³³ 드리메고⁹³⁴ 방장산⁹³⁵으로 나간다.

방장산 획 돌아 덩불을 툭 차,

후여⁹³⁶ 떴다, 저 제비. 네 어디로 행하느냐?

연비여천⁹³⁷의 소리개⁹³⁸만 보아도 제비인가 의심,

남비오작⁹³⁹의 까치만 보아도 제비가 의심하고,

춘일황앵⁹⁴⁰ 피꼬리만 보아도 제비가 의심,

층암절벽⁹⁴¹의 비둘기 보아도 제비인가 의심.

If she sees a fist, she gets confused and trembles.
Nolbo clenches his fists.
“Tell me the name quickly. Do you want to be hit by my fists?”
“Take your fists away!”
“Tell me the name now. What is it?”
“My father bought a wardrobe from a market in Seoul. He called it flower wardrobe.”
Nolbo is so excited that he says, “Oh my daughter!”
At his words, Nolbo’s wife is struck dumb.
“Hello! How can you call your wife your daughter?”
“You woman! When in a hurry, I can go this way or that way.”
Nolbo heard that Heungbo became rich thanks to a swallow.
Nolbo makes a lot of swallow nests and puts them on the edge of the entire roof.
He looks forward to a swallow in vain.
Stunned, Nolbo says ‘Let me go out to snatch swallows.’
One day, he hires workers from the village and goes out to snatch swallows.

[Jungjungmori] Swallows and butterflies fly on a spring day,
He carries a net on his shoulder and goes to Jiri Mountain.
He goes all around Jiri Mountain, hitting the bushes.
That swallow in the sky! Where are you going?
An eagle flies in the sky. He takes it to be a swallow.
A crow and a magpie fly in the south sky. He takes them to be swallows.
He sees a yellow spring nightingale. He takes it to be a swallow.
He sees a pigeon on a cliff. He takes it to be a swallow.

“저기 가는 저 제비야!

천화일⁹⁴²⁾ 지은 집이로다.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내 집으로 들어오너라.

화급동량⁹⁴³⁾이라.

내 집으로 들어오너라. 이 이 이리.”

“Hey swallow over there!
That house is to be burned down.
Don’t go there. Come to my house.
That house is to be burned down.
Come to my house. Come here.”

- 1) 我東邦.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
- 2) 君子之國. 군자의 나라.
- 3) 禮儀之邦. 예의의 나라. 예의를 잘 지키는 나라.
- 4) 十室村. 열 가구 쯤 사는 아주 작은 동네.
- 5) 七歲之아이. 일곱 살 먹은, 아주 작은 아이.
- 6) 不良한. 어질지 못한. 착하지 못한.
- 7) 堯舜. 요임금과 순임금. 중국의 전설적인 두 임금. 이들은 중국 제왕의 모범으로서 이상적인 제왕으로 일컬어짐.
- 8) 四兎.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 때에 나라를 해치던 흉악한 죄인인 공공(共工), 환두(驩兜), 삼묘(三苗), 곤(鯀)의 네 사람. 《서경》의 〈순전(舜傳)〉에 보면, 공공은 북쪽의 유주로 귀양을 보내고, 환두는 남쪽의 충산으로 내쫓아서 가두고, 삼묘의 무리들은 서쪽의 삼위로 쫓아내고, 우임금의 아버지인 곤은 동쪽의 우산에 가두어 죽게 하였다고 함.
- 9) 當年. 그 해.
- 10) 盜跖. 춘추시대 노나라에서 도적질과 살인을 일삼던 유척(柳跖)을 가리킴. 도적질을 일삼았기 때문에, 도(盜)자를 붙여, 도척이라고 함.
- 11) 一種. 어떤. 어떤 종류의.
- 12) 癘氣. 돌림병을 일으키는 나쁜 기운.
- 13) 人力. 사람의 힘.
- 14) 어름. 둘이 맞닿은 곳.
- 15) 同父同母. 같은 부모.
- 16) 所生. 자기가 낳은 아들이나 딸.
- 17) 五臟. 오장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을 가리키나 여기서는 '내장'의 뜻으로 쓰였음.
- 18) 六腑. 한의학에서 담(쓸개), 위, 대장(큰 창자), 소장(작은 창자), 삼초(위의 윗 부분, 위 부근, 배꼽 아래의 부분), 방광(오줌보) 등 여섯 가지 배속 기관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
- 19) 왼쪽.
- 20) 將棋宮작. 장기 놀이에서 임금을 나타내는 가장 큰 장기말로서, '조(楚)' 자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고, '한(漢)' 자가 빨간 글씨로 적혀 있다.
- 21) 약간 불룩하게.
- 22) 大將軍方. 음양설에서 흉한 방위를 맡은 장신(將神)의 하나인 대장군신이 맡은 방위. 이 방위에서 나무를 하면 해를 입는다고 함.
- 23) 伐木. 나무를 베.
- 24) 五鬼方. 자연의 순리가 역행하여, 가장 나쁜 방위. 이 방위로 가면, 모든 일이 잘 안 된다고 함.
- 25) 三煞方이다. '삼살방'은 점술에서 세 가지 불길한 살(겁살·세살·재살)이 낄다는 방위.
- 26) 勸하고.
- 27) 過客. 지나가는 나그네.
- 28) 재울 듯이. 잠을 재워줄 듯이.

- 29) 기괴한 여자 모양의 탈을 쓰고, 붉은 저고리 푸른 치마를 입고 긴 대의 깃발을 가지고 다니던 유랑 연예인.
- 30) 추파를 던지고.
- 31) 居士. 조선조 후기의 유랑 배우. 절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승려에서 파생된 듯.
- 32) 小鼓. 농악에서 사용하는 작은 북으로, 매귀북이라고도 한다. 운두가 낮고 얇은 가죽으로 만들었다. 농악에서 보통 4-5명 이상 편성되는 소고잡이가 소고춤이나 상모놀이를 할 때에 그 음향보다는 맵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 33) 도둑질.
- 34) 冠. 모자.
- 35) '배(腹)'를 속되게 이르는 말.
- 36) 守節寡婦. 남편이 죽었으나 개가(改嫁)하지 않고 절개를 지키는 홀어미.
- 37) 謀陷잡고. 모함하고.
- 38) 劫奪. 폭력을 쓰거나 위협을 하여 여자의 정조를 빼앗음.
- 39) 곱사등이. 꺾추.
- 40) 緋緞塵. 비단 파는 가게.
- 41) 물총질을 하고.
- 42) 甕器집. 웅기를 실은 짐. 여기서는 지계에 지는 짐을 가리킴.
- 43) 샘길. 샘 다니는 길.
- 44) 허방을 만들어 놓고. '허방'은 땅바닥이 갑자기 움푹 패어 빠지기 쉬운 곳.
- 45) 網巾. 상투 있는 사람이 머리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머리에 두르는 그물처럼 생긴 물건.
- 46) 상투를 한 사람이 머리에 매는 그물처럼 생긴 망건을 매는 끈.
- 47) 땀때. 한 땀 한 땀 곱게 얹어놓은 갖의 울.
- 48) 전통 실내악의 한 가지로, 정악곡인 영산회상곡을 말함.
- 49)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가 마음에 놀랍거나 못마땅한 정도로 심하다고 느낄 때 내는 소리.
- 50) 三綱. 신하는 임금을 따르고, 아들은 아버지를 따르고, 아내는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유교의 윤리의식 세 가지.
- 51) 五倫.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친애, 부부 사이에는 분별,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 친구 사이에는 믿음에 있어야 함을 이르는 유교의 다섯 가지 윤리.
- 52) 不測한. 마음씨가 흉악한.
- 53) 倫紀인들. '윤기'는 사람이 지켜야할 도리.
- 54) 金枝玉葉. 금으로 된 가지와 옥으로 된 잎이라는 뜻으로, 귀여운 자손을 소중하게 이르는 말.
- 55) 왜가리. 해오라기과에 딸린 새. 강가나 논에 살면서 물고기, 조개, 개구리 따위를 잡아먹음.
- 56) 聲音. 목소리.
- 57) 매초롬하게. 젊고 건강하여 아름다운 태가 나게.
- 58) '관(冠)'의 비어.

- 59) 바지의 한 종류가 아니라, 대님을 맨 둘레로 바짓가랑이가 흘러내려와 마치 소 등에 짐을 감아서 신는 옹구처럼 된 모양을 가리킨다. 겉보기에 무척 게을러 보인다.
- 60) 고의춤. 바지의 허리 부분을 여민 사이.
- 61) '도랑'은 본래 작은 개울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여기서는 적당치 않음. '고샅' 정도가 아닐까 생각됨.
- 62) 內房. 여자들이 거처하는 안방.
- 63) 出入. 드나듦.
- 64) 돼지.
- 65) 새끼를 낳지 못 하는 돼지. 여기서는 쓸 데 없는 자식들을 비유한 말.
- 66) 우글우글하게.
- 67) 眷屬. 자기 집에 딸린 식구.
- 68) 逆情. 몹시 언짢거나 못마땅하여서 내는 성.
- 69) 洞燭. 뒷사람이 앞사람의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깊이 헤아림.
- 70) 가르쳐 노니.
- 71) 文字. 예전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한자로 된 숙어나 성구(成句) 또는 문장.
- 72) 자그시 힘을 주어 자꾸 누르는 모양.
- 73) 부러뜨리기.
- 74) 엎드려.
- 75) 嚴冬. 매우 추운 한겨울.
- 76) 雪寒風. 눈과 함께, 또는 눈 위로 불어오는 찬바람.
- 77) 數多한. 많은.
- 78) 치올리어 들다.
- 79) 秋霜같이. 가을 찬서리 같이 기세가 등등하게.
- 80) 습. 명령.
- 81) 어찌할 수 없이.
- 82) 身世自嘆. 가련하거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처지를 스스로 탄식함.
- 83) 好衣好食.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음.
- 84) 一朝에. 하루아침에. 아주 짧은 기간에.
- 85) 그리 말도록 금지하는 말.
- 86) 百物. 여러 가지 물건.
- 87) 道傍. 길가. 여기서는 '도방처'를 가리킴. '도방처'는 길가와 같이 사람의 내왕이 많은 곳.
- 88) 一元山. 첫째는 원산. '원산'은 함경남도 남쪽에 있는 시의 지명.
- 89) 二江景. 둘째는 강경. '강경'은 충청남도 강경읍을 가리킴.
- 90) 三浦州. 셋째는 포주. '포주'는 지금의 전북 부안군 줄포(茁浦).
- 91) 四法聖. 넷째는 법성. '법성'은 전남 영광군 법성포.
- 92) 살자고 한들.
- 93) 물레방아가 설치되어 있는 집.
- 94) 聖賢洞 福德村. 성현과 같이 마음이 착하고 어진 사람들이 사는, 복과 덕이 많은 마을이라는 뜻으로 꾸며 지어낸 이름.

- 95) 餓死之境. 굶어 죽게 된 지경.
- 96) 육개장의 국물. '육개장'은 쇠고기를 삶아서 알맞게 뜬어 갖은 양념을 한 뒤에 파와 고춧가루를 넣어 다시 끓인 국.
- 97) 서리처럼 흰 쌀밥.
- 98)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가 마음에 놀랍거나 못마땅한 정도로 심하다고 느낄 때 내는 소리.
- 99) 到底하게. 완벽한 정도에 가깝게. 매우 훌륭하게.
- 100) 龍味鳳湯. 맛이 씩 좋은 음식.
- 101) 들engi면서. 한 군데 잔뜩 들러붙어서 엉기면서.
- 102) 不寐症. 잠이 안 오는 증세.
- 103)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가 마음에 놀랍거나 못마땅한 정도로 심하다고 느낄 때 내는 소리.
- 104) 公論. 함께 모여 의논함.
- 105) 形勢. 생활의 경제적 형편.
- 106) 肝腸. 간과 창자라는 뜻으로,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07) 還子. 관가에서 가을에 이자를 붙여 갚는 조건으로 꾸어주던 곡식, 또는 그러한 일.
- 108) 戶房. 조선조 때 승정원이나 지방 관청에서 호적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아전.
- 109) 還子섬. 환자 몇 섬. '섬'은 곡식 따위를 담기 위하여 짚으로 거칠게 엮어서 만든 기구로 한 말의 곱절의 용량을 담는다.
- 110) 眷屬間에. 딸린 식구들끼리.
- 111) 情狀에. 딱한 형편에.
- 112) 九死一生이제. 아홉 번 죽음에 한 번 사는 셈 치는 것이지. 곧 매우 어려운 일을 불가능한 줄 알면서 행할 때 쓰는 말임.
- 113) 辛卯年 趙大妃 國喪時에. 신묘년(1891년) 조대비의 국상 때에. 조대비는 순조의 세자인 익종의 왕비이며 현종의 어머니인 신정왕후임. 철종이 아들을 얻지 못하고 일찍 죽자, 대원군 이하응의 아들인 고종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케 하고, 섭정을 하다가, 1891년 신묘년 4월에 죽었음. '국상'은 백성 전체가 복을 입던 왕실의 초상.
- 114) 白笠. 흰 베로 싸개를 한 갓. 상을 당한 상제나, 국상이 났을 때 썼음.
- 115) 갓의 테가 있는 둥글고 넓은 부분.
- 116) 아직 쓸 만하다고.
- 117) 漆. 옷칠. 물체의 겉에 발라 씌는 것을 막거나 광택을 내는 데 쓰는 물질. 또는 그것을 바르는 일
- 118) 그을음.
- 119) 도포(道袍). 소매가 넓고 길이가 발등에까지 미치며, 뒷자락에 띠 폭을 댄 옛날 선비의 통상 예복.
- 120) 櫥. 물건을 넣어두는 가구의 한 가지. 넣어두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책장, 옷장, 찬장 따위가 있음.
- 121) 닭장.
- 122) 秩廳. 관청에서 아전들이 일을 맡아 보던 청사.

- 123) 잘 매만져서 모양을 내는 일.
 124) 본다고 하면.
 125) 갓 바닥의 가에 둘러 댄 테.
 126) 破笠. 부서진 갓.
 127) 물건을 버티어서 이리저리 벌여 매는 줄. 여기서는 갓을 고정시켜 주는 줄.
 128) 叢叢. 뻥뻥하게. 단단하게.
 129) 조사(造紗) 갓끈. 조사로 만든 갓끈. ‘조사’는 은조사(비단의 한 가지로 여름 옷감으로 씬)를 가리키는 뜻함.
 130) 망건편자. 망건을 졸라매는 띠.
 131) 網巾. 상투 있는 사람이 머리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머리에 두르는 그물처럼 생긴 물건.
 132) ‘갓풀’은 짐승의 가죽, 힘줄, 창자, 뼈 따위를 진하게 곤 다음에 굳혀서 만든 풀. ‘갓’은 재료가 가죽임을 나타내는 접두사. ‘관자’는 망건에 달아 당줄을 꿰어 거는 작은 고리.
 133) 종이로 만든 당줄. ‘당줄’은 망건 양 쪽 끝 위 아래에 달아 망건을 졸라매는 데 쓰는 검은 노끈.
 134) 頭痛나게. 머리가 아프게.
 135) 실로 만든 허리띠.
 136) 叢叢. 뻥뻥하게.
 137) 곱돌로 담배통을 만든 담뱃대. ‘곱돌’은 만지면 양초와 같이 매끈매끈하고 지방 광택이 나는 암석과 광물의 통칭. 활석.
 138) 여덟 八字 걸음. 八 자처럼 발끝을 바깥쪽으로 벌려, 거드름을 피우며 느리게 걷는 걸음.
 139) 아주 갑자기 앞으로 나아가거나 늘거나 주는 모양.
 140) 이리 쏘리고 저리 쏘리어 가지런하지 못한 모양.
 141) 저더러. 저 사람에게.
 142) 곤란하니. 난처하니. ‘뫼하다’는 언짢은 느낌을 알맞게 형용하기 어렵거나 그것을 표현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암시적으로 둘러서 쓰는 말.
 143)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수완.
 144) 戶房. 조선시대 지방 관아에서 호전관계(戶典關係)의 실무를 맡아보던 책임 향리.
 145) 朴生員. 박씨 성을 가진 생원. ‘생원’은 나이 많은 선비를 대접하는 뜻으로, 그 사람의 성(姓) 밑에 붙이는 말.
 146) 주지.
 147) 救患. 어려움에서 구함.
 148) 이 집 저 집 다니며 먹을 것을 얻어서 소매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일.
 149) 千石꾼. 나락으로 천 석을 추수하는 큰 부자. ‘석’은 곡물의 부피를 세는 단위로, 180 l.
 150) 잡수시다니.
 151) 무슨 일에 드는 힘이나 수고. 여기서는 돈을 받고 남의 일을 대신 해주는 일.
 152) 座首. 조선시대 지방의 자치기구인 향청(鄉廳) 또는 유향소(留鄉所)의 가장 높은 직임. 조선 건국 초기에 약질 향리의 규찰과 향촌의 교화를 위하여 조직되었다. 연로하고

- 덕망이 높은 자를 좌수로 삼고, 그 다음을 별감(別監)이라 하였다.
- 153) 兵營. 병마절도사가 있던 영문(營門).
- 154) 營門. 병마절도사가 있던 곳. ‘영문’은 본디 병영의 문을 뜻함.
- 155) 棍杖. 조선조 때 죄인의 볼기를 치던 형구. 버드나무로 넓적하고 길게 만든 것으로, 크고 작고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중곤(重棍), 대곤(大棍), 중곤(中棍), 소곤(小棍), 치도곤(治盜棍)의 다섯 가지가 있었다.
- 156) 확실하게 정해진.
- 157) 衙前. 조선 시대에, 중앙과 지방의 관아에 속한 구실아치. 중앙 관서의 아전을 경아전(京衙前), 지방 관서의 아전을 외아전(外衙前)이라고 하였다.
- 158) 舉動. 일에 나서서 움직이는 태도.
- 159) 櫃門. 나무로 짠 네모진 껍짝의 문.
- 160) (자물쇠 따위가 서로 닿으면 걸리게 된) 단단한 물건이 세게 맞부딪쳐 달라붙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161) 秩廳. 관청에서 아전들이 일을 맡아 보던 청사.
- 162) 돈의 단위로, 한 돈의 십분의 일. 열 돈이 한 냥임.
- 163) 두부를 찌낸 찌꺼기.
- 164) 원래는 김치를 담는 작은 사발.
- 165) (많이 먹어) 몸이 기우뚱하게.
- 166) ‘입’의 비어.
- 167) 길게 빼고.
- 168) 坐而不動.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음.
- 169)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가 마음에 놀랍거나 못마땅한 정도로 심하다고 느낄 때 내는 소리.
- 170) 根本. 유래. 혹은 생긴 내력.
- 171) 아는가?
- 172) 孟嘗君. (1)중국 전국시대 제나라의 정승. 성은 전(田), 이름은 문(文). 찾아오는 손님들을 후하게 대접하여 천하의 유능한 선비 수천 명을食客으로 두었다고 함. 진나라에 들어가 소왕(昭王)에게 피살될 뻔했을 때, 과거 그의 도움을 입었던, 닭의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과 도둑질을 잘 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이야기가 유명함. (2) ‘돈’의 변말. 맹상군의 이름인 전문(田文)과 돈을 가리키는 전문(錢文)이 음이 같은 데서 유래함.
- 173) 등글등글하게.
- 174) 生殺之權. 살리고 죽이는 권한.
- 175) 富貴功名.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침.
- 176) 였다. 가까이 있는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주면서 하는 말.
- 177) 日收邊. 돈을 빌린 다음 본전과 이자를 일정한 날짜로 나누어 날마다 갚는 돈.
- 178) 月收. 돈을 빌린 다음, 본전과 이자를 일정한 달수로 나누어 달마다 갚는 돈.
- 179) 장체계(場遞計). 비싼 이자로 돈을 꾸 다음, 장날마다 본전과 이자를 갚는 일.
- 180) 派收邊. 5일마다 본전과 이자를 갚는 돈.

- 181) 한 달에 5%의 이자를 내는 돈.
 182) 邊錢. 이자돈.
 183) 日收. 일수변(日收邊).
 184) 知己何事. 어떤 일에든지 서로 마음이 통함.
 185) 그러지 마시오.
 186) 路上之取物. 길에서 얻은 물건. 길에서 물건을 주워 가짐.
 187) 君子. 인품이 훌륭한 사람.
 188) 일본놈들이 타고 다니는 말처럼.
 189) 肉粥. 고기를 넣어 쑀 죽.
 190) 먹기에 좋을 만큼 눅눅하고 묽게.
 191) 眷屬. 딸린 식구.
 192) 국물.
 193) 털썩. 힘없이 주저앉거나 쓰러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194) 天不生無祿之人이요, 地不長無名之草라. 하늘은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은 태어나게 하지 않고, 땅은 이름이 없는 풀을 자라게 하지 않음. 곧 제 먹을 것과 할 일은 제각각 타고난다는 말.
 195) ‘구멍’의 고어.
 196) 陰地. 그늘진 땅.
 197) 棍杖. 조선조 때 죄인의 볼기를 치던 형구. 버드나무로 넓적하고 길게 만든 것으로, 크고 작고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중곤(重棍), 대곤(大棍), 중곤(中棍), 소곤(小棍), 치도곤(治盜棍)의 다섯 가지가 있었다.
 198) 終身. 죽을 때까지.
 199) 좀처럼 고치기 어렵게 속으로 깊이 든 병.
 200) 갑자기 격한 감정이나 생각이 한꺼번에 치밀거나 떠오르는 모양.
 201) 險路. 험한 길.
 202) 허위허위. 손발을 내두르며 부자연스럽게 서두르는 모양.
 203) 身世自嘆. 가련하거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처지를 스스로 탄식함.
 204) 薄福헌너르. ‘박복한’을 강조한 말. 복이 없는.
 205) 高臺廣室. 높은 누대와 넓은 방. 곧 부자로 잘 사는 집을 가리킴.
 206) 富貴榮華.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귀하게 되어서 세상에 드러나 온갖 영광을 누림.
 207) 쳐다보니.
 208) 大將旗. 도성이나 영문에 세워, 대장이 부하를 지휘하는 데 쓰던 깃발.
 209) 肅靜牌. 사형을 집행할 때, 다른 사람이 떠들지 못 하도록 ‘肅’자와 ‘靜’자를 적어서 세워놓는 나무 패.
 210) 深山 猛虎 威容같은. 깊은 산 속 사나운 호랑이의 위엄 있는 모습과 같은.
 211) 勇字 불인. ‘용’자는 군뢰(軍牢)들이 쓰던 전립(戰笠)의 앞에 낫쇠 조각으로 만들어 붙이던 글자.
 212) 군뢰사령(軍牢使令). 군대 안에서 죄인을 다루던 병졸.
 213) 순진한. 순박한.

- 214) 三門. 정문과 그 양쪽에 세운 두 개의 문을 아울러 이르는 말. 대궐이나 관청의 문.
- 215) 구멍.
- 216) 붉은. 맨살의.
- 217) 무슨 일을 기다리며 조용히.
- 218) 엎드려 있을.
- 219) 두 사람을 쌍으로 표현한 것임.
- 220) 兵營設立之後에. 병영을 설립한 이후에.
- 221) 불기塵. '불기를 파는 가게'란 뜻으로, 흥부가 불기를 내놓고 엎드려 있는 모양을 비꼬아 일컬은 말.
- 222) 사정이 있는.
- 223) 여기서는 '내가 때리는 곤장에'의 의미.
- 224) '간짓대같은 뻘'인 듯. '간짓대'는 긴 대나무로 만든 장대.
- 225) 나에게.
- 226) 피쇠의 아버지. '피쇠'는 피 많은 아이라는 뜻을 지닌 남자 이름.
- 227) 남이 하려는 일을 앞질러서 하는 짓.
- 228) 番手네들. '번수'의 복수. '번수'는 대궐이나 관청을 지키는 병사.
- 229) 守番. 교대로 지키는 일.
- 230) 損財. 손재수(損財數). 재물을 잃을 운수.
- 231) 그럭저럭.
- 232) 後園. 뒤뜰.
- 233) 쌓아올리고. 축조하고.
- 234) 至誠. 지극한 정성.
- 235) 妖妄스럽게. 요사스럽고 망령되게.
- 236) 祝手. 두 손 모아 뱃.
- 237) 좋은 일이 있으면 남을 찾아다니고, 나쁜 일을 당하면 형제간을 찾아다니게 된다는 말.
- 238) 媳叔. 시아주머니. 남편의 형님.
- 239) 錢穀間에.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간에.
- 240) 善心. 선한 마음.
- 241) 形勢. 생활의 경제적인 형편.
- 242) 까락이 짧고, 껍질이 잘 벗겨지는 보리. 가장 일반적인 보리로, 주로 식량으로 쓰임.
- 243) 찢지 않은 보리.
- 244) 까락이 길고, 껍질이 알과 딱 붙어 있어 잘 벗겨지지 않는 보리. 사료나 엿기름 등의 재료로 쓰임.
- 245) '밥의 양을 늘여주는 보리'라는 뜻으로, 따로 삶지 않고 쌀과 섞어 밥을 할 수 있도록 납작하게 눌러놓은 보리.
- 246) 처음 수확한 보리.
- 247) '보리타다'가 '매를 되게 맞다'는 뜻이므로 그렇게 썼음.
- 248) 부러뜨리는.
- 249) 每事一般. 모든 일이 한 가지와 같음.

- 250) 매만져서 모양을 내는 일.
 251) 본다고 하면. 보면.
 252) 갓 바닥의 가에 둘러 댄 테.
 253) 破笠. 부서진 갓.
 254) 물건을 버티어서 이리저리 벌여 매는 줄. 여기서는 갓을 고정시켜 주는 줄.
 255) 叢叢. 뻥뻥하게.
 256) 조사로 만든 갓끈. ‘조사’는 은조사(비단의 한 가지로 여름 옷감으로 씬)를 가리키는 뜻함.
 257) ‘갓풀’은 짐승의 가죽, 힘줄, 창자, 뼈 따위를 진하게 곤 다음에 굳혀서 만든 풀. ‘갓’은 재료가 가죽임을 나타내는 접두사. ‘관자’는 망건에 달아 당줄을 꿰어 거는 작은 고리.
 258) 종이로 만든 당줄. ‘당줄’은 망건 양 쪽 끝 위 아래에 달아 망건을 졸라매는 데 쓰는 검은 노끈.
 259) 頭痛나게. 머리가 아프게.
 260) 실로 만든 허리띠.
 261) 곱돌로 담배통을 만든 담뱃대. ‘곱돌’은 만지면 양초와 같이 매끈매끈하고 지방 광택이 나는 암석과 광물의 통칭. 활석.
 262) 서리 내린 추운 아침.
 263) (두려워하거나 조심하느라고) 옆으로 걸음을 걸어.
 264) 생원님. 일반 백성이 양반 선비를 부르던 말.
 265) 도대체.
 266) 代錢. 대신하는 돈.
 267) 모두.
 268) 先塋. 선산(先山). 조상의 무덤, 또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 여기서는 ‘조상님’을 가리킴.
 269) 그러지 마시오.
 270) 엎드려.
 271) 미단이문.
 272) 獨身. 형제 없는 외아들.
 273) 三尺童子. 키가 석 자(약 90cm)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
 274) 獨子. 외아들.
 275) 合掌. 두 손바닥을 합하여 마음이 한결같음을 나타냄.
 276) 형님께. ‘주전(主前)’에는 ‘~에게’를 높여 이르는 말.
 277) 人命이 在天이라.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있다. 곧 마음대로 죽을 수 없다는 말.
 278) 죽사오리카마는. 죽겠습니까마는.
 279) 어쩔 수 없이.
 280) 죽겠나이다. 죽겠습니다.
 281) 곡식 등을 재는 부피의 단위. 석(石).
 282) 주시면.
 283) 일하는 데 드는 힘이나 수고.
 284) 그것도.

- 285) 저것도.
- 286) 잘게 부스러진 쌀알.
- 287) 가는 겨. 고운 겨. ‘겨’는 벼·조·보리 등을 찧어 벗겨낸 껍질. 주로 땀감이나 사료로 사용함.
- 288) 兩端間에. 둘 중에서 어느 것이든지 간에.
- 289) 既往에. 이미 그렇게 된 바에.
- 290) 자물쇠나 문고리를 채우거나 빗장을 질러라.
- 291) 벼.
- 292) 잘라다가. ‘치다’는 나뭇가지 등을 낫으로 잘라내다.
- 293) 지금.
- 294) 金枝玉葉. 금으로 된 가지와 옥으로 된 잎이라는 뜻으로, 귀여운 자손을 소중하게 이르는 말.
- 295) 몹시 세차고 빠른 모양.
- 296) 어디에다가.
- 297) ‘머리’의 비어.
- 298) 벼 몇 말.
- 299) 마당의 한 쪽 귀퉁이.
- 300) 露積. 곡식 따위를 한데에 수북이 쌓음. 또는 그런 물건.
- 301) 물건이 무더기로 쌓인 모양.
- 302) 쌓아 놓은 물건을 뜯어내며.
- 303) 天祿房. ‘하늘이 내린 복록이 들어찬 방’이란 뜻으로, 공간에 붙인 이름.
- 304) 貫. 열 냥을 단위로 한 엽전 열 꾸러미. 켤.
- 305) 많은 돈.
- 306) 열 냥을 한 꾸러미로 하여, 열 꾸러미씩 쌓아놓은 돈.
- 307) 黃鷄. 털이 누런 닭.
- 308) 白鷄. 털이 하얀 닭.
- 309) 黑鷄. 털이 검은 닭.
- 310) 날개죽지를 툇 툇 치고. 닭이 울기 전에 날개를 먼저 툇 툇 치는 모양을 가리킴.
- 311) 지게미. 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
- 312) 句陳房. ‘구진’은 별의 이름으로 북극에 가장 가까운 여섯 별 중의 하나, 혹은 주되는 궁전의 뒤쪽에 있는 궁전이라는 뜻이므로, ‘구진방’은 뒤쪽에 있는 방이라는 의미로 쓰인 듯함.
- 313) 돼지때.
- 314) 돼지.
- 315) 五穀. 온갖 곡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
- 316) 들어올려서 어깨에 매고.
- 317) 골짜기.
- 318) 움직이지도 뛰지도.
- 319) 丈八이나. 일 장 팔 척이나. 매우 높이. 훨씬.

- 320) '아주버님'을 속되게 일컫느라고 만들어낸 말. '아주버니'는 남편과 같은 항렬에서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 321) '도마뱀'의 방언. 아주뱀에 이어서 비꼬아 일컫는 말.
- 322) 첼퍼덕첼퍼덕. 자꾸 뺨을 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323) 如反掌.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
- 324) '시아주비'의 방언. 시동생. 남편의 남동생.
- 325) 古今天地. 예부터 지금까지의 온세상.
- 326) 撲殺. 때려 죽임.
- 327) 閻羅國.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으로, '저승'을 달리 일컫는 말.
- 328) 細細冤情. 자세한 억울한 사정.
- 329) 媳叔宅. 남편 형제의 집.
- 330) 주던가요?
- 331) 정도가 보통보다 심하게.
- 332) 江亭모통이. 정자가 있는 강가의 모통이.
- 333) 八尺長身. 팔 척이나 되는 큰 키. 한 척은 약 30센티.
- 334)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
- 335) 眷屬. 자기 집에 딸린 식구.
- 336) 못 게 언덕 파듯. 여러 게들이 언덕을 파듯. 남원 부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웅성거리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임.
- 337) 大師. '남자 중'을 높이어 일컫는 말.
- 338) 豪奢. 지나칠 만큼 호화롭게 사치함, 또는 그러한 사치.
- 339) 킷불. 킷바퀴의 아래쪽에 붙어 있는 살.
- 340) 축 늘어져.
- 341) 원래는 '송라(松蘿)'. 소나무겨우살이라는 풀로 엮어 만들어 주로 여승이 쓰는 모자.
- 342) 성기게 꿰매고.
- 343) 흙뻘. 깊숙히.
- 344) 누덕누덕.
- 345) 長衫. 검은 베로 만든 길이가 길고, 소매가 넓은 중의 옷.
- 346) 念珠. (염불하는 수를 헤아린다는 뜻) 염불할 때 손으로 돌려 그 수효를 세는 기구. 여러 개의 보리자, 금강주, 또는 모감주나무의 열매 따위를 실에 꿰어서 만듦.
- 347) 團珠. 밤톨 만하게 깎은 나무 구슬 여덟 개로 만들어 팔에 거는 염주.
- 348) 白銅. 구리·아연·니켈의 합금.
- 349) 半銀粧刀. 은을 전체 쇠붙이 양의 반쯤이 되게 넣어 만든 은장도.
- 350) 옷고름의 안에다 되게 차. 옷고름의 안에다 바싹 매어.
- 351) 瀟湘斑竹. 중국 소상강 가에서 나는, 아롱진 무늬가 있는 대나무.
- 352) 龍頭 새김. 용의 머리 모양을 새겨 붙임.
- 353) 六環杖. 도가 높은 중이 짚던 고리가 여섯 개 달린 지팡이.
- 354) 힘없이 늘어져 흔들거리고.
- 355) 念佛. 불경을 외는 일.

- 356) 俗家. 속세 사람들의 집.
- 357) 千讀. 천 번을 읽음.
- 358) 極樂世界.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로서, 아미타불이 늘 설법하고 있으며 근심과 고통이 없는 안락한 세계.
- 359) 南無阿彌陀佛. 염불하는 소리의 한 가지. 아미타불에 돌아가 의지하여 구원을 원한다는 뜻의 말.
- 360) 觀世音菩薩. 대자대비의 상징으로서 가장 널리 높임을 받는 보살. 중생이 괴로울 때 그 이름을 정성으로 외면 그 음성을 듣고 곧 구제한다고 함. 극락정도에서 아미타불을 가까이 곁에서 모시면서 부처의 교화를 돕는다고 함.
- 361) 上來所修功德海. 여태까지 닦은 공과 덕이 바다처럼 넓음. 불경 축원문의 한 구절.
- 362) 回向三千悉圓滿. 염불을 하여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니, 각 부처가 다스리는 삼천의 세계, 곧 온 우주가 다 원만하도다.
- 363) 奉位. 절에서 불공을 드릴 때, 소원을 적은 종이를 불상을 밝히는 등 밑에 받들어 붙이는 일.
- 364) 主上殿下壽萬歲. 임금님이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원함.
- 365) 王妃殿下壽齊年. 왕비전하의 나이도 임금님과 똑같기를 기원함.
- 366) 國泰民安法輪轉.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한 가운데, 부처님의 교화와 설법으로 중생의 미망(迷妄)을 깨우침.
- 367) 引導하며. 본래는 ‘중생을 이끌어 불도의 진리를 깨닫게 하며’의 뜻인데, 여기서는 다만 ‘염불을 하며’의 뜻으로 쓰였음.
- 368) 合掌. 두 손을 모음.
- 369) 拜禮. 절을 함.
- 370) 양 팔을 짝 벌린 길이.
- 371) 물건 ‘서 발 장대로 저어도 거칠 문적이 없다’는 말은 아무 것도 가진 물건이 없다는 말.
- 372) 死生을 未判키로. 생사가 구분이 되지 않기로. 곧 죽게 생겼으므로.
- 373) 緣由. 까닭.
- 374) 乞僧. 동냥하는 중.
- 375) 산모퉁이. 산모퉁이의 휘어 돌린 곳.
- 376) 明堂. 풍수지리에서 장차 좋은 일이 자주 생긴다는 뗏자리나 집터
- 377) 岳陽樓. 중국 호남성 악양현에 있는, 동정호가 잘 보이는 성루. 두보의 <등악양루(登岳陽樓)>라는 시로 더욱 유명해졌음.
- 378) 성조(成造). 본디 집을 지키는 신령을 뜻하였으나, 대개는 새로 집을 짓는 일을 가리킴.
- 379) 壬坐丙向午門. 임방(壬方), 곧 북북서쪽을 등지고, 병방(丙方), 곧 남남동쪽을 향하게 하고, 오방(午方), 곧 남쪽으로 문을 냄.
- 380) 明年. 다음 해.
- 381) 億十萬金. 많은 돈.
- 382) 長者. 큰 부자.
- 383) 三代進士. 삼 대에 걸쳐 연이어 진사가 남.
- 384) 五代及第. 오 대에 걸쳐 연이어 과거에 급제를 함.

- 385) 兵監司. 병사나 감사. '병사'는 병마절도사. '병마절도사'는 조선조 때 각 지방에 두어 병마를 통솔하던 종2품의 무관. '감사'는 조선조 때 각 도를 다스리던 관찰사를 달리 이르는 말.
- 386) 的實하니. 틀림이 없으니.
- 387) 因忽不見. 갑자기 보이지 않음.
- 388) 道僧. 불도를 닦아 깨달은 중.
- 389) 땅을 파고 거적으로 위를 덮어 비바람이나 추위를 막게 한 허름한 집.
- 390) 겨울 冬 字. 겨울 동(冬)이라는 글자.
- 391) 갈 去 字. 갈 거(去)라는 글자.
- 392) 삼월삼진날. 음력 3월 3일.
- 393) 올 來 字. 올 래(來)라는 글자.
- 394) 봄 春 字. 봄 춘(春)이라는 글자. 앞부분부터 이어서 보면, '동거래춘(冬去來春)'이 되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는 뜻이 됨.
- 395) 桃花杏花紛紛이요. 복숭아꽃 살구꽃이 어지럽게 피어 있고.
- 396) 梨花滿地不開門. 당나라 때의 시인 유방평(劉方平)의 시 <춘원(春怨)>의 한 구절. 지는 배꽃 뜰에 쌓여도 문을 열지 않는다.
- 397) 실실 東風에. 슬슬 부는 동풍에, 곧 봄바람에.
- 398) 꽃 花 字. 꽃 화(花)라는 글자. 곧 꽃을 가리킴.
- 399) 나비 蝶 字. 나비 접(蝶)이라는 글자. 곧 나비를 가리킴.
- 400) 춤출 舞 字. 춤출 무(舞)라는 글자. 곧 나비가 춤을 춘다는 뜻.
- 401) 피꼬리 수루루 날아들어 노래 歌 字. 종을시키고, 피꼬리가 날아와서 노래를 부르니 듣기 좋구나. '수루루'는 새가 날개를 치며 높이 나는 모양.
- 402) 짐승 獸. 짐승 수(獸)라는 글자. 곧 짐승을 가리킴.
- 403) 새 鳥. 새 조(鳥)라는 글자. 곧 새를 가리킴.
- 404) 제비 燕 字. 제비 연(燕)이라는 글자. 곧 제비를 가리킴.
- 405) 알을 품어 새끼가 껍질을 깨고 나와서.
- 406) 去中에. 공중에서.
- 407) 高樓巨閣. 높고 크게 지은 집.
- 408) 窮僻江村. 매우 후미지어 으스스한 시골.
- 409) 생겼는데. 태어났는데.
- 410) 折脚之恨. 다리가 부러진 한.
- 411) 唐絲실. 중국에서 들여온 품질이 좋은 명주실.
- 412) 동여매. 여러 차례 칭칭 감아.
- 413) 萬里江南. 만 리나 떨어진 먼 강남.
- 414) 九萬長天. 구만 리나 되는 높고 넓은 하늘.
- 415) 去中. 공중.
- 416) 孫賓. 제나라의 뛰어난 병법가. 후에 위나라의 장수가 된 방연(龐涓)과 함께 일찌기 귀곡선생에게 배웠는데, 위나라에 있을 때, 그의 재능을 시기한 방연의 참소에 의해, 발꿈치를 잘라내고 얼굴에 먹글씨를 넣는 형벌을 받았다. 이 때 사신으로 와 있던

- 제나라 순우곤이 그를 몰래 빼내 데려다가, 제나라 위임금의 스승으로 삼았다. 이리하여 제나라의 군사(軍師)가 되어, 위나라의 침략을 받은 한나라를 도와, 방언이 이끄는 위나라 군대를 유인하여 쳐부수자, 방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417) 兩足. 두 다리.
- 418) 齊나라. 중국 춘추시대에 산둥성 일대에 있던 나라. 기원 전 1123년에 주나라 무왕이 강태공에게 봉하여 준 나라로, 기원전 386년에 가신인 전씨(田氏)에게 빼앗겼다.
- 419) 楚漢적. 초나라와 한나라가 천하를 놓고 다투던 때.
- 420) 韓信.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을 도와 서한(西漢)을 세운 명장. 회음(淮陰) 출신. 처음에는 항우(項羽)를 섬겼으나 등용되지 못하자 유방에게로 돌아왔다. 소하(蕭何)의 추천으로 등용되어 대장군에 임명되었다. 초한(楚漢) 전쟁 무렵 제왕(齊王)에 봉해졌으며, 해하(垓下)에서 초패왕 항우의 군사를 격파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한나라의 기틀이 완성된 뒤 고조 유방은 그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지위가 낮은 회음후(淮陰侯)에 임명했다가 나중에 살해하였다. 이 때 그는 '교토사주구팽(狡兔死走狗烹.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 421) 一支手が 없었으나. 손 하나가 없었으나. 한신이 처음에는 항우를 따랐으나, 자기의 계획이 쓰이지 않으므로 도망하여 한나라에 들어갔다. 승상 소하는 그를 비범한 인물로 보고 추천하였으나, 임금이 홀려 듣자, 한신은 이에 크게 낙담하여 한나라로부터 도망하였다. 소하는 한신이 도망하였다는 말을 듣고, 임금에게 알릴 사이도 없이 쫓아가 붙들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소하까지 도망하였다고 말하여, 임금은 마치 두 손을 잃은 듯이 낙담하여 크게 화를 냈다. 이 사실에서 한신이 손 하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한 고조가 '마치 두 손을 잃은 듯했다(如失左右手)'는 《사기(史記)》 기록의 와전이다.
- 422) 大將壇. 대장이 부대의 지휘를 위하여 나아가 서는 곳.
- 423) 一軍皆驚. 온 군사가 모두 놀람. 한나라 고조가 승상 소하의 뜻을 따라, 날을 가려 단을 쌓고, 장군을 맞이할 예의를 갖춘 뒤에 한신에게 대장을 제수하자, 제가 대장으로 뽐히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장수와 군사들이 깜짝 놀랐다고 함.
- 424) 쉬. 쉽게.
- 425) 제비가 지저귀는 소리를 흉내낸 말. 이를 '知之主之 又之主之'로 보면 '아는지요, 주인님. 아는지요, 주인님.'이란 의미임.
- 426) 祖宗之望帝는 杜鵑이었다. 촉나라 망제의 님이 두견이었다. 망제는 주나라 말기에 촉의 제후로, 스스로 황제라 일컫은 두우를 말하는데, 임금 자리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어, 그 님이 두견새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 427) 點考. 이름을 적어놓은 장부에 점을 찍어가며 수효를 확인하는 일.
- 428) 大國. 중국을 이름.
- 429) 갈새. 제비와 비슷하나, 제비보다 조금 큼. 등은 검은 갈색이고, 허리에는 하얀 띠가 있으며, 턱과 목이 약간 회고, 배는 검은 갈색, 깃 가장자리는 검은 바탕에 흰 줄이 있음.
- 430) 萬里朝鮮. 만 리나 떨어진 먼 조선.
- 431) 상처가 나으면서 살이 고르지 않게 붙어 도통해져서.
- 432) 절뚝거리고.

- 433) 小鳥. 새가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434) 서슴지 않고 단번에. 갑자기 곧. 한 번에.
 435) 작고 단단한 쇠붙이나 나무 등이 가볍게 부러지는 소리.
 436) 갸사오리카. 갸졌습니까.
 437) 洞燭. 특별히 깊게 헤아림.
 438) 明春. 내년 봄.
 439) 報恩袍. ‘은혜를 갚을 박’이라는 뜻으로 지어 붙인 이름.
 440) 三冬. 겨울 석 달.
 441) 方壯하니. 바야흐로 한창이니.
 442) 路程記. 여행할 길에 대해 적은 글. 제비가 강남에서 홍보 집까지 오는 행로는 우리나라 사신들이 다니던 길의 노정과 같다.
 443) 黑雲. 검은 구름.
 444) 발길로 힘껏 차고.
 445) 去中에. 공중에.
 446) 西蜀. 중국의 사천성을 이르는 말.
 447) 咫尺. 아주 가까운 거리.
 448) 蒼茫. 넓고 멀어서 아득함.
 449) 祝融峰. 중국 호남성 형산현 서북쪽에 있는 형산의 일흔두 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
 450) 朱雀.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새로 붉은 봉황으로 그려져 있는데, 남방의 신이라 한다.
 451) 黃牛土·黃牛灘. ‘황우토’는 중국 호북성 이창현의 서쪽에 있는 황우산을 말하는데, 그 산의 절벽 아래로 ‘황우탄’이 흐른다. ‘황우산’이란 이름은 그 산의 절벽 위에 있는 바위가 멀리서 보면 마치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황소를 끌고 가는 듯하여 붙여졌다고 함.
 452) 烏鵲橋. 황우탄 위의 다리를 전설 속의 오작교로 가정하여 이른 듯함.
 453) 吳楚東南. 동정호의 물줄기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었던 오나라와 남쪽에 있었던 초나라를 싸잡아 일컫는 말.
 454) 遠浦歸帆. 바다 멀리서 포구로 돌아오는 뚝단배의 모습. 소상팔경의 하나.
 455) 水碧沙明兩岸苔 不勝清怨却飛來. 당나라 시인 전기(錢起)가 쓴 시 <귀안(歸雁)>에 있는 구절. <귀안>은 다음과 같다. ‘소상하사등한회(瀟湘何事等閑回) 수벽사명양안태(水碧沙明兩岸苔) 이십오현탄야월(二十五弦彈夜月) 불승청원각비래(不勝清怨却飛來). 소상 떠나 무슨 일로 등한히 돌아왔나? 물은 푸르고, 모래는 밝게 빛나며, 강 양쪽 언덕에는 이끼가 푸르네, 이십오현 비파를 달밤에 탈 때, 맑은 설움 못 이기어 문득 날아 돌아왔다.’
 456) 갈대 순.
 457) 一點二點. 하나 둘씩.
 458) 平沙落雁. 평평한 모래밭에 기러기가 내려앉음. 소상팔경의 하나.
 459) 白鷗. 갈매기.
 460) 白鷺. 왜가리과의 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 부리·목·다리는 길고, 두루미와 비슷하나 다소 작다.

- 461) 滄波上. 푸른 물결 위.
- 462) 夕陽村. 저물 무렵의 마을. 소상팔경 중 어촌석조(漁村夕照)를 가리킴.
- 463) 回雁峰. 중국 형산의 일흔두 봉우리 중의 하나. 기러기가 이 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봄에 북쪽으로 간다 해서 붙은 이름.
- 464) 黃陵廟. 요 임금의 두 딸이자, 순 임금의 두 왕비였던 아황과 여영을 모신, 소상강가에 있는 사당.
- 465) 二十五弦彈夜月. 이십오현 비파를 달밤에 탐. 당나라 시인 전기(錢起)가 쓴 시 〈귀안(歸雁)〉에 있는 구절.
- 466) 斑竹. 순임금이 죽자, 두 왕후가 흘린 눈물이 상강의 대밭에 떨어져서 생겼다는 점박이 대.
- 467) 杜鵑聲. 두견새의 소리.
- 468) 和答. (시나 노래에) 응하여 대답함.
- 469) 鳳凰臺. 중국 강소성 남경 동남쪽에 있는, 이백의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라는 시로 유명한 누대.
- 470) 鳳去臺空江自流. 봉황은 날아가고, 누대는 비었는데, 그 아래로 강물만 흐른다. 이백의 시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의 한 구절.
- 471) 黃鶴樓. 중국 호북성 무장 서남쪽 양자강가에 있는 누대.
- 472) 黃鶴一去不復返의 白雲千載空悠悠라.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황학은 한번 가서 돌아오지 않고, 흰 구름만 천 년을 유유히 떠서 흐른다. 최호의 시 〈황학루(黃鶴樓)〉의 한 구절.
- 473) 金陵. 남경의 옛 이름.
- 474) 酒肆村. 술집이 있는 마을.
- 475) 空宿窓外桃李開. 홀로 자는 창 밖에 복숭아꽃 오얏꽃이 피어 춘정을 더하는구나.
- 476) 落梅花를 툇 차 舞筵에 펴령 떨어치고, 떨어지는 매화 꽃잎을 발로 차서 춤추는 자리에 떨어뜨리고. 두보의 시 〈성서피범주(城西陂泛舟)〉의 한 구절인 ‘연축비화낙무연(燕蹴飛花落舞筵. 제비가 떨어지는 꽃잎을 차서 춤추는 자리에 떨어뜨리다.)을 변형한 것임.
- 477) 二水. 중국 광서성 홍양현에서 시작되어 상수(湘水)와 나뉘어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심강과 합쳐져 서강(西江)이 되는 강. 상수와 나뉘기 때문에 ‘이수(二水)’라고 함.
- 478) 鷄鳴山. 중국 안휘성 합비현 서북쪽에 있는 산.
- 479) 張子房. 이름은 양(良), 자(字)가 자방. 뛰어난 지략가로 한나라의 고조를 도운 개국 공신이었으나, 뒤에는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와,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선도에 기울어 동해의 신선인 적송자와 놀았다 함.
- 480) 南屏山. 중국 강소성 상요현의 북쪽에 있는 산으로,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빌어 조조의 군사를 깨뜨리기 위하여 칠성단을 쌓은 곳.
- 481) 七星壇. 북두칠성을 모시는 제단. 공명이 동남풍을 빌기 위해 남명산에 쌓았던 제단.
- 482) 燕趙之間. 옛 중국의 연나라와 조나라의 사이.
- 483) 長城. 만리장성을 가리킴.
- 484) 礪石山. 중국 요동에 있는 산.
- 485) 燕京. 북경의 옛 이름.
- 486) 薩·彌勒. 보살과 미륵.

- 487) 百이요, 백 개나 된다. 곧 많다는 말.
- 488) 寧古塔. 중국 흑룡강성 남동부에 있는 도시.
- 489) 統軍亭. 의주의 압록강가에 있는 정자.
- 490) ‘안쪽에 가까이 있는 남산과 바깥쪽에 멀리 있는 남산’이라는 뜻으로 지어붙인 이름.
- 491) 石壁江. 의주 가까이에 흐르는 강 이름인 듯함.
- 492) 龍川江. 평안북도 용천에 있는 강 이름인 듯함.
- 493) 左虎嶺. 가상의 고개 이름인 듯.
- 494) 부산 擺撥 換馬고개. 파발로 부산한 환마고개. ‘파발(擺撥)’은 공문 따위를 급히 전하려고 일정한 거리마다 설치한, 역말을 갈아타던 곳, 또는 그 공문을 나르던 사람. ‘환마(換馬)고개’는 말을 갈아타는 뜻을 지닌 고개 이름인 듯하나 불분명함. 환마를 ‘환마(還馬)’로 보면 ‘還馬’는 금의환향이라는 뜻이므로, ‘還馬고개’는 금의환향하는 고개라는 의미임.
- 495) 평안남도 강동군에 있는 다리의 이름인 듯.
- 496) 練光亭. 평양의 대동강가에 있는 정자. 대동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덕암(德岩)이라는 바위 위에 있는데, 조선조 중종 때 세워졌음.
- 497) 浮碧樓. 평양의 대동강가에 있는 누대.
- 498) 對臨하고. 마주 대하고. 구경하고.
- 499) 長林. ‘긴 수풀’인 듯.
- 500) 松都. 개성의 옛이름.
- 501) 滿月臺. 개성 송악산 밑에 있는 고려 왕궁터.
- 502) 觀德亭. 개성에 있는 고려 때의 정자.
- 503) 朴淵瀑布. 경기도 개풍군에 있는 폭포. 개성(開城)에서 40리 가량 되는 천마산(天摩山)에 있으며, 부근에는 약수가 있고 가을 단풍이 아름다워 송도삼절(松都三絶)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 504) 時刻에. 빨리.
- 505) 三角山. 북한산의 다른 이름.
- 506) 地勢. 땅의 형세.
- 507) 天龍. 풍수지리에서, 명당을 이루는 큰 산세를 물고 내려오는 가장 큰 산줄기.
- 508) 大元脈. 큰 줄기를 이루는 산맥.
- 509) 中嶺. 산줄기의 중간 마루.
- 510) 金華. 인왕산 옆의 금화산.
- 511) ‘계산(桂山)’의 와전인 듯. 오늘날의 종로구 계동 일대의 산줄기.
- 512) 分界. 나뉘.
- 513) 春塘. 창경궁 안의 춘당대(春塘臺).
- 514) 迎春. 경복궁의 동쪽 문인 영춘문(迎春門).
- 515) 道峰. 도봉산(道峰山).
- 516) 望月. 도봉산 근처의 지명인 듯.
- 517) 彬彬하고. 빛나고.
- 518) 時俗. 그 시대의 인정과 풍속.

- 519) 嬉嬉하여. 기쁘고 즐거워.
- 520) 萬萬歲之金湯. 오랜 세월 동안의 방비가 아주 견고한 성.
- 521) ‘어름’의 방언. 둘이 맞닿는 곳.
- 522) 七牌거리. 지금의 중구 중립동 부근.
- 523) 칠패거리.
- 524) ‘칠패’에 연이어 지어 붙인 이름인 듯.
- 525) 용산구 동자동과 서계동에 일대를 배다릿골이라고 했는데, 그 곳에 있던 배다리(舟橋)라 부르던 다리.
- 526) 靑坡. 남대문에서 10km 쯤 떨어져 있던 역.
- 527) 아야고개. 오늘날의 이태원 고개.
- 528) 銅雀江을 월강(越江). 동작강을 건넌.
- 529) 南泰嶺. 동작동과 과천 사이의 고개.
- 530) 죽지. 새의 날개가 몸에 붙은 부분.
- 531) 새가 날개를 치며 높이 나는 모양.
- 532) 門前. 문 앞.
- 533) 堂上堂下 飛去飛來. 집 치마 위 아래로 날아오고 날아감.
- 534) 翩翩히. 가볍게 훨훨 날아.
- 535) 有日有巢 엮은 남기 爲巢次로 네 왔더냐. 유소씨가 엮어놓은 나무를 보금자리로 삼으려고 네가 왔느냐. ‘유소씨’는 중국의 삼황오제 시절의 전설적인 성인으로,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어 사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나무를 엮어 집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었다고 함.
- 536) 北風寒窓雁飛高. 북녘의 찬 바람이 나그네의 창가에 몰아치는데, 기러기는 하늘 높이 날아간다.
- 537) 平沙落雁. 평평한 모래밭에 기러기가 내려앉음. 소상팔경의 하나.
- 538) 遠村眞村. 먼 동네, 진짜 동네. 곧 강남을 제비의 먼 마을이며, 진짜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뜻으로 쓴 듯함.
- 539) 欲向靑山의 問杜鵑. 청산에 가서 두견새에게 (제비에 관한 소식을) 물으려 함.
- 540) 丹山. 붉은 모래가 나는, 봉황이 살고 있다는 전설 속의 산.
- 541) 竹實. 봉황이 먹고 산다는, 대나무 열매 속에 있는 씨.
- 542) 녀노는. 오락가락하며 날아다니는.
- 543) 幽谷靑鶴. 깊은 산골짜기의 푸른 학.
- 544) 細流江. 작은 시냇물.
- 545) 黑龍. 검은 빛깔의 용.
- 546) 如意珠. 부처의 사리에서 나와 용의 턱 아래에 있다는 구슬. 이것을 지니면 일이 마음 먹은 대로 된다 하여 붙은 이름.
- 547) 彩雲間. 여러 가지 고운 색깔의 구름 사이.
- 548) 知之主之 又之主之 卿之匏之 又之拜라. 제비가 지저귀는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이면서, 의미가 통하게 만든 말임. ‘아는지요, 주인님. 아는지요, 주인님. 박씨를 물고 또 찾아와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의미임.

- 549) 折骨兩脚. 뼈가 부러진 두 다리.
 550) 宛然. 매우 분명함.
 551) 唐絲실. 중국에서 들여온 품질이 좋은 명주실.
 552) 알록달록한 상태를 나타내는 의태어.
 553) 작은 물건이 잇따라 구르는 소리, 또는 그 모양.
 554) 白雲間. 흰 구름 사이.
 555) 물어왔는가 봅니다.
 556) 갑자기 마주치는 모양.
 557) 短文하던가. 학식이 모자라든가.
 558) 既往. 기왕에. 이미 그렇게 된 바에.
 559) 短牆. 나지막한 담.
 560) 거름기가 직접 씨앗에 닿지 않도록 흰 짚싹을 놓고.
 561) 털먹신. 털매기. 굵은 짚으로 거칠게 삼은 짚신.
 562) 아주 단호하게 끊거나 과단성 있게 행동하는 모양.
 563) 박넝쿨. ‘넝쿨’은 길게 뻗어 나가면서 다른 물건을 감기도 하고 땅바닥에 퍼지기도 하는 식물의 줄기.
 564) 굵고 튼튼하게 꼰 줄.
 565) 땅을 파고 거적으로 위를 덮어 비바람이나 추위를 막게 한 허름한 집.
 566) 九年之水. 중국 요임금 때 9년이나 계속된 큰 홍수.
 567) 佳節. 좋은 시절. 좋은 때.
 568) ‘코끝’을 속되게 표현한 말.
 569) 술 몇 잔.
 570) ‘원수’를 강조한 말. ‘너르’는 사물이나 대상을 낮추어 함부로 일컬을 때 쓰는 말조각.
 571) 墓 쓰기에가. 묘 쓰기에.
 572) 三神 帝王님. 민속에서 아기 낳는 일을 맡은 삼신을 높여 이르는 말.
 573) 三神 帝王님이 짚자리에 떨어칠 적에. 삼신제왕님이 짚자리에 떨어뜨릴 때에. 곧 태어날 때에. 옛날에는 짚을 깔고 출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임. ‘삼신’은 민속에서 출산을 담당한다고 하는 신.
 574) 命. 목숨.
 575) 壽福. 오래 살며 길이 복을 누리는 일.
 576) 點指. 신이나 부처가 사람에게 정해줌.
 577) 薄福한너르. ‘박복한’을 강조한 말. 복이 없는. ‘너르’는 사물이나 대상을 낮추어 함부로 일컬을 때 쓰는 말조각.
 578) 先山. 조상들의 무덤. 혹은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산.
 579) 三旬九食. 30일에 아홉 번 식사를 할 정도로 굶으며 지냄.
 580) 다리를 아무렇게나 제 멋대로 하고.
 581) 술 몇 잔.
 582) 狼藉하것다. 어지럽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것다.
 583) 迎接.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일.

- 584) 서럽게.
 585) 울지 말고.
 586) 고프면.
 587) 툇같은 기구를 써서 밀었다 당겼다 하여 갈라지게 해서.
 588) 박의 안에 씨가 박혀 있는 하얀 부분. 씨가 있는 부분은 버리고, 살만 끊어서 식용으로 씹.
 589) 救患. 어려움에서 구함.
 590) 단단하게.
 591) 과실이나 곡식 따위가 알이 들어 탄탄하게 잘 익었지.
 592) 스르렁. 물건이 쓸리면서 조금 크고 시원스럽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593) 슬근슬근. 물체가 서로 맞닿아 가볍게 스치며 자꾸 비벼지는 모양.
 594) 타면. 두 쪽으로 가르면.
 595) 抱恨. 한을 품음. 여기서는 간절한 소망.
 596) 四柱. 사람의 난 해·달·날·시의 네 가지, 또는 이에 근거하여 길흉화복 따위를 점치는 법.
 597) 山水. 풍수지리에서 인간의 길흉화복을 점지한다는 집이나, 묘 주위의 산과 물의 형세.
 598) 保命. 목숨을 온전하게 지킴.
 599) 툇질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600) 맞이하소. 두 편이 서로 주고받는 노래에서 먼저 부르는 것을 가리킴.
 601) 쓱쓱. 툇질이나 줄질을 할 때 나는 소리.
 602) 無福者는 鷄卵에도 有骨이라더니. 복이 없는 사람은 계란에도 뼈가 들어있다더니. 복이 없는 사람은 모든 일이 좀처럼 잘 되지 않음을 이르는 말.
 603) 祖上櫃. 조상의 신주를 모셔 놓은 궤. '궤'는 물건을 넣도록 나무로 네모나게 만든 그릇
 604) 넣어놓았구나.
 605) 마음의 너그러운 정도. 여기서는 '배짱'.
 606) 마찬가지로이니.
 607) 안으로 들어오라는 시늉으로 손짓을 할.
 608) 밖으로 나가라는 시늉으로 손짓을 할 터이니.
 609) 도망가 버리소서.
 610) 아무 말도 말고.
 611) 開拆. 보통 아랫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나 서류의 겉봉에다 뜯어보라는 뜻으로 적는 글.
 612) 御白米. 임금에게 바치던 질 좋은 쌀.
 613) 鐵丸. 처란. 엽총에 쓰는 잘게 만든 탄알.
 614) 관소리 장단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처음부터 급하게 휘몰아 부르는 장단.
 615) 장단을 급하게 쳐놓고.
 616) 휘모리의 한 장단이 끝나고 다음 장단을 시작하기 전의 순간에.
 617) 말이나 되, 흙 등으로 분량을 헤아려 덜어내고.
 618) 葉錢. 예전에 사용하던, 낫쇠로 만든 돈. 둥글고 납작하며 가운데에 네모진 구멍이 있다.
 619) 물건을 꿰는 데 쓰는 끈이나 꼬챙이 따위. 또는 거기에 무엇을 꿰 것.

- 620) 흥에 겨워 절구공이처럼 뽕뽕이 서서 뛰어 오르내리며 추는 춤.
- 621) 孟嘗君. (1)중국 전국시대 제나라의 정승. 성은 전(田), 이름은 문(文). 찾아오는 손님들을 후하게 대접하여 천하의 유능한 선비 수천 명을食客으로 두었다고 함. 진나라에 들어가 소왕(昭王)에게 피살될 뻔했을 때, 과거 그의 도움을 입었던, 닭의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과 도둑질을 잘 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이야기가 유명함. (2) '돈'의 변말. 맹상군의 이름인 전문(田文)과 돈을 가리키는 전문(錢文)이 음이 같은 데서 유래함.
- 622) 生殺之權. 살리고 죽이는 권한.
- 623) 富貴功名.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고,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침.
- 624) 큰아들. 장남.
- 625) 건너 마을. 건너편에 있는 마을.
- 626) 兄弟間. 형제들끼리.
- 627) 門前乞食. 남의 문 앞에서 밥을 빌어먹음.
- 628) 石崇. 진(晉)나라 때의 대부호(大富豪)로서 땀나무 대신 촛불을 사용하고, 50리나 되는 비단의 장막을 만들 정도로 낭비벽이 심했다고 한다. 권신 사마소(司馬昭)의 인척인 왕개(王愷)와 부를 다투었으나 왕개가 항상 졌다고 한다. '팔왕의 난' 때 조왕(趙王) 사마륜(司馬倫)에 의해 살해되었다.
- 629) 陶朱公. 중국 춘추시대 월나라 왕 구천(句踐)의 충신인 범려를 가리킴. 본디 초나라 사람으로, 자는 소백(小伯). 월왕 구천을 도와 오나라 왕 부차(夫差)를 죽여 원수를 갚게 했는데, 후에 제나라에서 크게 치부하였음.
- 630) 饑民을 줄인다. '기민을 주다'는 '흉년에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다'라는 뜻.
- 631) 眷屬. 자기 집에 딸린 식구.
- 632) 쭉. 여럿이 고르게 늘어서거나 가지런히 벌여 있는 모양.
- 633) 하나 앞에. 한 사람 당.
- 634) 다섯 마지기. 논밭 넓이의 단위. 한 마지기는 벼씨 한 말의 모 또는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로, 지방마다 다르나 논은 약 150~300평, 밭은 약 100평 정도이다.
- 635) 令. 명령.
- 636) 令 前에. 명령이 있기 전에.
- 637) 鐵丸. 처란. 엽총에 쓰는 잘게 만든 탄알.
- 638) 갑자기 힘차게 내지르는 소리나 모양.
- 639) 벌레.
- 640) 願. 소원.
- 641) '웃'을 이르는 방언.
- 642) 몽땅. 전부.
- 643) 有別. 분별이 있음.
- 644) 동작이나 행동이 몹시 날쌔고 갑작스러운 모양.
- 645) 덜컥. 어떤 일이 매우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모양.
- 646) 장단의 한 가지. 매우 빠른 4박자이다.
- 647) 뭉쳐가지고.

- 648) ‘목구멍까지’의 뜻인 듯.
 649) 뒤집어 까고.
 650) 음식을 차려 남을 대접하는 밥.
 651) 너의.
 652) 八良峙. 운봉과 함양 사이의 고개.
 653) 남원과 운봉 사이의 고개.
 654) 무지개에서 부챗살처럼 퍼져나가는 빗줄기.
 655) 黃龍. 누런 빛의 용.
 656) 時節. 일정한 시기나 때.
 657) 才談. 익살을 부리며 재치 있게 하는 재미있는 말.
 658) 탄다면. 다면.
 659) 銀金寶貨. 금은보석을 아울러 일컫는 말.
 660) 나오면.
 661) 톱의 앞부분.
 662) 榔 속에 들어도, 광 속에 들어가도. ‘광’은 관을 넣는 걸레. 여기서는 ‘죽어도’의 뜻임.
 663) 兄弟는 一身 手足이라. 형제는 한 몸의 손발과 같다.
 664) 소리 나지 않게 슬그머니.
 665) 內外間. 부부 사이.
 666) 곧잘 다투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풀리어, 다시 사이좋게 됨을 이르는 말. 흔히 부부 사이의 다툼을 두고 이룸.
 667) 江上에. 강 위에.
 668) 저희만.
 669) 燧人氏 教人火食. 수인씨가 사람들에게 불로 음식을 익혀 먹는 것을 가르쳤다는 말. 수인씨는 중국의 삼황오제 시절의 전설적인 인물로, 불을 사용하는 법과 음식을 익혀 먹는 법을 가르쳤다고 함.
 670) 막이나 앞으로 기운차게 달려 나오는데.
 671) 遙看扶桑三百尺. 삼백 자나 되는 높은 높이에, 멀리 바라보이는 해 뜨는 곳.
 672) 日光緞. 옛 비단의 일종. 해나 햇빛 무늬를 놓음.
 673) 姑蘇臺. 춘추 시대 오나라 임금 부차가 고소산에 지은 누대.
 674) 岳陽樓. 중국 호남성 약양현에 있는, 동정호가 잘 보이는 성루.
 675) 謫仙峨嵋가 月光緞. 적선(謫仙)의 아미산월가(峨嵋山月歌)의 월광단(月光緞)을 뜻함. 이 적선, 곧 이태백이 쓴 시 〈아미산월가(峨嵋山月歌)〉에 나오는 달을 그려 넣은 월광단.
 676) 西王母. 옛날 중국에서 받들던 선녀.
 677) 瑤池宴. 서왕모가 산다는 요지에서 벌이는 잔치.
 678) 進上하던. 바치던. ‘진상’은 임금님께 물건을 바치는 것을 말함.
 679) 天桃紋. 하늘나라에서 난다는 복숭아를 그려놓은 비단.
 680) 天下九州. 고대 중국에서 전국을 통치하려고 나누었던 아홉 개의 주. ‘온천하’를 뜻함.
 681) 地圖紋. 지도가 그려진 비단.
 682) 登泰山小下. 태산에 오르니 천하가 작아 보인다. 공자가 태산에 올라 하였다는 말.

- 683) 孔夫子. 공자를 높여 일컫는 말.
- 684) 大緞. 한단(漢緞). 중국에서 나던 비단의 하나.
- 685) 南陽 草堂. 중국 하남성 남양현에 있던, 제갈량이 벼슬에 나가기 전에 살던 집. ‘초당(草堂)’은 집의 원채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억새나 짚 같은 것으로 지붕을 인 조그마한 집.
- 686) 景. 경치.
- 687) 臥龍緞. 용이 새겨진 비단. 제갈량의 호가 와룡이었으므로 지어 붙인 이름.
- 688) 四海. 온세상.
- 689) 紛紛. 시끄러운 모습.
- 690) 雷鼓喊聲. 천둥이 치듯 큰 소리가 남.
- 691) 永綃緞. 중국에서 나는 비단의 한 가지. 모초(毛綃)와 비슷한데 품질이 조금 낮음. ‘영초(英綃)’라고도 함.
- 692) 風塵. 바람에 불려 일어나는 티끌. 여기서는 전장에서 일어나는 티끌, 곧 전쟁을 가리킴.
- 693) 太平乾坤. 태평한 온 세상.
- 694) 大願緞. ‘큰 소망을 담은 비단’이라는 뜻으로 만든 가상의 비단 이름인 듯.
- 695) 念佛打令. 《유예지》에 전하는 곡 이름의 하나. 현행 영산회상 중 일곱째 곡인 염불환입 초장의 첫째 장단에서 스무째 장단에 해당하는 곡. 여기서는 그저 민속음악 무용곡의 이름으로 썼음.
- 696) 長短. 전통음악에서 박자를 가리키는 명칭인 ‘장단’의 ‘단’이 비단 이름 끝에 붙는 ‘단’과 같기 때문에 비단 이름 뒤에 썼음.
- 697) 桃李佛手. 복숭아나 오얏처럼 생긴 노리개. 여기서는 ‘가지 말라’에 이어져서 ‘돌아볼’과 음이 비슷하여 쓰인 말.
- 698) 獨守空房. 홀로 빈 방을 지킴.
- 699) 相思緞.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는 비단’이라는 뜻으로, 가공의 비단 이름.
- 700) 부엌이 달려 있는 안채의 방.
- 701) 큰방의 뒤쪽에 딸린 작은 방.
- 702) 옆으로 여닫는 창.
- 703) ‘국화새김’은 국화무늬를 새겨 넣은 것을 가리키며, ‘완자문’은 긴자 무늬로 창살을 짠 문을 가리킴.
- 704) 秋月秋風. 가을 바람 부는 가을 달밤.
- 705) 貢緞. 무늬가 없고 두꺼운 비단.
- 706) 深深山谷 松林間의. 깊은 산골짜기 소나무 수풀 속의.
- 707) 虎皮緞. 호랑이 가죽 무늬와 같이 생긴 비단.
- 708) 洋太紋. 갓끈으로 많이 쓰이는 양태문 갑사.
- 709) 銀造紗. 중국산의 얇은 비단으로, 주로 여름 옷감으로 씀.
- 710) 福壽緞. ‘福’자와 ‘壽’자가 새겨진 비단.
- 711) 宮綃緞. 비단의 한 가지. ‘궁초’를 ‘窮肖’로 쓰면 어질지 못하다는 뜻이므로, ‘행실부족의 궁초단’이라 하였음.
- 712) 松竹緞. 소나무와 대나무가 그려진 비단. 소나무와 대나무가 절개를 상징하기 때문에 ‘절개 좋은 송죽단’이라고 하였음.

- 713) 말 발굽 소리의 의성어.
 714)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
 715) 細발綾緞. 발이 가는 비단.
 716) 구름緞. 구름 무늬가 있는 비단.
 717) 黑貢緞. 검은색 공단.
 718) 白貢緞. 하얀색 공단.
 719) 충청남도 한산에서 나는 질 좋은 모시.
 720) 松花色. 소나무 꽃 색깔. 곧 노란 색깔.
 721) 靑紗. 푸른색 사. ‘사’는 얇은 비단.
 722) 紅紗. 붉은색 사. ‘사’는 얇은 비단.
 723) 通絹. 아주 얇은 비단.
 724) 모래紗紬. ‘사’ 자가 ‘모래 사(沙) 자와 음이 같기 때문에 지어낸 말인 듯.
 725) 防衣紬. ‘방의’가 ‘동북쪽이나 서쪽의 국경을 지키는 병사가 입던 옷’이므로, ‘방의주’는 ‘국경을 지키는 병사가 입던 옷을 짓는 옷감인 듯.
 726) 海南布. 전라남도 해남에서 나던 울이 가는 모시.
 727) 몽고 三升. 몽고에서 나던 굵고 질긴 베.
 728) 鐵藍布. 쇠 빛깔과 남색이 나는 베.
 729) 松花色. 소나무 꽃 색깔. 곧 노란 색깔.
 730) 三回裝. 여자의 저고리 깃, 소매부리, 겨드랑이를 자주 또는 남빛 형질으로 꾸민 것.
 731) 村分. 시골 분. 시골 사람.
 732) 망건싸개. 망건꾸미개. 망건의 두 끝의 가를 세로로 꾸미고, 편자의 두 끝은 가로로 꾸미는데, 끝에 고가 있어 당줄을 맨다.
 733) 黑貢緞. 검은색 공단.
 734) 위에서 아래로 향하여.
 735) 옷을 갖추어 입어. 해야할 일에 주니를 갖추거나 방법을 찾아.
 736) 網巾. 상투 있는 사람이 머리털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말총, 곱소리(코끼리의 꼬리털) 또는 머리카락 등으로 그물처럼 만들어 머리에 두르는 것.
 737) 남자의 한복에서 바지를 입은 뒤에 그 가랑이 끝쪽을 접어서 가든하게 발목을 졸라 매는 좁다란 끈.
 738) 豪華. 지나칠 만큼 호화롭게 사치함, 또는 그러한 사치.
 739) 松花色. 소나무꽃 색깔, 곧 노란색.
 740) 여자의 길게 땀은 머리끝에 드리는 형질이나 끈.
 741) 單衣. 속곳. 속속곳과 단속곳의 총칭.
 742) 옛 복장에서 여자가 맨 속에 입는 속옷으로, 다리통이 넓고 밀이 딱혀 있음.
 743) 여자의 가슴에 매던 띠.
 744) 萬乘天子. 전투에 쓰이는 수레가 만 대나 되는 큰 나라의 임금
 745) 食以爲大라. 먹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746) 외배미 들. 한 배미로 된 들. 곧 그렇게 평평한 넓은 들. ‘배미’는 논이 한 구역.
 747) 億十萬金. 많은 돈.

- 748) 素砂 들. 충청북도 북쪽에 있는 넓은 들.
 749) 數萬金. 여러 만 냥이 되는 돈. 곧 많은 돈.
 750) 富益富.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됨.
 751) 큰 자귀. '자귀'는 나무를 깎는 연장.
 752) 작은 자귀.
 753) 큰 톱.
 754) 작은 톱.
 755) 연장의 하나로, 나무에 구멍을 파거나 다듬는 데 씀. 가늘고 긴 쇠의 날을 세워 위에는 나무로 머리를 만들어 망치로 때려 구멍을 팸.
 756) 목공이나 석공이 곧은 금을 긋는 데 쓰던 기구.
 757) 大木. 규모가 큰 건축 일을 하는 목수.
 758) 끼어서.
 759) 땅을 파고 거적으로 위를 덮어 비바람이나 추위를 막게 한 허름한 집.
 760) 高樓巨閣. 높고 크게 지은 집.
 761) 東山下. 동쪽에 있는 산 아래.
 762)八卦를 놓아서. 풍수지리설에 따라 방위를 잡아서.
 763) 사방으로 빙 둘러친 담.
 764) 中門. 대문 안에 거둬 세운 문.
 765) 솟을대문. 행랑채의 지붕보다 높이 솟게 만든 대문.
 766) 壁幃. 바람벽을 뚫어 작은 문을 내고 그 문밖을 장을 짜 달아서 물건을 넣을 수 있게 만든 곳.
 767) 부엌 천장 위의 공간을 이용하여 이층처럼 만들어서 물건을 넣어 두는 곳.
 768) 萬石지기. 벼 만 석을 추수할 만큼의 농사.
 769) 千石지기. 벼 천 석을 추수할 만큼의 농사.
 770) 百家口. 종문서. 백 가구의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문서.
 771) 넘칠 정도로 가득한 모양.
 772) 角壯壯版. 보통 것에 견주어 더 넓고 두꺼운 장판지로 바닥을 바른 장판.
 773) 소란 반자. 정(井) 자를 여럿 모아놓은 것처럼 반자들을 짜고, 그 구멍마다 네모진 판자를 넣어 만든 반자. '반자'는 방이나 마루에 종이나 나무로 반반하게 만든 천장.
 774) 𡵓 자 무늬가 여럿 이어져서 이루어진 미닫이문.
 775) 櫺櫚文匣. 곱고 단단하며 붉은 빛을 띤 자단목으로 만든, 문서나 문구 따위를 넣어두는 긴 께.
 776) 玳瑁冊床. 대모로 만든 책상. '대모'는 바다 거북의 등껍질.
 777) 詩傳. 주희가 주해를 단 《시경(詩經)》.
 778) 書傳. 송나라 때에 주희의 제자인 채침이 주해를 단 《서경(書經)》.
 779) 周易. 삼경(三經)의 하나로, 중국 주(周)나라 초에 지어진 길흉을 판단하여 점치는 책.
 780) 李白. 이태백(李太白). 태백(太白)은 자(字)이고 호(號)는 청련(靑蓮). 성당(盛唐) 때의 대시인으로 두보와 함께 시종(詩宗)으로 존앙받았다. 신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귀양와서 사람이 되었다는 뜻으로 '적선(謫仙)'이라고도 일컬어진다.

- 781) 杜詩에. 두보의 시에다가.
- 782) 通史略. 북송의 사마광이 편년체로 엮은 역사책인 《자치통감(自治通鑑)》과, 원나라 증선지가 엮은 《십팔사략(十八史略)》을 아울러 일컫는 말.
- 783) 좋음도. 좋기도.
- 784) 門前乞食. 남의 문 앞에서 빌어먹음.
- 785) 생김새가 흰하고 멀끔하게.
- 786) ‘그만 두라’는 뜻을 가진 감탄사.
- 787) 모두.
- 788) 高樓巨閣. 높고 크게 지은 집.
- 789) 櫛比하게. 빗살처럼 가지런하게 늘어서.
- 790) 萬無. 절대로 없음.
- 791) 兵判大監. 병조판서 대감.
- 792) 落鄉. 서울에서 시골로 거처를 옮김.
- 793) 既往에. 이미 그렇게 된 바에.
- 794) 友愛. 형제간 또는 친구간의 사랑이나 정.
- 795) 路馬. 큰 말.
- 796) 徒步. 탈것을 타지 않고 걸어감.
- 797) 綱常之怪變. 삼강과 오상(오륜)의 도덕에 어긋나는 괴이한 사건.
- 798) 아주 단호하게 끊거나 과단성 있게 행동하는 모양.
- 799) 處分.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지시나 결정.
- 800) 건너편에 있는 마을.
- 801) 여봐란듯이. 우쭐대고 자랑하듯이.
- 802) 前日. 지난날.
- 803) 豪奢. 지나칠 만큼 호화롭게 사치함, 또는 그러한 사치.
- 804) 충청도 한산에서 나던 올이 가는 모시에다가.
- 805) 중국에서 들어온 푸른색 물감.
- 806) 푸르스름하게 들어.
- 807) 치마의 마루푹.
- 808) 왼쪽으로.
- 809) 금빛 나는 자라.
- 810) 嫗叔님. 남편의 형제를 높여 일컫는 말. 여기서서는 남편의 형을 높여 일컫는 말.
- 811) 뵙시다. 웃어른을 대하여 인사를 드릴 때 쓰는 말.
- 812) 서서 하지 않고 앉으면서 허리를 굽혀 머리를 조아리는 절.
- 813) 동작이 빠르고 시원스런 모양.
- 814) 덩그렇게. 높고 당당하게.
- 815) 安城鑪器. 안성에서 나는 질 좋은 놋그릇.
- 816) 統營漆板. 경상남도 통영에서 나는, 질 좋은 옷칠 소반.
- 817) 天銀. 질 좋은 은.

- 818) 구리로 만든 석쇠. '석쇠'는 고기 또는 굵은 떡 따위를 굽는 데 쓰는 기구. 굵은 철사로 테를 하고, 가는 철사나 구리철사 등으로 잘게 그물처럼 엮어 네모지거나 둥글게 만듦.
- 819) 執吏書吏. 관아에서 일을 보던 구실아치.
- 820) 數 벌이듯. 계산을 위해 산대를 벌여 놓듯. '산대'는 옛날 계산을 위해 쓰던 대나무 막대기로, 산가지라고도 함.
- 821) 烏竹板. 빗갈이 검고 작은 대나무인 오죽에다 꽃을 그려 붙여 만든 소반.
- 822) 대 모양 陽刻 唐畫器. 대 모양을 돌을새김하여 그려 넣은 중국산 사기 그릇.
- 823) 가는 것이 이리저리 뒤섞이어 얽힌 모양. 여기서는 송편을 찢 때 넣는 솔잎이 얽혀 있는 모양을 가리킨 듯.
- 824) 반듯.
- 825) 貞節餠. 네모 반듯하게 자른 흰떡.
- 826) 팔을 꺾질 채로 삶아 찢 떡.
- 827) 蘋果. 사과.
- 828) 眞淸. 벌꿀.
- 829) 生淸. 불에 끓이지 않은 꿀.
- 830) 烏卵 산적. 달걀을 풀어 썬 구운 산적. '산적'은 쇠고기 따위를 길게 썰어 양념을 하여 꼬챙이에 꿰어 구운 음식.
- 831) 위에다 곁들여.
- 832) 소의 밥통의 고기로 만든 회.
- 833) 소·양 따위의 새김질하는 짐승의 셋째 밥통.
- 834) 음식을 담거나 데우는 데 쓰는 놋그릇.
- 835) 淸團. 꿀물에 경단(참쌀로 만든 작고 동그란 떡)을 담근 것.
- 836) 水團. 꿀물이나 오미자물에 경단을 담근 것.
- 837) 잣을 묻힌 박산(산자의 몸이나, 엽을 반듯하고 얇게 잘라 잣이나 호두 따위를 양쪽에 붙인 유밀과).
- 838) 軟肺. 살점을 떠서 말린 고기.
- 839) 水芹채. 수근을 잘게 썰어 만든 채. '수근'은 미나리.
- 840) 위에 덧붙여.
- 841) 靑銅火爐. 청동으로 만든 화로.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
- 842) 白炭숯. 떡갈나무나 참나무로 만든 숯. 숯 가운데서 가장 화력이 썬.
- 843) 일어나게 해 놓고.
- 844) 잘게 썬 고기에 양념을 하고, 어패류·버섯·채소 따위를 섞은 다음, 국물을 조금 붓고 끓인 음식.
- 845) 썰지 않은 채 양념 없이 조금만 뿌려 구운 짐승의 고기.
- 846) 半還刀. 주로 고기를 썰 때 쓰는, 끝이 말려 올라간 큰 칼.
- 847) 點點片片. 조각조각.
- 848) 부드럽. 단단하거나 매우 질긴 물건을 맞비빌 때 나는 소리.
- 849) 음식에 간이 배도록 미리 손질해 내어.
- 850) 큰 양푼. '양푼'은 음식을 담거나 데우는 데에 쓰는 놋그릇. 운두(그릇이나 신 따위의

- 둘레나 둘레의 높이)가 낮고 아가리가 넓어 모양이 반병두리 같으나 더 크다.
- 851) 이것도.
- 852) 저것도.
- 853) 꿩 울음소리를 흉내낸 의성어.
- 854) 포드닥. 작은 날짐승이나 물고기가 날개나 꼬리를 가볍게 치는 소리.
- 855) 生稚다리. 익히지 않은 꿩의 다리.
- 856) 단단한 물건을 깨무는 소리.
- 857) 포드닥. 작은 날짐승이나 물고기가 날개나 꼬리를 가볍게 치는 소리.
- 858) 연계(軟鷄)쩍. 어린 닭 찹.
- 859) 魚煎. 생선으로 만든 전 부침.
- 860) 肉煎. 소고기나 돼지고기로 만든 전 부침.
- 861) 고기나 생선을 국물을 조금 붓고 끓여 익힌 음식.
- 862) 水卵湯. 끓는 물에 달걀을 풀어 넣어 끓인 탕.
- 863) 채의 일종인 듯하나 불명.
- 864) 말린 문어나 전복 따위를 봉황 모양으로 오려서 잔치상에 올리는 음식.
- 865) 水芹. 미나리.
- 866) 껌질.
- 867) 위에 얹어 부어라.
- 868) 쇠로 만든 젓가락.
- 869) 젓가락.
- 870) 덩석. 무엇을 냉큼 움켜잡거나 무는 모양.
- 871) 적서.
- 872) 黃花酒. 국화꽃잎으로 담근 술.
- 873) 花盞. 꽃무늬가 새겨진 술잔.
- 874) 여기 있소.
- 875) 弱小하나. 작고 변변치 못함.
- 876) 동작이 빠르고 시원스런 모양.
- 877) 弊端. 부정적이거나 옳지 않은 현상. 여기서는 ‘잘못’.
- 878) 덩그렇게. 높고 당당하게.
- 879) ‘상당히 친한’ 정도의 의미로 쓰였음.
- 880) 勸酒歌. 술을 권하며 부르는 노래.
- 881) 次에. 어떤 일을 하던 기회나 순간에.
- 882) 古今天地. 예부터 지금까지의 온세상.
- 883) 錢穀자세. 돈과 곡식이 있다고 빠지고 으스스함.
- 884) 驅迫 당하여. 몹시 못 견디게 학대를 당하여.
- 885) ‘속을 차리다’는 ‘마음을 바로잡다’. 따라서 여기는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여기서는 ‘마음대로 하려면’ 정도의 의미.
- 886) 갑자기 격한 감정이나 기운 또는 생각이 한꺼번에 치밀거나 떠오르는 모양.

- 887) 부아. 화.
- 888) 찌 많다고 빠기고 으스대느라고.
- 889) 暴惡. 사납고 악한 말이나 행동.
- 890) 아서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할 때 쓰는 말.
- 891) 부러뜨려.
- 892) 아니다.
- 893) 한두 번 보기지. 곧 자주 보는 일이 아니므로 별 것 아니란 뜻.
- 894) 품고 있는 마음이나 생각.
- 895) 五衛營門出使. 오위에서 영을 받고 나온 포교. '오위'는 조선조 때 군대 편제의 이름.
- 896) 적당히 구슬러.
- 897) 義州 鴨綠江. 의주에 있는 압록강.
- 898) 皇國. 중국(中國).
- 899) 칭칭.
- 900) 끈이나 실 따위로 감거나 둘러 묶어서.
- 901) 숨어 있던 것이 튀어나옴다.
- 902) 말이나 되, 흙 등으로 분량을 헤아려 덜어내고.
- 903) 萬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여기서는 '세상에' 정도의 의미.
- 904) 大木. 규모가 큰 건축 일을 하는 목수.
- 905) 부러뜨려서.
- 906) 天下長者. 천하에서 제일가는 큰 부자.
- 907) 모자라게 만들.
- 908)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쪽.
- 909) 붉은.
- 910) 花草幟. 문짝에 화초의 그림을 그려 만든 장롱.
- 911) 대신으로.
- 912) 달라.
- 913) 어떤 모양을 하고 있거나 어떤 행동을 짐짓 취함을 나타내는 말.
- 914) 함 따위를 짊어지는 데 쓰는 줄.
- 915) 잇어먹기를 잘하는 놈이라.
- 916) 房帳. 겨울철에 외풍을 막기 위하여 방문이나 창문에 치는 휘장.
- 917) 온돌방에서 연기가 나가는 통로 위에 깔아 바닥을 만드는 얇고 넓은 돌.
- 918) 坐而不動.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음.
- 919)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내는 소리.
- 920) 목소리의 멋스러움.
- 921) 것이야?
- 922) '머리'를 속되게 일컫는 말.
- 923) 관자놀이. 귀와 눈 사이의 급소.
- 924) 積傷. 오랜 근심으로 마음이 상함.

- 925) 단단히 막거나 막히는 모양.
 926) 役軍. 공사터에서 샅일을 하는 사람.
 927) 春節. 봄철.
 928) 三刻. 세 때. 여기서는 석 달의 의미로 쓰였음. 뒤에 '지나고'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함.
 929) 夏四月. 여름 4월.
 930) 初八日. 8일.
 931) 燕子. 제비.
 932) 伏羲氏. 그물을 만들었다는 중국의 전설의 임금.
 933) 둥글게 휘어 당겨.
 934) 둘러메고. 들어 올려서 어깨에 메고.
 935) 方丈山. 지리산의 다른 이름.
 936) 닭이나 참새 따위를 쫓을 때 외치는 소리.
 937) 鷹飛戾天. 솔개가 하늘 높이 날다. 《시경》 〈대아(大雅)〉에 있는 구절.
 938) 솔개. 수릿과에 딸린 새. 매보다 크고 날카로운 굽은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들쥐, 물고기, 조개류 따위를 잡아 먹는다.
 939) 南飛鳥鵲. 남쪽으로 날아가는 까마귀와 까치.
 940) 春日黃鸝. 봄날의 찌찌리.
 941) 層巖絕壁. 층층이 바위가 쌓인 높은 절벽.
 942) 天火日. 정월·오월·구월에는 자일(子日), 이월·유월·시월에는 묘일(卯日), 삼월·칠월·십일월에는 유일(酉日)에 해당하는 날로, 이 날에 상량을 올리거나 지붕을 얹으면 불이 난다고 함.
 943) 火及棟樑. 기둥과 들보에 불기운이 끼었다는 뜻.